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반룡 제8호
간행일 2005년5월
총 520쪽

盤龍

盤龍

— 同窓會誌 第8號 —

會誌 8號

2005.5.27



咸興(南中)同窓會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盤龍



— 同窓會誌 第8號 —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표지 그림)

張成旬 (28回)

서울대 美大 修學

현대 미술가 협회, Actual展, 서울 70회 창립 멤버

미술대전 심사위원 미협이사 단원 미술제 심사위원 역임

개인전 8회, 해외전 3회, 초대전(단체전) 70회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대 미술관, 워커히 미술관에 작품 소장

(표지 글씨)

金淳郁 (29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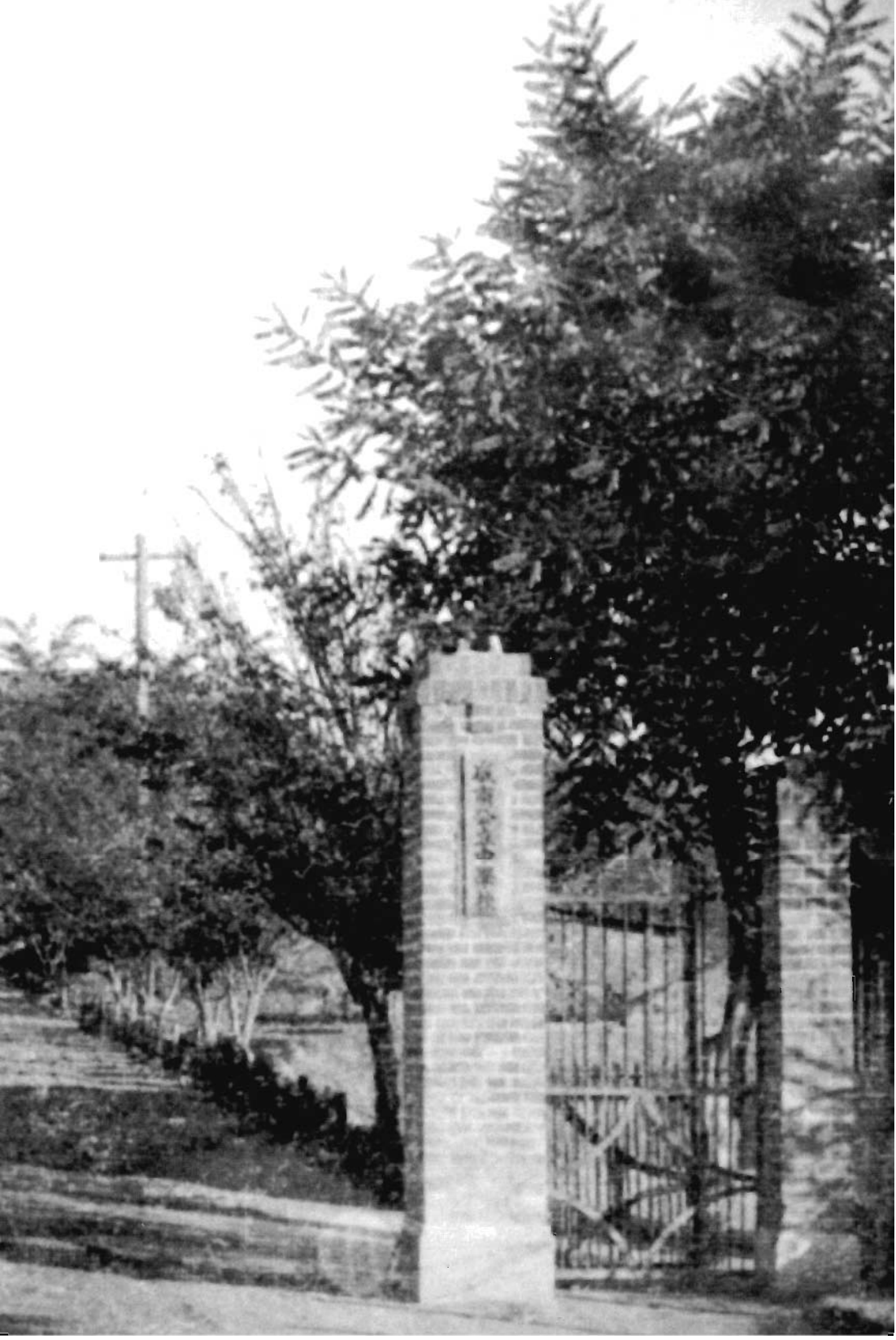
서울 醫大卒 神經外科醫

鐵農 李基雨 先生 師事

書藝 個人展 6回 團體展 多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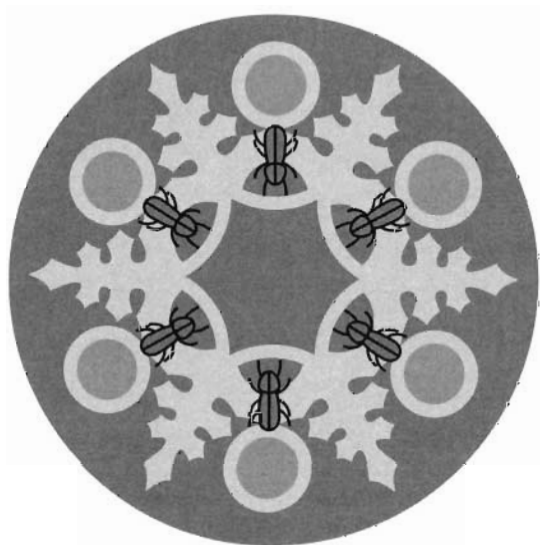
美洲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長





盤龍

— 同窓會誌 第8號 —



2005. 5. 27.

威興高普(威南中學)同窓會

盤 龍

— 會誌 第8號 —

發刊을 衷心으로 自祝함

同窓會 任員

名譽會長	朴東昴(23回)	02-576-3636
會 長	李三悅(26回)	011-284-4692(핸) 02-3147-2797(집)
副 會 長	韓承五(25回)	031-897-7226(집)
副 會 長	朱赫淳(28回)	031-488-8061(집)
副 會 長	鄭哲周(29回)	02-2266-8305(사) 02-714-2729(집)
監 查	朴溶夏(30回)	031-907-9821(집) 019-9180-9821(핸)
總 務	金明哲(31回)	02-916-8712(집)
副 總 務	李大鍾(33回)	02-2250-1150(사) 02-993-8219(집)

目 次

■ 校旗, 沿革, 校歌	10
■ 歷代會長	13
■ 간행사	李三悅 (26回) 14
■ 축사	金淳郁 (29回) 15
■ 화보	16
■ 늙어가는 쓸쓸함과 고독을 슬기롭게 이겨내자	朱權源 (19回) 35
■ 두견새 (1), 魂風아 불어 다오 (2)	李基炯 (20回) 42
■ 奇人 李在亨 선배	韓喬石 (21回) 45
■ 지내온 길과 가야할 길	全明洙 (21回) 51
■ 實學과 國利民福	安 霖 (22回) 57
■ CANADA에서 만난 李林學 學兄	金禧庚 (22回) 63
■ 精神力이였는가? 神佛의 加護였는가?	廉仁必 (24回) 66
■ 새 벽 (1), 그대 모습에 (2)	韓時坤 (24回) 71
■ 내 마음의 개미 아저씨	류재수 76
■ 개미아저씨의 추억	문영희 78
■ 흙으로 돌아가는 人生	劉炳敏 (25回) 81
■ 내가 처음 본 映畫	劉秉千 (25回) 84
■ 隨想三題	韓承五 (25回) 86
■ 回顧短篇 “우리의 쌀은 어디로”	吳正喜 (25回) 92
■ 연 천 봉	韓荃淑 (26回) 96
■ 내 乘馬人生과 南中	李三悅 (26回) 107
■ “알츠하이머, 이런 기막힌 방법이 있다” (1)	孫陽鳳 (26回) 115
“Losing Weight” 체중을 주린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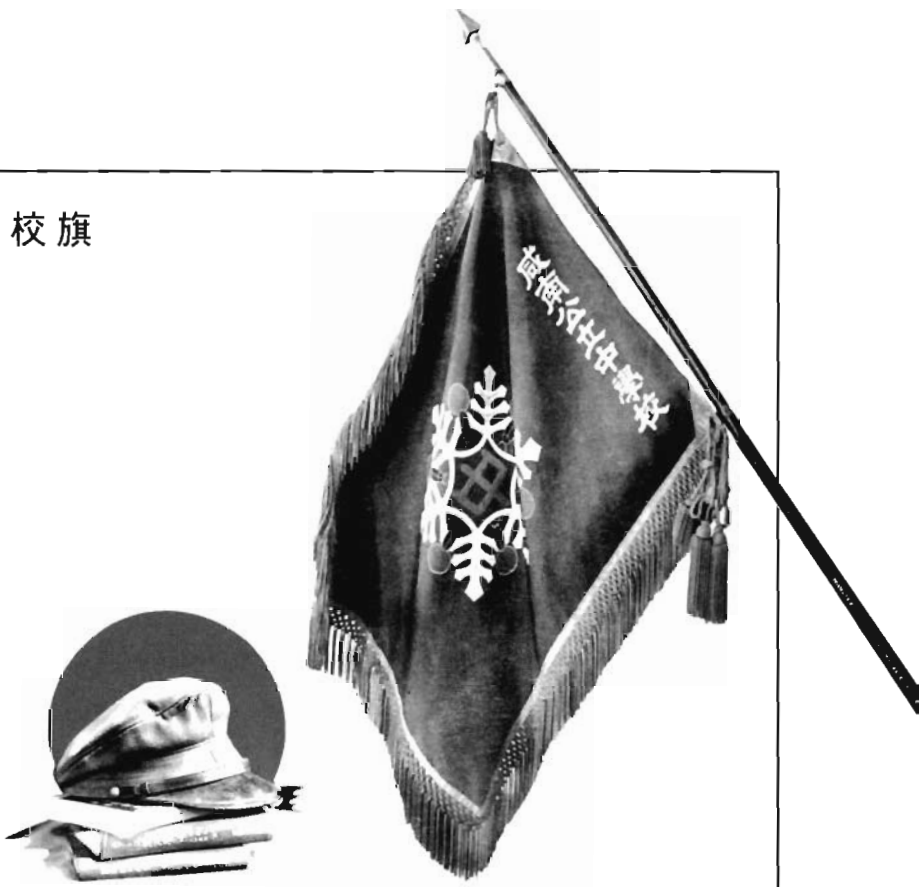
■ “노인이 愛國하는 일상생활, 그 세가지 방법”	石東壽 (26回) ……………122
우리 동창들 봄날의 꽃놀이를 가다 (2)	
미야게(三宅校長)을 말한다. (3)	
■ 韓醫學에 대한 나의 見解	沈鳳燮 (27回) ……………130
■ 故 鄉	李鴻範 (27回) ……………134
■ 城南有感	韓泓模 (27回) ……………138
■ 까치야 산까치야 (1), 邊方의 밤 (2)	韓淳輔 (27回) ……………141
■ 江물처럼	廉聖龜 (27回) ……………143
■ Brazil 기행	李澈男 (28回) ……………154
■ 盤龍山과 城川江	韓忠錫 (28回) ……………165
■ 물 같이 바람 같이	韓炯周 (28回) ……………171
■ 徒然草	朱赫淳 (28回) ……………177
■ 나의 發明記	高景榮 (28回) ……………192
■ 풀꽃 한송이 (1), 벽(壁) 63 (2)	韓順虹 ……………199
■ 천재지변과 일본 그리고 사무라이와 사꾸라	申道均 (28回) ……………203
■ 祖父任과 定和陵 (1)	金在楨 (29回) ……………214
의퇴후에 하는 공부 (2)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3)	
■ 電 蓄	金淳郁 (29回) ……………220
■ Om Mani Padme Hum (옴 마니 반메 훔)	韓在壽 (29回) ……………225
■ 못잊을 恨	韓依天 (29回) ……………233
■ 醫窓에서 명상에 잠기며	韓鎭慶 (29回) ……………241
■ 이스탄불의 대~한민국	朴浩高 (29回) ……………246
■ 南中! 가슴 설레이는 그 이름	朱東雲 (29回) ……………261
■ 이산(離散) 한(恨), 가을, 바다여	孟厚彬 (29回) ……………268
■ 斷食體驗記	朱相彥 (29回) ……………273
■ 畏友 金潤鎬 (1)	鄭哲周 (29回) ……………276
■ 金潤鎬博士는 計量社會學의 先驅者 外	미국제자들 ……………281
■ Baltic Sea의 여러 나라에 기항하면서	申森熙 (30回) ……………289
■ 교회(古稀)라는 70세 고개에서	李英愛 ……………302
■ 민족의 얼을 지킨 여당(黎堂)	李南杓 (30回) ……………307

■ 삶과 학문	元炳旣 (30回) ……………312
■ 高原에 올라서서(1), 꿈에 보는 금강산(2)	金龍澈 (30回) ……………335
■ 이런 내조?도 있다	申裕恒 (30回) ……………339
■ 近代 帝國主義 (1)	金庚台 (30回) ……………342
■ 북구의 기후의 급진 변화와 생물상	金元謙 (30回) ……………363
■ 내 고향 함흥	金冕燮 (30回) ……………366
■ 중세 아랍과학사 서설	高庚式 (31回) ……………373
■ 땡땡론	朴鎰忠 (31回) ……………383
■ 빨간 마후라의 회상	李培善 (31회) ……………389
■ 흐 름	權鎭均 (31回) ……………417
■ 위대한 애국자 성재 이동휘 선생	柳俊馨 (31回) ……………419
■ ‘동유럽’ 기행 (1)	宋榮澁 (31回) ……………424
과연 흡연이 폐암의 주범인가 (2)	
■ Colombia의 Cocaine농사	姜在錫 (33回) ……………432
■ 長壽와 長命	徐潤煥 (33回) ……………437
■ 한복치마와 삼가성(三佳聲)	李七煥 (33回) ……………447
■ 호남지구 전투 참전기, 강원지구 전투 참전기	權炳池 (33回) ……………450
■ 속초 유정	李大鍾 (33回) ……………465

부 록

■ 나의 아버님	韓英順 (韓恂鉉선생 차녀) ……………470
■ 同窓會 會則	……………477
■ 同窓會 基金 贊助內譯	……………481
■ 同窓會誌 第8號 發行을 爲한 內譯	……………487
■ 同期別 名單	……………489
■ 海外 同窓會 會員 名簿	……………505
■ 作故者 名單	……………513
■ 편집후기	……………519

校旗



咸興高普(咸南中學)沿革

1897：咸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1905：私立豐興學校

1908：咸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1911：咸興私立高等普通學校

1918：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1925：咸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1938：咸南公立中學校

1945：咸興中學校

1947：學制改編으로 閉鎖

校歌

Andanti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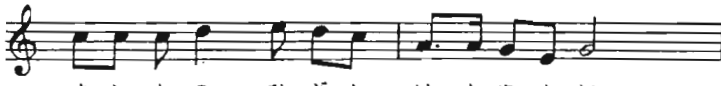
金東一 採譜(32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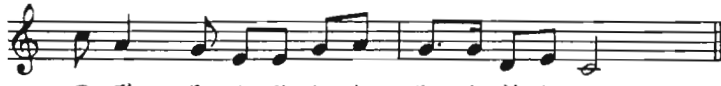
(一) 히 가 시 の か た み は る か す
가 없 는 동 역 을 바 라 보 아 라



우 나 바 라 と く あ け そ め て
어 둠 바 다 저 멀 리 먼 동 이 튼 다



아 시 た の ひ ぎ し は な や か に
찬 一 란 환 아 침 햇 살 누 리 밝 히 고



의 ぞ 민 의 히 가 리 미 나 ぎ り ぬ
회 망 은 념 一 처 서 천 지 를 댕 네

韓承五音記

一. 가 없는 東嶺하늘을 바라보아라
어둠바다 저먼리 인동이 튼다.
찬란한 아침 햇살 누리 밝히고
희망은 넘쳐서 天地를 덮네

二. 우람찬 盤龍을 우러러 보라

山靈氣 永遠히 살아 숨쉬어
그윽한 그 모습 눈(靑)에 어리고
슬(松)빛인 千萬歲 榮光 빛나라

三. 흐름도 해맑은 君子江 물결

蒼空에 빛난일 드리우고서
말없는 눈동자 빛나는 밤에
거룩한 使命을 일깨워 주네

四. 蟻窠의 깃발 아래 다져진 터전

뽕허 모인 健兒들 意氣도 높아
報恩의 참뜻으로 마음 가꾸어
배움의 한 길을 닦아 나가세

校歌

麻生磯次作歌

一. 東の方見はるかす

海原遠く明けそめて
朝の陽光はなやかに
希望の光みなぎりぬ

二. そがひに仰ぐ盤龍の

山靈水久に鎮もりて
ゆかしき姿雲に映え
松に千歳の榮あり

三. 流れも消き君子河

み空の星は影やどし
黙示の暁うるませて
尊き使命語るなり

四. 蟻窠の旗なびくもと

集へる健兒意氣高く
恩恵にこたへ誠意もて
學びの業につとめばや

歷代會長



初代會長 李東準



二代會長 金連珪



三代會長 姜洙楨



四代會長 金載元



五代會長 朴東昂



六代會長 李三悅

간행사



李 三 悅 會長(26回)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不肖 小生이 회장직을 맡은지도 어언 2년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중책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좋은 會誌를 내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우리 회지 “盤龍”을 받았을 때 그 반가움이 매우 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실향민의 鄉愁病 탓일까요. 궁금하던 친구들 소식도 알 수 있어 좋았고 자랑스러운 선후배들 생각들도 읽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회무를 인계받고 보니 벌써 다음 號가 나와야 할 시기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韓承五부회장을 編輯委員長으로 위촉하고 원고모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임원들이 회지편찬 경험이 풍부하여 스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걱정하였던 원고들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으로 모였고 출판비 문제도 국내외 유지들의 따뜻한 배려와 각 동기 간사님들의 열성적인 협조로 큰 어지러움 없이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멀리 미국에서 물심양면의 협조를 보내 주신 金淳郁(29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이 會誌가 국내외 동창들은 물론 그 가족들과 우리 모교를 아끼는 모든 同鄉人들에게도 사랑받는 읽을 거리가 된다면 분외의 영광이겠습니다.

2005년 5월

축 사

고국 동창회원 제위에게 드리는 인사



金 淳 郁 會長(29回)

在美 咸興高普 / 咸南中學 同窓會

金會鎬 회장님 뒤로, 아직 쟁쟁히 활동중이신 선배님들을 두고, 不德하고 菲才한 제가 미주 동창회장직을 맡게 된 것을 부끄럽게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배가 더 이상 배출 되지 못하는 학교 동창회의 어려움을 딛고 서울서 동창회를 운영해 오시는 역대 및 현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여 마지 않습니다.

미주 동창회원들은 온 미주에 널리 흩어져 있어서 서울에서처럼 자주 그리고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자주 미주 동창회보를 발행하고, 期別로도 모이고 하여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국 동창회와 연락하면서 미주에서도 발전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지 제8호를 성대하게 발간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늘 주옥같은 글들이 실려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를 그리며, 실향민으로서의 애환을 함께 나누는 회지 『반룡』이 계속 역사적으로도 남을 좋은 문헌이 되기를 기원하며, 동문 여러분의 강녕하심을 앙축합니다.

2005년 2월 7일

해방전 모교에 계셨던 韓國人 恩師님들



韓恂鉉 선생

1893년생으로 어려서 부터 총명하여 서울로 유학, 경성공업전문 화학과를 마치고 1928년 모교에 부임, 1946년 월남하기까지 장장 18년간 수학교사로 봉직하셨다. 서울에서는 성남고교, 용산고교등에서 교장으로 계시다가 1958년 작고하셨다.



무섭기만 하던
韓恂鉉선생의 數學시간



韓鼎五 선생

1896년생으로 일찌기 초등학교 교장을 歷任하신 후 1937년 모교에 부임하여 修身, 公民, 음악등을 담당하시다가 1943년 퇴임하심. 해방 후 월남하여 1976년 81세로 永眠하심.



李永琰 선생

모교 15회 졸업생으로 東京物理學校를 졸업한 후 1940년 부터 해방때까지 모교에서 新수학을 가르치심. 해방 후 월남하여 숙명여고, 경기고교 교감등을 歷任.

그리운 母校, 이 구석 저 구석



威風凜凜한 玄關



꽃길이 이어진 正門



玄關 뒷쪽 中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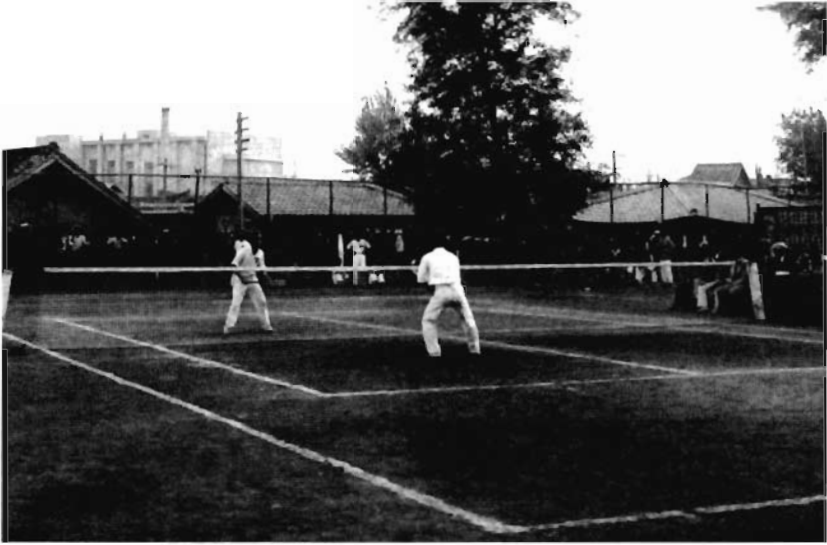
드넓은 운동장.
매일 아침 조회 모습



GROUP사진의 名所, 正門



망도차림이 자랑스럽던 南中生들



奉安殿 밑에 있던 庭球場. 南中庭球部는 有名했다.



正門 뒷쪽에 있던 溫室. 佐方先生 모습도 보인다.

학창시절 이모저모



지긋지긋하던 勤勞奉仕



分列行進



軍人인가 學生인가...



옛날에는 柔道部가 있었고, 劍道部도 있었다.



金剛山 修學旅行도 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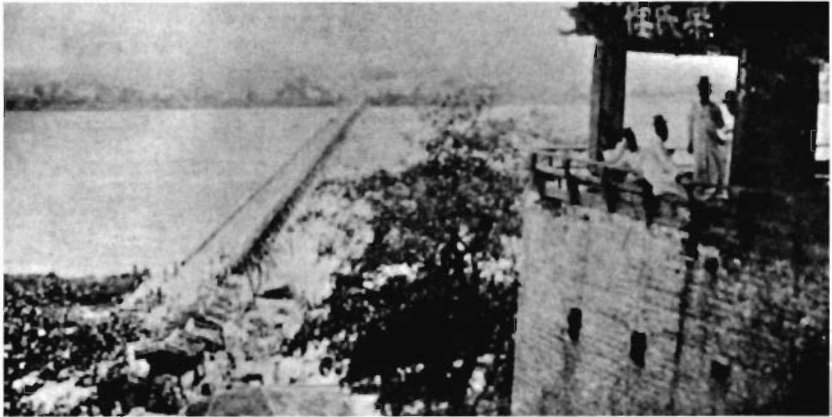


때로는 盤龍山 산책길에서 낭만을 즐기고!



九天閣

追憶의 고향땅 이 모습 저 모습



樂民樓에서 바라본 萬歲橋



◀ 흙다리(토교) 시대



나무다리(목교) 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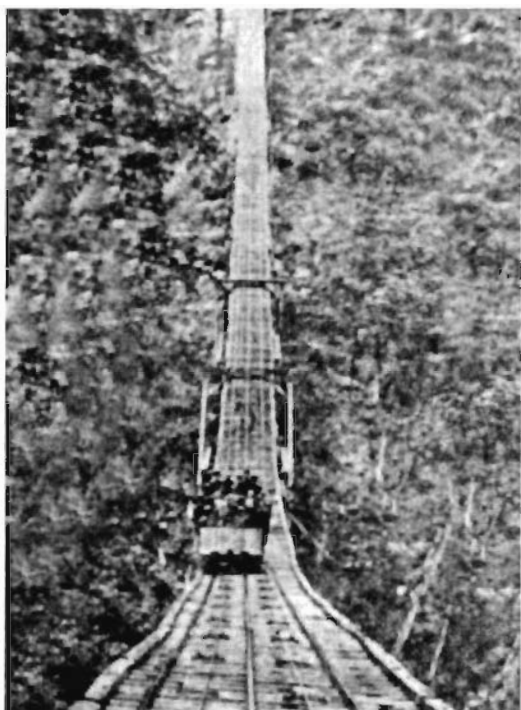


◀ 8.15 해방 당시의 모습

萬歲橋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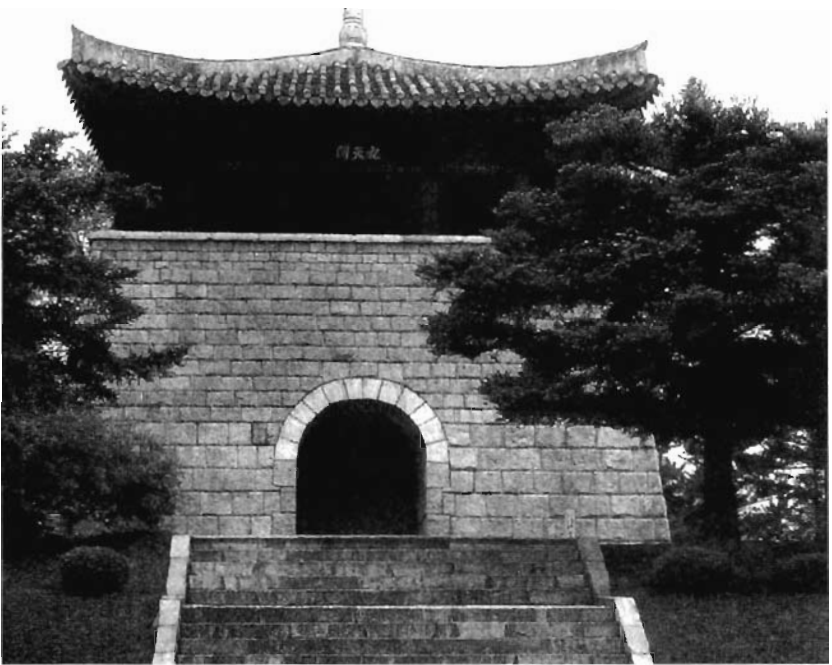
水量도 풍부하였던 城川江



越戰高原을 향하여 하늘로 올라가던 잉클라인



盤龍山 기슭에 자리잡은 孔子廟



威興城의 군사 지휘소 九天閣 (1716년 개축)



咸興本宮：太祖 李成桂가 말년을 보내던 집. 1392~1398년 創建. 1610년 改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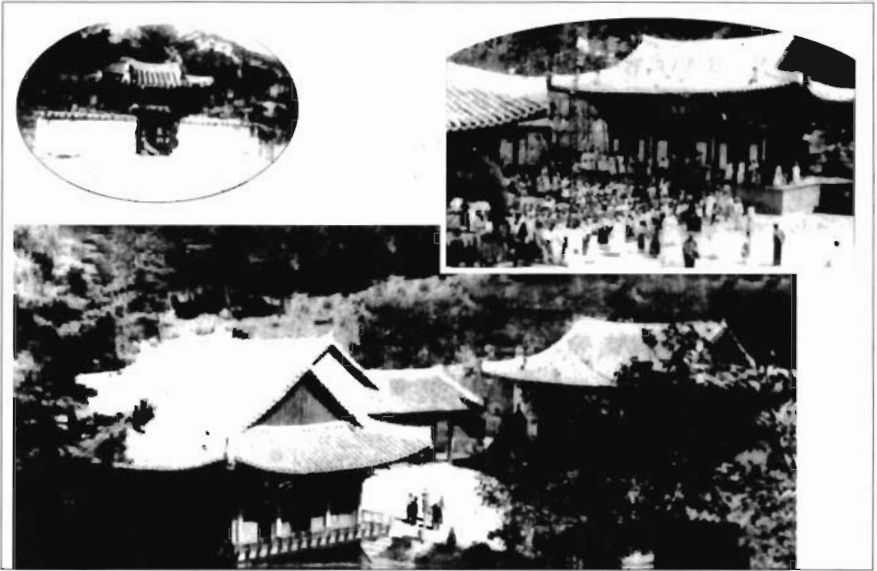
豊沛樓：本宮안 연못가의 樓閣. 秘苑의 정자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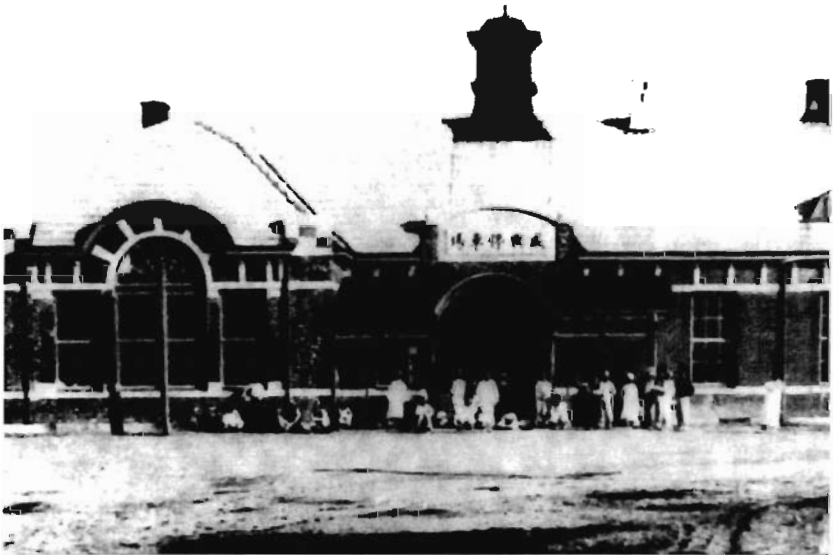
定和陵：太祖 李成桂의 아버지 墓. 歸州寺 가는 길목, 上水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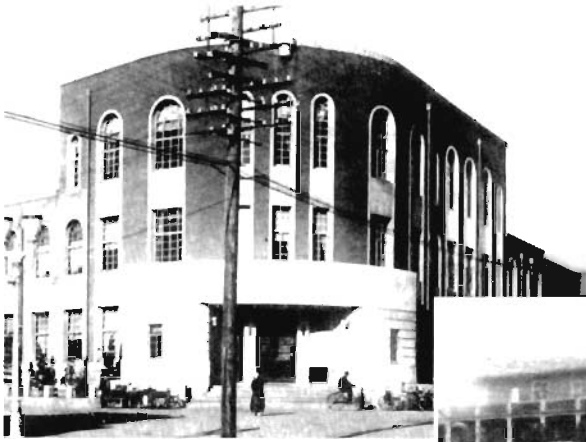
馳馬台：太祖 李成桂가 청년시절 馬術을 연마 하던곳. 지금은 御筆碑石만 남아 있다.



歸州寺：咸興 동쪽 6km지점 東川面 慶興里에 위치한 절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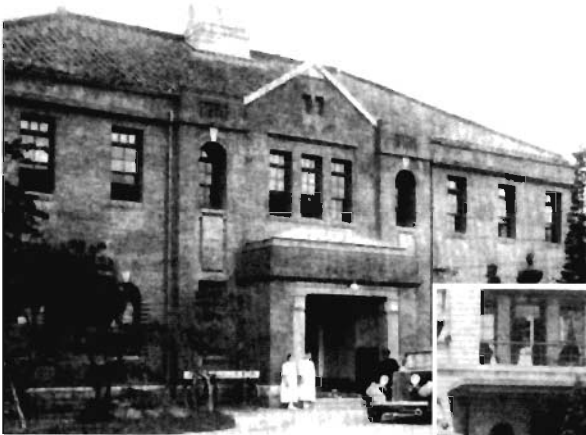
咸興驛：간판에는 咸興停車場이라고 적혀있으나 우리는 咸興驛이라고 불렀다.



함흥市廳



濟惠病院



咸興道立病院



金明學 病院



西咸興驛



朝鮮鐵道(株) 咸興支所



丸星(마루보시) 咸興支店



咸興택시調合

동창회 모임들



10월이면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모이는 정기총회



5월이면 그린파크호텔에서
갖는 임시총회



任員 및 幹事 연석회의 를 마치고

盤龍

◆◆◆◆◆ 19, 20, 21회 ◆◆◆◆◆

- ◎ 늙어가는 쓸쓸함과 고독을 슬기롭게 이겨내자/ 朱權源 (19回)
- ◎ 두견새, 魂風아 불어 다오/ 李基炯 (20回)
- ◎ 奇人 李在亨 선배/ 韓喬石 (21回)
- ◎ 지내온 길과 가야할 길/ 全明洙 (21回)



늙어가는 쓸쓸함과 고독을 슬기롭게 이겨내자

東橋 朱 槿 源 (19回)

근간 生老病死를 다룬 프로가 TV에 자주 방송되고 있는데, 이 프로를 보고 있노라면 쓸쓸함과 孤獨을 이겨내는 노인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게 된다. 인생을 거의 포기한 노인도 있을 것이고, 자포자기 상태인 노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각박한 世態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가슴이 답답해진다.

금년 2월 3일자 동아일보에 소개된 석남 이경성(石南 李慶成, 85)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펴낸 『망각의 화실』이라는 수필집에서 이옹(李翁)이 늙어가는 쓸쓸함을 솔직하게 피력한 것을 감명 깊게 읽었다.

“노환(老患)보다 더 힘든 병이 고독이다. 혼자서 짓눌리는 침묵의 고독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과 악을 쓰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이옹의 솔직한 고백은 나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미술평론가의 일세대(一世代)로 손꼽히는 석남, 두 차례의 현대미술관장과 워커힐미술관장을 거쳤고, 홍익대학교 교수, 삼성문화재단 이사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畫壇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 그는 지금 서울 평창동의 한 노인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 수필집에서 李翁은 “자랑하지 말고 잔소리 하지말고 욕심을 버리고 몸은 비록 늙었어도 정신은 늘 먼 데를 바라보는 낭만을 가져야 한다”며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윽게서 늙어서 지체롭게 늙는 길을 啓示하여 주었다고 생각되어 공감(共感)하는 내용이기에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밤늦게 서재에 앉아 내가 80세 때 ‘덕(德)은 無限하고 힘은 有限하다’고 깨달았음을 나의 회고록(回顧錄)에 피력했던 그 당시의 심정을 다시 회상하면서, 좀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命題를 가슴속에 되새겨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떠 오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생을 건강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지체롭게 헤쳐나가야 함을 깨닫게 되어 노후(老醜)만은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한다고 작심(作心)하고 있다.

즐거움과 고독은 정반대의 어휘인 바 노인들은 즐거움을 찾는다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연히 밀려오는 ‘쓸쓸함과 고독’을 즐겁게 이겨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가정생활이다. 젊어서나 노후이거나 가정에서 화목한 즐거움을 찾아 자기의 일생을 뜻있게 마쳐야 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는 전통적인 忠孝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교육을 받아왔으나 世態의 급변으로 최근 5~6년 사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음을 實感한다. TV에서는 시끄럽고 저속한 코미디나 드라마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공영방송도 편파 방송이 심하니 우리같은 노부부가 마주앉아 볼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래도 가정에서 늙어가는 쓸쓸함과 고독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값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 꾸준히 노력하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성 싶다.

가정생활에서의 즐거움은 우리 일상생활의 근간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米壽가 되는 이 나이에 돌이켜 보면 가장 즐겁게 감사하게 생각되는 내 삶의 즐거움은 뭐니뭐니해도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한 일이다.

1943년 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정년퇴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로 40년 봉직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기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신 三樂 중의 셋째 낙(樂)인 ‘천하에 뛰어난 인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也)’ 이라 하신 그 즐거움을 퇴임하고도 20여 년 되는 지금도 가장 귀한 즐거움으로 간직하며 또 회상하고 있다.

40여 년 동안, 나의 일생을 서울의대에서 교육, 진료, 연구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서울대학교병원을 새로 지어 지금은 세계 일류병원의 기초를 굳게 다질 수 있게 한 것은 나의 조그마한 功績이 아닌가 생각하면 저절로 흐뭇한 심정임을 가누지 못한다.

훌륭한 제자들이 한국내 우수 대학의 교수로 큰 업적을 쌓고 한국의 학계를 주도하며 또 외국 특히 미국에서도 수많은 제자들이 名聲을 떨치고 활약하고 있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회상하노라면 흐뭇하고 즐거워지는 樂은 나에게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자부심(自負心)과 만족감을 안겨주는 즐거움(樂)으로 마음 전체를 비우고 있다. 아마도 교육계 인사들이 ‘三樂會’ 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런 연유가 아닌가 한다.

30~40년 전 졸업생들이 지금도 미국 등지에서 ‘스승의 날’ 을 기해 보내오는 師恩의 편지를 가끔 받을 때의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맙게 여겨진다. 그런가하면 졸업생들이 찾아 왔을 때 “귀하는 1961년 졸업생이고 졸업성적이 몇 등이었지?” 하고 물으면 놀라는 표정에서 스승과 제자의 참 사랑을 느끼는 제자들과 만남은 진정 나에게 희열(喜悅)을 안겨 주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게는 지금도 50년대 말에서 60년대 말까지의 졸업생들의 成績表도 보관하고 있는 께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사요, 교수라는 좋은 직업으로 서울의대에서 한 평생을 영재들을 교

육한 나의 행적을 회상하면 즐겁기만 하다. 그래서 “1년을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인재(人材)를 키운다”는 聖賢들의 말씀이 새삼 생각난다.

1983년 퇴임후 1998년까지 동부화재에서 근무하면서 1989년에 한국배상의학회를 창립하여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보험업계가 합심하여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교통사고왕국’이라는 불명예를 拂拭하는데 이바지한 것은 정년 이후 내가 이룩한 공으로 자위(自慰)하고 있다.

나는 서울의대 구내에 있는 새롭게 아담하게 건축한 ‘서울의대동창회관’에서 한국배상의학회 명예회장의 신분으로 매일 9~10시에 출근하여 배상의학회의 실무도 도와주면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한가로울 때 컴퓨터 앞에 앉아 국내외에 있는 손자들과 메일도 주고받고, 무료할 때는 인터넷 바둑 한 판 두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는 내 노후생활 消日의 단면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 매주 월요일 낮 12시30분 정각에 열리는 ‘漢陽로타리클럽’ 모임이다. 5명의 선배를 제외한 130여명의 각계에서 이름난 후배회원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만약 이 모임이 없었다면 진정 나의 운신(運身)은 어찌 되었을까? 여러 회원과의 담소(談笑)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의 壓卷은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30분 동안 듣는 特講이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역사, 보건 등 각계 각층의 권위있는 인사로부터 듣는 이 강좌는 우리들에게 教養을 길러주는 즐거운 모임이 아닐 수 없다. 나는 20여 년간 서울에 있는 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晝勤 출석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長春會를 소개한다. 이 모임은 70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나는 1987년에 입회한 즐거운 골프 모임이다. 당시 회장은 서울대학교총장과 문교부장관을 지내신 崔奎南 선생이시다. 그때 최선생은 90이 넘은

연세로 참가 하셨다. 안양컨트리에서 고(故) 이병철(李秉喆) 회장의 특별 배려로 우대를 받으면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5여 명이 골프를 마치고 목욕한 후 시내로 옮겨 요정이나 호텔에서 화기애애한 저녁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교통의 불편도 있고, 작고 하거나 연로회원도 있고 몸이 불편한 회원도 있어 최근 10여 년 전부터 많아야 10명 미만이 모이고 있다. 우리 회원에게는 특별대우를 해주어 골프 치고 저녁식사하고, 회원의 생일 때에는 당사자가 회식비를 부담하면 우리는 기념품을 전달한다. 끝날 때는 校歌라 하여 '고향의 봄'을 합창하고 헤어진다. 이는 더운 7~8월과 추운 12~2월은 방학이라고 하여 모임이 없는데 노인들의 건강과 友誼를 다지는 건실하고 건강유지에 기여하는 즐거운 정기모임이다.

이번에는 5년전부터 시작한 서울의대 출신 원로 6인의 모임으로 매달 한 번씩 신라호텔 八仙에서 갖는 六仙會를 소개한다. 아무 부담이나 기탄없이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는 모임으로 인생관이나 사회관도 비슷한, 이 사회에 봉사한 의사출신 선후배로 노후의 쓸쓸함을 달래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자리여서 나에게도 더 할 수 없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기다려지는 값진 모임이다.

이제 친구들이 다 늙어가고 세상을 뜬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1947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전도유망한 청년들 모임인 '한길회'를 소개한다. '한길회'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로지 큰 길만 가자'는 뜻으로 26명의 엘리트클럽운동 형태로 시작하여 어언간 50여 년을 이어온 모임이다. 초창기에는 매월 한 번씩 모였는데 食費 성격인 회비는 그때 그때 均配하며 일체의 기금조성은 하지 않았다. 여러 해 전부터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최근 3~4년 사이 생존한 5명 중 3~4명이 모이기도 어려워 그것도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줄었다.

되돌아보면, 한때는 사회의 중견자들이 私組織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아 중앙정보부의 안테나에 잡히기도 했다. 이 모임에는 유

창순(劉彰順), 강영훈(姜英勳) 前 總理를 비롯하여 작고한 김정렬(金貞烈) 전 총리, 장준하(張俊河) 형(서로 형으로 불렀다)과 손기정(孫基楨) 형 등이 있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준엽(金俊燁) 형도 회원이었다. 여기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나라걱정하며 인생을 인생답게 살 방향만 생각하는 모임이었다. 이제 지나간 세월을 '한길회'와 더불어 회상하면 20대 후반 때의 혈기 왕성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며 용기백배하는 듯하여 노후의 이런 저런 悔恨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米壽의 나이가 되면서 이렇게 즐기는 모임과 과거 회상으로 즐기면서 지금 나는 쓸쓸함과 고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연휴때 간혹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나 늦은 겨울 밤 쓸쓸히 丙子와 둘이 마주앉아 있노라면 늙어가는 쓸쓸함과 고독이 찾아오지만 참고 이겨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모든 정신적 준비가 되고 보니 별로 걱정되거나 두려운 감정도 전혀 없으나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無禮한 행동이 없도록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건강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0개월 전부터 수면지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수면전문교수의 지도와 투약을 받고 있는데, 이 교수의 권고는 아침 11시경 해를 보면서 30~40분 천천히 걷는 운동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잠이 잘 온다고 한다. 교수의 권고로 요즘 나는 매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혹시 수면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4년여 전부터 경성제대 졸업 3년 선배와 매일 저녁 6~7시 사이에 교대로 안부 전화 교환으로 서로의 건강을 묻고 그날그날의 소식도 전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1943년 대학졸업 후 60년을 친형제처럼 지내온 분으로 두 노인의 하루를 보내는데 빼놓을 수 없는 매일 행사로 되고 있다.

어쨌거나, 늙으면 편히 떠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고 쓸쓸함과 고독을 이겨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동료 여러분에게 권유하면서 나의 行脚을 두서없이 소개하는 바이다.

이 글을 마치면서 한양로타리클럽, 장춘회, 한길회 및 유선회 회원들의 노후의 건강을 기원한다.

2004년 8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 609호에서

두견새

李 基 炯 (20回)

신새벽 네 시 막 지나서다
아파트숲 벽 사이를 빠져
왼쪽 넓은 길로 나서자
앞산 숲께서 첫새벽 고요를 뚫고
'소쩍~꿥' '소쩍~꿥'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번쩍,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 저 소리! 몇십년 만이나
고향 뒷동산을 오른다
아니, 조선적 고려적 저 산을 오른다
아아니, 신라적 단군적 저 산을 오른다
그때도 저런 목청으로 이렇게 연련(隣隣) 가슴을 울려 주었겠지
'접동새' 라는 낱말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도
저 산에서 저렇게 청승맞게 울었겠지
앗, 그러데 웬일
갑자기 소리가 멈춘다
불빛에 어리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자 그치는 게 분명했다.
인간의 짓거리가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저럴까
인간과는 아예 상종 않겠다는 눈치다

마음이 아팠다
인간은 문명 개발 한답시고
지나치게 산을 부수고 시내를 더럽혔거니,
형제 피 반백년 찢겨도 나 몰라라 능청을 떨었거니,
'각성~꿈, 각성~꿈'
두견새는 깨우쳐 준다

2004. 6. 22 용인 진산마을에서

魂風아 불어다오

분단 59년!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 분해,
21세기 밝은 대낮 멀쩡한 정신에 이렇게 당해
민족 양식에 비취 본다.
꼭뒤에서 발끝까지 나라살림 구석구석
에누리 없이
일괄(一括) 병들다 썩었다
기품(氣稟)도 없다
희망도 없다
환락가 혼숙란을 삼매경, 사대(事大) 혼빠진 문화다
이조(李朝) 마지막 사랑, 그 아름다움은 어데 갔나
어찌다가 이꼴이 되었지
병균의 정체는 뭐냐

안 썩었다고 큰소리 치는 자
어디 나와 봐라
미수 성상(米壽星霜) 인생 층층을 던고 넘었거니
동지설달 긴긴 밤 대답해 주마
잘못된 반쪽 시대에 죽지 못해 숨쉬는
부끄러움
무력감
오천년 조상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술에 취한 건 무섭지 않다
외래(外來) 썩은 문화에 취한 게 정말 무섭구나
헤어나야지
헤어나야지
청풍(淸風)아 불어 다오
혼풍(魂風)아 불어 다오

2004. 2. 1 용인 진산마을에서

奇人 李在亨 선배

韓 喬 石 (21回)

나는 8세인 1928년 이른 봄, 인구 오륙 만의 함경남도 도청 소재지 咸興에서, 인구 2천이 채 안되는 같은 道の 豊山郡 군청소재지 新豊里로 이주하여, 그 곳의 豊山公立普通學校(6년제 초등학교)를 1934년 3월에 졸업하였다.

당시, 조선에는 郡이 2백 남짓 있었는데, 해발이 1000m를 넘는 新豊리는 군청 소재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아, 명실공히 하늘 아래 첫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豊山郡을 북한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왜인지 金亨稷郡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김형직은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아버지다.

나는, 이르는 바 三水甲山の 甲山에 인접해 있는 백두산 자락의 한 두메산골 豊山郡 里仁面 新豊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므로,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보고 들은 것이 매우 단순하였고 아주 소박하였다.

1934년 4월 1일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5년제, 이하에서는 함흥고보)에 입학한 나는, 그 후 수개월, 같은 학교 2년 선배인 李在亨과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4월 초의 어느 날, 느닷없이 李在亨은 “세키야 도시코가 함흥에 왔어. 일본에서 유명한 소프라노야. 독창회에 가지구.”라며 아무 영문도 모르는 나를 부추겼다.

세××××도 소×××따위는 금시초문인 나였으나, ‘유명한’ 에만은 귀가 솔깃해졌다. 난생 처음 ‘유명한’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千載一遇의 好機勿失, 나는 대뜸 가겠노라고 결연히 대답했다.

입장권은 무려 大金 3원, 하루 세끼의 한 달 하숙비가 9원이었다.

당일 나는 일찌감치 독창회장인 함흥 公會堂에 들어가, 무대 바로 앞 줄 한복판에 착석하였다. 넓디넓고 높디높은 건물의 내부가 인상적이었다.

한참 지나 李선배가 나한테 다가왔다가 곧바로 그냥 돌아갔다. 내가 와 있는지를 단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탈모바람에 변장하였고, 그의 자리는 뒷구석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잠시 후, 누구인가가 내 어깨를 살짝 치더니 내 모표를 살피고는 “あしたのあさ きょうむしつに こい(내일 아침에 교무실로 와)”라고 하여 반사적으로 “はい(예)”라고 대답하였다.

마침내 막이 오르더니, 새빨갳게 차려입은 아주머니가 휘황찬란한 각광을 받으며 사뿐사뿐 등장하였다.

저고리와 치마가 두루뭉실하였다.

새하얀 얼굴에 진홍색 입술, 커다란 눈에 기다란 눈썹이 이채로웠다.

키는 작달막하였고 몸매는 토실토실하였다.

드디어, 처음 듣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가 튀어나왔다.

쇠를 세차게 자르는 소리였다.

사람의 목구멍에서 저런 음향이 발생하다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두어 시간 정신없이 들은 여러 노래 중에, 여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사가 두 줄 있다.

からたちのはなが さいたよ(가라타치 꽃이 피었네요)

しろいしろいはなが さいたよ(하얀 꽃이 피었네요)

‘가라타치’는 탱자나무의 일본어다.

이튿날 등교하자 교무실을 찾아갔다. “너는 입학한 지 며칠 안 돼 교칙을 모른 것으로 인정하여 용서해 준다…”

이렇게 오쿠노(奥野, 地歴 담당) 선생은 말하였다.

이 件으로 내가 정학당하였더라면 내 인생은 사뭇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다닌 네 학교 합쳐 16년 반의 개근이 무산하였음은 물론이고, 공연히 반항하거나 심술을 부려 전도를 바꾸어 놓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래 5년간, 학교가 인술하지 않는 한, 어떤 음악회에도 어느 영화관에도 나는 가지 않았다.

咸興에는 영화관이 넷이 있었다. 東明극장, 明寶극장, 本町극장, 咸興극장이 그 넷이었다. 앞의 셋은 조선인이 끝의 하나만이 일본인이 주인이었다.

明寶극장은 전 조선에서 제일 컸다. 이전에 제일 컸던 明治座(현 서울 明洞에 있었음)보다 관객석이 여남은이 더 많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었다.

주인은 李基進, 命名者는 그의 친구인 李遇春(후일 나의 장인)이었다.

여하튼, 李在亨 선배는 어느 극장에든 무상 출입했으나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

그런데, 졸업을 수개월 앞두고 李선배가 소리없이 咸興에서 사라졌다. 난처해진 함흥고보가 李선배의 아버지(함경남도 北靑郡 陽化面 거주)에게 아들이 실종했다는 전보를 쳤다.

아버지도 난처했지만 짚이는 데가 있었다.

일전에 아들이 다녀갔는데, 아버지의 회중시계가 없어졌다. 미국제 舶來品인 값비싼 월삼이었다.

필시, 저 녀석이 내 시계를 전당포에 잡히고 빌린 돈으로 東京에 갔을

거야. 즉각, 아버지는 현해탄을 건넜다.

동경 바닥을 정처없이 헤맨 아버지는 천신만고 끝에 수일 후 銀座에서 아들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가장 변화한 은좌(銀座) 거리를 아들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衆人 環視 속에서父子는 한참 부둥켜안고 있었다.

이윽고, 아버지는 “이 놈의 새끼야, 너 함흥고보를 졸업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애비가 다 들어 줄 테니 제발 어서 돌아가자”고 애걸 복걸하며 타일러 막가던 無女獨男의 마음을 돌렸다.

李在亨 선배가 학교로 돌아오자 교무회의가 열렸다. 교칙대로라면 그의 행위는 영락없는 퇴학 감이었지만 평소에 여러 선생의 귀여움을 산 덕분에 가벼운 훈계를 받았을 뿐이었다. 호떡집에서 들켜도 1주일 정학을 맞는 함흥고보에서는 지극히 異例的인 일이었다.

李在亨 선배는 영화배우가 되려고, 전당포에서 쑈 50원을 군자금으로 東京行을 決行, 憧憬하던 명배우 스즈키 덴메이를 찾아가 만났다.

“아직 일러, 대학을 나온 뒤에라도 늦지 않아”라며 스즈키는 퇴짜를 놓았다.

1937년 3월 말 李在亨 선배는 함흥고보를 곱게 졸업하고, 다시 동경으로 가, 스즈키 덴메이의 모교인 法政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그 후, 무엇이 계기였는지 심경에 변화가 생긴 李선배는, 林萬燮 韓甲洙와 더불어 야간음악학교에도 다녔다. 그 결과 명곡을 곧잘 불렀고, 평생 음악을 극진히 사랑했다.

한편, 영화관람 고삐는 늦추지 않아, 李선배가 놓친 영화는 없었다.

게다가, 동경유학 시절, 李선배는 일본 시가(詩歌)와 일본어 번역 프랑스, 러시아, 소설을 다독했다.

술자리에서 흥에 겨우면 ‘… 벨라 … 벨라’ 하며 뿔뿔하고, ‘ふるさとのなまりなつかしや…’를 외우다가 ‘소녀’에 이르면 눈물을 흘렸다. 소녀

는 도스토예프스키의 ‘罪와 罰’에 나오는 가혹하며 가련한 여성이다.

그는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경제분야의 이야기는 끝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방 후에는 한국 현대시를 꾸준히 암기하여 환도(還都) 후 시낭송회에도 나갔다.

李선배는 농담, 재담의 명수였다. 어떤 자리에든 그가 있으면 즐거웠고 신이 났다.

1972년엔가, 李在亨 선배의 차남 長鎬의 결혼식 청첩을 받았다.

식장은 유네스코회관 9층 홀, 주례는 崔銀姬였다.

엘리베이터로 결혼식장에 올라가기도, 여성 주례자를 보기도 난생 처음이었다.

하여튼, 식장도 주례사도 훌륭하였다.

李선배는 키가 작았으나 아들과 아버지는 체격이 후리후리하였다.

쾌활한 성품, 화려한 옷치레는 父傳子傳이었다.

아버지는 새빨간 넥타이를, 아들은 새하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李在亨 선배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三男二女 중 둘째인 長鎬를 崔銀姬 문하에 들여보냈다.

한데, 천성이 수줍은 長鎬는 베드 신 연기에서 연거푸 엔지를 내는 바람에 영화감독 쪽으로 길을 바꿔야 했다.

李在亨 선배는 쾌활한 나머지 이따금 난폭하였다.

로케 때 맘 같지 않으면 아들을 향해 ‘이 간나새끼야’를 연발하였다.

그는 또 자신이 선전부장인 모 회사 사장 생일 잔치 석상에서 “야, 이 미친 사무라이야. 너만 혼자서 진수성찬을 처먹을 거야”라며 사장한테 대들었다.

그 사장은 소시에 威興에서 ‘미친 사무라이’라고 불렸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일본 시대극 영화에 나오는 사무라이 즉 武士를 닮았기 때문이

었다.

李先輩는 性에 대해 적나라하였으며 대담무쌍하였다.

언젠가 다방 세비양에서 “나는 야사때 플래시로 ×을 비추지 않으면 ×이 서지 않아요”라고 불쑥 토하자 초면인 사람들은 破顔大笑하였다.

하루는 세검동 어느 술집에서 李長鎬 감독 수상축하연이 벌어졌다. 10여 명이 모였는데 남녀가 거의 동수였다. 흥이 무르익자 李先輩는 안팎의 아랫도리 옷을 훌랑 벗어 버리고 좌중을 돌며 물건을 과시하였다.

李在亨 선배는 부유한 집의 無女獨男이었기 어린 시절에는 무척 응석을 부렸으리라.

장성하여서는 시를 읽고 음악을 즐기며 멋쟁이로 살았다.

李在亨 선배는 밖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었고, 안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무던히 사랑하였다.

2004년 7월

지내온 길과 가야할 길

全 明 洙 (21回)

“고손아, 고손아. 네 애비가 온단다.” 나는 ‘여덟살 때까지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고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러시아에 가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내가 여덟살 때 돌아 오셨으니 집에서는 시끌벅적 큰 잔치가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버지께서 사오신 빅타 축음기를 틀어 판소리와 유행가를 들으며 좋아했다.

축음기 속에 사람이 있어 판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시골 사람들에게는 처음보는 물건이라서 신기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咸興市 사포리에 있는 외갓집에 간 일이 있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내 또래의 친손자와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다. 지금도 때때로 생각한다.

앞마당에 있는 연못은 韓半島와 같은 模樣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花草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연못 안에서는 많은 금붕어들이 놀고 있었다. 뒷마당에는 果樹園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친구들과 같이 복숭아 등 여러 가지 열매를 따먹던 일도 생각한다.

아버지는 興南窒素肥料工場에 勤務하시게 되었고 내게는 남동생 셋과 여동생 하나가 생겨서 우리집은 多福한 家庭이 되었다.

歲月이 흘러 1939年 3월 咸南中學을 卒業할 때 담임선생님이 추천하신 上級學校에 志願하여 福岡에 가서 1次試驗에 合格하고 京都에서 2次試驗

에도 합격하여 滿洲政府의 委託學生으로 工夫하였다. 卒業後 日本人 學生 6명과 함께 新京에 있는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에 1941年 3월에 入社하고 4월에 承德管理局에 配屬되어 勤務하게 되었다.

滿洲政府는 食糧配給을 주는 데 있어서 日本人同窓生들에게는 白米를 주고 나에게는 雜穀을 섞어 주었으며 月給도 差別하여 주었다. 학교에서는 朝鮮, 日本, 滿洲, 蒙古, 露西亞의 5民族은 平等하다고 가르치면서 差別 待遇를 한 것이다. 나는 몹시 화가 났다.

1942년 8월 全滿洲技術者競演大會가 開催되어 나는 承德管理局에서 1등을 하고 9월에 新京本社에서 實施한 全國競演에서는 4등에 뽑힌 일이 있었다. 그後 安東放送局에 移轉勤務하게 되었는데 몸에 異狀이 생겨 1945年 2月 滿鐵病院에서 肺結核으로 診斷받고 手術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戰爭은 계속되었고 거의 每日 B29의 空襲이 있었다. 新義州쪽의 압록강 철교에서 쏘아올린 대공포탄은 B29의 고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1945年 3월에 나는 安東放送局을 그만두고 故鄉인 咸興에 와서 手術은 받지 않고 한달동안 漢藥으로 병을 고쳤다.

當時 韓國은 戰爭으로 路上에서 徵用으로 끌려가는 일이 많아 나는 朝鮮放送協會에 있는 大學先輩를 찾아가서 상의하여 1945年 5월에 朝鮮放送協會에 就職이 되고 故鄉인 咸興의 放送局에서 勤務하게 되었다.

1946年 4月 咸興放送局에서 宿直하던 날 밤 나는 業務課職員 책상 위에 放送局職印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出張證明書を 만들어 갖고 다음날 汽車를 타고 咸興驛을 떠났다.

그 當時 장사꾼들이 서울에 왕래하고 있음을 알고 나는 그들을 따라 어두운 밤 임진강鐵橋를 건너 무사히 서울에 到着하였다.

나는 朝鮮放送協會의 大學先輩에게 事情을 이야기하여 그 다음날부터

서울放送局 技術部에 出勤하게 되었다.

나 혼자서 서울에 와서 放送局에 勤務하고 있을 때 내 內子도 單獨으로 임진강을 건너 나를 찾아 서울에 왔으나 얼마되지 않아서 병들어 고생하다가 1948年 5월에 사망했다.

그 當時 장모님도 함께 계셨는데 무당집에 가서 굿을 했고 집에서는 새벽에 앞마당에다 상을 차려놓고 열심히 절을 하고 빌고 하면서 혼자서 중얼 거리시곤 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장모님은 하루 급하게 威興에 갔다오겠다고 하시면서 서울을 떠났다. 일주일 후에 서울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돌아가신 장인과 꿈에서 대화를 했다고 하셨다. 장인께서는 꿈에서 자기 墓가 홍수로 파괴되었으니 뼈를 파가라고 해서 서울에 다시 왔다고 하셨다.

1956年 3月 서울 鐘路뒤에서 KORCAD放送局이 韓國最初로 TV放送을 始作하게 되어 서울 시내 여러 곳에 TV視聽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녁방송시간이 되면 많은 市民들이 모여들어 처음보는 TV방송을 즐기며 좋아했다. TV放送이 어느 程度 普及되었을 때 KORCAD放送局에서 火災가 發生하여 放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불은 業務課쪽에서 났으나 宿直한 技術部職員이 구속되어서 技術部長을 맡은 나는 法院에서 火災의 原因에 대하여 詳細히 說明하여 拘束된 技術部職員을 풀려나게 한 일이 있다.

公報處 放送管理局에 勤務할 때에 나는 LP레코드 製作施設을 計劃하고 1957年 10月 美國에서 生産施設을 導入하여 韓國最初로 LP레코드를 生産하였다. 우리나라 민요와 국악등을 담은 여러 가지 LP레코드를 만들어 美軍 PX에까지 納品하게 되었다.

南北이 가로막혀 以北避難民들은 오랜 歲月동안 이산가족이 되어 서로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게 됨에 따라 내가 취입제작한 남인수씨의 '가거라

38선' 이란 노래가 서울 草洞에 있는 首都劇場에서 實演되었는데 대단한 人氣였다.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아…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같은 고향땅을 가고오건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천리길”

가로막힌 南北이 흰히 뚫려서 金剛山觀光이 完全히 自由롭게 開放되기를 祈願하는 마음 간절하다.

中共軍의 6·25사변 介入으로 北進했던 國軍이 後退할 때에 내 부모님도 威興에서 배를 타고 남으로 오셔서 1951年 1月5日 大邱에서 나를 만날 수가 있었다. 避難生活를 하면서도 歲月이 安定되어 우리 家族들은 서울에서 살았다.

나의 父母任들은 서울에 와서 親戚들의 도움으로 教會에 나가게 되었는데 以北에서는 귀신을 섬기었다.

상처한 나는 再婚하고 妻와 같이 순복음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妻는 聖經공부를 하기 위하여 동네모임에 熱心히 參席하고 문숙현 전도사를 알게되어 해소병으로 苦生하고 있음을 상의하여 그의 도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었다. 그後 우리 夫婦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平安하게 살 수가 있었다.

나는 高孫으로 태어나 아버지없이 여덟살까지 자랐고, 異國땅에서 差別대우를 받으면서도 全滿洲技能者競演大會에 參席하여 承德管理局에서 1등을 하고 希望과 勇氣로 살고저하였으나, 상상할 수도 없는 폐병으로 故鄉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6·25 事變으로 남쪽에 피난와서 나를 따라온 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내가 지내온 길은 希望이 없었고 고통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하겠다.

상처한 후에 나는 삼일에 하루는 잠을 잘 수가 없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장기간 계속하여 왔으나 마귀를 쫓아냄으로서 지금은 정상으로 회복되어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나는 한때 자동차 오일 여과기에 관심이 있어 特許를 얻어 現代自動車 會社에 納品까지 하던 중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화근이 되어 이 사업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 不信者는 사기행위로 고소까지 당하고 拘束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 수 있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충성하면서 영생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하늘 나라에 계시고 거듭난 영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는 구원이시며 예수 믿는 사람만 주일날에 예배드리니, 예배보다 거룩하고 진실한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

영혼이 거룩해야 육체도 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와 기도이다.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곳에 돌아가게 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한 곳도 안다.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우리는 영원한 분과 사귀어서 영원한 약속을 믿고 영원한 곳에 가야 한다.

성령받고 방언하여 문제마다 해결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 22, 23, 24回 ◆◆◆◆

- ◎ 實學과 國利民福/ 安 霖 (22回)
- ◎ CANADA에서 만난 李林學 學兄/ 金禧庚 (22回)
- ◎ 精神力이었는데? 神佛의 加護였는가?/ 廉仁必 (24回)
- ◎ 새 벽(1), 그대 모습에 (2)/ 韓時坤 (24回)



實學과 國利民福

安 霖 (22回)

茶山 약력

정약용(丁若鎔, 1762~1836년)은 남인파(南人派)의 양반 가정에서 태어났다. 소년기에 유학, 중국과 조선의 역사, 학예를 어루만졌다. 16세 때 많은 실학의 선각자들의 영향을 받았고 23세 때 기독교교리에도 접하고 서양문물과 학예에 눈을 떴다. 28세 때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33세 때 경기도 암행어사, 36세 때 병조참의(兵曹參議)였다. 1801년 집권파가 날조한 신유사교사건(辛酉邪教事件)에 연좌되어 18년간 경복을 거쳐 전남 강진(康津)에서 유배(流配) 생활을 하였다. 그는 농민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도탄에 빠진 생활고를 개선하고 가혹한 봉건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실학체계(實學體系)를 대성하였다. 그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의 천재였으며 19세기의 계몽사상가였다. 57세 때 석방되어 광주(光州)에 돌아온 뒤에도 관직을 거절하고 초야에 묻혀 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저작을 완성하였다. 실학을 비롯한 그의 업적을 다음에서 소개한다.

1. 茶山故宅과 수려한 南楊州川

다산이 18년의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집이다. 군(郡)이 관광명소로 삼기위하여 여러 곳을 치장한 흔적이 보였다. 고풍스러운 고택과 정원이 잘 어울려 선비의 그윽한 인격과 내음새가 발산하는 듯 싶다. 일가죽을 동원하여 다섯 번쯤 방문하였다. 다산(茶山) 산소(山所)에 올라간 아이

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쉬었다.

집밖으로 나와 한참 앞으로 걸어가면 높이 2미터쯤 되는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이 보였다. 한 면에 일세를 깨우치는 경구(警句)가 적혀있다. 시세를 탄 '다산 아폴리즘'이다. 기웃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부터 언덕바지 길을 조금 오르면 낮은 산으로 이어진다. 거의 직각에서 왼쪽으로 돌면 눈앞에 남양주천(南楊州川)의 강물과 마주친다. 아늑하고도 맑고 유유(悠悠)히 흐르는 모습은 대인풍을 풍기고 있다. 강물위는 안개가 끼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몽게구름처럼 흘러간다. 마치 묵화의 신선도 같은 선경을 이룬다. 아! 여기는 일본 '나라' 옆을 지나는 비와꼬(琵琶湖)의 지류의 에메랄드처럼 푸른 풍경과 흡사하다. 그 순간 나는 '나라(奈良)'에 가있었다.

2. 古代의 서울 '나라(奈良)'의 추상(追想)

'나라'는 한국 말로 국가(國家)를 의미하는 나라와 일치한다. 옛날 '나라'는 우리의 서울이었다. 그 인연을 더듬어 보자.

4세기 말 광개토왕 전성기 때 고구려가 동해를 건너 먼저 침입하고 뒤이어 일본의 구주(九州)와 본주(本州) 서부에서 온 백제, 신라와 합류한 연합군단이 야마도(大和)에 최초의 고대천황국을 세웠다. 이것이 나라조(奈良朝)다. 대화개신(大化改新)은 그 정강, 정책강령이다. 야마도 지방을 아스까(飛鳥)라고도 부르며 일본인들이 궁지를 갖고 일본문화의 발상지라고 생각해왔다. 그 다음의 경도(京都)의 평안조(平安朝)를 연 사람은 50대 간무(桓武) 천황이었다. 2002년 지금의 일본 천황이 '간무천황의 생모는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발표하였다. 의미심장하다. 무령왕의 동생은 일본의 26대의 '계이타이'(繼體) 천황이다.

5세기 후반부터 야마도 정부에 의한 동방(東方) 경영이 활발함에 따라 '사카가미'란 성의 사람이 정이(征夷 - 야만을 다스린다는 의미) 대장군이

되어 동경(東京)지방정벌에 나선다. 이 사람은 772년 일본에 와서 정착한 백제의 아지사신(阿知使臣)의 후손이었다. 백제 후손들이 야마도·아야(東漢)군단을 조직하고 동방(東方)도처를 장악하였다. 원래 한(韓)씨가 漢氏로 된 것은 이 시대에 벌써 중화(中華)사상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한참 내려가면 대화(大和)라는 마을이 있다. 이 길은 옛날 선비들이 서울로 가는 통로였다. 일본의 야마도(大和)와는 무관한지… 추상은 끝없이 이어진다.

가까이 와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함흥까지 왔다는 할머니 이야기, 일본의 대동아 전쟁 때 학병(學兵)을 피하느라 고생했던 일동이 줄줄이 이어진다. 다산 덕택으로 추억이 되살아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3. 實學思想의 진수

중국과 조선은 15세기로부터 약 300년간 성행(盛行)된 전통주자학(傳統朱子學)의 관념론으로 인하여 시달려 왔다. 다산은 그 '스코라' (중세교회의 카톨릭 신학의 교리)적 성격을 반대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과 방법에 의하여 실학사상을 집대성하였다.

실학이란 무엇인가. 실사구시의 방법 - 즉 사실속에서 실천에 의하여 존재(存在)와 인식(認識)의 기본 구조를 규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국가의 부강과 백성의 생활향상 및 복리증진, 즉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실천적 정책의 연구이다.

사유(思惟)가 아니고 사물이 발생하고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근본법칙으로서 유물론적(唯物論的)인식에서 인간 사회를 분석하고 이상향(理想鄉)을 도출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천적 연구이다.

근세의 사회인문과학의 추세를 알리며, 특히 문명의 기초인 자연과학의 발전을 촉구하는 경세(警世)의 명문(銘文)이며 애국사상을 고취한 치세의 경륜이다.

실학이란 '사이언스'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분리된 과학이 아니라 종합된 과학이었다. 근세 학문은 자연과 사회를 함께 결합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 종전의 유학처럼 문자나 문장의 해석에 매달리는 훈고학(訓古學)적 '공리공담'(空理空談)과 다르다.

유물론은 사물의 변화,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증법(弁證法)을 결합시킨다.

다산은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모든 사물은 대립세력(對立勢力)인 음양(陰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존재한다. 2개의 대립적 측면의 통일로써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흔히 변증법의 알기쉬운 해석으로서 들고 있는 정, 반, 합(正, 反, 合)을 설명한 것이다.

다산은 철학, 지리, 법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군사 등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관제(官制), 법제, 학제, 병제, 정체(政體) 등에 관한 우수한 저작을 남겼다. 이들의 저서는 현존하는 약 500여 권의 『與猶堂全集』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자연과학에서도 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다. 수학, 역학, 광학, 의학, 생리학, 물리학, 천문학, 지리학 등에서 일가견을 이루었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하였다.

한편 일반사회에서도 실학기풍이 퍼져갔다.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한 사신들이 중국에 가서 유럽에서 도입한 천문, 역학, 역사, 지리, 제도(製圖), 의술, 풍속, 종교, 문예 등을 보고 본국의 썩은 봉건지배계급의 무능력을 통탄하였다. 그들은 서울에 있을 때나 시골에 낙향하였을 때나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실용주의적인 자연과학기술을 역설하고 실천하였다.

결론컨대 실학사상의 진수는 바로 실증적이자 실천적인 유물론의 전개이다. 유물론적 철학의 영역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한 것이다. 실학사상은 당파투쟁을 거절하였으며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조선민중의 애국사상을 고무하였다.

4. 봉건제도타도와 식산흥업

다산의 업적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봉건적군주의 덕치(德治)를 찬양하고 인민은 통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법은 인민을 억압하는 수단이다. 인민의 주권, 인민의 평등, 인민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봉건제의 지주(支柱)인 토호(土豪), 지방수령을 좀도적, 감사(監司)를 큰 도적으로 매도하였다.

유학(儒學)은 종래 무위(無爲)사상만을 숭상하였다. 개혁에 무관심한 사람은 유가(儒家)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인(仁), 의(義), 예(禮)의 도덕은 인간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자조(自助)하는 것이 아니며 실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유학의 실천적 가치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택일(擇日), 종교, 미신, 운명론, 사주(四柱), 관상 등을 철저히 배격하였다.

인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극구 강조하였다. 한강교(漢江橋) 가설설계, 수원성(水原城) 축조기술, 기중기(起重機), 활자, 종두실험 등의 선구적 연구를 하였다.

국부(國富)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하여 식산흥업(殖産興業)의 슬로건을 내걸고 영농기술, 방적, 의원(醫員)의 치료법 개선, 군사기술(진지구축과 운수)등을 비롯하여 백공(百工)에서 즉 현대어로 제조업분야에서 주택, 기구, 성곽, 선박, 차량 제도 등에 주력하였다.

다산의 봉건사회개혁의 실천력은 대단하였다.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양반계급은 세습되었다. 인재등용명목으로 시행한 과거(科擧)의 합격자는 정원의 10배였으며 특권을 찾는 유생(儒生)은 과잉상태였다.

일설에 의하면 과거 지망자는 10만이지만 빈민층 인재의 등용의 길은 딱 막혔다.

봉건사회의 모순은 상층계급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그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5. 田制의 개혁

봉건사회를 개혁하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제(田制)를 뜯어 고치는 일이었다. 봉건사회는 신분제도(세습하는 양반제도), 적서(嫡庶)차별, 노비(奴婢)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 경제적 토대는 전제(田制)였다. 당시 일부 실학인사는 과전제(科田制), 균전제(均田制), 한전제(限田制)를 주장하였다.

다산은 토지의 주인은 국가와 농민이라고 하였다. 자연의 지형에 따라서 만든 일정한 구역이 '여(閭)'이며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한다. 공세(公稅)와 봉급을 제외한다.

공동분배속에서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수가 많을수록 농민의 수입은 늘어난다. 결국 농민의 배당몫이 클수록 토지생산성은 높아지고 농민의 후생복지가 클수록 풍속, 인정은 후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농민의 자유이동을 보장하고 약 10년이 지나면 인구분포도 균형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산은 양반 지주의 봉건적착취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그러나 봉건적 생산관계의 틀 속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하였다. 선진적인 농민적 공상(空想) 사회주의의 꿈을 남겼다. 유물론적 발상에서 근세의 계몽사상의 일단을 이어갔다.

2004년 8월 15일

CANADA에서 만난 李林學 學兄

金 禧 庚 (22回)

캐나다 밴쿠버(Vancouver)에서 살고 있는 長女가 하도 오라고 졸라서 그 곳으로 가게되었다. 空港에서 그들 집으로 가는 車中에서, 나의 咸興 高普 一年先輩가 캐나다에서 大學教授를 하고 있을터인데, 하도 넓은 나라이니... 하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到着 다음날 아침, 딸이 新聞을 들고 2層에서 내려오면서 咸興에서 오신 분이 新聞에 났으니 보시라고 하여 받아보니 아! 놀랍게도 어제 車中에서 무심히 말하였던 李林學 學兄이 아닌가! 이걸 참으로 小說보다도 더 신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당장 新聞社에 電話걸어, 李兄의 電話番號라도 우선 알아달라고 對話하였다. 記者와 連絡이 되었는데 李博士는 지금 聽力이 좋지 않아 모든 것을 夫人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自己가 交渉하여 直接 案内해 주겠다는 期待以上の 便宜를 받게 되었다.

約束된 日時에 딸네 아이들과 花盆 하나 들고 記者의 案内로 李兄宅을 訪問하였다. 키가 작고 통통한 夫人이 玄關에 나와 우리를 맞아주었다. 邸宅은 庭園樹가 우거진 아담한 單層家屋이었다. 室內로 들어가니 中學時節엔 紅顏의 美少年이었는데 歲月의 흐름은, 그를 검은 머리가 거의 없는 靑바지 입은 '村老' 같은 모습으로 變하게 하였다.

壁에는 호랑이 그림 등이 걸려있고 韓國陶磁器도 놓여 있어서, 그의 故國에 對한 鄉愁를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였다. 60餘年만의 만남이니, 한 學年 아래인 나를 쉽게 알아볼 리가 없었다.

나는 中學後輩라는 것을 立證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그의 同期生(21回)들의 이름을 아는데로 연상 불러냈지만 記憶이 잘 안나는 듯 하더니 韓喬石兄의 이름을 부르자 금방 알아보았고, 李兄은 자신이 '군대 앞'에서 學校 다녔다고도 하며, 잠시 옛날을 回想하는 듯 하였다. 차츰 이야기가 오가더니, 夫人은 과일과 茶를 내놓으면서 勸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잠시 歸國하였을 때 同期生들과 夕食을 같이 하였을 때의 寫眞을 20餘枚 들고 나왔다. 寫眞 뒷면에 이름을 써넣은 것도 있었지만, 쓰지 못한 것은 나에게 묻기도 하였다. 나는 拙著『塔』을 李兄에게 贈呈하였다. 그는 貴한 冊인데 주어서 고맙다고 하였다.

그의 學問上의 業績을 대충 살펴보면, 우선 캐나다로 가게된 動機가 世界各國에 留學願書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招請狀이 온 곳이 캐나다의 尤비씨(University British Columbia)大學이었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約束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招請狀이 많이 왔었지만, 처음 約束한 곳으로 왔다고 한다. 尤비씨大學은 그를 품어주었고, 이임학이 存在함으로써 尤비씨 大學은 世上에 名聲을 떨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리군(Ree Group)에 對한 研究論文이 1984~1994년까지 90餘編이나 나온만큼, 그의 研究는 世界數學史에 重要的 研究業績을 남겼다. 20餘개의 단순군에 對한 研究結果는 그를 世界數學界의 巨木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現在 數學界에서 가장 有名한 數學者 라그란드(Langland)란 弟子를 키워낸 스승으로도 有名하다. 特히 어느나라 數學辭典이든지 이임학의 리군(Ree Group) 이름은, 이임학의 姓을 딴 리군(Ree Group)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 그의 家庭狀況을 보면 現在 밴쿠버에서 尤비씨(UBC)大學학생진료소 醫師인 中國系의 夫人 Rhoda Lee와의 두분이 살고있고, 아들 3兄弟는 모두 各自의 分野에서 活動하고 있다한다. 夫人의 李博士에 對한 所感을 들어보면, “내 男便 李林學博士의 삶은 數學이다. 李博士는

數學者이다. 이것 외는 그를 證明할 어떤 말도 없다.” 참 짤막하게 잘 表現한 말이라 생각한다.

李兄과의 再回를 約束하였지만 Toronto에 살던 누님이 別世하여 急히 밴쿠버를 떠나게 되어, 約束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海外에서 活躍하고 있는 자랑스런 同門을 알지 못하고 지내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만약 그에게 國內에 머물수 있는 與件을 마련하여, 研究를 계속케 하였다 라면, 얼마나 많은 國威宣揚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되며 李兄의 健康과 더욱 깊은 研鑽있기를 眞心으로 祈願한다.

●군(Group) 개념

군이론이라 함은 추상대수학 개념의 하나이다. 모든 정수의 집합을 S라 하고 집합 S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취하여 더하면 그 합은 역시 정수로서 집합 S의 원소가 된다.

또한 S는 결합률 즉 $(a+b)+c=a+(b+c)$ 를 만족하며,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0=a$ 인 단위원 0이 있으며, 임의의 원소 a는 $a+(-a)=0$ 이 되는 역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덧셈의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군의 연산으로는 곱셈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집합 S의 원소에 어떤 법칙이 정의되어 있고 임의의 두 원소를 결합하면 그 결과 역시 S의 원소가 될때 S를 군이라고 한다. Galois가 결투 전날 밤에 친구 슈발리에에게 보낸 유고를 통해 탄생하게 된 군의 개념은 기하학이나 결정학에도 응용되었고, 물리학에도 풍부한 연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精神力이었는가? 神佛의 加護였는가?

- 죽을 번 했던 溺死者의 救出談 -

廉 仁 必 (24回)

늙으면 어릴적 생각이 많이 난다고들 한다. 나도 어느새 늙었는지 생각지도 않던 옛날 일들이 자주 떠오른다.

이번 여름은 유달리도 더워서 매일같이 물놀이에서의 많은 익사자 소식이 가슴 아프게 들려왔었다. 특히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다가 부모도 죽고, 자식을 건지려다가父子가 함께 失蹤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며 그 장면을想像할 때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

그러다가 문득 그 옛날 體育時間에 사이토오 先生이 가르쳐 주던 救助法이 떠올랐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건져주려는 사람에게 決死的으로 매달려서 함께 죽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물속에 더 밀어넣어서 半 죽여서 발끝을 들고 나와야한다고 배웠다.

이런 생각끝에 가물가물 잊혀졌던 50年前의 일이 엇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고 또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다.

1955年 8月 여름放學 全國中高校教師들의 講習會가 18日間 公州師範大學에서 열려 나도 受講하러 갔을 때 생긴 일이다. 公州가 盆地라서 그랬는지 매우 더워서 거의 每日 講義가 끝난 늦은 午後, 錦江에 몸을 담그는 일이 日課였다. 市內를 좀 벗어나서 公山성 東南쪽 江邊에 작은 白沙場이 있는데(지금은 公州大橋가 있는 곳) 강폭이 넓고 물이 얇아서 늘 4~50名の 물놀이꾼들이 모였다.

어느날 나는 어느 때와 같이 옷을 벗고 강변 작은 바위 위에서 準備運動을 하고 있는데, 먼 강물 위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이 떠내려 오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의 머리였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사람이 떠내려온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그랬더니 물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뛰어 나와서는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저기” “저기” 하면서 어느 한사람도 구하려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순간, 정말 얼떨결에 無意識中에 “제기랄” 하고 물에 몸을 던져서 수력을 다하여 헤엄쳐 갔다. 그때 나는 거의 精神이 없이 그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一念만으로 팔다리를 놀려서 한참만에 겨우 떠내려가는 사람 옆에 다달았다. 머리를 짚은 少年인데 아직 살아있어서 꿀딱꿀딱 물을 먹으며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덤벼들려고 하였다.

아차!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번개같이 머릿속에 사이토오 先生이 가르쳐주던 救急法이 떠올라서 큰소리로 “매달리면 죽여버리겠다. 알았나” 하고 발을 잡으려고 찾으니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그의 왼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를 下流쪽에 위치하게 하고 강가를 향하여 헤엄쳐 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이냐!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득히 10리밖에 있는 것처럼 멀리 보이고 여기까지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왔는데 그를 건졌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맥이 빠지고 水泳이 서투른 처지에, 더군다나 오른손으로 사람을 잡고 왼손으로만 헤엄치려니 다리도 힘이 빠져서 마음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뿐인가 그 아이가 언제 매달릴는지 몰라서 경계를 하면서 죽을 힘을 다내고 있으나 도저히 강가까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 줘요” 아무리 외쳐도 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구경만 하고 있다. “이 ×같은 놈들아!”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제는 꿈쩍못하고 죽었다. 꿀딱꿀딱 물을 계속 먹었다. 기진맥진 내 운명이 이렇게 죽는 것인가? 야! 억울하다. 이상하게도 나는 궁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다. 별별 생각을 다하다가 나는 죽지 않겠다. 죽지 않는다. 기운을 내자. 하면서 강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몸을 띄워서 흐름에 맡겼다. 앞으로 나갈 힘은 없고 아래로 흘러 떠내려갔다. 한참만에 아래쪽 水面에 보트가 보이고 한 사람이 노를 저으며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아! 이제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그런데 보트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느라고 어찌나 더딘지, 그래도 나는 이상하게 全身에 새로운 힘이 생겨서 배를 향해서 헤엄을 쳤다. 보트에 다다르자 “우리는 살았다!” “고맙습니다” 하고 少年을 보트에 떠밀어 올리고 나는 뱃전을 잡고 끌려가서 모래위에 쓰러져버렸다. 少年은 여러 사람들이 물을 토하게 하며 법석거리다가 무사하게 되니까 내곁에 모여와서 한마디씩 떠들어댔다.

그 少年은 大田中學校 3學年生이라며 날더러 용감하다느니, 의협심이 강하다느니 하며 칭찬을 하는데 나는 그들이 미워서 쳐다 보기도 싫었다. 마음 속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주지도 않던 것들이…” 무슨 新聞社記者란 사람이 수첩을 들고 다가와서 내 身元을 물으며 한마디 해달라기에 “서울에서 온 學校教師”라고만 말하고 記事化하면 저 學生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學校에 다니느냐, 쓰지말아달라고 했더니 좀 의아(疑訝)해하다가 “과연 남다르군요. 존경합니다”라고 만하고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사이에 보트를 젓던 사람은 아무 인사도 받지 못하고 보트와 함께 어디론지 가버리고 다행히 少年은 빨리 회복되어서 내게로 와서 눈물지며 인사를 하였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에 나는 옷을 걸어입고, 그 바위위에서 담배를 물고 평온한 마음으로 꿈같은 장면이었던 강물을 바라보다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少年을 구하던 장소가 강가에서 7~80m나 되는 거리여서 4~50m정도 밖에 되지 않는 내 수영실력으로 더군다나 되돌아

을 수는 도저히 없는 거리였다. 그것을 나는 오로지 내 정신력으로 해냈다. 남들이 하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한 少年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形骸할 수 없는 희열(喜悅)을 느끼면서 숙소로 발길을 옮기다가 강물을 삼키고 난 입안과 뱃속이 찢찢하여서 거리의 포장마차에 들러 혼자서 소주로 씻어내렸다. 그러다가 취한 김에 주인에게 한바탕 사랑을 늘어놓았더니 주인은 대단히 감탄하면서 끝내 술값을 받지 않더라. 자기도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보려한다고 하면서….

거나하게 취해서 콧노래를 부르며 숙소로 돌아가다가 나는 문득 뉘우쳐지는 것이 있었다. 취하고 있었는데도 어느 佛書에서 본 구절이 떠올랐다. “아무리 善行이라도 사랑을 하면 善字가 지워진다”고, 방금 신나게 사랑을 늘어놓은 일이 갑자기 부끄러워지며 크게 후회하였다. 이튿날 거리에서 그 少年을 만났는데 매우 반가워하며 고마워했다. “방학이 되어서 누나 집에 와 있는데 만일 어제 일이 누나에게 알려지면 되게 야단을 맞고 다시는 강물에 못가게 할거요, 비밀로 해주시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며 수영도 많이 배워라” 하고, 그후 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80이 넘는 지금, 나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일을 다시 분석해 보면서 前과는 전혀 다르게 깨닫게 되었다. 그 강물의 거리가 내 실력으로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였다면 자랑할만한 일이지만 편도도 갈 수 없는 내 실력으로 해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못된다. 절대로 精神力으로만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精神力에도 한계가 있다. 精神力을 초월한 것은 神의 은총이거나 조화이다. 수영을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을 구하려고 죽음의 물에 뛰어들어 갔을까? 거리의 遠近도 생각지도 않고 한사람도 구하려 가는 사람이 없길래 내가 구해야 겠다는 맹목적이고 순간적인 발작으로 죽을 곳에 뛰어들어 갔던 것이다. 제 정신이 아닌 맹용이나 오만에 의한 자살행위였다. 그리고 그 물

이 정지되어 있는 湖水가 아니고 흐르고 있는 강물이어서 나는 도중에 지쳐서 죽었을 것이다. 또 그 少年이 매달렸으면 나는 두 번 죽었을 것이다. 만일 보트를 저어온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세 번 죽어서 오늘에 없었을 것이다. 아까운 청춘, 30代初에 나는 이미 저승으로 갔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전율이 날 지경이며 人命은 在天이란 말이 새삼 느껴져서 늦게나마 신불의 가호에 깊이 감사드린다. 역시 인간에게는 正義로운 精神力 外에도 神明의 가호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물에 빠진 철육을 구하려다가 함께 당한 사람들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구조법을 가르쳐 주신 사이토오先生이 새삼 고맙게 그리워진다.

이것도 威興高普을 다닌 덕분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내가 구해주었던 그 中學生이 지금은 66~67세의 나이로 이세상 어디에선가 살고 있으면서 가끔은 내 생각을 할 것이다. 내가 보트로 우리 두 사람을 살피준 그 恩人을 그리워하듯이…….

2004年 8月下旬 殘暑가 기승을 부리던 날

새벽 (1)

韓 時 坤 (24回)

夜三更이 깨어서 새벽이 오면
외양간 해 우에 수탉이 새벽을 울고
앞산의 장끼가 푸드덕 새벽을 난다
나그네 旅窓엔 낫설은 風情이
이 새벽 가슴에 새롭게 나를 안겨준다

不眠을 벗어나 새벽이 오면
희미한 散策길이 나를 반긴다
평심루(平心樓) 동쪽에 새벽을 웨치면
어느새 저 멀리 백운대(白雲臺)가
머리를 솟아 붉으레 동역(東域)을 밝힌다

북적이는 漁港엔 새벽이 바쁘고
떠나가는 부두(埠頭)에선 새벽 고동이
뜻사랑의 離別에 님을 울린다

새벽엔 삶이 새로 태어나고
藝術이 그리고 哲學이 그속에
잉태(孕胎)하여 새 삶의 단초(端初)를 연다

惡夢을 몽땅 날려보내는 喜悅
답콕한 옛 追憶의 설레임을 부스고
새벽은 그렇게 나를 깨운다 홀연히

새벽은 無心코 깨어난 그대에게
타고난 運命의 굴레를 새삼 깨닫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虛脫한 현실을
그저 諦念(諦念)으로 달래며 허 허허
차라리 諦念(諦念)을 깨달음으로 바꾸어
바로 그 삶을 더 곱게 마음에 담아 안자

새벽은 나에게 생을 선도해 주는
침병(尖兵)이자 반가운 同伴者
그대가 나를 깨워 讀書와 사색(思索)
그리고 새삼 늙음조차 일깨워
더 전하게 그리고 더 당차게 만장(輓章)을
꾸며 보라고 어르고 달래주니 그저
그 고마운 無限의 恩惠에
이 새벽을 우러러 읊어 봅니다.

- ‘일산신도시 중심에 낮은 산 정발산(鼎鉢山) 공원이 있는데 그 정상에 세워진 평심루(平心樓)라는 누각에 올라 동역(東域)을 바라보면 멀리 북한산(北漢山) 연봉과 삼각산(三角山)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아침 日出을 보는 壯觀이 자못 印象的이다.’

그대 모습에(2)

그대 모습에 초등학교(보통, 국민학교) 어린 시절 소녀티가 어딘가 순박한 모습으로 묻어 나옵니다.

그대 모습에 사춘기 여중생의 윤기가 어딘지 모르게 배어 있어 함부로 손대기조차 아깝습니다.

그대 모습에 아직도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던 여고시절 그 낭만과 뛰는 가슴의 고동소리 들립니다.

그대 모습에 곱고 순박했던 청순한 여교사의 모습이 살아나면서 이 가슴을 사춘기로 몰아갑니다.

그대 모습에 아직도 찌들고 시들지 않는 말랑한 새순같은 연한 색깔의 탐스러운 속 가슴이 엿보입니다.

그대 모습에 세월의 연륜에 주름 지지않은 유연한 여성의 탄력과 넉넉한 어머니의 사랑이 숨칩니다.

그대 모습에 2세를 낳아 젖주어 키운 모성의 넓고 깊은 애정이 지금 넉넉히 완숙한 어머니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 모습에 가정과 세상을 헤쳐 지나온 이야기가 저런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려 지난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대 모습에 어딘가 모르게 생활과 일에 묻히어 어느새 예까지 왔는지
자문 자답하는 허무함이 엿보입니다.

그대 모습에 이제부터라도 더 후회함이 없이 뜻을 찾아 나머지 삶을
더 여물게 엮어 나가야겠다는 결의가 읽혀 집니다.

그대 모습에 아직도 애편 여교사의 맑은 희망의 청사진이 펼쳐 질 듯
푸른 속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추억처럼 읽어 봅니다.

- '내사랑 그대의 20~30년전 그 풍만하게 완숙했던 고운 여성의 이미지를
사춘기의 한 남학생의 환상으로 그 추억을 채색해 보았습니다.'

◆◆◆◆◆ 25回 ◆◆◆◆◆

- ◎ 내 마음의 개미 아저씨/ 류재수
- ◎ 개미아저씨의 추억/ 문영희
- ◎ 흙으로 돌아가는 人生/ 劉炳敏 (25回)
- ◎ 내가 처음 본 映畵/ 劉秉千 (25回)
- ◎ 隨想三題/ 韓承五 (25回)
- ◎ 回顧短篇 “우리의 삶은 어디로”/ 吳正喜 (25回)



※내 마음의 개미 아저씨(I)

고 조재설(趙載高)님을 추모하면서...

류 재 수 (그림책 작가)

※ 글 2편은 25回 故 趙載高 同門이 42年間 근무했던 淑明女高 先生님의 그와 의 生前 및 死後의 애뜻한 情을 듬뿍 담아 보내주신 글입니다. 두 분 先生님과 淑明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一同窓會 一同 (本誌 表紙 뒷면의 꽃 寫眞은 故人의 作品임)

1980년 숙명여중 미술교사로 부임해 갔을 때, 여느 교직원들 사이에 유독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갑 쯤 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몸매에 커다란 키, 초록색 바지에 핑크빛 셔츠, 삐딱하게 눌러쓴 모자와 큰 안경테, 진한 함경도 사투리...

나는 한 눈에 평범한 분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장난기가 배어있는 거친 말투와 유난히 가는 허리 때문에 학생들과 주변에서는 '개미아저씨'로 통했으며, 그것은 친근함과 애정이 넘치는 흐릿한 별명이었고 누구나 격의 없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개미아저씨 조재설님은 40여년 세월을 학생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학교의 정경과 앨범사진을 찍어 오신 전문 사진사이자 학교 역사의 산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꽃과 더불어 꽃의 생명력과 향기를 지속적으로 사진에 담아 오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유머 넘치는 행동과 웃는 얼굴로 대해 주었기에 나는 이내 그분

과 가까워졌고, 틈만 나면 카메라를 메고 산과 들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그 한 개인의 삶 속에 배어있는 고통과 슬픔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의 고향은 함경도 북청, 부유했던 집안의 4남 2녀 중 장남이었던 아저씨는 함흥고보에 입학하면서 카메라를 선물 받고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1·4 후퇴 때 부인과 다른 가족을 모두 남겨놓고 혼자 남쪽으로 왔을 때는 어깨에 카메라 한 대만 달랑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거친 세파를 견디어 오면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셨지만, 술이 거나해졌을 때조차도 눈물 한번 보이지 않고 말을 돌리던 아저씨의 의연한 모습은 애잔함과 함께 차라리 삶의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아저씨는 밝고 유머 넘치는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저씨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아저씨의 진짜 모습을 나는 압니다.

방과 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학교에는 어둠이 깃들고 작은 방 한 칸에서는 또 다른 아저씨의 삶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화병에 꽃을 가득 채우고 이리저리 조명을 비추어 가면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영원으로 환원시키고자 온 몸으로 셔터를 눌러대며 꽃 삼매경에 빠져들던 아저씨….

희미한 불빛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뒷모습의 꾸부정한 어깨가 들먹일 때는 산만큼 거대한 고독과 우수가 움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꽃 사진에 몰입하는 모습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자신의 처절한 운명에 맞서는 조용한 혁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아저씨는 진정 사내다운 사내였습니다.

그렇게 찍혀진 사진 속의 우아한 꽃의 향기야말로 아저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삶의 애뜻함이 순화되어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가르쳐준 아저씨….

이제 아저씨는 큰 숙제를 저에게 물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추억할 적마다 눈물짓는 그런 나약한 그리움이 아니라, 진취적인 사고와 미래를 아름답게 보려는 마음이야말로 민족의 비극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자꾸만 눈물이 내려함은 참을 수가 없군요.

그렇지만 나도 아저씨가 그랬듯이, 시치미 떼고, 때로는 능청스럽게, 그리고 아저씨의 꽃사진 처럼….

언제나 웃는 모습의 아저씨로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천국에 가서 그림고 그리웠던 부인과 함께 한없는 기쁨을 누리세요.

잘 가세요. 내 마음의 개미아저씨…

※개미아저씨의 추억(II)

문 영 희 (숙명여고 미술교사)

단발머리 여학생일 때 개미아저씨와 처음 대면하였습니다.

아저씨는 키가 큰데 비하여 너무 말라서 개미허리를 연상케하는 체형

이라 별명이자 애칭인 ‘개미아저씨’로 학생들에게 불리어졌습니다.

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저씨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숙명 가족들은 아스라한 추억 속의 낡은 사진첩을 펼치듯이 추억하며 그리워합니다.

여학생 시절의 사진첩에 담겨있는 거의 모든 사진들은 개미아저씨의 작품들입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교정에서 벚들과 사진을 찍으며 우리들은 아저씨와 허물없는 대화를 많이 주고 받았고, 또 재미삼아 손금도 봐 주시며 학생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모교에 발령을 받아 아저씨와 재회를 한후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모종의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무역업을 하는 유복한 가정의 장남으로 1·4 후퇴 때 이북에서 단신으로 월남한 아저씨는 가진 것은 카메라뿐 이었고 기델 언덕 또한 카메라뿐이었습니다.

숙명과의 인연도 그 때문에 이어졌지요.

외롭고 고달픈 삶을 영위할 때 ‘신앙’이라는 포근히 기델 언덕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하여 가졌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저씨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무신앙의 꾀꿇함을 지켰지요.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듯이 임종하기 약 보름전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고, 참 평화의 기쁨을 체험하여 환희의 탄성을 지를 때의 모습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임종을 지키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중에 아름답고, 평화롭게 선종하



故 趙載高 氏.

시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 볼 수 있었음이 더 할수 없이 큰 기쁨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숙명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개미아저씨를 위해 성금을 모아 병원비와 장례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아저씨의 영구 임대아파트와 학교의 지하 작업실을 정리하며 한 사람이 머물렀던 열악한 공간과 가난하고 소박한 유품, 그리고 함께한 이웃들을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아저씨가 사용하던 모든 물품은 '노숙자를 위한 시설'에 기증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남은 경비는 마지막 머물렀던 '성가복지병원'에 기탁되었습니다.

개미아저씨가 떠나신지 100일이 훌쩍 지난 이 시점에서 그간의 일을 회상하니 감회가 새롭군요.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면서도 아저씨는 품위를 잃지않았고 타인을 탓하지 않았으며 정직하고 올곧게 삶을 잘 꾸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큰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선종하실 수 있었던가봅니다.

출퇴근할 때 아저씨가 계시던 지하공간의 계단을 지나치면 아직도 아저씨의 흔적과 체취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속에서 아저씨는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구요.

숙명은 2006년에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숙명'이라는 큰 나무에 나그네 새가 42년간을 깃들다가 천수를 다 하고 떠나간 자리는 공허롭다 못하여 적막함만을 안겨줍니다.

지면을 통하여 추억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함홍고보 동창회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남북통일의 그날이 빨리와서 함홍고보의 역사와 전통이 21세기에 연연히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흠으로 돌아가는 人生

劉 炳 敏 (25回)

우리 人生에 있어 누구나 다같이 겪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出生이요, 다른 하나는 死亡이다. 그 出生과 死亡 사이가 짧게는 三, 四十年 길게는 七十年 또는 百年까지도 된다.

그 동안에 겪는 삶의 形態는 千差萬別이다. 그러나 端的으로 말하면 財慾, 名譽慾 그리고 物慾 等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흠에 묻히는 것은 邊할 수 없는 우리의 宿運이다. 出生은 누구나 똑같이 겪는 일이고 死亡은 사람마다 그 樣狀이 다르다.

나도 五十, 六十세가 넘어서면서 周邊의 죽는 사람들을 많이 目擊하게 되었다. 社會에서 내로라고 큰 감투도 쓰고 돈도 제법 많이 모았다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굉장하고 시끌벅적하다. 첫째 그 집 앞에는 꽃다발이 4, 5十個나 줄을 서고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는 며칠 後면 山에 묻히는데 그 行事 節次도 요란스럽다.

그 다음에는 이 社會에서 그럭저럭 살다 간 죽음에는 꽃다발이 여남은 개 程度가 줄을 선다. 山에 가 흠에 묻히기는 위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맨 나중에 든 사람, 즉 죽지 못해서 살다 간 사람들의 주검 앞에는 한떨기 꽃도 問喪 오는 사람의 그림자도 드물고 簡素한 埋葬이나 火葬을 치르면 그만이다.

이렇듯 삶의 質이야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어가는 宿

命앞에 새삼 肅然해진다. 그 많은 數十個의 花環들은 果然 무엇을 意味하며 거기에 보란 듯이 적힌 이름들… 大統領에서 長官 그리고 이 社會에서 綺羅星같은 面靨들… 勿論 故人의 生前에 남긴 業績이나 名譽를 기리는 哀悼의 情이겠지만 그 애뜻한 哀情의 表徵인 ‘꽃다발’의 末路는 果然 어떠한가? 生氣를 잃은 꽃다발은 단숨에 쓰레기로 變하고 그 뒤치다꺼리에 못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게 된다. 돈으로 따지면 數百 數千萬圓 보통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巨額이다. 죽은 이야 아무것도 모를 것인데 말이다. 내 周邊에서 喪故를 當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남은 遺族들을 찾아보고 哀悼의 뜻을 表하고 慰勞를 傳함이 아닐까?

그리고 數百 數千萬원이나 되는 弔慰金은 亡者에게 무슨 所用인가? 좋게 말하면 喪을 當한 집에 葬事에 보태라는 뜻이 그 본디의 뜻일 것이다.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은 따로 그 어떤 意味와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리고 이름 없는 어떤 家庭의 할머니가 죽었는데 꽃다발을 보낸 곳은 할머니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 할머니의 子息들과 關係가 있는 企業體나 商店 따위의 이름들이다. 그 꽃다발이 죽은 할머니에게 무슨 所用이겠는가? 그것도 또한 숨은 뜻이 환히 드러다 보인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 꽃다발의 末路도 비참하다.

그리고 故人이 宗教의 信者라면 天堂이든 極樂이든 좋은 곳에 가서 그의 永生을 빌어 주면 된다.

그리고 아무런 꽃다발도 問喪客도 없이 허전한 죽음의 喪家도 時間이 가고 歲月이 지나면 그렇게 화려하게 葬事를 치른 집과 별로 다르게 없다.

우리는 自身이 죽은 뒤 어떻게 葬事를 치를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一家에게만 알리고 꽃다발이니 弔慰金이니 할 것 없
이 一切 謝絶하고 조용하게 火葬을 하여 江 아닌 山에다 뺏가루를 뿌려
주면 그것으로 足하고 고마운 일이다.

죽은 뒤에 내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天地는 逆旅요, 人生은 光陰타고

지나가는 나그네라. 무슨 路資가

그리 必要하겠는가?

空手來 空手去라네….

내가 처음 본 映畵

劉 秉 千 (25回)

내가 함흥 제일보통학교를 거쳐 함흥고보에 들어간게 1938년, 그 무렵 함흥에는 동명, 진사관(마사고깡), 명보라는 극장이 셋이나 있어 우리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구경을 갔다. 그밖에 옛 신사마당에서 공짜로 본 영화까지 합하면 우리 것, 일본 것, 서양 것 통틀어 여남은 편은 족히 되리라. 어떤 영화를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는 워낙 까마득한 옛날일이라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난생처음으로 본 활동사진—그 시절만해도 영화를 그렇게 불렀다—만은 단편적이거나 내 기억에 남아있다. 보통학교 상급반 때 진사관에서 보았던 서양영화, 놀랍게도 과학공상영화 '백만년후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제목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지구인과 외계인사이에 버어진 일대결전인데 마스크를 쓰고 서로 로켓을 쏘아대는 이 활동사진을 보고나선 나는 한동안 가위에 시달려야 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나는 이 영화의 즐거리가 궁금해 보통학교동기들이나 중학동기들과 만나면 이 영화를 보았느냐는 묻기 시작했다. 그럴때마다 다들 그런 일 없다고 잡아뭉뻔더러 아예 나의 상상아니냐고 빈정댔다. 기가 막히고 억울했으나 나는 그런가 싶어 다수의견을 받아드릴수 밖

에 없었다.

그러는 터에 26기의 오병헌 형과 한정섭 형이 이 영화를 진서관에서 보았다고 선뜻 나서지않는가.

다만 그 제목이 「백만년후의 세계」가 아니라 오형은 「오만년후의 세계」 또는 「오백년후의 세계」, 한형은 「오십년후의 세계」라고 우겼다. 어쨌든 뜻밖의 증인들과 나는 어찌나 반갑고도 고마운지 몰랐다.

그들의 증언에 힘을 얻어 나는 또다시 확인하려 나섰다. 우선 미국대 학동료로 대학공상영화 전문가인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그런 이름의 영화가 컴퓨터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다음에는 초점을 좁혀 일본문화원을 찾아갔다. 1930년대 후반의 일본영화연감에서 수입외화리스트를 훑어보아도 그런 영화는커녕 비슷한 이름 또한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한국영화자료원에 문의해 보았다. 8·15 해방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영화에 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대답이었다.

하기야 그무렵 함흥신문의 영화안내와 광고를 뒤져보는 것이 가장 손쉽고 확실한 일이지는 하다만 지금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여러 동창의 도움으로 나의 답답증이랄까 나의 부질없는 집념을 푸는 길밖에 없는성 싶다. 이 영화의 이름과 줄거리를 바로 잡기만 하면 언젠가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隨想三題

韓承五 (25回)

I. 閑居

水枝洞天居閑處
散慮逍遙心如紵
山頭臥月半輪秋
白雲游曳何處去

물 좋고 숲이 좋아
'水枝' *에 자리를 잡고
한가로이 自然을 거닐면
마음은 개어 '모시' 와도 같구나
산 머리엔 반달이 비스듬이 누워
졸고 있는데
흰 구름은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

* 경기도 용인시 수지(水枝)읍(地名).

II. 발자국—故友 盧庚昞 醫博을 그리며

靑龍도 白虎도 곤히 잠들고
山까지 울고 간 고즈넉한 뒷자락에
어느 님이 남기고 간 발자국 하나
그대 남긴 그 큰 발자국인가
어쩌면 훗날 내가 남길
그것일지도 모를 저 발자국



故 盧庚昞 同門의 살아온 그 모습.

긴 歲月 삶이 무게에
푸욱 파인 그 얼굴에
간 밤에 내린 빗물이 오롯이 고여
파아란 하늘 품어 안고
흰 구름 고이 띄워 微笑 짓는다

가신 님의 넋인가 개미 한 마리
몸사려 나와 몸 고이 씻고
하늘을 尙해 두 손을 모은다
그리곤 어디론가 사라진다
山새도 나비도 말없이 왔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곤 훌쩍 가버린다
와도 말이 없고 가도 말이 없다

이윽고 바람이 소울 불어와
노오란 햇살과 落葉을 쓸어 모아
님이 떠난 자리를 소복히 덮는다

다람쥐 한 마리 쪼로록 나와
그 위를 쏜살같이 지나간다

님이 떠난 텅 빈 자리
太陽도 말이 없고
大地도 입을 다물었다
生도 하나 死도 하나
쫓도 그리고 色도 하나
世上 온갖 것이 모두 하나다

그대의 그 微笑도 그리고
나의 이 목소리도
모두 하나다
모두 모두 하나다

— 2004년 늦가을 어느날 —

III. 臨津吟

臨津遠上白雲間 一片孤月千疊山
江山若無南北塞 血肉應免別離恨
首丘初心半百年 秋夜長夢徘徊雲邊
何時得聽楊柳笛 春光未到凍土關

臨津江에서…

臨津江水 멀리 굽이져
흰 구름에 닿았는데
한 조각 반달이 둘러선 山머리에
외로이 떠 있구나
이 江山에 만일 저 斷腸의 域
南北의 要塞가 없었다면
血肉의 피맺힌 相別의 恨은
없었을 것을

望鄉의 恨 안고
他關살이 於焉 半百年
가을 밤 지나긴 꿈은
저 구름가에 서성이는데
그 언제나 그리운 故鄉의
버들피리소리 들어나볼까…
아니야! 저 얼어 막힌 그 땅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네…

2004년 늦가을에



여성의 건강,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내 집같이 편안한 병원, 올바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Serving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Women



병원내에 설치된 故 노경병동창(25회)의 흉상 제막식에 찾아간 세동창을 환영하는 장남 노성일 이사장 (2004.12.4.)

이 사 장 노 성 일
병 원 장 정 규 병

◆강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4
TEL : (02)2007-1000

◆강남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1-4
TEL : (02)3647-3814

回顧短篇 ‘우리의 쌀은 어디로’

吳 正 喜 (25回)

8.15 解放은 우리민족에게 더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들은 咸興에서 소련군이 내려올 때에 깃발을 흔들면서 그들을 救世軍으로 歡迎했다. 나는 그때 咸興 醫科大學의 第二學年에 있었는데 歷史가 짧은 學校라서 우리가 最上級學年이었다.

時間이 지나가면서 그 소련 ‘구세군’은 蠻行軍으로 變身하여 이곳저곳에서 暴行을 저지르기 始作했다. 同時에 共產黨 執權者들은 獨裁政治體制를 펼치고 소련을 祖國이라고 외치며 金日成을 元帥라고 부르고 스탈린을 大元帥라고 부르기 始作했다. 日帝의 억압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自治와 民主的生活의 맛을 좀 보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억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侮辱(모욕)이었다.

한편 우리 國民의 生活은 점차로 困難하게 되어가는 形便이었는데 1946年初에 와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所聞은 소련軍이 우리쌀을 실어간다는 것이다. 蠻行軍은 이제와서 盜賊軍의 役割까지 兼하게 된 셈이다. 學校의 門은 그대로 열려 있었으나 한두사람의 學生들이 밥을 굶고 登校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始作했다.

그해 三月初 어느날 아침에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教授 한 분이 朝飯을 굶고 出勤했다는 말에 學生들의 憤怒가 갑자기 커졌다. 그 當時 學生會長이었던 나는 特別한 案은 없었지만 學生들의 霧圍氣를 收拾키 爲하여 緊急總會를 召集했다.

내가 堂上에서 開會를 宣稱하자마자 學生의 한사람(韓某)이 불쑥 일어서서 ‘데모를 합시다’ 라고 提唱을 하게되니 百余名의 全校生이 아우성을 치면서 呼應하지 않는가!

反對의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좋소. 합시다. 한사람도 빠지면 안됩니다”라고 한마디 한 다음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였다. 순식간에 데모의 준비가 되었다. ‘우리의 쌀은 어디로’ 라는 슬로건이 플래카드에 쓰여졌고, 수백 장의 비라도 작성되었다. 삐라의 내용은 ‘우리가 굶고 있는데 우리쌀을 뺏아 가는 자는 누구냐’ 라는 것이었다.

학교 교정에서 맺은 우리 대열은 큰길로 나와서 ‘우리의 쌀은 어디로’ 를 외치며 삐라를 뿌리면서 행진을 했다. 우리들의 뜻을 알아차린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獨裁政治下에서는 想像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길에서 만난 保安隊員들은 어쩔줄 모르고 보고만 있었다. 우리 대열은 몇몇 큰길을 지나서 道廳에 이르러서 廳舍를 한바퀴 도는동안 창문을 내다보던 많은 職員들이 拍手로 呼應해 주었다. 우리는 道廳 앞마당에 멈추고 ‘우리의 쌀은 어디로’ 를 외치니 文敎部長과 保安部長이 나와서 우리하고 마주치게 되었다. 文敎部長이 처음 한마디 했는데 그 요지는 잘 記憶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保安部長은 “당신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중에 있을 것ियो”라고 경고를 한마디 하였다. 우리 대열 속에서 욕설이 나오기 始作하는 것을 나는 막고 데모를 끝마칠 것을 선언했다. 이 현장에서는 체포가 없었다.

며칠 후에 男子中學生 한 사람이 나를 집에 찾아왔다. 그는 市內全體 男女中學校가 데모를 計劃하고 있으니 그들이 뿌릴 삐라의 문구를 써달라는 要求였다. 나는 그들의 데모 計劃에 贊反을 表示할 수는 없고 삐라의 문장은 우리가 며칠 전에 뿌린 것을 참고로 쓰라고 하고 끝을 맺었다. 다음날에는 全體 男女中學生들의 데모가 威興 市內를 振動시켰다.

保安隊는 이들의 行進을 銃으로 막았다. 不幸하게도 南中學生 한사람이 그 銃彈으로 犧牲을 當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3月10日) 새벽에 保安隊 직원 몇이 나를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트럭 뒤에 타고 保安部로 끌려가서 몇시간 동안 취조 문답을 받았다. 그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學生 데모 背後에 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음 옮겨간 곳은 咸興刑務所였다. 하루밤을 떨면서 새우고 나서 中學生 代表 여러 명이 잡혀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우리 醫科大學의 데모를 提唱한 그 친구(韓某)는 잡혀온 기색이 없었다.

형무소에 들어간 後에는 소련軍 조사관의 취조문답이 몇 번 있었는데, 그들의 속을 推測할 수는 없었다. 식사는 하루 세 번 받았는데, 하루는 점심 상에 생 靑魚가 놓여 있었다. 배는 고프지만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창문 턱에 던져 놓았더니, 일주일 동안 쪼인 햇빛으로 그 生鮮이 익어졌다. 그 고기 맛은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3個月 가까이 지나더니 아무 豫告도 없이 한사람 두사람씩 석방되기 시작했다. 내 차례도 올 것인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들어간지 꼭 100일이 되는 6月20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몇사람 중에 끼어서 刑務所에서 檢察廳으로 옮겨갔다. 檢察廳長이 하는말이 “당신네들은 자칫하면 西伯利亞로 갈 번 했오” 였다.

나는 이듬해(1947年) 여름에 親友 權宅淵同門(前 高麗大學校 理科大學長)과 함께 黃海道 海邊을 거쳐서 越南하였다.

◆◆◆◆◆ 26回 ◆◆◆◆◆

- ◎ 연천봉/ 韓荃淑 (26回)
- ◎ 내 乘馬人生과 南中/ 李三悅 (26回)
- ◎ “알츠하이머, 이런 기막힌 방법이 있다” (1)/ 孫陽鳳 (26回)
“Losing Weight” 체중을 줄인다. (2)
- ◎ 노인이 愛國하는 일상생활, 그 세가지 방법(1)/ 石東壽(26回)
우리 동창들 봄날의 꽃놀이를 가다 (2)
미야께(三宅)校長을 말한다. (3)



연천봉

韓 荃 淑 (26回)

1.

나는 지난 여름 계룡산에 있는 갑사(甲寺)의 대자암(大慈庵)에서 여름 안거(安居)에 참여하였다. 여기 선방(禪房)은 시방당(十方堂)이라는 현관을 달고 있다. 그 속에 내 좌복(방석)은 앞줄 제일 오른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그 오른쪽은 벽이고 앞쪽도 벽이지만 앞엔 조금 높은 곳에 창문이 달려 있다.

‘두 다리로 가부좌를 틀고 허리를 쭉 펴고 두 어깨를 확 뒤로 젖히고 턱을 앞으로 댕기고 눈을 반 쫂 뜨고 1미터 70쫂 앞 방바닥을 본다.’ 이것이 좌선 때의 정상적인 자세이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면 저 창문은 나에게선 선방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바람 통구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나는 키도 크고 좌고도 높아서 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만 위로 젖히면 창문의 대부분이 시야에 들어온다.

시작의 죽비(竹屨)가 울려 좌선수련이 시작되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선방에 모인 30명을 넘는 선남선녀들은 모든 잡념을 떨쳐버리고 제각기 정신집중에 몰두한다. 그러나 나는 대개의 경우 몰래 훑쳐보는 저 창문 밖으로 오만가지 망상에 빨려 들

어간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정말이지 하루 여덟 시간씩 참선한다는 것, 이것을 석달이나 계속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78세의 노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별로 깊이 생각해본 바도 없이 무작정 안거에 덤벼든 나에게 이 창문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도반(道伴)이었다. 이 창문이 있었기에 나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안거를 큰 탈 없이 견뎌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2.

창문은 두 폭 짜리 낮은 병풍형의 네모꼴이다. 창호지로 도배한 미닫이가 제일 안에 있고 다음엔 방충망, 그리고 그 밖엔 역시 잘 도배된 덧문이 있다. 안거가 시작하는 무렵은 장마 때이기도 하여 밤이나 새벽에는 추워서 미닫이를 절반이나 전부 닫기도 한다. 그러나 삼복(三伏)에 접어들면서 미닫이는 아예 떼어서 바닥에 내려놓으니 방충망이 전면으로 나온다. 그러면 창문 전체를 통하여 바깥을 내다볼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한 폭의 동양화다.

화폭의 왼쪽 하반부엔 이 선방의 앞뜰 끝자락에 있는 밤나무와 은행나무 가지들이 쭈뼛 올라와서 화면의 전경(前景)을 이룬다. 그 뒤에 깊은 계곡을 넘어 저 멀리엔 연천봉을 비롯한 높은 산 능선이 화면 중앙을 좌우로 뻗어 원경(遠景)을 이룬다.(이 능선을 왼쪽으로 따라가면 문필봉, 관음봉 그리고 금잔디 고개 등등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모두 감나무 등 전경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 능선 뒤로 하늘이 펼쳐진다. 그러나 화면의 왼쪽 상반부와 오른쪽 대부분은 하늘이 차지하고 있다. 동양화의 매력은 여백의 미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 화폭의 특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개를 조금 더 위로 쫓히면 이 선방 지붕의, 단청(丹靑)으로 장식된 처마 끝과 또 그 위에 암기와의 끝이 화폭의 맨 윗자락 전

체를 예쁘게 장식하고 있다. 참 재미있는 그림이다. 이 뒷자락은 감나무에서 시작하는 화면 속의 저 풍경이 내가 지금 여기 선방에 앉아서 내다 보고 있는 풍경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어떻든 이런 하드웨어를 배경으로 하고 구름과 안개, 비와 바람 등등 소프트웨어가 문자 그대로 제멋대로 조화(造化)를 부린다. 여기에 나의 상상의 날개까지 가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뉘라서 이 조화(造化)의 묘약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50분간의 수련이 끝나고 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죽비가 울리면 그 동안 굳었던 몸을 풀기 위해서 모두들 양손 각지 끼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고개를 마음껏 뒤로 젖히면서 기지개를 켜는데 나만은 반대다. 고개를 아래로 가슴에 깊이 파묻으면서 몸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시간 내내 눈 위 저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안거에서는 보통 새벽 4시~6시, 오전 8시~10시, 오후 2시~4시, 그리고 저녁 7시~9시, 이렇게 하루에 8시간씩 참선하게 된다. 매일 가부좌를 틀고 8시간씩 앉아 있어야 하니 다리가 몹시 혹사당한다. 그래서 안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리를 정상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매일 일정량 이상의 보행(步行)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여기 대자암은 약간 높은데 위치하고 있어서(해발 350미터 정도) 보행에 적합한 적당한 길이의 평탄한 길이 너무도 없다. 경내는 좁고 주위의 길은 모두 경사가 심하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보행은 해야한다. 나는 오전 참선이 10시에 끝나면 갑사(甲寺)를 다녀온다. 내려가는 데 20분가량, 올라오는 데 30~40분 걸린다. 오르막길은, 특히 암에 가까이 오면 경사가 너무도 심하다. 그래도 처음엔 한 번만 쉬고 올라왔다. 그런데 끝날 무렵엔 너덧 번 쉬어야만 했

다. 그래도 숨을 헐떡이면서 세면장에 들어가 샤워하고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옆방 김 처사는 같은 시각에 연천봉에 다녀온다. 그는 65세인데 산행을 할 때 입을 열지 않고 또 쉬는 법이 없단다. 보통 장정들이 한 시간 반을 잡아야 한다는 연천봉 코스를 그는 1시간 10분에 다녀온다. 그런데 나는 이 연천봉에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봤다. 돌계단이 가파르게 이어진단다. 대자암에 올라오는 요 오르막길도 매일 같이 그렇게 힘드는데 해발 740미터의 저 고지에 어떻게? 그런데 내 주위엔 연천봉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다들 몇 번씩 다녀왔고 또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훌쩍 다녀온단다. 그것이 썸이 나서였을까? 아무튼 내 마음 한구석에서 한 번 시도(試圖)라도 해보자, 올라가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정상까지 가야만 맛이냐? 이런 생각이 슬며시 떠오른 모양이다. 내 마음 속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목욕날(음력 9, 19, 29일은 목욕기는 날, 자유정진의 날로 낮동안 참선은 각자 형편에 따름) 오전에 아무도 몰래 조용히 시도해보기로 작정이 되어있었다. 아무도 몰래다.

4.

연천봉 올라가는 길, 나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잘 다듬어진 층층대 돌길이 계속 이어진다. 처음엔 숲속의 오솔길이었겠지. 그걸 사람들이 근처에 많은 돌을 챙겨서 이렇게 넓고 훌륭한 돌길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아무리 큰 폭우가 와도 길이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나? 길은 몇 번씩 개울을 건너면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나는 결코 서들지 않았다. 중간에서 정 안되면 도로 내려오겠다던 생각은

어느덧 없어졌다. 적당한 거리에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그런대로 적절하게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다.

그런데 자꾸 가다보니 이 길은 나에게 전혀 생소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곳은 돌길이 필요 이상으로 넓었다. 그전에 걸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 이 길은 그전에 언젠가 걸었던 길이다.

대학 재임시절 나는 여름과 겨울 방학 때마다 학생들과 같이 산엘 다녔다. 이 산행을 주선하고 리드한 학생이 김상현 군인데 그가 청주 출신이었다. 그래서인지 계룡산 일대가 우리의 산행코스로 선정되는 일이 꽤 자주 있었다. 내 머리는 연천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몸은 이 산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 길을 최소한 두 번은 걸었다. 그 중 한 번은 눈이 몹시도 깊었다. 어느 골짜기의 어느 봉우린지, 학생들은 벌써 다 올라가서 “이 쪽이요, 이 쪽!” 하면서 뒤늦게 올라오는 나를 인도한다. 다 올라가서 한 발짝만 남겨놓고 학생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미끄러져 내려가서 온몸에 눈을 담뱃 뒤집어쓰고서야 겨우 꼭대기 바위로 올라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어느새 저 위에 나무 잎 사이로 능선이 보인다. 이쯤부터 갑자기 경사가 급해진다. 길은 더 꼬부랑 꼬부랑 돌아간다. 그러면서 능선에 다 닿은 것 같은데 또 더 올라가곤 하기를 몇번이나 거듭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다.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하늘이 보이는 능선 위에 올라왔다. ‘연천봉 고개’(해발 684m)라는 풋말이 보인다. 아, 이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그렇다. 갑사에서 동학사로 넘어갈 때는 이 고개를 넘어가면 되지만 연천봉 정상으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더 올라가야 한다. 나는 잠시 숨

을 고르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향하였다. 조금 오르니 넓은 광장과 확 트인 하늘이 나타났다. 헬기 비행장이다. 그전에는 없었던 곳이다. 정상은 저만치 더 올라간다. 그래, 올라가자. 그런데 이때 내 왼쪽 다리 허벅지가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그리고 또 장단지도 좀 이상하다. 이게 웬 일이나? 물론 이제까지도 조금은 늘 있었던 증상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약간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약 7, 8개월 전에 왼쪽 발뒤꿈치가 땡겨서 크게 혼이 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우리 집의 이삿날이었다. 저녁이 되어 일꾼들도 다 가고 이제 늙은 우리 부부의 뒷마무리만 남았다. 그런데 아내가 얼른 두부 한 모사왔으면 좋겠단다. “아, 그거야(쉬운 일이지)” 하며 나는 얼른 슈퍼에 가서 두부를 사왔다. 슈퍼는 200미터도 안 되는 가까운 데 있다. 슈퍼에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왼발 뒤꿈치가 빠끈해졌다. 땡긴다.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나는 피곤해서 그러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게 웬일이나, 왼쪽다리 전체를 못쓰게 되었다. 나는 갑자기 절름발이 되었다. 그후 여러 가지로 치료를 해 보았지만 좀처럼 낫질 않았다. 한 달은 보행을 전혀 못했다. 두 달이 지나서야 절름발이 신세를 면했다. 그러나 좀 빨리 걸거나 오르막길을 걷는 것은 석달이 지나서도 힘들었다. 나는 그 때 두부 집에서 돌아 올 때 속도만 좀 늦춰어도 그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후회를 몇 번 했는지 모른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헬기장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망설였던 것이다.

정상은 바로 저기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똑똑히 보일 정도다. 5분도 안 걸리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올라갔다가 지난 번 두부 살 때처럼 일이 크게 번지며 어떻게 하나 싶었다. 아니다. 참아야 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나는 결국 방향을 돌렸다.

5.

돌아오는 길은 그런대로 편했다. 그러나 내리막길은 노인들에게는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어서 반갑지 않다. 천천히 내려왔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긴가? 내가 아까 이렇게 긴 오르막길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싶을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한시간이 다 걸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1시간 10분이면 다녀온다는 길을 나는 2시간 반이나 걸린거다.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나는 해냈다. 나는 연천봉에 올라갔다 온 것이다. 처음엔 엄두도 못 낸 코스였다. 정말 나 자신 이번 안거 동안에 한 번이라도 시도해볼까?—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터였다. 그것을 해낸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렸다. 그러나 시간은 점차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올라갈 때 나는 두 군데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 그래서 탄탄대로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곤 하였다. 이런 셋길 실수만 없어도 20분쯤은 단축될 것이다. 나는 신이 났다. 자랑하고 싶어졌다. 이 나이에 나는 연천봉을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면 “아이구, 대단 하시군요”라는 칭찬이 되돌아 올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첫 마디가 “정상을요?”이다. 거기 지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럼요. 정상이지요” 이렇게 되받아야 할 텐데 그게 안된다. 나는 정상까지 가지 못했으니까. “아, 헬기장까지 갔으면 정상을 밟은 거나 다름없지요” 이렇게 변명을 달 것인가? 아니다. 정상을 밟지 못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랑할 마음이 짝 가서 버렸다. 오히려 없던 일로 치는 쪽이 낫지 않을까?

다른 한편 헬기장에서 그냥 되돌아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 다음 날

오전 보행을 해 보니 왼쪽다리 허벅지나 장단지가 땡기는 것이 그 전보다 심해지지도 않고 그만그만하다. 그리고 보니 어제 무리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 같기도 하다. 만일에 정상까지 올라갔었다면 오늘 아침부터 왼쪽 다리 통증이 아주 심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강행했어도 오늘 같은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이 때는 괜히 안 올라간 것이 된다. 올라가지 않길 잘 한거나, 올라갔어도 괜찮은 걸 괜히 겁먹고 안 올라간 것인가,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지금 70대는 물론 50대까지의 한국인은 대부분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자라났다. 공자 가르침의 핵심은 중용(中庸) 사상이다. 중용이란 어느 한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중간을 말한다. 이것은 물론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경우에 꼭 들어맞는다는 의미에서의 기울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것이, 어느 정도가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꼭들어맞는다' 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6.

재도전 : 이치야 어떻든 나에게 있어서 연천봉 등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은근히 재도전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목욕날을 몰래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8월 14일) 아침 공양을 마치고 등산복으로 갈아 입을 때까지도 연천봉에 다시 도전하느냐 아니면 갑사 쪽 보행으로 대신하느냐 반반이었다. 그러다가 왼쪽 다리가 빠근한 것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 갑사 보행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러길 참 잘 했다는 것이 곧 실증되었다. 돌아오는 오르막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다. 천천히 걸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왼쪽 다리 장단지가 빠근해 오고 위 허벅지에 긴장감이 돌더니 무릎 안쪽까지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만일에 연천봉 쪽으로 갔더라면 30분도 못 올라가서 되돌아왔을 것이다. 참으로 안가기

를 잘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결코 연천봉 재도전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8월 24일, 마지막 목욕날에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굳혀져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몰래 조용히 한다. 이번 몸 상황은 처음 때보다 훨씬 좋지 못하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간다. 쉬면서 올라간다. 그러나 20분도 못되어 벌써 왼쪽 다리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다. 왼발의 보폭이 점점 줄어들더니 왼발을 오른발보다 더 앞으로 내디디지 못한다. 결국 오른발이 왼발을 끌고 가는 격(格)이 된다. 이쯤되면 몸무게 전체가 오른발 하나에만 의지하게 된다. 이걸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자연 쉬는 시간이 잦아지고 길어진다. 그런데도 이만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생각이 요만치도 나지 않는다. 드디어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길에 이른다. 크고 작은 갈짓자(之) 형 길이 때로는 납작하게 때로는 길쭉하게 몇 번씩이나 되풀이 되고서야 겨우 연천봉 고개에 다다른다. 여기까지 1시간 반 걸렸다. 첫번째 때는 두 군데서 셋길로 잘못 빠졌었다. 그때와 똑같이 걸린 것이다. 다시 정상으로 올라간다. 헬기장을 거쳐 진짜 정상 바윗돌 위로 올라가니 정말 전망이 좋다. 해발 740미터. 여기까지 소요시간 1시간 40분. 저 발 아래 연천봉 고개를 숨 같은 구름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넘어가고 있다.

내려오는 길도 천천히 걷는다. 특히 무릎 관절을 조심하면서, 너무 천천히 내려왔는가. 1시간 10분 걸렸다. 저번보다 10분 더 걸린거다. 재도전은 이렇게 시간도 더 걸리고 힘도 더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는 결국 재도전에 성공했다. 연천봉 정상을 밟은 것이다. 이제 누구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연천봉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올라갈 때 너무 오른쪽 다리만 혹사한 것이 무슨 후유증을 낳지나 않을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그 날 오후에 약간 무리를 하면서 시내 목욕

탕에 가서 열탕에 폭 몸을 담그고 왔다. 그래서인가. 다음 날 보행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특별히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재도전에서 오른발을 혹사한데 대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열흘 전 재도전 결행을 포기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내 몸을 쓰는데 대한 중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7.

돌이켜 보면 애초에 재도전한 것은 몸 상태의 호전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몸 상태 등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으로는 재도전은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나는 인정했었다. 이것은 첫번째 도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는 두번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심히 굳어져갔고 결국 조용히 결행으로 옮겨진 것이다. 무엇이 나를 이런 은밀한 결심과 조용한 결행으로 몰고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슬그머니 뱀이 나서”라는 대답이 정답 중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뱀이 나서’는 ‘화가 나서’라는 뜻의 함경도 사투리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났단 말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이다. 나이를 내세우거나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쭈시고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가면서 나를 시험하려는 나의 모험을 피하려는 나약한 내가 싫어서인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전에는 높은 산 능선을 보면 무턱대고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생겼었는데 요새는 안 그렇다. 여기 대자암에 와서도 첫눈에 들어오는 저 연천봉 능선을 대하고서도 ‘난 저런데 올라가지 못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었지 않느냐? 여러 데이터를 수집 나열해 놓고 이리저리 따져보는 식의 이른바 과학적 태도, 그 속에는 사실인즉 문명의 편안함 속에 안주하려는 허약한, 그 무엇에 의존하려는 비겁하고 나약한 심정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 나약한 심정은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친구 의사들이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는 말 “나이를 잊지 말라, 절대로 무

리하지 말라.”라는 경구에 고무되어 항상 나의 전부를 점령하려고 한다. 사실 나이가 들면 만사를 조심해야 한다. 한 번의 부주의가 불치의 골절이나 입원에까지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심만 하고 있으면 실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안하고 넘어가는 법. 이런 일이 거듭되면 결국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이다. 생활의 지혜, 중용은 정말 깊은 사료를 요구한다.

2004년 9월

내 乘馬人生과 南中

李 三 悅 (26回)

교직에서도 물러나고 이곳저곳 관계하던 단체들의 일들도 끝내고 보니 이제는 도대체 내게 남은 일이 무엇인가 싶다.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 어떤 친지로부터 “요즘은 무엇으로 소일하시오?”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이 궁하였던 기억이 난다. 글썸다, 굳이 대답한다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뛰고 있지요”라고나 할까. 좌우간 요즘 내 생활의 상당부분을 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내 운동 종목은 다양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다. 남들이 별로 하지 않는 乘馬를 하니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고 요즘도 주에 세 번은 테니스를,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골프도 치니 다양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소시 때는 배구도 즐겼고 탁구도 쳤다. 한 때는 축구부원으로 코치도 받았고 소학교 때는 야구선수 노릇도 하여보았다. 다양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글썸다, 乘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급이라고나 할까. 요즘도 매일 아침(월요일은 말이 쉬는 날이라 제외) 馬場에 나가니 조금은 극성맞은 내 乘馬人生이다.

나는 흔히 이런 질문을 받고는 한다. “乘馬경력이 몇 년이나 되었느냐?” “乘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나?” 등. 그럴 때마다 나는 내 南中 시절을 떠올리고는 한다. 南中 3학년 때 시작하였으니 즐겁아도 乘馬 경력 60년은 넘었고 시작한 동기 또한 南中에 騎道部가 생겼기 때문이었으니 내 乘馬人生과 南中은 不可分의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南中

에 다녔다는 것이 몹시 자랑스럽다.

南中の 騎道部를 회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두 분 있다. 한 분은 金明學박사고 또 한 분은 三宅교장이다. 金박사는 소문난 乘馬人이요, 당시 모교의 동창 회장이었다. 三宅교장은 橫田교장의 뒤를 이어 1940년경 부임한 분으로 후에 알고 보니 굉장한 愛馬家였다. 두 분은 雲興里에 있는 威興乘馬俱樂部에서 승마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아마도 南中 騎道部の 육성방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던 것 같다.

일본은 1924년 LA올림픽 때 西中尉가 장애물경기에서 우승할 정도로 乘馬強國이었지만 그것은 일부 군벌들 간의 이야기지 일반 사회인이 승마를 한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식민지에 나와 있는 일개 지방 중학교 교장이 승마를 한다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三宅교장은 그 풍모에서부터 범상한 인물은 아니었다. <사진1>에 보듯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비만형이었고 출신학교 또한 귀족들이나 다니는 學習



三宅 교장, 그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院大學출신이었다. 어떤 연유로 이런 거물급 교장이 南中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오자마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위선 인사가 달라졌다. 전임 橫田교장은 廣島高師출신이라 그 밑에는 그 학교 출신들만 몰려 있었다. 石川이 그랬고 鹽崎가 그랬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三宅교장의 부임과 전후하여 이들이 모두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새로 揚仁性같은 東京高師출신이나 潘 같은 帝國大學출신

들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굉장한 변혁이었다. 전통적으로 廣島高師 출신들은 라이벌인 東京高師 출신들을 기피하였다. 기피하였다기 보다는 조선 같은 식민지에는 잘 오지도 않았다. 그런 당당한 東京高師출신 楊仁性같은 분은 스스로 교향을 찾아 함흥에 와 있었으나 橫田교장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조선인이라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三宅교장은 달랐다. 자기 소신대로 이웃 永生中學에 근무하던 그를 과감히 스카우트 하여 왔던 것이다.

三宅교장의 비범함은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었으나 결정타는 8.15 해방 때였다. 다른 일본인 교사들은 일본이 항복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때 三宅교장만은 미리 알고 8·15 직전 전 가족을 이끌고 일본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일설에 장남이 공군장교라 정보가 빨랐다고도 하였다. 좌우간 나는 그의 관사 가까이에 살았기에 8·15 다음 날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는 이미 이삿짐까지 몽땅 챙겨서 떠나버리고 만 후였다.

南中에 騎道部가 생겼을 때도 그의 비범한 처신은 놀랍기만 하였다. 일제 말엽은 군인 전성시대였다. 지나가는 기차도 군인이 손을 들면 멈추던 시대다. 실제로 白井少尉가 어느 때 退潮역에서인가 발차시간에 늦어서 이미 떠나버린 기차를 보고 손을 흔들었더니 달리던 기차가 서더라고 어느 일본인 교사가 감탄하곤 하였었다. 少尉만 되어도 그 정도의 위세를 부리던 시대에 육군 대좌 74연대장이 三宅교장의 청을 받고는 꿈쩍도 못하고 군마 4匹을 기증하여 왔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는 무기고 옆에 馬廄를 짓고 이것을 사육하곤 하였다. 무슨 예산으로 또는 무슨 명분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간 그에게는 단단한 백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였다.

1940년이라면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 전 해다. 이 때쯤부터 日帝는 학교의 모든 球技部를 없애고 대신 수류탄 던지기나 총검술 같은 전쟁놀이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원래 축구부였지만 더 이상 공은

찰 수 없고 무엇인가 딴 것을 골라야할 판이었는데 마음 내키는 것이 없었다. 그러던 참에 뒤 늦게 騎道部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선뜻 나서지 못하는 판에 나는 용감히 지원서를 냈었다.

내가 과감히 騎道部에 뛰어든 데는 우리 집 宅珪형의 영향이 컸었다. 그는 당시 東京農大 재학 중이었는데 굉장한 乘馬狂이었다. 모교의 선수였을 뿐 아니라 關東지방 전체의 대표선수이기도 하였다. 방학 때면 咸興에 와서도 金明學박사랑 함께 승마를 즐겼었다. 그 모습이 어린 내 눈에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이것이 아마도 내가 제일 먼저 지원한 동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南中 騎道部の 발족에 金明學박사나 三宅교장과 함께 宅珪형의 이름도 거명되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실지로 宅珪형은 그 후 三宅교장의 요청으로 南中の 생물교사로 봉직하기도 하였었다.

나는 6·25때 옛날 사진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그대도 부산가는 피난 보따리 속에 南中 때 사진만은 가지고 갔었는데 그안에 승마관계가 몇

장 들어 있었다. <사진 2>는 아마도 내 南中 3학년 때 것인 듯하다. 손에 든 액자들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상장들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1941년 가을, 태평양전쟁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 때 우리 南中 騎道部는 咸興에서의 예선을 거쳐 서울에서 있는 전국대회(당시는 조선신궁봉찬대회라 칭하였음)에서 당당히 우승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나는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를 석권한 2관왕이 되었었다.



南中 3학년 때 필자의 모습

이 사진의 내 행색을 보면 비록 국방색이기는 하여도 전투모가 아닌 동그란 교모를 썼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모른다. 가슴에는 촌스럽게 흰 천으로 된 이름표를 붙였다. 그래도 이것이 그 당시 누구나 부러워하던 南中의 교복이다. 아랫도리에는 형님이 물려준 승마바지를 입었으나 장화를 신어야 할 위치에는 이상한 흰 천이 감겨 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일제 말엽에 가족장화란 그림의 떡이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金박사가 고안해 낸 것이 이런 삼베로 된 脚絆이었다.

金박사는 사비로 선수 전원에게 이런 장비를 마련해 주었다. 장비뿐 아니라 서울 遠征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주었다. 그것도 서울 가는 기차는 침대차에 태워주었고 서울 가서는 조선호텔보다도 비싼 肥前屋이라는 일본 여관에 묵게 하였다. 동창회장이란 감투 값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金박사는 진짜로 신이 나서 아낌 없이 돈을 썼다. 金박사가 신이 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애초 金박사가 三宅교장과 騎道部 강화책을 논의할 때 南中뿐 아니라 일본인 학교 威興中學과 기독교 학교 永生中學에도 꼭 같은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세 학교에 동시에 騎道部가 생겼고 그 해 여름방학 때 세 학교에서 선발한 동수의 선수들을 金박사가 직접 훈련시켰다. 가을에 있을 전국대회에는 세 학교 중 우승하는 한 학교가 威鏡南道대표로 간다는 것이었다. 金박사는 모든 조건을 꼭 같이 주도록 무척 신경을 썼다. 그러나 내심 자기 모교가 이기기를 바랐던 것만은 人之常情이었다. 이심전심 金박사의 이런 마음을 읽은 우리 南中선수 일동은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드디어 월등한 성적차로 두 학교를 물리쳤다. 무엇보다도 매사에 우쭐대던 일본 아이들을 실력으로 눌렀다는 것이 통쾌하였다. 입밖으로 표현은 못하였으나 金박사나 우리 모두 눈빛만으로도 그런 민족적인 긍지 같은 것을 만끽하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金박사가 우리 선수들에게 쏟아부은 애정은 물질과 정성을 총동원한 전력투구 그것이었다. 우리를 과격적인 침대차에 태우고 일본인 女給들이 찢찢매는 일본 여관에 들게 한 것 등 모두가 金박사로서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선수단 중 어느 모로나 뒤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도 기회만 주면 충분히 일본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혹자는 그를 친일파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생활수단이요 처세술이었지 내심은 그도 역시 단군의 후손이었다. 우리는 그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를 휩쓸었다. 승전보는 다음해 1942년까지 이어져 당당히 전국대회 2년 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사진 3〉은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와서 모교 현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다. 가운데 앉은 분이 지도교사 永田이다. 그는 승마는 하지 않았지만 九州帝大출신이라 예비역 육군대위였다. 아마도 그것이 騎道部 지도교사를 맡은 연유일 것 같다. 바른 쪽으로부터 우승기를 든 내 옆에 선 것이 金熙燦군이다. 1·4 후퇴때 월남하여 원주 쪽에 살다가 몇 해 전 타계하였다. 그다음에 선 친구는 후보 선수였는데 졸업 후 소식을 알 수 없고 이제는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그 옆에 선 키 작은 친구가 韓鼎燮군이다. 승마뿐 아니라 그라이더까지 멋있는 것은 모두 탄 친구다. 후일 서울공대를 나와 실력과 건축학자로 지금도 老益壯하다. 함께 乘馬를 계속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 옆에 선 건장한 친구가 朱鎬漸군이다. 나와는 한 때 宣德국민학교를 같이 다닌 인연도 있다.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북에 그냥 남았기에 생사조차 알 수 없다.

내 乘馬人生은 해방전후의 대학시절로 이어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6·25와 미국유학 때 10년을 빼고는 장장 60년을 헤아리고 있다. 어찌면 내가 傘壽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온 비결이 이 乘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적당히 움직여야 산다. 규칙적인 운동 말이다.



南中 騎道部 전국대회 우승기념사진, 가운데 앉은 분이 지도교사 永田선생

그런데 운동도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乘馬는 참 좋은 스포츠다. 재미도 있고 멋도 있으니 맛을 들이면 계속 타게 된다.

1시간이면 끝나는 운동이니 새벽에 타고 출근하여도 남보다 먼저 출근할 수 있다. 운동량도 크고 기분도 좋으니 스트레스 해소에는 그만이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고 일찍만 시작하면 늘그막까지 탈 수 있으니 안성맞춤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으나 골프 두 번 치는 비용이면 한달 내내 탈 수 있다. 결코 접근하기 힘든 귀족 스포츠가 아니다.

좌우간 나는 요즘도 栗川에서 매일 아침 乘馬를 즐긴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을 깨고 늦어도 6시 반이면 栗川에 도착한다. 馬裝으로 갈아입고 원장실로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린다. 한 평생 동고동락한 乘馬 동호인들이다. 한 때 어느 정권의 무자비한 축출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였으나 요즘 다시 원로회원이라고 불러주어 호강하고 있다. 7시면 修粧까지 끝낸 馬匹이 딱 대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

다.

축출당한 지난 4~5년간 나는 말타러 멀리 新葛까지 가야하였다. 그것도 손수 굴레 씌우고 안장까지 지어야 하는 푸대접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新葛은 新葛대로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그곳 말들이 영화에 출연하는 말이라 太祖가 타던 말을 내가 타보기도 하고 내가 타던 말을 궁예가 타는 것을 TV에서 보기도 하고 말이다. 그 보다도 한 때는 자유스럽게 外乘할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도 나를 따르는 승마 후배들이 많이 생긴 것이 큰 보람이었다.

글쎄다. 앞으로 내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사는 날까지 乘馬나 즐기면서 건강하게 살다 가고 싶은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알츠하이머, 이런 기막힌 방법이 있다(1)

孫 陽 鳳 (26回)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

환자와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YES' 라고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중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상황을 조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YES' 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자신있게 'YES' 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부분 아직도 베일에 가려

우선 알츠하이머에 관해 알아보자. 알츠하이머는 대단히 복잡한 병이다. 이 시간 현재 미국인 중에 4,500만명이 이 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알츠하이머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만 이 병을 더 잘 알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와 두뇌촬영 등을 포함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또 알츠하이머가 진척되는 속도를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의과적인 수술과 약물치료 등 새로운 치료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수많은 연구가 진척을 보고 있고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아무 것

도 없다. 또 이 같은 진척이 4,500만 알츠하이머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나의 동반자인 집사람이 지난 2년 반동안 알츠하이머 즉 치매로 고생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간병인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바로 옆에서 집사람을 돌봐왔다. 집사람은 지난 30개월 동안 3가지의 약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 왔다. 또 그 사이에 2차례의 대학병원 입원과 응급실 처치 등등을 비롯해서 정신과의사와 내과의사·노인병 전문가·가정주치의·간호사·보조원·목사님 그리고 가족 모두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면서 있는 치료란 치료는 모두 받으면서 지내왔다.

지난번에 사망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알츠하이머에 걸려 고생하는 환자들 중에 우리 집사람처럼 따뜻하고 정성어린 치료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다.

새로운 치료방법은 없을까?

그런데도 집사람의 악화되고 나는 탈진한 상태가 됐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집사람을 치료전문기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심한 일은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두 달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비용은 또 엄청나게 비쌌다. 이는 바대로 그렇다고 해서 집사람이 크게 호전되거나 큰 도움을 받을 리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뭔가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우연이지만 나는 그 일을 해냈다. 그래서 이를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나쁜 행동과 약에 대한 흥분 그리고 현재와 다른 행동 등을 제어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는데 있다. 환자가 이같은 나쁜 행동을 하거나 흥분된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911로 연락, 곧바로 병원응급실로 보낸다. 병원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로 하는 것이 없다. 공격적인 행동을 부드럽게 하는 항 정신병 약이 처방돼 복용될 뿐이다. 그러나 이 약물은 공격성을 줄여줄 뿐이지 환자의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또는 중단을 해주지는 못한다.

환자의 계속적인 흥분과 나쁜 행동은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간호하는 사람까지 커다란 고통을 주게 된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기분 또는 행동을 바꾸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아냈다. 상황을 정리해 보자.

첫째, 환자는 애기와 같은 치매환자다. 둘째 동물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사자와 호랑이 등과 같은 맹수를 단지 먹이 몇가지로 그들을 떡주무르듯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집사람에게 적용해 봤다.

좋아하던 음식·물건 곁에

우선 집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초콜릿이나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주었다. 놀랍게도 집사람은 그 즉시 행동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으며 기분도 좋아져서 'happy mood' 로 바뀌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부엌용품의 장난감과 인형들을 사다가 주었다. 이들 장난감들은 그 즉시 집사람의 행동자체를 바꾸게 했다.

그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었다. 또한 최근의 일들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장난감들은 집사람에게 항상 새로운 것이어서 것처럼 오랫동안 가지고 놀아도 지칠 줄을 몰랐다.

집사람은 그 이전에는 웃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음을 되찾고 무척 행복하다. 이제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지금 우리들은 아주 조용하다.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집

에서 집사람을 돌보고 있다.

나는 이 방법을 'behavior modification' 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방법을 쓰면 우리는 내 집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충분한 휴식(이것은 아는 사람이나 알 것이다)을 취할 수 있다. 또 이 방법은 통증약을 복용하고 있는 암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가지만 덧붙이려 한다. 환자가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남자들에게는 망치와 드라이버, 판자 등 집을 짓는 장난감을 사줄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방법은 내 경험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만일에 집안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으면 바로 시행해 보길 바란다. 이 방법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Sue Fedler(nurse). Mobile Nursing Service, Fort Madison, Iowa나 전화 319-372-8023으로 연락주길 바란다.

‘Losing Weight’ 체중을 줄인다. (2)

나는 요즘 체중을 줄이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신문, 잡지, 세미나, 운동단체 등에서 우리들이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혼돈된 의견이 있다. 나는 여기에 NIH(미국국립보건문)가 소개하는 정상인을 위한 기초적인 지도방식을 소개할려고 한다.

1. 우리들은 체중의 상태를 알아야한다. 다음의 적절한 체중측정법을 사용해보자. 그 방법은 당신의 연령과 지금의 체중에서 답이 나온다.

신체질량지침值(Body Mass Index, BMI)와 백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BMI를 찾아내서 그 값을 얻든가, 또는 체중(kg)을 신장의 2 乘으로 나눈다. 백분율은 NIH를 컴퓨터에서 찾아 이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50%의 數值가 나왔으면 이것은 평균체중이다. 90%의 값은 당신의 체중이 평균치의 인구 90%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말한다. 20%가 나왔으면 딴 사람의 80%는 당신보다 체중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 백분율은 당신이 과중한 체중, 비만, 여위였(lean)다든가 또는 정상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준다. 만약에 당신의 BMI가 26 또는 그 이상일 때는 비만을 시사하며 좋지못하다.

小兒와 10代의 청소년에서의 BMI는 성인의 BMI과 다르다. BMI는 就學期 전의 아동에서는 감소한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가면서 증가해 간

다. 백분율이 50이하로 나왔으면 그것은 여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85~95%인 경우는 비만이 될 위험성이 많다. 95%를 증가하는 경우는 비만이다(CDC의 보건통계국의 조사).

예를 들어 나의 조사치를 보자. BMI는 22이고 백분율이 16%이다. 이것은 내가 비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84%의 나와 동갑의 미국사람들은 나보다 체중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의 친구 '쥬'의 BMI는 27.2이고 백분율은 55%이다. 그는 비만이고 55%의 '쥬'와 동갑내기들 보다 체중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번역자註 : 나의 BMI는 체중 60kg 신장 165cm의 $2 \times 2.72 = 22.04$)

2. 당신이 얼마나 체중을 감소시키겠다는가는 BMI와 백분율値로 결정할 수 있다. 통계상의 성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2~3%의 체중을 감소시키려면 매주 3~7번 30~60분 동안의 운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8%의 감소는 6개월간의 다이어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이어트 : 당신은 영양사(면허소지자)를 만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저 칼로리 다이어트나, 사우스 비치(South Beach) 다이어트, 또는 아드킨(Atkin)씨 다이어트를 선택하라. 약물학적치료는 상기와 같은 생활양식을 바꾸는 것으로 성공못할 경우 제2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방법은 6~10%의 체중감소는 1년만에 걸쳐 얻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을 중지한 후, 비만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 약물요법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된다. 생활양식의 변화(다이어트, 운동, 개인적 생활양식의 변화 등)가 성공하지 못할 때 약물요법을 쓰게된다. 이들 약물치료의 장기간의 위험성이라든가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못하고 있다.

수술요법은 3번째의 선택이 된다. 이것은 생활양식의 변화와 약물요법이 성공못할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대부분의 외과의사들과 그가 택하는 치료계획은 1991 NIH同意 지침을 따른다. 그 지침은, 이 수술요법을 허용하는 환자는 BMI가 35보다 많고, 비만에 동반한 질환이 있는 경우든가, BMI가 40보다 높고 비만에 동반되는 질병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이 수술을 허용한다.

수술 방법은 위장의 바이패스 수술, 또는 위장을 수직으로 밴드로 꿰매는 수술법을 사용하게 된다.(이것을 복광내시경을 사용해서 수술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몸매가 약간 완전치 않다는 적은 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원인이 된다. 건강한 심적상태는 신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저는 은퇴한 의사입니다.(50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일반외과, 가정의료, 산부인과를 전공했습니다.)

註 : 1 inch=2.54cm, 1 foot=0.3048m,

1 pound=453.59g, 1 ounce=31.1035g

Son Yang - Bong, M.D 5 - 19 - 04,
yangbson@aol.com(영어만 수신이 됨)

노인이 愛國하는 일상생활, 그 세가지 방법(1)

石 東 壽 (26回)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나라를 사랑한다. 특히 젊을 때는 생명을 내 던지며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 우리들은 20대에 6·25 사변이 터져 여러면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국심을 강하게 키웠다. 除隊후에도 적은 월급을 가지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 교육시켜 훌륭한 시민으로 우리 사회에 내보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70대, 80대의 노인이 되어 조용히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愛國할만한 것은 젊었을 때 많이 했으니, 우리들은 지금은 특별히 크게 愛國에 신경을 쓰지않아도 괜찮겠다고 말해도 아무도 우리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자리에 있으니,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이 떠난 후 우리 자손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사회서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이드는 노부모가 죽을 병에 걸려 아들딸이 논, 밭, 집을 팔아 노부모의 병원비를 물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는 자주 들었고, 사람들은 그 지극한 효도를 한 아들딸을 대단히 칭찬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런 노인의 나이에 있어보니, 그런 처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는 자식이 돈이 필요하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 귀중한 논, 밭, 집을 다 팔아 없애서야 되겠는가? 노인이 되어도 나

라 돈을 쓰지않는 것, 자식 돈을 쓰지않는 것이 나는 愛國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기 병의 치료에 쓰는 것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큰 일할 것도 없는 노인이 가족을 희생시키며 치료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은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구라파의 스칸디나비아 3국들은 옛날 일찍부터 복지시설이 좋아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하였으나, 옛날에는 이 나라들이 나라 돈을 노인들의 의료비에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양로원에서 늙은이들이 아파도 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北海석유가 나와 나라가 돈이 많아 이런 일은 없겠으나 옛날에는 국가의료예산을 노동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 활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 할 수 있는 애국의 첫 번 항목은, 각자가 매일 건강관리를 잘 해서 국가재정에 축을 내지않게 사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 항목은, 새 것을 사지않고 수리해서 쓰든가, 再活할 수 있는 것은 재활해서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정신을 활동시켜 건강에 좋고, 돈도 아끼는 방법이 되어 좋다.

세 번째 항목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더 큰 복을 내리신다고 성서에 적혀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1書 13장에 쓰신 사랑(charity)의 말씀은 너무나도 感激스럽고, 名文이며, 眞實이다.

이상 3가지 愛國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 노인들은 실천합시다. 좋은 결과는 실천하는 사람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심봉섭교수(가톨릭의대 생화학명예교수)와는 매달 만나 저녁을 먹으면

서 지내는데, 우리 둘은 치료가 효과없다고 하는 죽을 병에 걸리든가, 말기암이라고 하면, 우리 둘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않기로 했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생에 그렇게 악착스럽게 집착하지않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의 70대 노의사가 위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니, 아무런 치료도 다 거절하고, 그때까지 항상 생각하고왔던 ‘四國(시고구)불교사찰순례’ (四國을 도보로 일주한다)를 시작하고 이것을 다 끝마치고, 자기 마지막 생을 깨끗이 거두었다. 그의 아들도 의사여서 사후 부친의 위를 검사하니, 첫 번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수술을 받았더라면 完治될 가능성이 컸을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이때가 40~50년전의 일이었으니 위암의 사망율이 매우 높을 때의 일이다.

2003년 11월 2일

우리 동창들 봄날의 꽃놀이를 가다 (2)

12년전에 우리 서울에 있는 남중동기동창들이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할 때, 10명이 모였다. 그 모임이 10년 가까이 잘 계속하는 사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동기생은 놀랍게도 한사람 뿐이었다. 그러나 10년을 지나면서도 70대 중반인 우리들은 지병이 차차 나빠가면서, 한사람 한사람씩 월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매달의 모임은 차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되어 산만해져 갔다. 그러나 이번 봄이 되면서 한정섭 회장은 자기가 새로 이사간 곳인 신촌의 북한산 기슭을 부인하고 매일 아침 산책하는 길가에 많은 꽃들이 아름답다고 우리 동창을 불러

함께 봄꽃놀이를 가질려고 한 것이다.

며칠 밖에 여유를 두지않고 친구들에게 연락했는데 7명이 모였다.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동창들의 모임에 잘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나가보니 낙오자가 적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어 기뻐했다. 두 동창은 부인동반이어서 모두 9명이나 되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다. 이 지역은 동교동이 있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사시는 곳이라 구청에서 이곳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준 덕분에 서울에서는 상위급인 아름다운 고장이다.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있었는데, 역시 벚꽃이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들이 자리잡은 곳에 운동주 義士의 시(1941년 작)의 비석이 있었다. 이곳은 특히 큰 벚꽃나무가 울창하게 모여 있어 나는 옛날 학생 때 창경원에 간 기분이 들었다.

우리들은 꽃구경을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먼저 하기로 해서 공원 안에 있는 한식식당에서 냉면 다섯 그릇, 설렁탕 네 그릇을 시키고 점심을 잘 먹었다(한정섭이 계산을 다 해주었다). 나는 내가 태극권운동의 효과를 소개한 글이 '메디칼 업저버紙'에 발표된 것이 있어, 그 기사를 10부 복사해서 가지고 갔으니, 우리들의 첫 번 모인 장소에서 태극권운동이 관절염에 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운동과 호흡을 잘 마춰서 운동을 실시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또 나대로의 병리학적 효과의 기전을 설명하였다. 마침 노인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이 3분이 있어 그분들이 태극권운동을 시작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본 것 같이 그분들도 효과를 얻기를 바랐다.

우리들은 다음은 샘물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밑에 앉아서 두 사람은 바둑을 두고, 나머지는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일요일이라 그리고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꽤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러

와 있었다. 그런데 역시 사회질서를 잘 지키고 있어 음식은 식당에서 먹고 야외에서는 식사나 음주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이 사시는 마을이라 모두 사회도덕을 잘 지키는 것 같다. 이곳에 연세대학교도 있으니 대학생이 많은 것 같았다. 나는 등산을 평상시에 자주하는 편이다(주말과 공휴일은 항상 등산을 한다). 그리고 산에서는 꼭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산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 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 경치 좋고 공기좋은 곳에 왔지만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지내야했다.

나는 그사이 몇년이나 우리 동창들을 자주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 여러 친구들을 보니, 우리들은 많이 늙었다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청년같이 건강했던 몇 사람들도 지금은 몸이 시원치 않다. 그중 두 사람은 자기가 아직 80이 다된 노인같이 느끼지 않아서 운동, 일들을 심하게 하다가 한 사람은 승마에서 떨어져서 목을 다쳐 양손이 약간 저리다고 한다. 또 한 사람은 무거운 것을 들고 하루이틀 일했는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근육통이 와서 검사를 하니, 근육의 膿이 한 군데서 길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의대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고 돌아온 친구는 부정맥이 갑자기 와서 쓰러져서 119번을 불러 구급차로 응급실에 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효과를 곧 보아 괜찮은가 했는데, 나중에 그 특효약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좀 고생했다고 한다. 그렇게 보니, 내가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도 실은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식사를 언제나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지금은 젊었을 때 같이 어찌다가 막 먹다가는 나중에 배가 시원치 않게되어 밤중에 2~3번 깨어나게 된다. 나도 12년 전에는 좌골 신경통으로(신경에 가는 혈관이 협조해서 생긴다) 몇 년을 물리요법(보행)과 개선된 식의요법(육식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었다)으로 지금같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렇게 우리 동기들은 자연노화현상으로 다른 노인

들같이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아주 건강했던 동창들도 건강에 자신가지고 살다가 지금에 와서 약간 혼이 나기도 했다.

80세가 다 되어가는 우리들은 건강한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도, 언제나 건강에 신경을 써야하는 연세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미야께(三宅)校長을 말한다. (3)

威南中學에 입학할 때의 교장은 요고다(横田)선생이었으나 몇 년후 새로 오신 선생이 미야께교장이었다. 그는 일본 學習院에서 오셨다고하여 우리 모두는 놀랐다. 學習院이라고 하면 일본의 왕가,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그는 아주 비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 그가 가끔 乘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말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고 나는 말을 동정하기도 했다. 그는 수학이 전공이었다. 그러나 가끔 수학선생이 결석할 때 대신 우리 교실에 와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나 있다가 1942년 12월 8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미국의 태평양함대를 거의 다 파괴 침몰시킨 사건이 생겼다. 그날 아침 조회 때 미야께교장은 우리 전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몬로독트린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이니 절대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몬로독트린은 미국대통령 몬로가 주장한 정책으로 미국은 미국내의 일에만 하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라든가 하는 국제문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대 일본은 군국주의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고, 장군이 총리자리에 앉아

있을 때이다. 이때 이런 말은 군국주의자들에게는 반역자로 들릴 수도 있을 때이다. 아난게 아니라 2일 후 조회 때 미야게교장의 말은 완전히 180도 돌아선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말과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후 우리도 그런 공기 속에서 졸업할 때까지 2년을 살아가야 했다.

우리는 1944년 3월에 南中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으니, 그후의 학교 일은 모르고 지냈지만, 일본이 敗戰을 계속하고 있을 전쟁후기 때의 학교 생활은 군사훈련과 興南공장에 가서 하는 근로봉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때 미야게교장의 아들(공군장교)이 일본에서 함흥에 왔다. 그리고 1945년 5월경에 부친을 데리고 일본으로 비행기로 가버렸다. 틀림없이 공식으로 서류절차를 다 밟고 교장자리를 내놓고 일본으로 갔을 것이다. 아마 비대증이 있으니 고혈압은 있었겠고 심장과 노혈관들이 시원치 않았겠으니 휴직할 수 있는 진단서는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003년 12월 21일

◆◆◆◆◆ 27回 ◆◆◆◆◆

- ◎ 韓醫學에 대한 나의 見解/ 沈鳳燮 (27回)
- ◎ 故 鄉/ 李鴻範 (27回)
- ◎ 城南有感/ 韓泓模 (27回)
- ◎ 까치야 산까치야 (1), 邊方の 밤 (2) / 韓淳輔 (27回)
- ◎ 江물처럼 / 廉聖龜 (27回)



韓醫學에 대한 나의 見解

沈 鳳 燮 (27回)

醫學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이어야 한다는데는 누구나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의학도 일진월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그 발달속도가 매우 빠르다. 통신수단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매일매일 느끼고 있지만 生命科學의 발달도 그에 못지 않다. 10년 전에 쓰던 약은 지금은 안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옛날의 '페니실린', '스테렙토마이신' 같은 약은 약국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그런데 400년전 光海君시대에 만든 東醫寶鑑을 아직도 믿고 있는 한의학은 과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洋醫學에서 표준 內科교과서로 쓰고 있는 Cecil이나 Harrison의 內科書는 깨알같은 활자로 인쇄된 2,500쪽이 넘는 방대한 책인데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집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3년마다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10년전 교과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동의보감만 거들고 있는 한의학은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외과를 위시한 여러 전문 분과의학에도 방대한 전문서적이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양의학이 세계인류의 보건에 끼친 공로를 열거하자면 허다하지만 몇가지만 열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연두가 박멸되었으며 홍역, 소아마비,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발진티브스등 여러 가지 전염병이 사라진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한의학이 어떤 점에서 일류복지에 공헌했는

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한의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을 살렸는가?

양의학에서는 최근 分子유전학의 발전으로 과거에 잘 몰랐던 발병원인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약도 개발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러한 시대에 케케묵은 동의보감을 운운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그것은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생명은 깊고 깊은 것으로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다. 양의사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못 고치는 것은 못고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반하여 한의사들은 못 고치는 병도 없으며 원인도 두루몽실 물리화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연한 표현으로 다 설명하는 것이 상례이다. 피가 맑아진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피가 맑으면 빈혈이다. 최근에 TV를 보면 한의사들은 식품영양학이 마치 한의학인양 떠들고 있다. 밀친이 딸리니까 남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식이요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다.

韓醫學은 솔직히 말해서 漢醫學에서 유래된 것이며 옛날에는 漢醫院이라 하였는데 해방후 韓醫學(師)라 개칭된 것이며 북한에서는 고려의학이라하고 中國은 中醫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中國은 SARS를 계기로 中國醫學界가 급속도로 서구화되어가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의학수준을 앞질러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인슐린'을 합성한 것도 中國이 세계 최초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補藥을 좋아하는데 양의학에서는 보약이라는 것이 없다. 먹는 것은 뭇이든지 필요할 때 필요한만큼 먹어야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부족해도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인터페론'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나치게 많으면 中毒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약이란 모두 毒이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때만이 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약을 매일 먹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는 人蔘의 효능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유효성분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saponin체라는 것의 약리작용도 신기한 것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군 사람들은 인삼으로 김치까지 담구어 먹는데 금산군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산다는 통계가 나온 일이 없으며 수억원짜리 山蔘을 먹고 불치의 병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재벌인 이병철씨나 정주영씨도 틀림없이 산삼 한두 뿌리쯤은 먹었을 것이나 죽을 때가 되니 다 가고 말았으며 갖은 보약을 먹은 金日成이도 죽고 만 것이다. 실제 산삼을 먹어봤다는 내 친구도 별 효과를 못봤다고 털어냈다. 특히 중국산 인삼에는 대량의 농약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한의들은 보약을 팔아서 툭툭히 재미를 보고 있다. 뱀, 녹용을 위시한 한약재 수입에 소비되는 외화를 양의학 연구에 투입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며 과학을 모르는 정부관리들이 국립대학에 한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軍醫官으로 부적절한 한의사를 왜 국가예산을 들여 만드는 말인가? 日本처럼 선진국에 들려면 한의학을 공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日本人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 1위 아닌가) 여러 가지 외과적 질환은 물론 AIDS, SARS를 위시하여 한의학이 속수무책인 질병이 허다하므로 한의학은 민간요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노벨의학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요즈음 대체의학(代替醫學, alternative medicine)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미국 상원의 유력의원인 각국의 통속의학(중국, 인도 등) 중 쓸만한 것이 있는지 연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NIH에 예산을 푼 때 해주었기 때문에 NIH에서는 들어온 돈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만든 것이 대체의학 연구소라는 것이다. 그것을 中醫(Chinese medicine)연구소라고는 할 수 없어 대체의학이라는 말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소장을 모

집하였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하잘 것 없는 사람을 겨우 데려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거기에 와서 연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애먹고 있다고 듣고 있다.(Science라는 잡지에 보도되었음) 중국이 사랑하는 10가지 내외의 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말라리아'에 대한 약 이외에는 신통한 결과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아마 10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체의학이 마치 미국에서 공인된 의학인 양 착각하고 의료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어야 할 현대의학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체의학은 연구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 의료행위가 공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채취시기나 산지에 따라서 유효성분의 함량이 달라 품질관리가 어려운 생약을 그대로 쓰는 원시적 한약 특히 보약으로부터 탈피하고 유효성분만을 추출해서 그 구조와 약리작용을 알아내고 나아가서는 합성하여 사용하는 의과학을 확고히 수립해야 세계화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大韓醫師協會나 醫學會, 또 최근에 생긴 의학한림원도 좀 더 과학적으로 한 의학을 평가 비판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계몽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속의학중 침구술, 지압요법은 우리의 物理의학에 편입시켜 발전 시키면 될 것이다.

故鄉

李 鴻 範 (27回)

내가 태어난 龍井은 오늘날 中國의 吉林省에 속하는 朝鮮族 自治州에 편입되어 있으나 내가 태어날 당시에는 日政治下였고 滿洲가 日本의 植民地였으므로 용정은 滿洲國 問島省 龍井街로 불려졌었다.

나는 이 용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곳에서 자라났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하던 그 시기에 우리도 조부님 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키 위해 問島로 이주하여 용정에 정착하게 되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용정의 인구는 약 8,000명 정도였다고 하는 데 주민의 70~80%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어서 외국에 산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용정에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니는 보통학교가 두곳이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問島 中央學校와 광면학교 두군데가 있었다.

당시 5학년 朝鮮語 독본에 「간도에서」라는 글이 나오는데 간도에 있는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간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편지形式의 글이다.

비록 짧막하기는 하나 그 글에 내가 다니던 간도중앙학교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 학교는 비록 초등학교지만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학교였고 각학년마다 松, 竹, 菊, 蘭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蘭組는 여자반이었다.

지금도 그 교정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어젯일처럼 선하다. 누구나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 많지만 마음대로 가볼 수 없는 고향이기에 그 그리움은 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명절때마다 그 극심한 교통난을 겪으면서도 고향으로 고향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행렬을 볼 때마다 나도 한번 용정에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었다.

그러던 중 1997년에 아들이아가 北京에 파견근무를 하게되어 중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덕분에 고향 용정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떠나온지 60년 세월이 흘렀으니 강산이 여섯 번 변하고도 남은 그 긴 세월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북경에서 延吉行 비행기에 올랐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행기는 물보라를 튕기며 이륙했고 약 2시간여의 비행 끝에 연길공항에 착륙하였다.

다행히 연길공항은 쾌청이었고 6월말의 新綠이 한껏 눈부시고 싱그러웠다.

연길공항은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였고 과장되게 말하자면 시골 간이역 같이 초라하였다. 마침 조선족 아주머니 택시기사가 자기 택시를 타기를 집요하게 따라나섬으로 그 택시로 용정까지 가기로 하였다. 요금은 인민폐로 10원(우리돈으로 1,200원 정도) 정도를 지불하고 예약된 호텔로 들었는데 호텔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여관급 수준이었다.

우선 시내관광에 나섰다. 꿈에도 그리던 閔島中央學校로 가보기로 하였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학교에 찾아 갔는데 정문에서부터 나의 기대는 차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교문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새로 세운 철대문

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작은 문으로 들어 갔더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운동장은 옛날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어렵사리 교무실을 찾아가서 혹시나 옛날 학적부나 사진이라도 찾아볼수 있을까 기대하였으나 해방전의 서류는 다 없어졌다는 여자 부교감의 답변에 나의 옛날에 대한 鄉愁가 여지없이 사라지는 서글픔을 맛보아야 했다.

비록 지금은 그때의 절반으로 줄어든 교정이지만 그 교정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70만개의 조약돌 무더기에 얽힌 사연이 떠오른다.

4학년초에 일만(10,000)이라는 숫자를 배울 때의 일이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모두에게 내일아침 작은 돌맹이 만 개씩 주어 오라는 숙제를 내셨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온 식구가 총동원하여 돌줍기를 시작했다. 집주변에서 만개의 돌을 주울 수가 없어서 해란강가에 가서 열심히 돌을 주어 만개를 채웠다. 다음날 아침 등교시간이 되었다. 아무리 작은 돌맹이라도 일만개의 돌은 부피도 적지 않았고 무게 또한 4학년 짜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대신 저다 주기도 하였다. 70명 반학생이 일만 개를 모아 왔으니 자그마치 70만 개의 돌무더기가 교정 한귀퉁이에 쌓아졌다. 그때 일만 개의 돌을 줍느라 수고도 하였으나 이 돌 줍기로 인해 만 개의 개념이 지금까지도 내 머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10,000개가 10,000이 모여 一億이 되는 큰 숫자인데 요즘 경제적 부정 부패의 비리가 들어 날 때마다 수십억 수백억의 천문학적 숫자를 겁도 없이 삼켜버리는 탐관오리들에게 수십억의 돌무더기 세례를 부어주면 어떨까.

비겁한 정치인이 들먹이는 세태를 한탄하며 용정학교시절에 용감했던 나의 친구 이야기가 생각난다.

구구단을 배울 무렵이었다. 하루는 곱하기 시험이 100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열심히 풀었는데 그때 1등을 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우리반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선생님께서 누구의 소행이냐고 다그치실 때 모두가 묵묵부답,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그때 곱하기 시험에 1등을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하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선생님도 그 친구의 소행이 아님을 아셨겠지만 아무튼 불과 열한두살된 어린 나이에 남의 잘못을 떠맡은 친구의 용감함에 지금도 나는 급장이었던 내가 그 일을 떠맡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름도 얼굴도 이제는 생각나지 않는 용감했던 그 친구, 지금 살아 있다면 80이 가까운 나이겠지만 그 친구가 그때 그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멋진 인생을 살았으리라 생각한다.

어린시절의 추억에 잠시 젖었다가 초등학교 건물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려 龍井驛으로 향하였다. 다행히 역은 그 자리에 있었고 건물도 같은 건물인데 어릴 때 나의 눈에 비쳤던 그 웅장한 건물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내 눈앞에 서있었다. 마치 창고 같은 대합실에 들어가니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여인이 한 사람 무료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다.

옛날에 遠足(소풍)다니던 해란강 상류에 있는 비암목에도 가보았으나 옛날 교각이 나의 어린눈에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아 보이던 그 교각이 마치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간 것 같이 낮게 보였다.

60여년 만에 고향에 돌아 왔으나 아는 얼굴 하나도 없고 마치 日本語讀本에 나오는 우라시마다로(浦島太郎)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넓어 보이던 운동장도 그토록 높아 보이던 철교교각도 흐르는 세월 앞에 초라해졌고 용감했던 나의 친구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무상함을 느끼며 이세상에는 完전한 都城도, 영원한 것도 없으나 永遠한 생명 영원한 나라 참 본향이 있기에 오늘도 영원한 安息의 都城을 향하여 한 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다.

2004년 8월

城南有感

韓 泓 模 (27回)

城南이란 都市는 나와는 因緣도 없고 何等 아무런 關係가 없는 都市이다.

前에 家族들과 束草에 갔다 올 때 嶺東高速道 利川 나들목을 나와 집에 올 때 城南을 통해 온 일 있고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내가 開業은 힘들어 그만둔 後 우연히 城南이 職場이어서 서울에서 出勤하길 어언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서울에서 다닐땐 地下鐵을 利用하거나 車를 運轉하던 中 때마침 大峙洞 아파트가 再建築許可가 나서 어차피 移徙하게 된 마당에 城南에 가까운 곳에 얻으려고 盆唐부터 집보러 다녔는데 盆唐에서 城南職場에 出退勤하려면 盆唐線 모란역에서 換乘해야 하는데 이 徒步距離가 얼추 2百米以上이 되어 힘들어 城南에서 고르기로 作定하였다. 城南은 元來 서울의 無許可 家屋에 살던 사람들. 淸溪川, 아남천변의 판잣집을 整理하기위해 만든 크나큰 마을이었고 그래서 山과 들을 고르지 않아 그 땅위에 無秩序하게 지은 都市로서 美國의 샌프란시스코 보다는 많은 굴곡된 都市이다. 特히 居住地로서 平地에 있는 집이라곤 손가락으로 헤아릴 程度로 드물다.

이곳에 移徙온 지도 어언 3년이 지났는데 집에 온 사람마다 왜 높은 地臺에 얻었는냐고 묻곤 하는데 일일이 答辯하기도 지칠 程度였다.

속으로 큰 洪水가 나와라 난 걱정없다고 뇌까리면서...

단 여름에 南漢山城쪽 窓門을 열어놓으면 방안에 놓은 新聞들이 모두 날아갈 程度로 바람이 세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댈 때는 百萬弗짜리 자리라고 되뇌이기도 한다.

移徙은 後 單 한번도 에어컨 켜 일이 없었다. 내가 이곳에 온 3年間은 집과 職場만 왔다갔다하여 城南의 地理는 全然모르며 하다못해 冷麵한 그릇 먹으려고 서울에 갈 程度로 어둡다.

이곳도 人口가 많고 空氣도 환경도 좋은 곳이 아니어서 이 職場 그만 두면 더 변두리에서 살까 생각한다.

80고개 바라보니 밤 10시 넘기 힘들고 새벽 4時前에 눈뜨니 나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더욱 나의 老妻는 옆에서 부스럭거려도 잠깨어 자질 못하며 신경질 最高조.

새벽 4시에 朝刊新聞이 오면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新聞보는 것도 고요한 새벽 空氣흐름이 들릴 程度로 적막강산이다.

水道물은 먹기싫다기보다는 生理에 맞질않아 楊平江 건너편 힐하우스(食堂) 앞쪽에 게르만 수가 사철 나오는데 서울에 살 때부터 우연히 알아서 지금까지 떠다먹고 있는데 最近에는 물뜨려고 오는 사람들이 더 늘고 한말짜리 물통도 10개 이상 가져오니 옛날 解放直後 共同水道가에 줄선 것 같이 긴 줄이 서곤한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참에 물뜨러 새벽 4시에 출발하여 南漢山城길 따라 떠나면 5시전에 물가에 到着하면 내가 첫째 아니면 두 번째가 되어 餘裕있게 떠가지고 오면 집에 6시 전에 올수 있다. 妻가 앓지 않을 때는 그때쯤 玄關앞에 나와서 기다리곤 했는데 지금은 舉動이 不便하여 방에서 신경질 부리면서 죽기싫어 밤에 山길 더듬냐고 야단이다.

허기사 南漢山城길은 무섭지가 않으나 退村지나면 山길이 나오는데 이 고개넘을 땀 좀 몸이 으스스하다. 林巨正部下나 만날 幻想하면서.

楊平江西岸의 遊興業所들의 宣傳廣告物인 形形色色的 형관등의 움직임

임이 밤새면서 點滅하고 있으니 저 電力은 얼마나 될까?

라스베가스도 울고 갈 程度였다.

한 번 물떠오면 한 달은 마신다. 오래살려고 이것하는 걸까? 아니 아니지, 언제 죽더라도 아프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괴로움 주지않기 위해 몸에 리로운 것만 골라먹자는 것은 모든 老人들이 원하는 心思가 아닐까?

城南의 겨울엔 눈이 많이 올때 난 걱정이 泰山같다. 언덕바지에 아파트가 있어 눈이 많이 내리면 車輛通行에 不便할 때가 많다. 昨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하루동안 車가 다니지 못했다. 사람들이 큰 길까지는 가야 大衆交通을 利用하는데 그 服裝이 마치 알프스 登山隊모습이다. 昨年 겨울에는 넘어지는 老人, 女人들의 骨折患者가 많았다. 내가 일하는 病院에도 入院室이 滿室될 程度였다.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이곳에 移徙온 後는 내가 서울에 있을때 보다 자주오질 못하고 電話나 찔끔찔끔할 程度다.

老夫婦만 살고 있으니 어떤 때는 寂寂할 때가 많다. 전에는 時間만 있으면 目的地없이도 둘이서 드라이브가곤 했는데 至今은 妻가 舉動이 不便하여 그렇다고 나 혼자 旅行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休日에도 거의 집에 있으니 이것이 人生의 쓸쓸함일까? 하늘을 쳐다보면 가을 하늘색이 너무나 마음을 자극할 程度로 아름다워 늙은이의 마음을 便치 못하게 한다.

내가 이 글 쓰기 始作한 것이 8月初였는데 아직 쓰고 있으니 벌써 秋夕을 눈앞에 두고 歲月은 잘도 흘러간다.

이번 秋夕에 아버지, 형님 山所 省墓가서 무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하며 울며 할까? 예라 나도 모르겠다. 人生살이 아무리 훑어봐도 滿足도 不滿足도 分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人生이라면 하는 수 없는 것.

2004. 9월 추석 앞두고

까치야 산까치야 (1)

韓 淳 輔 (27回)

떡국이나 들었을까
나의 설운 누나야

북쪽에서 날아 온
구름 한 폭 바라봤다

옛그제
까치설날에
도라산역 들러서

까치야 산까치야
북쪽 울던 까치야

문밖 감나무에
둥지 틀고 있느냐

저 달이
반만 기울면
내 生日이 온단다.

邊方의 밤 (2)

가난이 길이 들면
白樺숲에 어울린다
간밤에는 꽃제비가
머물다 떠났다고
이렇게 낮은 가락을
끌고 가는 물굽이.

밤을 새어나온
발가락은 얼어붙고
허기진 눈망울은
달무리를 닮아가고
저거 저 間島로 가는
샛길 하나 휘어있다.

땃줄같은 만남이라
눈물은 달라붙고
마디마디 손가락만
밤을 새워 쓰다듬다
저 멀리 남쪽 하늘의
뜬 구름을 보았다.

江물처럼

廉 聖 龜 (27回)

나에게는 학교 졸업장이라고는 금정(錦町)소학교 것 밖엔 없다. 나는 어렸을 때 영리하고 노래도 잘했다. 소학교 2학년 때 해마다 열리는 함흥 중앙교회의 유년 주일학교 동요·동화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때 유년부의 피아노 반주와 노래지도는 담임목사 李學奉 목사님의 3남 李仁亨 선생님이 맡으셨다. 李 목사님께서서는 아들만 3형제 두셨는데 제일 위가 작고하신 성악가 李仁範(당시 崇實전문학교 재학중)씨이고 다음이 李仁根(당시 永生고보 재학중)선생이시다. 셋째인 李仁亨 선생도 永生고보 재학중이었다.

이 해의 겨울에 아버지께서 제대로 된 스케이트를 사주셨다. 가족으로 된 스케이트화였다 그 시절엔 Long이라 불리던 경주용 명품 스케이트였다. 城川江이 얼면 이 스케이트는 큰 자랑거리였다.

咸南中學 1학년 때 甲, 乙반은 각각 60명이었는데 성적이 반 석차로 50등이었다. 동급생 60명 모두가 각 시, 군에서 뽑힌 우등생이었는데 소학교 때의 타성으로 너무 안일한 학교생활을 한 결과다.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석차목표를 10등 이내로 잡고 노력했지만 4학년 말에야 겨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일제의 발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4학년 2학기엔 咸興神社 신축지 조성공사에 동원되었고 5학년 1학기에는 宣德육군(일군)비행장에 동원됐다. 하루는 우리 숙소(비행기 格納庫)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숙소가 있었

던 新興郡에서 동원된 장정들이 동원기간 만료로 다음 날 귀향하게 되어 送別會가 있다며 이에 동참할 것을 군에서 요청했다. 우리는 이에 응하여 송별회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음악부장인 姜術선생님으로부터 노래부르기를 지명 받은 나는 일본 노래의 曲名을 적어 헌병대에 제출했다.

막상 무대에 나가 보니 그들은 말이 없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여러 달의 동원으로 과도한 탓이었으리라. 울컥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그 무엇을 느끼면서 미리 제출했던 일본 노래 대신 玄濟明작곡의 ‘조선의 노래’를 큰 목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회장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입회했던 日本 憲兵을 보니 日本刀를 짊고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앉아 있었다. 노래가 끝난 다음 와— 하는 함성이 터지도록 울리고 내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朝鮮人의 魂의 喊聲이 會場에 감돌았다. 다음날 저녁 食事が 끝난 후 5학년 약 100명되는 학생들이 모여 어제 밤 내가 부른 朝鮮의 노래 歌詞를 제각기 筆記하더니 그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勿論 작은 목소리다. 나아가서는 우리 愛國歌도 연습하더니 全體의 합창이 되고 말았다. 이때의 愛國歌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새 곡이 아니고 AULD LANG SYNE이다.

비행장에서의 근로동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5월 5일에 道警察局에 있다는 刑事 두사람이 집으로 왔다. 이미 각오한 바 있어 父母님께는 말 씀드리지 않았다. 그날부터 道警유치장 신세가 되어 共犯이 있나하고 고문도 받았고 매도 맞았다. 매일 만나오는 反省文을 짜내고 써야했으며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함께 구속된 金明壽(27회 理博 崇實大學 명예교수)군 어머님과 우리 어머님은 日本말을 못한다고 해서 面會를 許可하지 않아 威興刑務所 入口에 앉아 하루종일 울고 헤어졌다고 한다.

도경에서 조사를 받고 起訴됐다. 罪名은 朝鮮○○保安令 違反이다. 刑務所 감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우리 白衣民族에게

하루 속히 自由의 날이 오기를! 刑務所에서는 每月 두장씩 우편엽서를 준다. 모든 엽서는 日本말로 쓰라는 조건이다. 나의 어머니는 日本글을 모르시니까 우리말로 어머니께 썼다. 다음 날 日人 刑護課長에게 呼出당해, 우리말로 편지 쓴 것은 일본어를 모르는 나의 어머니에게 面會도 許諾하지 않으니 엽서라도 朝鮮말로 써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더니 刑護課長은 크게 호통을 치고 나무 총으로 심하게 매를 쳤다. 다음 날 면회 오신 분이 있다고 해서 면회실에서 대기했더니 일본어를 못해서 면회를 못한다는 어머니가 오셨다. 어머니는 나의 囚人番號와 이름을 적은 쪽지를 제시하면서 아는 일본말이라고는 ‘하이’라는 말밖에 없으니 이래도 ‘하이’ 저래도 ‘하이’로 면회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面會가 끝난 후 감방에 돌아와 어머니의 깊은 愛情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刑務所에 있는 동안 편지라고는 두 통밖에 받은 것이 없는데 하나는 咸南中學에서 온 退學處分通知書이고 하나는 金熙文兄이 보낸 問安편지다. 하루 속히 統一이 되어 북에 있는 金熙文兄을 自由롭게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祈願한다. 이래서 나에겐 중학교 졸업장이 없다.

10월에 들어가서 公判이 있었는데 나의 刑量은 4년에 執行猶豫 5년이 었다. 金明壽兄은 起訴죄명이 나와 같은 罪名에 陸海軍刑法違反이 추가 되어 4년 實刑을 받고 金泉刑務所로 移送되어 服役하다가 8.15 解放으로 出獄하였다. 裁判때의 日人判事는 경남 馬山에서 中學校先生님으로 있다가 獨學으로 司法高試에 合格하여 法官이 된 분인데 출옥 후에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執行猶豫 중이라도 職場을 가지도록 勸告했다. 아버지는 이 말을 전해 들으시고 백방으로 就職자리를 찾으셨다. 마침 就職이 決定되어 道立病院 옆에 있는 咸城金融組에 첫 출근하여 보니 나의 序列은 給事 바로 위이고 咸南女中이나 永生女中 出身보다 아래였었다. 거기 에다 副理事 安斗伯이라는 者は 경찰에서 나를 담당한 安刑事(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조선어학회 사건 담당 악질 형사)의 뉘임을 알았다. 그러니

아주 심한 감시 下에서 일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金融組合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중앙敎會가 있었고 敎會엔 敎人들 집에서 일하는 女子아 이들이 공부하는 夜學校가 있었다. 나는 組合일이 끝나면 곧 夜學校로 갔다. 校長先生님은 中央敎會長老님이 겸하고 있었는데 내가 夜學校에서 일하는 동안 장로님은 金能根씨였다. 先生은 高斗星氏와 나의 姨母 李樂承氏 그리고 玄鳳學(23회) 先輩의 동생 玄時學씨(후에 海軍士官學校를 거쳐 海軍少將으로 作故)와 그 동생인 玄雄氏(在美言論人) 그리고 나다. 나는 그 夜學校에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뜻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日本 말을 꼭 쓰고 있는지, 불은思想을 선생들이 아이들에게 注入시키고 있지 않는지 밤이면 어두운 窓 밖에서 형사들이 우글거렸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無視하고 全部 우리말로 이야기하며 工夫를 즐겼다.

이렇게 지내다가 8.15! 38선을 넘어 上京했다.

해방후 첫 입시(46년 여름)에 무엇을 專攻할 것인지 決定도 안하고 같이 上京한 李炳國(27회 작고, 배제고교 교사)님이 京城大學 豫科를 志望한다기에 나도 李兄을 따르기로 했다. 京城大學 豫科는 日帝時에는 아주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지만 解放덕분에 大學入試를 치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한층 노력하기로 하였다. 어머니는 入試 며칠 전에 그 어려운 38선을 넘어 오셨다. 공교롭게도 豫科入試날 아침부터 暴雨가 쏟아져 어머니는 그 비를 맞으며 鐘岩洞에서 미아리終點까지 나를 위하여 우산을 사가지고 오셨다. 고마움에 눈물이 찬다. 그 후 어머니는 합격자發表도 보지 않고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38선을 넘어 다시 威興으로 가셨다. 8월 25일에 合格者 發表가 있었다. 炳國兄과 나는 合格이었다. 大學豫科에 合格하여 千寬雨(文理大 사학과 졸업, 작고 언론인) 兄이 편집하던 大學豫科新聞을 第13號부터 續刊 편집하였고 主로 演劇과 詩作에 몰두하였다. 당시 大學豫科新聞은 長安의 女大學生들에게 大人氣였다. 豫科 2학년 때 父母님과 동생 희구와 누이동생 영구가 같이 以北에서 피난 왔다.

대학예과 합격자 발표 후 韓恂鉉 선생님을, 선생님이 상경하신 후 유숙중이던 돈암동의 장남 昌淑(17회) 선배宅에 炳國兄과 함께 정종 뒷병을 사들고 찾아뵙고, 중학교 졸업 증명 관계로 애써 주신데(기술한 바와 같이 나에겐 정식 졸업장이 없었다) 다시 고마움을 말씀 드리고 두 사람의 합격을 보고 올렸다. 안암동 주거엔 며느님의 치과병원이 병설되어 있었다.

그 해 대학예과 합격자 수는 경기중학(1위), 평양 2중(평양고보 2위), 우리 함남중학(3위)순으로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예과 수료장이 존재하는지는 몰라도 나에겐 없다. 예과를 48년도에 수료하고 文理大 英文科에 진학했으나 졸업전인 50년의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에서 英文科 클래스메이트인 金眞玉 양의 소개로 상공부 비서실에서 金勳 장관을 모시고 미 대사관 상무관과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했다. 상공부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전시중의 피난생활이어서 임시수도 부산의 시장 관사에 대통령 공보비서였던 김 양의 부친(시인)과 김훈 장관이 동숙하고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 당시의 정부 각 부서의 비서실엔 문리대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매우 많았으며, 태백 그릴에서 문리대 출신의 秘書室 同友會를 가진 적도 있었다.

김옥진 양은 후일 불란서에 유학하여 화가 남관씨의 부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文理大 재학시절 校內行事 때 英文科學生들의 英語演劇이 있었는데 그때 演出을 보았다. 그 演劇에서 主役을 한 奉哲洙君은 6.25 동란 때 AP 기자로 活躍하더니 지금은 言論人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演劇에 梨花大學 金甲淳 教授가 參觀하셔서 대단히 기뻐다.

英文科에 있으면서 특히 記憶나는 것은 李炳國兄 누이동생 崇玉孃의 梨大英文科 卒業論文 작성에 적극 협조한 일이다. 主題는 Irish의 극작가 Oskar Wild였다.

나의 아버지는 1974년 8월 10일에 뇌졸중으로 여러 달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아버님의 1주기 추도예배를 집에서 보는데 威興에서부터 아버지의 친구였던 어느 장로님이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뭐냐고 묻자 어머니는 188장이라고 대답하시고 다 같이 188장을 찬미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독교 공원묘지에 나란히 묻혀 있다. 寒食이나 秋夕에 두 분 묘소에 省墓를 가면 우리는 꼭 188장을 부른다.

아버지는 少年時節부터 孝心이 지극하셔서 할머니가 病患으로 위독하실 때 당신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 그 피를 할머니에게 드렸다는 이야기를 나도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길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 주시곤 했다. 그때 아버지 왼손가락 하나가 반이 없는 것을 알았다.

나의 어머니는 2000년 2월 2일에 돌아가셨다. 나는 생전의 不孝를 어머니에게 꼭 사과 드리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러나 死後에 天國에 가지 못하면 어머니를 뵈올 수 없을 것이어서 고민하고 있다. 작년 12월에 척추골절로 아산병원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생활을 하면서 지난 날의 信仰生活을 곰곰이 되돌아 볼 시간을 가졌다. 우리집은 祖母부터 3대 기독교 집안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치면 4대가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天國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마 7:21)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약 2년을 고양에 있는 누이동생 집에 계셨다. 나는 그때 파킨슨증후군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통원치료 중이었고, 아내도 뇌수두증 수술 예후가 좋지 못하여 누이동생 집에 모시게 된 것이다. 그 사이 어머니는 몇 번 전화로 잠실 집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셨지

만 누이동생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하고 있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어머니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고 고양에 있는 119에 부탁하여 연희병원에 입원시키도록 누이동생에게 일러 두었다. 다음 날 연희병원으로 어머니를 뵈러 가니 어머니는 밝은 낮으로 찬송가 411장을 부르고 계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는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이미 느끼고 계셨던 것 같다. 찬송가 411장은 유년주일 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다. 그런데 그 병원은 이름만 병원이지 시설이나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었다. 누이동생과 상의하여 상계동에 새로 개원한 백병원에 어머니를 옮기기로 하였다.

어머니는 백병원에선 처음부터 重患者室에 입원하셨다. 그 病室에서는 하루에 유동식으로 된 깡통 6개씩을 주는데 간호원들에게 돈을 주고 잘 부탁한 환자들에게는 時間에 맞춰 유동식을 주지만 다른 환자들에게는 기저귀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귀찮아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누이동생이 아침 이른 시간에 어머니 얼굴을 닦아 드리러 갔더니 어머니가 조금 의식을 차려 배가 고프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니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 후 어머니는 완전히 혼수상태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나에게 소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취침 전에 魚肝油 한 숟가락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셨다. 당시(30년대 후반)는 제약회사에서 정제한 간유를 팔지 않았다. 그 간유가 써서 먹기 어렵다고 어머니께서는 한 손엔 간유, 또 한 손엔 김치 한쪽을 들고 먹게 하셨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새삼 고맙게 여겨진다.

나보다 하루 먼저 38선을 넘은 26회의 洪德泳형은 蹴球選手로 高麗大學에 入學하여 나중에는 國家代表 골키퍼로서 활약한 동문이다.

洪兄이 龍山 소재 研修會館이라는 苦學生 宿所에 있을 때 洪兄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셨다가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실 때 “나는 이제 가면 너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가니 앞으로 예수

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깊은 어머니의 사랑인가!

서울 桃洞에 있는 한성教會는 咸興 중앙教會에서 피난 온 敎友 18명이 1954년 3월 6일 李根承氏宅에 모여 첫 예배를 드린 곳으로 今年으로 50년이 된다. 나의 어머니는 발기인 18명중 마지막 생존자였다. 나와 劉鏞(27회, 전 인천전문대 교수)님은 1983년 2월 6일에 長老로 將立되었다.

아버지는 1956년 12월 16일에 한성교회에서 長老로 장립하셔서 1973년 3월 10일 은퇴하시고 1973년 12월 30일 공로 장로로 추대되었다. 아버지는 은퇴하신 후에도 나의 외삼촌이신 李根承長老님과 매일 교회 敎人들 家庭을 신방하셨다. 이 신방은 은퇴하시고 원로 長老로 추대된 李根承長老님이 病患으로 누우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같은 아버지의 교회를 위한 활동은 어머니가 조그만 보람을 느끼시며 뒷받침하신 德分으로 생각된다. 노후에 어머니께 엄습한 신경통은 그 추위에 견디며 보람으로 아시고 돌보신 후유증일 것이다. 또 내가 한성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것도 아버지, 어머니의 덕분으로 생각한다. 1962년 9월 4일 아버지의 回甲 피로연을 한성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때까지 없었던 교회의 의자를 우리 회사의 목수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精誠껏 美松으로 짜준 인연에서 일 것이다.

어머니는 한성교회에서 1983년 6월 20일에 권사로 임직하셨다. 과묵한 편이었다. 잠실아파트 집에서 큰 글자의 성경을 하루 종일 보시다가 더 나이가 많아져 며느리에게 拷生시킬 것을 걱정하시어 매일 걷는 운동을 하셨다. 이 큰 글자의 성경은 나의 長老 장립때 安長老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어머니 入棺 禮拜때 어머니 머리 옆에 넣어드렸다. 天國에서 성경책이 必要하실 것 같아서였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일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

비된 나라(천국)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때 의인들이 기억을 못하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지옥)”고 말씀하셨다.(마 25:34)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서두의 마태복음이나 지금의 로마서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의 命題이며 生活의 指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27회는 기독교 信者들이 많다. 幹事로 일하는 尹元基兄은 돌아가신 夫人이 西小門教會의 집사님이었고, 캐나다에 移民한 아들과 딸은 나이가 가라 韓人教會의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尹兄은 死後 西小門教會墓地的 夫人 옆에 묻힌다고 한다. 李鴻範兄은 同期同窓會 會食이 있어도 教會禮拜時間은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회도 每日 參席하는 한국 중앙선교교회 長老님이며, 경상도 尙州에 살고 있는 朴澈善兄은 洛洞教會의 篤實한 信者이며 아들은 洛洞教會의 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다. 元章煥兄은 자기 교회의 男선교회 會長이며 美國에서 神學工夫한 그의 아들은 서울에서 새 교회를 開拓하여 샘물교회의 담임牧師로 수고하더니 미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 우리 한성교회의 남선교회 헌신예배에도 元牧師님을 초청하여 說教를 들은 바 있다. 다음 安滉兄은 夫人과 같이 教會에 나가는데 夫人은 恩平중앙교회의 권사이고 安兄은 집사로 시무하다가 사위 吳牧師님이 경기도 坡州에 새로 참교회를 開拓함으로 아주 먼 거리의

그 교회로 나간다. 그리고 한성교회 劉綱長老와 나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많은 27회이니 우리 總同窓會에서도 남선교회를 發起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금년 11월이 되면 내 나이가 78세가 되는데 참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으로 바뀌지기를 바란다. 인체구조상 머리에서 가슴까지 40cm 밖에 안되는데 그 40cm의 旅程이 40년 이상 걸린다면 人間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닐까!

시카고大學의 하퍼總長이 1903년에 학생들에게 한 연설은 5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른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인간은 25세가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며 30세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의 철학으로 ‘산제물’이 될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연설은 젊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까지 짧은 연설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 각자의 가치관을 성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거친 세파에 시달리면서 처음 생각했던 고귀한 목적과 굽은 인생관은 무너지고 청운의 꿈도 놓쳐버린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과 실망 좌절과 낭패라는 장애물을 통과하고 끝까지 꿈을 잃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이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 꿈꿈이 생각하는 요즘이다.

◆◆◆◆◆ 28回 ◆◆◆◆◆

- ◎ Brazil 기행/ 李澈男 (28回)
- ◎ 盤龍山과 城川江/ 韓忠錫 (28回)
- ◎ 물 같이 바람 같이/ 韓炯周 (28回)
- ◎ 徒然草/ 朱赫淳 (28回)
- ◎ 나의 發明記/ 高景榮 (28回)
- ◎ 풀꽃 한송이 (1), 벽(壁) 63(2)/ 韓順虹
- ◎ 천재지변과 일본 그리고 사무라이와 사꾸라/ 申道均 (28回)



Brazil 기행

李 澈 男 (28回)

1.

전부터 남미의 Argentina, Brazil 와 Peru 쪽에 흥미가 있어 언제 한번 가보려고 했다. 더구나 Peru의 Inca의 역사와 유적, Brazil 의 Amazon Jungle 와 Rio de Janeiro 등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얼마 전 옛 친구를 만났는데 저녁에 한잔 하면서 지나간 그 사이의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하였다. 그 친구에 의하면 Los Angeles 의 한 여행사가 Brazil 여행을 취급한다고 했다. 너무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 우선 Brazil 여행만 하고 다른 곳은 다음 기회에 밀도록 했다. 그 여행사에 전화하니 마침 멀지 않아 미국을 떠나는 여행단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합치기로 했다.

지금 1월, 이곳은 겨울이나 그곳은 여름 한참, 여행사에서 모기에 대한 구충제(mosquito repellent)를 준비하라고 두 번이나 경고를 받았다. 서적을 찾아보니 Malaria, Yellow Fever, Dengu 같은 모기로 인하여 전파되는 질환이 풍토적으로 있다고 했다.

관광 일행이 Miami International Terminal 에 모여 인사를 하고 보니까 외에 14명, 모다 15명으로 되어 있었다. 얼마 전 한국의 KBS가 Brazil 기사를 소개한 후부터 한국에서 오는 관광단 수가 늘어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관광 온다고 했다. 우리 일행 중 남자 3명은 서울에서

온 서울대학 공대 출신, 나의 동생 일 년 후배여서 곧 친하게 되었다. 그 외에 한의사와 부인 2명, 남자들은 모두 연세가 70에 가깝거나 70을 넘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83세 된 노인 한 분 있었다.

Miami 공황을 United Airlines 여객기로 떠나 8시간 반 후에 남미에서 제일 큰 도시 Sao Paulo에 착륙, 곧 브라질 Varig Airlines 여객기로 갈아타고 브라질과 파라과이 접경에 있는 이과수(Iguassu)에 내려 호텔로 옮겼다. United Airlines 비행기에서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한 50세 정도의 이태리 계통의 브라질 사람인데 마이애미 근처에서 살며 의약품도 매상을 한다고 했다. 그 사람에 의하면 브라질의 크기가 미국 본토 크기만 하며 영토의 40%가 세계에서 제일 큰 삼림지대, 아마존 강과 그 지류, 다루림(rain forest)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약 1.7억,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고 했다. 내가 “브라질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군요” 했더니 “그런 말 내가 어렸을 때에도 들었소” 했다. 아마 경제 사회발전이 뜻대로 빠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첫 날은 전용버스로 파라과이(Paraguay)와 브라질 접경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이따우뿌 수력 발전소 구경을 갔다. 그 규모가 큰 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발전소를 위하여 경비가 아주 엄했다. 아마존 유역은 우량이 많아 그 충만한 물이 흐르는 강을 이용하여 여러 군데 댐과 수력 발전소를 지어 농업을 돕고 생선을 키운다고 했다. 브라질의 전력은 90%가 수력발전, 이 발전소가 그 지방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했다. 파라과이에는 한국 이민이 꽤 많았는데 근래 불경기로 대부분 다른 데로 분산했다고 안내자가 말했다.

점심은 도로가에 있는 꽤 큰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손님들은 다 옷을

깨끗이 입은 중류 이상의 지방 사람들로 보였다. 음식이 우리 식성에 맞고 괜찮았다. 기타, 바이올린과 하프(harp)로 구성된 여러 장식이 붙은 포르트갈 의상을 입은 악대가 테이블 사이를 다니면서 음악을 연주했다. 악대가 우리 테이블에 왔을 때 처음 한국이 끝나자 우리가 청하여 계속 음악을 연주했다. 남미, 라틴, 스페인 계통의 우리가 아는 음악이 많았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노래도 불렀다. 음악 중간 중간에 달리를 얼마씩 주머니에 넣어주니 우리 테이블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노래는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아리랑을 가르쳐 주려고 까지 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곤 했다.

오후에는 부라질 쪽의 이과수폭포(Iguassu Falls) 구경을 갔다. 이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Argentina) 접경에 있는데 남미의 거대한 자연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크기가 Niagara Falls를 능가한다. 폭포의 넓이가 4Km, 조금한 섬이 산재한 상류의 급류가 약 275개의 개별 폭포로 아래 골짜기에 떨어진다. 장마철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증가하여 275 폭포가 합쳐 한 큰 물보라에 덮인 거대한 흰 장벽을 형성한다고 했다. 자연의 위대함에 단단한 경외심을 품고 카메라로 바쁘게 장면을 찍었다.

저녁 식사는 시내에 있는 중국집에서 먹었다. 호텔로 돌아와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젊은 여자관광단이 그날 관광을 마치고 들어 왔다. 깜짝 놀랄 정도로 모두 날씬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옷을 입었다. 할리우드에서 온 여배우들인가 했는데 한국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일행의 한 사람이 물어보니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까?” 물어보니 좋다고 하여 여러 장면을 찍었다. 우리 일행의 한사람은 자기의 캠코더를 치켜들고 그 여자들을 따라 다녔다. 밤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한참 지내고 바에서 한 잔 하고 방에 돌아와 깊은 잠에 들었다.

2.

2일째는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 폭포 구경 갔다. 폭포 아래 한 지점에서 신발과 모자를 벗고 그곳에서 파는 비닐로 된 우비를 입고 구멍 재킷을 걸고 고속 보트를 탔다. 보트는 폭포 바로 아래까지 갔다. 일부러 운전사가 급커브로 돌기도 하고 비말이 짙은 곳으로 배를 몰기도 했다. 뱃전으로 물이 넘어오고 우비 사이로 물이 새여 폭 젖고 물이 등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은 이과수 폭포 최대의 장관인 '악마의 목구멍' 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갔다. 아직도 나는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의 폭포는 아주 크고 폭포 바로 앞에 섬이 있어 떨어지는 물이 유난이 광포하고 소란스럽고 위험해 보였다. 거기에 떨어지면 악마의 목구멍에 박혀있는 것 보다 더 살아날 희망이 적을 것이다. 또 뒤끓는 물에서 거무스레한 물안개가 공중에 올라가 먼데서 보면 마치 거대한 괴물이 팔을 벌리고 위협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인상도 주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는가 알아보려고 한다.

점심 후 세계 3대 미항(美港)중의 하나이며 부라질의 제 2 큰 도시인 리오데자네이로(Rio de Janeiro)행 비행기를 탔다. 그날 저녁 리오에 착륙하여 가파가바나 해변에 있는 5성 호텔 Orthon Palace Hotel 에 투숙했다. 9층 호텔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니 바닷가와 호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야외 레스터런트는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 '낭만과 정열의 리오' 라고 누가 말한 것이 기억났다. 어디서 삼바(Samba) 음악이 들려왔다. 탱고가 아르헨티나에서 인기 있듯이 브라질에서는 삼바가 인기가 있다. 이 음악은 원주 남미사람들의 음울 Portuguese 와 아프리카의 리듬과 노래 형식에서 기원 되었는데 특히 사순절(Lent) 전에 열리는

Carnival 때 삼바 음악과 춤이 열정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

Rio de Janeiro란 이름은 영어로 River of January, 1500년에 처음 현 브라질에 온 포르티즈 사람들이 1502년 정월 1일에 Rio에 와서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했다. 포르티즈 사람들은 브라질을 식민지로 만들고 설탕 수수와 커피 농장을 운영하느라 수백만 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실어왔다. 1850년도에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구라과인들의 이민이 시작, Italy, Spain, Germany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왔다. 리오의 인구의 2/3은 흑인이나 혼혈인이다. 현재 브라질의 인종 구성은 백인 55%, 흑인 6%, 혼혈 38%, 나머지는 아랍인과 일본사람. 브라질에는 공공연한 민족 차별은 없고 민족 관용과 받아들임을 브라질 사회의 특색이라 하지만 사회적인 분리가 있어 백인에게 정치적, 경제적 특권이 있고 흑인이나 원주민은 불리한 상태에 있다. 빈부의 차가 대단이 크다. 리오의 빈민촌(Favelas)이 그 한 예가 되겠다.

제일 보급된 우세한 종교는 로만 카톨릭(Roman Catholic), 70%이상의 인구가 이에 속한다. 로만 카톨릭 신부들은 빈곤자와 소수 민족의 사회 복지와 인권 옹호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남미 인구 증가에 기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수를 늘렸다고 누가 말했다.

3.

3일째는 리오 데 자네이로의 제일 유명한 기념 건조물인 구세주 그리스도(Christ the Redeemer)상을 구경 갔다. 오래전부터 엽서 그림에서 본 리오데자네이로의 그리스도 구세주 상과 앞에 보이는 돌산 광경이 몹시 인상에 남아 아무 때나 한번 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가보는 것이었다. 그 상은 높이가 700미터 되는 콜코바도산(Corcovado Mountain)

꼭대기에 있으며 등산 케이블 카를 타고 올라간다. 이 상은 브라질이 포르트갈부터 독립한 100 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은 것인데 1931년에 완성되었다. 이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조상은 높이가 30미터이며 6미터 되는 주축대 위에서 서 있다. 조상은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고 아래 보이는 리오데자네이로 시를 껴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리오데자네이로 일대 풍경은 아름답기만 했다.

다음은 케이블 카를 타고 슈가로프산(뽕산)에 올라갔다. 이 산은 한 덩어리의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구아나바라 만(Guanabara Bay)에 돌출한 반도에 있다. 여기서 보는 경치가 역시 드물게 아름다웠다. 이 돌산과 그리스도 구세주의 조상이 리오의 제일 유명한 두 경계표다. 이 뽕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멀게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름이 그 쪽 산을 덮어 때때로 그리스도 조상만 흰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꺼졌다 했다. 뽕산 꼭대기에 상점이 있는데 거기서 오닉스(Onyx)로 만든 손 바닥만한 크기의 거북이를 보았다. 나는 과거 여러 해 여행 할 때마다 상점에서 거북이를 찾는 것을 큰 흥미로 하고 있었다. 사가지고 집에 오면 배에다 그것을 산 장소와 시일을 적어 놓는다. 후에 그것을 보고 아 - 내가 언제 어디로 갔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제 거북이 수집이 꽤 되어 curio cabinet에 진열 해 놓으니 보기 좋다. 얼마 안 있어 cabinet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점심은 상급 층인 Ipanema 해변의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중국집에서 먹었다. 식당 앞 길 넘어에 있는 부두에는 여러 크기의 yacht, sailboat가 보였다. 점심 후 부둣가를 걸으니 브라질 작곡가 Antonio Carlos Jobim이 작곡해서 한때 미국과 구라파에서도 인기 있었던 노래 'The Girl in Ipanema' 멜로디가 낮은 콧소리로 저절로 나왔다.

점심 먹는데 대한민국 국회 의장 이만섭씨가 와서 인사를 했다. 그 분은 파라과이 쪽으로 여행하시다가 거기에 들린 것이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분을 잘 알고 있었다. 오후에는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 코파가바나, 아빠네마, 레브링, 보타포고, 썬콘하도 등을 구경했다. 저녁은 카파카바나 해변에 있는 레스터런트에서 먹었는데 열 몇 가지의 육류가 나와 하나씩 시식하다보니 만족이 되었다.

4.

4일째는 리오를 떠나 브라질의 중남부에 있는 수도 브라질리아(Brazilia)를 잠깐 거쳐 아마존의 항구 도시, 마나우스(Manaus)에 착륙했다. 마나우스는 하구에서 1600Km 상류, 거대한 아마존이 두 갈래로 갈리는 지점에 있다. 북쪽 강은 이름이 리오 네그로, 물이 좀 거무스레하고 남쪽 강은 솔리모네스 강, 물색이 황토색이다. 이 지점에서 하류쪽 약 10Km는 물이 섞이지 않아 아마존 강의 한쪽은 황토색, 한쪽은 거무스레한 물이 흐르는 기괴한 광경을 연출한다. 배를 나누어 타고 양 강이 합치는 데까지 갔다 조고만 지류에 들어가 강가에서 사는 사람들의 물에 떠 있는 집과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장면을 구경했다. 큰 대양을 항행하는 배가 강에 정박하고 있었다. 이런 배가 강의 2/3 상류까지 운행할 수 있고 조금 적은 배는 이쿠이도스(Iquitos, Peru, 하구에서 3700Km상류)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둘째로 긴 강(첫째는 아프리카의 나일 강)이나 강의 물 배출량은 제일 크다. 그날 저녁은 Tropical Manaus Resort에 머무렸다. 저녁은 시내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소주 맛이 괜찮았다.

5.

5일째는 마나우스 시내 구경, 꽤 큰 한국 삼성회사 시설이 길가에서 보

였다. 남미 원주민들의 박물관을 구경하고 아마로나스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 18세기~19세기 초에 설탕, 커피, 아마존 정글에서 나는 고무 등으로 부자가 된 구라파인들이 이 구라파식 오페라 하우스에서 차려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오고 가고하는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지금은 색이 사라져 가고 한물 간 것 같으나 아직도 한 달에 한번 정도 공연이 있다고 했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아마존에서 나는 고기와 곤충을 전시한 박물관을 보았다. 꽤 되는 수의 일본 사람들이 한 80년 전에 이곳에 이민 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회 안정에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는 조고만 연락선을 타고 아마존 장굴 속에 있는 유일한 Ariau Tower Hotel에 갔다. 떠나기 전 큰 짐은 호텔에 보관시키고 이틀 갈아 입을 옷과 꼭 필요한 화장품, 모기 구충제만 가지고 오라고 했다. 배를 타고 한 2시간 지나 목적지에 도착, 정글속의 호텔에 들어갔다. 모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구조가 나무 기둥위에 지상에서 한 15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정글 속에 들어왔다는 기분이 났다. 원숭이가 여러 마리 보였다.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돌아 가면서 의자를 넘어뜨리거나 테이블 위에서 논다. 손을 내밀면 와서 잡고 어깨에 띄어 오른다. 아주 우호적이었다. 게시판에 원숭이에게 술(Alcohol)을 주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시설은 모든 것이 목조이며 지정된 방의 간소한 화장실에는 뜨거운 물은 없고 찬물로 샤워 했다. 이를 닦으면서 보니 원숭이가 스크린 도아 밖에 거꾸로 매달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호텔 음식이 괜찮았다.

그날 저녁에는 악어잡이 하러 갔다. 어두워지면서 일행은 아마존의 지류 강가에 내려가 선미에 모터를 단 길쭉한 알미늄 배를 타고 악어를 찾아 다녔다. 배 맨 앞 끝에 안내자가 서서 손에 든 탐조등을 사방에 빛이

며 악어를 찾았다. 어두운데 한 쌍의 악어 눈이 탐조등 불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천천히 악어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안내자가 물속에 뛰어 들어 악어의 목을 잡고 배에 올라왔다. 악어는 머리와 꼬리를 좌우로 비틀면서 이 난폭한 행위에 항의를 제시했다. 악어의 크기는 한 4척, 두 살짜리라고 했다. 안내자가 악어를 들어 우리 모두 만져보았다. 등은 딱딱했으나 배나 손발은 아주 부드럽고 연했다. 원숭이의 손바닥이 부드럽고 연하던 것이 생각났다. 모두 악어를 가까이 보고 만져보고 만족한 후 물에 집어넣으니 그 놈이 물을 튀기면서 도망쳤다. 아마존의 지독한 독사와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아마존에 독특한 피라나 물고기가 무섭지 않는가, 또 물이 깊고 다 큰 악어였다라면 결과가 어찌했을까 필요없는 걱정까지 했다.

6.

6일째는 새벽에 일어나 아마존 강의 일출관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날이 흐려서 가지 못하고 조식 후 피라나(piranha) 낚시질 갔다. 아마존 강의 한 지류를 배를 타고 가니 강변의 나무들에 지난 장마기 홍수때 물이 얼마나 올라 왔는가 하는 증거가 있었다. 고수위선(high water mark)이 나무들의 거위 절반까지 올라와 이 지대전부가 물바다였다는 것을 알렸다.

피라나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다. 이 물고기는 역센 턱에다 톱날 같은 이를 가진 사나운 고기로 알려져 있다. 배고픈 고기떼가 물을 뒤끓게 하면서 몇 분 내에 소 한 마리를 빼만 남게 갈가리 먹어 치운다는 이야기라든가, 말에서 물에 떨어진 군인이 몇 분 내에 빼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70명이나 있는 중년 남자가 피라나 고기가 성욕을 돋운다고 매일 피라나 낚시질 나간다는 우스꽝스런 소리도 있다. 피

라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큰 것은 2척이나 되며 작은 것은 손바닥보다 더 작다. 큰 사나운 종류가 낚시에 물리면 물 표면까지 끌어올려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인사불성시켜놓고 배에 들어 올린다고 했다. 피라나와 맹전할 것을 기대하며 목적지까지 가니 낚싯대를 주는데 아주 빈약하고 줄이 가늘다. 생고기 덩어리 조그마한 것을 미끼로 물에 집어넣으니 곧 물기 시작하여 여러 마리 잡았는데 모두 손바닥보다 작았다. 고기를 올려오면 안내자와 조수가 낚싯바늘을 고기 입에서 빼는데 조심조심 했다. 그 조그마한 고기도 이빨이 아주 날카로웠다.

오후에는 아마존 정글 다우림 속을 걸었다. 모기약을 잘 바르고 오라고 했다. 책에서 읽은 키 높은 나무와 그 아래 여러 층의 식물이 있고 지상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는 묘사와는 달리 이곳은 식물이 그리 조밀치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열대나무와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다른 나무에 붙어사는 여러 가지 덩굴식물을 보았다. 고무나무도 이곳에서 처음 보았다.

다음 이 정글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보러갔다. 우리 배가 가까이 가니 발가벗은 아이들 몇이 물가에서 놀고 있고, 주부로 보이는 햇볕에 그늘어진 중년 부인이 강에서 잡은 생선을 손질하여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은 언덕위에 있는데 아주 단순하고 가구라고는 별로 없다. 마당과 뜰은 꽤 넓은데 농사는 짓는 것 같지 않았다. 정글에서 나는 과일과 경과, 강에서 잡히는 생선, 나무뿌리에서 얻는 고구마처럼 전분이 풍부한 가사바(cassava, manioc)라는 이름의 음식 등으로 기본 식량문제는 쉽게 짐가까이에서 해결된다고 했다. 이런데서 이와 같이 살면 대통령 선거나 세금에 관하여 걱정 안 해도 되고 50년, 100년이 꿈 같이 지나 갈 것이다. 그러나 무지와 빈곤의 대가가 클 것이다.

이곳은 열대지방이고 한여름인데 별로 더운 것을 느끼지 않았으며 모기도 우리가 사는 곳에 비해 더 심한 줄 몰랐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이 날씨는 아주 느긋하고 여행은 순조로웠다. 음식도 좋았으며 원하면 가는 데마다 동양음식집을 찾을 수 있었다. 리이 데 자네이로로 돌아와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이애미에 도달, 모두 인사할 사이도 없이 헤어졌다.

우리 일행 중의 83세 된 분은 그 연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도 빠지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줌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소주도 좋아하시고 옷도 제일 단정하게 입으셨다. 그분을 보고 나도 앞으로 여러 해 이와 같이 여행 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얻었다.

盤龍山과 城川江

韓 忠 錫 (28回)

咸鏡南道の 道廳所在地가 咸興이다. 東海岸의 큰 都市로서 文物의 中心이자 集散地이며 咸興差使의 悲話를 비롯하여 李太祖와 관련된 史話가 많은 곳이다. 馳馬台도 李太祖의 젊은 시절 산악훈련용 馬術장으로 유명한 史蹟이지만 日政時代엔 그곳이 있는 盤龍의 기슭에 그들의 神社가 있어 우리들 기억의 한 페이지를 엮는다. 일제의 강요로 시내 학생들은 그들의 축제일엔 隊列을 지어 神社參拜를 했다. 우리 南中學生隊列이 昭和通을 지나 가다 咸南女中 永生女中生 隊列과 마주치게 되면 서로서로 눈짓으로 陰陽이 通하여 2.8 青春이라 氣分이 참 좋았던 時節이다. 떠오르는 追憶을 어찌하라! 우리는 또 強制動員되어 興南肥料工場에 留宿하면서 勤勞奉仕한 苦難의 在學時節도 있었다.

B29의 高空飛行을 보고 軍國 日本의 敗戰을 豫測했고, 咸興學生事件이 發覺되어 獄苦도 치렀다. 우리 28回의 卒業年度가 해방되는 해의 1945년 봄.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남북분단의 38선을 넘어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1950년 6·25 韓國戰爭의 東西熱戰 3年間은 그야말로 骨肉相殘의 悲劇이었고 38線은 오늘날까지 休戰線이 되어 兄弟들이 銃을 겨누고 있고, 平和統一의 念願은 멀기만하다. 興南港口에서의 UN軍 撤收作戰으로 咸鏡道 避難民들은 九死一生, LST軍艦에 올라가서 巨濟島 收容所까지 왔다. 그때의 慘狀을 具常詩人은 '沈清이처럼 불쌍한 避難民' 이라고 표현

했다. 巨濟島 捕虜收容所 公園內에 우리 咸鏡道 避難民의 記念碑를 세웠다고 한다. 史蹟으로서 남겠지! 却說하고 咸興에는 盤龍山이 뒤에 웅쳐림 누워있고, 앞에서는 城川江이 굽이굽이 흘러드는데 萬歲橋의 다리 밝기는 歲時風俗으로 유명하다. 대보름날에 다리밝기를 하면 오래오래 健康하여 長壽한다는 傳說인데 그 念願이 가지가지 일지라도 國破山河在라! 統一의 誓願이 한결같이 冲天하는구나! 盤龍山 기슭의 山手町 上水道 送水池의 벚꽃놀이를 하면서 소나무 散策길에 들어서 나비를 따라 銀杏나무 우거진 鄉校터까지 가노라면 文學青年의 꿈이 텅고, 城川江에는 물놀이하고 낚시질하던 青春時節이 새록새록 回想된다. 그림구나! 야아 그림다.

‘山은 山이요, 물은 물이로다’ 性徹큰스님의 法句이다. 盤龍山과 城川江도 太古때부터 治山治水하면서 子孫萬代로 樂山樂水로서 긴 歷史속에서 모진 歲月을 보냈다고 하니 人生到處 有青山이라! 離散家族들의 痛恨이 끊어 터진다해도 그 어떠하리! 이리하여 우리는 南北의 青山을 헤매노라. ‘달아달아 밝은 달아 李太白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金도끼로 찍어내고 銀도끼로 다듬어서 草家三間 집을 짓고 兩親父母 모셔다가 千年萬年 살고지’ 이 童謠를 2004년 9월 28일 秋夕節 보름달을 보면서 余生을 술 한잔에 흘러보낸다. 요새 白頭大幹을 그대로 지키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여러갈래 江물을 保存하자는 綠色運動이 全國 坊坊谷谷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우리 錦繡江山은 生命의 源泉이요 豐饒의 터전이다. 우리의 어머니는 山이요, 아버지는 물이다. 그래서 治山 治水의 德分에 永生하는 倍達民族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同胞여 永遠하여라 萬歲부르자.

詩題 '兩親父母' 相火(頌)

(1) 어머니는 山이요, 아버지는 물이로다.

樂山 樂水하면서 歲月을 바라보니
앞山도 아름답고 뒷山도 참 좋구나
뒷山에서는 아기를 낳고 앞山에서는 젖을 먹이네
生命의 源泉이다 어머니는 偉大하여라
참 사랑의 花神이여!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2) 샘물도 흐르고 빗물도 흐르니

江물이 되고 저 바다에 가더니
하늘에 올라가서는 뭉게구름이 되어서
바람따라 東西南北으로 흘러가네
빗물이 되어 온누리를 적시는 아버지
糧食의 倉庫가 되어 우리들을 키우네
아아 永生의 根神이여!

통 일

아!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흘러 갔어도
우리의 마음은 마냥 그대뿐입니다.
삼천리 강산에 통일! 꿈에서도 우리는 통일
그날에는 실컷 울겠나이다

혜산진(惠山鎭)

백두산 천지 이 땅에 펼친 지 아득한 옛날
압록강이 흐르고 두만강도 흐르나니
송하강에 태극으로 돌아드니
삼천리 금수강산 따라서
삼해에 창과가 춤춘다네
천고의 역사 지켜 본 혜산진 괘궁정(卦弓亭)아
이 국경을 지켜 온 통한이 그 얼마나
그대는 백의민족의 숨은 영웅이로세
우리의 혜산진 그 이름 영원하여라

조상대대로 축원하던 제단령(祭壇嶺)에 올라서니
산천은 산천이로되 백두산 산신 국사당(國祀堂)은 간데 없네
아 역사는 묵어가며 세월은 자라가면서
남북 칠천만 민족이 바라는 통일조국
그 곳을 차마 꿈엔들 잊으오리까
어즈버 지나간 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우리의 혜산진 그 이름 영원하여라

광복 59돐(국토분단 59주년) 哀詩

망 향

휴전선 너머도 내 조국강산인데
편지 한 장 못보내는 이산의 한이여
저기 흘러가는 저 구름아 어디로 가니
이 애달픈 소식이나 전해주렴

길은 두줄기 남북 삼천리
지나가는 마을마다 단장의 한숨소리
강물은 흘러 흘러 바다에
저렇게 흘러가는 나그네여!

긴세월아 우리 서로 얼싸안고
서로곶 고향땅에서 만나보세

그 알량한 이념이란 깃발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가?
고희의 고개까지 통곡하고서도
그 시비가 끝이 없이 으러렁대기만 하니
우리의 심장을 쥐어짜서라도
한겨레된 정으로 뭉쳐야만 산다
수수만년 지켜온 우리의 금수강산에
천지의 마음이 열린다
아 홍익인간의 큰 길이여

아 홍익인간의 큰 길이어
어느날 새벽에 들려오는 통일의 종소리

광 복

너도나도 죽어서 통일이 된다면
푸른 하늘, 푸른 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우리 모두 부활하리니
아 다시 찾은 한 배달의 조국이어!

물 같이 바람 같이

韓 炯 周 (28回)

몇 년 되었다. 눈빛이 꽃시슴처럼 선하고 키가 자그마한 중년의 여스님이 나의 진료실에 찾아와 며칠 간 소화불량에 대한 진료를 받고 떠나면서 합죽선(合竹扇)을 선물로 남겨 주었다.

때가 삼복더위의 막바지라 그 선물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다. 부채를 펴 들고 얼굴에 부쳐보니 바람이 잘 일고 손에 닿는 감촉으로 보아 정성 들여 만든 물건임을 알 수 있어서 애착이 갔다. 부채의 앞면을 살펴보니 그곳엔 다듬어진 붓글씨로 다음과 같은 선시(禪詩)가 적혀 있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경오 한여름 나옹선사 선시 일절을 씬 석초

나는 그 선시를 처음 대하는 순간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두 번 읽으니 더욱 내용에 관심이 가고, 세 번째 소리내며 읽고 나니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인간사회에는 말이 많다. 당치않은 이유나 변명

도 많고, 탓도 많고, 자기자랑도 많다. 청산(靑山)처럼 푸르게 등직하게 말없이 청산이란 넓은 의미에서 뼈를 묻는 산 즉, 분묘(墳墓)의 땅이란 뜻도 있어서 이 낱말을 대할 때 마음속엔 친근감과 함께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

티없이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가꾸라는 뜻이다. 나옹은 창공(蒼空)처럼 티없이 맑게 살라고 가르침을 준다. 푸른 하늘에는 은하수도 흐르거니와 그 곳엔 절대적인 조물주의 권위가 존재한다. 따라서 옛부터 인간들은 하늘에 맹세를 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이 산다고 시로도 읊었다. 창공처럼 티없이 깨끗이 살라는 표현은 심금을 울린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가장 흉하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경계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란 뜻이 되겠다. 탐욕은 고귀한 인간의 이성과는 거리가 먼 미욕한 사람의 전유물이다. 다듬지 않고 정확되지 않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남은 아랑곳없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기 흉한 심리작용이다. 우리들은 주변에서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성냄이란 화를 낸다는 뜻이다. 화를 낸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사실과도 상통한다. 분노나 증오 감정은 건강에 지극히 해롭다. 그것은 곧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인생은 사랑 속에 살면 행복하고, 증오와 분노 속에 살면 불행하게 되어있다.

사람의 웃는 얼굴은 아름답고 성낸 얼굴은 그 사람이 간직하는 표정 중에서 가장 못난 얼굴이다. 눈은 찌지고 눈물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입가에는 경련이 일고 때에 따라서 게거품을 물게 된다. 얼굴색도 붉으락 푸르락이니 누가 보아도 입맛이 가지고 혐오스런 표정이 된다. 그러지 않아도 인종적으로 별로 잘 생기지 못한 몽고리안 얼굴을 부드럽게 인상

좋게 가꾸지는 못하더라도 화를 내서 흉측한 표정을 짓는 일은 본인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삼가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 옛날 고려시대 공민왕의 왕사(王師)였던 고승 나옹이 인생을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고 읊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신비스런 대자연을 생각할 때 이미 한 인간으로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의 삶이란 유한의 어느 순간에 지나지 않은 극히 보잘 것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이란 끝없는 여정에서 잠깐 머무는 여인숙 생활과 같이 허무하고 서글픈 것이란 생각에 잠길 대도 있다.

나 이제 인생의 마루턱을 넘어섰다. 여기서 새삼 나를 돌아보게 되며 앞으로의 여생을 더욱 후회 없이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에 잠긴다.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攝理)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청산처럼 말없이, 창공처럼 티없이 탐욕이나 성냄도 멀리하고, 물 같이 바람 같이 행운유수(行雲流水)처럼 살다가 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파도타기 (2)

파도타기라는 해양(海洋) 스포츠가 하와이 해변에서 성행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 바다가 아닌 운동경기장에서 파도타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색적인 응원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명칭과 내용이 흥미로워서 신선한 느낌도 받았다.

스탠드를 매운 관객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절도 있게 일제히 벌떡 일

어서서 만세 부르는 자세를 취하곤 즉시 제자리에 앉는다. 모든 참가자가 합심하여 동작을 차례로 연출하면, 넓은 경기장에는 인파의 물결이 일고 파도타기는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만면희색이고 보는 사람도 덩달아 흥이 난다. 경기장 전체에 흥분과 활기가 일고, 울려 퍼지는 응원가나 북치는 소리가 요란하면 분위기는 한결 고조된다. TV 화면에서 보고 있노라면 나도 그 속에 몸담고 있으면 즐겁겠다는 엉뚱한 생각에 잠길 때도 있었다.

요즘 의약분업 문제로 사회가 대단히 시끄러워졌다. 나는 의사로서 소신에 따라 동료 의사들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 부득이 휴진(休診)할 때는 하고, 참석할 모임이 있으면 기꺼이 참석하였다.

우리들에게 닥친 불행한 현안들을 젊은 후배 의사들에게만 맡기고 팔짱끼고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이다.

어느 전국적인 의사들의 썰기대회에서 겪은 일이다. 집합 시간에 맞추어 모임 장소에 도착하였다. 안면이 있는 70대 노의사(老醫師) 셋이 인파에 섞여 나란히 앉았다.

식순에 따라 대회는 진행되고 차츰 장내 분위가 고조되더니 드디어 지난날 내가 흥미를 느꼈던 파도타기가 시작되었다. 뜻밖이어서 마음도 들떴다.

확성기에서 지휘하는 구령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우~소리가 들려오면서 우측으로부터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그 파도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밀려온다. 나는 몰려오는 파도를 잘 타기 위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시기를 놓칠세라 힘차게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며 만세 동작을 취하곤 털썩 주저앉았다. 처음 파도는 얼떨결에 제대로 탈수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면서 벌떡 일어서는데 은근히 부담이 갔다. 그래도 우리 셋은 간신히 주변과 호흡을 맞출 수가 있었다. 다행스럽다고 느끼며 서로 안도의 눈맞춤을 하였다. 드디어 세 번째 파도타기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셋 중의 연장자 김선생이 “애고! 애고!” 소리지르며 억지로 일어서려다 주저앉고 말았다. 그 다음 파도에는 박선생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며 주저앉고 너털웃음을 짓는다. 나도 일어설 때 하체에 힘이 떨어져 “얹!” 하는 기합 소리가 저절로 나오면서 만세 동작과 함께 털썩 좌석에 주저앉았다. 그 다음부터 셋은 앉은자리에서 엉덩이를 겨우 들었다 놓았다 하며 파도가 올 때마다 어설픈 만세 동작을 연출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항복하는 패전병의 몰골이라 하겠다.

그렇게 되니, 파도타기도 우리 차례에 와서 균형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다. 명색이 의기양양, 의협심에 불타는 쫓기대회 참석자인데 그 기개는 어디가고 체면이 말이 아니다. 셋은 서로 계면쩍어서 서글픈 웃음만 짓고 있었다. 무릎도 아프거니와 다리에 힘이 딸리고,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따르지 못함을 어이하라. 우리는 서로의 초라한 모습에서 새삼 흐르는 세월을 실감하였다. 다음부터는 쫓기대회가 있어도 주제넘게 참석하는 것은 삼가야겠다고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이 담긴 말을 건네면서 다짐하였다.

그 후 며칠이 지나서 나는 미루어왔던 이산가족 생사확인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 파도타기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더 늦기 전에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이다.

다행히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면회소 설치 문제도 진전을 보이며 남북 당사자간에 진지하게 거론되는 시점에 왔다. 꿈 같은 이야기다.

생존하셨으면 103세와 97세가 되실 부모님과의 상봉은 기대할 수가 없고, 76세의 형님과 70세의 누이동생 그리고 67세가 되었을 막내동생의 얼굴이 그립게 다가온다. 더 늦기 전에 그들과 만나 안아보고 어루만지고 마음껏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상봉을 신청한 다음부터 더욱 간절해졌다.

길 아래 두 돌부처 벗고 굽고 마주서서
바람비 눈서리를 일년 내 맞을 망정
평생에 이별이 없으니 그를 좋아하노라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이별」이란 아름다운 시조다.

대학 예과(豫科) 시절 국문학 강좌 시간에 가람 이병기(李秉岐) 선생께서 이 시조를 특별히 흑판에 옮기시고 열강하셨다. 나는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시조를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때에 따라 되새기고 있다.

이제 가을도 깊어간다. 눈에는 벗가리도 끝나간다. 텅빈 눈 가운데 홀로서 있는 허수아비가 더욱 외로워 보이는 계절이다. 북녘 하늘에서 날아오는 기러기 떼는 새삼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게 한다.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머지않아 송년 모임도 있게 되고 뒤따라 신년이 올 것이다.

새해에는 마음속에 노인을 받아들이는 여유와 낙천성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차분한 마음으로 나의 혈육 상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릴 것이다.

徒然草

- 徒然草라 쓰고 '심심풀' 이라고 읽는다 -

朱 赫 淳 (28回)

兼好法師의 徒然草(1331년)는 “つれづれなるままに、日暮らし、硯にむかひて、心にうつりゆくよしなし事を、そこなかとなく書つくれば、あやしうこそものぐるほしけれ”로 시작한다.

법사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하루 종일 서가 앞에 앉아 글을 써서 후세에 명 수필을 남겼는데 등이 따듯하고 배가 부르면 老醜居士는 방바닥에 누워 追想과 妄想과 迷想에 잠긴다.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이제는 모두 老翁이 된 옛 아카시아의 주민들에게 심심풀이나 되었으면 하여 잡문을 적는다.

徒然이 왜 “つれづれ” 인가?

우리들은 天을 ‘하늘 천’, 地를 ‘땅 지’ 라고 천지문에서 뜻과 음을 함께 배웠다. 그래서 天地의 음은 천지이고 뜻은 하늘과 땅임을 안다. 그러나 天地는 천지라고만 읽지 ‘하늘 땅’ 이라고는 읽지 않는다. 아니 읽지 못한다. 그런데 일인들은 이를 음으로 ‘テンチ(천지)’ 라고도 읽지만 스펠링 없이 뜻으로 ‘アメツチ(하늘 땅)’ 라고도 읽는다. 한자를 그들에게 가르친 우리가 안 쓰는 방편을 그들은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린 한자 발생지인 중국에서 쓰지 않는 뜻 읽기를 시도하지 못했는데 (또는 배워준 중국이 쓰지 않는 방법의 시도가 불경스럽다 해서 안했는

지?) 일인들은 실익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일인은 모방(マネル)하는데는 능하지만 창조성에는 뒤떨어진다고 폄하한다. 그러나 흉내내기(모방)와 응용력과 창의력은 전연 별개의 것일까?

어느 일인 평론가는 “흉내내기가 왜 나빠! 학습의 기본은 곧 흉내내기가 아닌가. 우리는 배움(學)을 마ナブ라고 한다. 이는 마ネル와 어원이 같다”라고 당당히 말한다. 한자를 뜻 읽기로 발전시켜 생활화한 그들이었기에 오늘의 일본이 있는지도 모른다.

匪賊, 附屬, 馬賊

우리 금정(錦町) 소학교 꾸러기들은 황금정(黃金町) 소학교 패들을 만나면 “고가네 무시(黃金蟲), 난킨무시(南京蟲), 이, 벼루기!” 하고 놀려댔고, 사범부속 소학교 암전이들에게는 “히조꾸(匪賊) 후조꾸(附屬) 바조꾸(馬賊)!” 해서 울렸다. 이때의 그들의 대꾸는 “니시끼, 내 식구, 네 식구”였다. 고가네 무시는 풍덩이고 난킨무시는 빈대다. 고가네 무시는 고가네 마찌(黃金町)소학교의 벌레라는 뜻과도 통한다. 비적의 히조꾸, 마적의 바조꾸는 부속 소학교의 후조꾸와 어조가 같아서 붙인 것이다. 그들의 대꾸인 니시끼는 금정(錦町)소학교의 錦이고 내 식구 네 식구는 니시끼와 어조를 맞춘 내 食口(my family), 네 食口(your family)여서 욕도 놀림도 아니다.

그런데 우린 함흥 소학교의 일인 아이들과 만나면 “일본 놈, 댕본 놈, 숫본 놈”하고 소리내어 놀렸는데 댕본놈, 숫본놈의 뜻은 아직 모르겠다. 혹시 “일본놈들, 너희들은 대일본(大日本)이라 뿔내는데 어째서 댕본(大本)이나 숫본(小本)이지, 왜(倭)놈의 주제에!”이란 뜻이였는지도 모른다.

이 유소년(幼少年)시절에 사용했던 말 속에 아직도 모를 말이 또 있다. 축구 하다가 공이 손에 닿으면 ‘헨’ 이라 했고 반칙을 하면 ‘브레크’를 선언했다. 또 공이 Side line(시라이 교관 식으로 말하면 line 선)밖으로 나

가면 '마이 볼'을 외쳐댔다. 헨은 Handling이고, 브레이크는 free kick의 잘못이다. free도 kick도 몰랐지만 일본어화한 brake에는 익숙했던 모양이다. 또 공이 밖으로 나간 현상과 'throw in'을 묶어서 '마이 볼'이라고 부른 것은 성인 축구를 구경하다 공이 너희 몸에 닿고 선 밖으로 나갔으니 throw in은 우리가 해야한다고 서로 my ball, my ball하는 것을 들면서 유쾌한 것일게다. 그런데 우리들은 야구에서 ball 넷(4球)을 '데이칸'이라 불렀고, 타자는 1루로 진루했다. 데이칸의 출처는 무엇이었을까? they can의 데이칸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연관성은?

같은 마을에서 이 시절을 함께 지냈던 이구륜(李求輪 29회)군이 부산에서 귀향치 못한 한을 품은 채 하직했으니 이젠 박승재(朴承宰 32회)군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글썄 당시의 나이가 워낙 어려서!(박사장, 70넘은 나이에 젊었다는 말을 듣는 것도 복이오!)

마지막 수업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자유주의 문학운동가인 알퐁스 도데의 작품에 어른들도 읽는 유명한 동화 '마지막 수업'이 있다.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 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년 프란츠의 눈을 통해 독일의 지배로 인해 더 이상 프랑스어를 수업할 수 없게 된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을 묘사한 글이다.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하는데, 시작해야 하는데 울컥 나오려는 눈물이 시야를 가린다. 아멜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칠판에 프랑스어로 쓴, 진짜 마지막으로 쓴 글귀는 '프랑스 만세'였다.

망국의 소년인 나에게도 마지막 모국어 수업이 있었다. 나의 이 마지막 수업은 소학교 4학년 초였다. 그날은 예고없이 왔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나도 수업을 마친 후 "저 비둘기도 앞으로는 독일어로 노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일까?" 자문했던 프란츠 소년이 못 되었지만 선생님도 아

멜 선생이 아니었다.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 가공의 동화여서인지, 아니면 우리들 마음 가짐이 프랑스의 그들보다 못해서였지는 몰라도 어쨌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소학교 4학년이 되자 이과와 지리등의 새로운 수업과목이 생겼다. 게다가 반들반들한 쥐색 표지의 조선어 독본엔 갑자기 뜻도 모르고 쓰기도 어려운 한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자 단어가 日進月步와 文明, 發達이다. 학교에서 돌아와선 책가방을 방에 내던지고 종일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날 가방을 그대로 갖고 등교하는 식의 종전의 습성으론 수업진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의 문장을 갑자기 등장시켰는지 모르겠다. 한국 소학생이 모국어 수업시간을 싫어하게 하기 위한, 오늘의 유행어는 아니지만 총독부의 음모였는지도 모른다.

그 수업시간은 새학년이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5월이었다. 제목은 잊었지만 교정의 벚꽃 나무 밑에서 여자아이들이 꽃잎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네 머리 위에 꽃 잎이…” 등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줄거리의 글이었다. 흑백 삽화의 한복 여학생의 머리엔 흰 꽃잎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이 모국어의 마지막 수업이어서(마지막 수업이란 예고도 없었고 마지막 수업이 되리라고도 생각 못했다)가 아니라 수업 양식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평소의 독본수업 순서는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학급생 전체가 따라 읽은 다음, 지명 또는 자칭한 누군가가 일어서서 혼자 읽게 되는데, 그 시간은 독본의 문장이 여학생간의 대화형식이어서 화자(話者)를 정하여 방송극의 극본을 읽는 것 같이 수업이 진행됐었다. 나도 뻗혀서 한 여학생 역할을 했다. 여자음성을 내어 “애, 네 머리에 꽃 잎이 내려 앉았다”를 읽는데 잘 되지 않아 교실 안은 웃음 바다가 되었다. 본시 여학생이 맡아야 할 역할이었는데 우리 학급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에 여학생은 한 사

람도 없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남자만의 소학교였다.

이 수업이 있는 후, 벌써 먼 옛날에 국어 자리를 일어에 뺏겼던 우리 조선어 과목은 수업시간표에서 사라졌다. 별 말도 별 탈도 없이 영영 없어졌다. 슬프고 비장한 감정이 아니라 까다롭던 한 과목이 없어졌다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사라졌다. 모국어에 큰 죄를 진 셈이다.

신사는 Y를 좋아한다

신문 한 구석에 'Y담 동호회'라는 모임이 결성됐다는 기사가 있었다. 회원들은 자칭 풍류객이란 신사들이다. 그들은 현대판 한량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간사라는 사람의 Y담 풀이가 걸작이었다. y자가 요염한 여자의 자태여서, 이를 풍기는 고상한 이야기를 Y담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양반은 '와이'가猥의 일본 발음인지 몰랐는 모양이다.

TV퀴즈 프로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최종단계에 도달한 30세의 A씨에게 과해진 문항은 '響聲'을 읽는 것이었다. 정답이면 퀴즈 왕의 칭호에다 상금도 4천여만원이었다. 정답을 대리라 믿었는데 그는 답을 대지 못했다. 그렇게 믿었던 것은 A씨가 젊은 한의사였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은 동년배의 다른 대학 출신자와는 달리 한자, 한문에 조예가 깊을 것이고, 더구나 그는 퀴즈 왕 일보전의 박식한 사람이란 믿음에서였다.

문제의 한자에 접하자 반사적으로 "ヒンシュク"가 떠오른 사람(필자)은 일어를 중학교 4년까지 수업하고 60년이 지난 노인이다. 한자능력 저하를 초래한 문교당국은 '빈축'을 사도 싸다. '삼성'이 왜 한자 모르는 사람은 사원채용에서 배제한다고 할까!

궁둥이가 없다

눈 앞에 궁둥이가 있었다. 터질 것만 같은 건장한 여인의 궁둥이었다.

황홀했다. 두 손이 반사적으로 궁둥이를 꼭 잡았다. 그 결과는 역시 실망이었다. 독자여 필자를 ‘스케베 한쵸(助平班長)’라고 하지 말고 좀더 읽어주기 바란다.

“왜 씩씩거리며 궁둥이만 쳐다보고 걸었을까?” 이 이상한 문제는 1941학년도(우리 28회의 입학년도)의 경성사범학교의 입시 문제의 한 문항이다. 무라타(村田) 담임선생이 입학시험이 먼저 있었던(당시는 사범학교 입시가 제일 먼저였다) 그 학교의 문제를 입수하여 우리들 모의고사에 제공했었다. 교과서에 있는 일본 알프스의 동산기에서 발췌한 문장을 읽고 답하는 문항이었다. 답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래서 참고서의 문제집에는 나오지 않는다. “경사가 급한 좁은 등산길을 앞서사람을 따라가니 숨은 가쁘고 눈 앞엔 궁둥이만 보이는게 당연하다” 이렇게 썼는데 명답이었다. 게다가 운 좋게 다른 문제도 다 맞아서 혼자 100점이라고 칭찬 받았다.(똥난 사람은 칭찬만 기억하는 법이다!)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다. 글의 순서상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앞 여인의 풍만한 궁둥이에 황홀하여 꼭 잡은 지금은 등산길이 아니다. 공짜 지하철(老人福祉 萬歲!) 계단을 올라가는 길이다. 게다가 꼭 잡은 궁둥이는 필자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필자를 助平班長이라고 지레짐작한 제현들이 오히려 Y談 중독증이다. 그런데 궁둥이는 왜 잡고, 실망은 또 왜?

나는 궁둥이가 꽤 큰 편이었다. 큰 궁둥이로 스타일을 망쳤다. 그러나 어느새 희수도 지난 나이가 되었다. 궁둥이가 들어가지 않아 옷장 구석에 쑤셔 놓았던 오래전의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젠 너무 험령해서 또 문제다. 바지는 그렇다고 치고 공중탕 거울에 비친 몸꼴은 보기 흉하다 못해 애처롭다. 궁둥이가 없다. 아우스비치 수용소의

궁둥이 없는 몸통에 말라빠진 두 다리가 이어진 유태인이 연상되는 형각이다. 그래서 앞 여인의 티질것만 같은 궁둥이가 부러웠고 순간적으로 비교심리가 발동하여 혹시나 해서 꼭 잡아보고 다시 실망한데 불과하다.

TV보도에 의하면 여성 성형은 궁둥이로 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한다. 남자의 대여성 취향이 얼짱에서 몸짱으로 옮겨간지 오래인데 섹시 심볼인 궁둥이를 그냥 놔둘 까닭이 없다. 어쨌건 거린엔 마릴린 먼로의 궁둥이가 범람하고 몬로 워킹이 휩쓸테니 정말 젊은이는 좋겠다. 그러나 비아그라의 약효도 바랄 수 없는 노목들에게 그림의 떡이어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길 판이다. 그런데 남녀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은 sexy하게 보이고 싶다고 한다. 그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없는 것인가. sexy를 영어사전은 '성적매력이 있는' 으로 풀이하고 있고, 성적매력을 우리말 사전은 '성욕상으로 상대자의 마음을 흐리어 끄는 힘' 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sexy하게 보이고 싶다는 선남선녀의 바람은 결국은 '이성에게 성욕을 느끼게 하고 싶다' 는 것이다. 나를 꺾하여 달라는 간청이 아닌가! 아아 이 동물적인 뻔뻔스러움이여! (그 대열에 못끼는 질투심의 외침인지도 모른다)

艶笑 신데렐라 考

신데렐라(Cinderella)는 웬지 아름답다. 동화의 줄거리가 아름다워서인지도 모르지만 음 자체도 아름답다. 그런데 어원이 '뚝 솟'의 Cinder라는 것을 안 뒤부터(잘못 알고 있더라도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선 필요하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왜 하필이면 검은 솟을 연상케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의문을 오래 품었다. 부엌 연료로 솟을 제일로 찻던 시대의 부엌때기의 신분 급상승 이야기의 여주인공이라 해서 붙인 이름 일개라 상상을 하면서도 작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H씨는 호색한은 아니지만 이상한 여성 취향이 있었다. 그는 맑은 얼굴의 여성을 굳이 마다하고 주근깨가 박힌 얼굴의 여인을 좋아했다. 기름기 오른 뽀얀얼굴에 칠혹의 주근깨인 경우를 최상으로 여겼다. 그 이유를 물어도 상대하지 않고 늘 有口無答이었던 그가 얼마 전에 무슨 심사였는지 밝히는 것이었다.

H씨는 그 짓을 할 때는 실내 등은 전부 소등하고 꼭 희미한 침대등의 빛을 그녀의 얼굴에 비친다고 토론했다. 그래야만 최고의 오르가즘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일이 익어가면 여인의 얼굴엔 열이 나고 칠혹의 주근깨는 돌아오르고 마침내 열에 달은 철판 위의 숯가루같이 빠지빠지 하면서 빨갱게 튄다는 것이다. 그는 빨간 불티와 빠지빠지 소리(물론 그의 착각일 수도 있다)를 보고 듣는 순간 절정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 주근깨 여인도 이미 실신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도 기억나는 일이 있다. 정상적인 소년기를 지냈다면 독자 가운데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소학교 시절, 겨울엔 스토브 당번이 있어 교실내 스토브의 연료 타오기, 불 꺼지지 않게 하기를 책임졌다. 불이 잘 붙으면 스토브의 상관이 붉게 달아오른다. 이때 탄 가루를 상관에 살짝 뿌리면 빠지빠지 소리를 내면서 빨갱게 순간적으로 타버린곤 했었다. 아 이때의 미묘한 쾌감! H씨는 이 쾌감을 주근깨 여인의 얼굴에서 얻어 오르가즘으로 승화시킨 것일까?

그건 그렇고, H씨의 고백을 듣고 신데렐라 공주의 작명의 비밀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H씨 스타일의 취향자에겐 뜬 숯(Cinder)이 지고 지순일수도 있겠기에 말이다.

枯レ ススキ의 女人

그녀는 오늘도 枯レ ススキ의 노래로 우리를 맞이하고 바래다 주었다. 그녀는 술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중년의 얇은 얼굴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俺は 河原の 枯れ すすき 同じ お前も 枯れ すすき どうせ 二人はこの世では 花の さかない 枯れ すすき”를 짜는 듯 哀調로 불러주는 그녀는 ‘마음 짱’ 이었다.

나이 40대의 지방 근무시, 퇴임 군수인 50대의 대리점 K사장과 둘이서 잘 들린 반주가 함께 나오는 밥집 여인 가운데 최연장자인 그녀는 우리가 가면 다른 자리에 있다가도 꼭 우리 자리에 와서 먹는 일을 도와 주었다. 그녀의 18번이 구슬픈 ‘枯レ ススキ’ 였다. 회사를 아들에게 곧 넘겨준다는 K사장은 건재한지, 또 80을 바라볼 여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처음엔 ‘얼짱’ 이 제일이었다. 그러다가 ‘음(목소리) 짱’ 으로 옮기게 한 것은 쓰르미 유스케의 ‘뿔’ 였다. 얼굴만 보고 뒤따라 갔던 여인의 음성을 듣고 발을 돌린 소설의 주인공의 독백 “여자는 음성이 예뻐야 한다”가 그 계기였다. ‘白鳥의 湖水’ 는 발레의 제목으론 짱이지만 오페라의 제목으론 파이다. 白鳥는 자태는 예쁘지만 울음 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는 ‘몸 짱’ 이 제일이라고 충동한 악동이 지금은 부천에 은거하여 동창들과도 발을 끊은 증권회사의 전직 감사인 황경진(28회)군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몸 짱’ 주장엔 얼른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 부담을 느꼈다. 황 군은 ‘여탕 엿보기’ 사건의 주인공이어서 그의 대여성(對女性) 견식에 대해선 한 수 위로 인정하고 있었던 터이어서 ‘몸 짱’ 을 이해 못하는 게 미숙의 탓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 늙은 근년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당사자가 한다는 말이 “그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는데” 였다. 그는 그냥 해본 이야기였는데 나는 오랫동안 그 말의 울가미를 쓰고 있었던 셈이다. 황군이여 이 빛을 어떻게 무

엇으로 갓을래!

이젠 얼짱도 음짱도 몸짱도 아닌 마음 짱이 제일이다. 늙으니 철이 난 것이다. 枯レ ススキ의 여인은 마음짱이었다.

Choo Choo와 cock-a-doo-dl-doo

김신조 일당이 효자동 어구에 나타나 대통령 목을 갖으려 왔다는 망언을 남긴 67년 말부터 다음 해 봄까지 철강의 도시 피츠버그 근교에 있는 GRDC(Gulf oil Reserch & Development Co.)에서 지냈다. 이곳은 Gulf사의 종합연구소로 후일 원자력 연구소로 개편한 당시만 해도 3,000여 명의 연구진이 있었던 곳이다.

주로 있었던 시험실엔 석사, 학사의 기 미혼의 여자 chemist 3명도 있었다. 그 가운데의 리즈 양이 옆에 와서 Mr.Choo, Mr.Choo라고 부르는 데 의미모를 웃음을 띠우고 있었다. Choo Choo가 쭈쭈로 되어 서생원의 의성어(擬聲語)로 들리는 걸까 생각하다 잊어버렸다.

로마자 표기법으론 '주'는 Ju가 맞지만 나의 이니셜은 Choo이다. 된소리 선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Judas나 Judean과 구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며칠후 주말 저녁 식사때, 관련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환영파티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속도로 입구의 Holiday Inn으로 갔다. 전일의 리즈 양의 웃음의 뜻을 알게 되었다. Holiday Inn의 네온의 상호 밑에 점멸하는 동영상의 그림과 글자가 보였다. 증기 기관차의 굴뚝이 연기를 토할 때마다 Choo-Choo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우리들의 칙칙폭폭이 그들에게겐 Choo-Choo였다.

그보다 26년 전, 1학년 때의 영어시간이었다. 수업시간 빼먹기 작전으로 정식수업 개시 전에 쓰다 선생에게 일본을 NIHON이나 NIPPON이라

하지 않고 왜 JAPAN이라 하느냐 질문을 했다. 쓰다 선생은 잠깐 계시다가 흑판에 cock-a-doo-dle-do라 쓰고선 길게 읽으신다. 수탉 울음 소리를 우리(일본)는 コケッコ(꼬기오)라고 하지만 영어에선 이렇게 쓰고 발음한다고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 곧 수업에 들어 갔다. 이 지연작전에선 완전 패배였다.

내가 우리 모교 함흥고보 한남중학을 속으로 사랑하는 것들의 하나가 입학할 때, 한화대사전과 廣辭林, 영화사전과 화영 사전을 모두 사게하고, 국어(일어), 한문, 영어 첫 수업 시간에 사전 보기를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Choo-Choo를 영어사전에서 찾아 보지 못하였다니 스스로 유감천만이다.

廣場의 박선생은 어디에 있는가?

둘째 딸이 시집갈 때 두고 간 책의 하나가 함북 회령 출신 최인훈 작가의 『廣場』이다. 지금 이 딸은 대학생이 된 그녀의 두 딸(당연히 필자의 두 외손녀)과 함께 미국에 있으면서 연(年)에 2, 3회 다녀가고,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위는 여름, 겨울의 휴가를 가족을 찾아 함께 지내고 돌아온다.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우리 나라 소설 책의 지질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廣場』은 다 삭았다. 누렇게 바랜 게 아니라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지면 가장자리가 부스러질 정도다. 그새 몇 번이나 이사다니면서도 오늘까지 갖고 다닌 이유는 사랑하는 딸에 대한 부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 쪼가리가 된 남에도 북에도 살 곳을 찾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고자 중립국 행을 결심한 31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아버님께 걱정을 끼치면서까지 3문 소설 읽느라고 밤을 새웠던 소년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새 중·장편 소설 책엔 손이 가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책 상태가 더는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큰 마음 먹고 금년 봄에 읽어 보았다.

주인공 이명준은 대학을 다니던 남에서 좌절하고 우연치 않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북으로 간다. 6·25 전쟁으로 서울에 입성한 그는 북의 체제에도 실망한다. 포로가 된 그는 가고 싶은 곳이 없다.

그에겐 남도 북도 이미 시험필의 곳이다.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으로 가기를 택하여 같은 생각의 석방포로 30인과 함께 중립국 인도의 배 타고르 호를 타고 인도로 행한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남지나 해에 투신한다.

이명준은 남에서 먼저 실망하고 다시 북에서도 실망한 회색인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에서 실망하고 남에서 다시 실망한 친구는 없었을까. 그래서 타고르 호의 이명준을 주시하면서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책을 읽어 나가게 한 끈기를 도와준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다. 이명준의 선실 Room mate인 ‘함흥에서 교원 노릇을 했다는 박(소설 원문 전기)씨’다. 그런데 교원 박의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고 그의 행상도 띄엄띄엄 한 줄 정도씩 나오다가 주인공의 해상 투신으로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의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

작가 최인훈은 그리운 고향 함경도의 수부인 함흥 출신 소 부르조아(소설 원문)의 한 사람을 주인공의 조역으로 별 생각없이 등장시켰는지 모르지만 필자로 하여금 그의 재등장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읽게 하는데 성공했다.

함흥 출신 전직 교원 박 씨,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호호호. 여보게 자네 지금 다시 선택하려면 그래도 중립국으로 가겠나?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이명준에게 물었던 전형적인 소 부르조아의 그였지만 중립국에 정착하여 뜻을 이루고,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

문에 떠난 이 땅이 통일 조국으로 새로 태어날 때 錦衣還鄉하기를 바란다. 아마 작가도 이러한 구도의 속편을 쓰고 싶을 것이다. 그러자면 남은 시간이 없다. 귀향하여야 할 박 교사의 여명도 속편을 써야 할 작가도 속편을 고대하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독자들도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담이지만, 휴전회담이 성사되어 인도군이 중립군 자격으로 입국하여 중립국행 희망 포로를 선별하고, 병상포로의 교환으로 관문점 지역이 분주했을 무렵 그곳에 우리 이동외과 병원이 진출했다. 강원도 전방의 주둔지에서 외출증 없이, 서울에 위치한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전역할 예정이었고,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전역대신 그곳 이동외과병원으로 전속 되었다. 그냥 귀대할 순 없었다. 무단 탈영의 중징계도 무섭지 않았다. 무악재로 가서 서부전선으로 가는 군용트럭에 무조건 탔다. 트럭을 몇 번 바꿔타고 이동외과 병원에 도착하니 새벽이 다 되었다. 감격하는 그녀를 잠시 만나고 곧 귀대길에 올랐다. 그날 밤 달리는 트럭에서 바라본 달은 처량하면서도 한없이 밝았다. 전쟁이 끝나가는데도, 그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도 통일이 안되고 다시 분단의 원점에의 복귀라는 비애에 울었다. 부대에 돌아와선 아무일 없었던 양 충실히 계속 근무했다.

인도군의 인솔하에 인천항에 도착한 廣場의 31명을 태운 인도의 배 타고르 호가 떠난 것도 이 즈음이다. 3,000톤의 타고르 호는 흰 드레스를 입은 신부처럼 흰 페인트로 새로 단장했지만 31명이 품은 분단의 아픔으로 우울해 보였을 것이다.

정쟁 멀리하고 적폐의 소산을 정리해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대 테러 경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알

카에다가 세계 무슬림들에게 축구한 총공격 대상국의 하나로 우리나라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총공격 목표로 지목된 주된 이유는 이라크 파견군의 병력 수에서 우리나라가 전쟁 당사국인 미, 영 다음의 제3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왜, 어떻게 국력에 어울리지도 않는 3대 파병국이 되었을까. 그곳에 지켜야 할 국가 권익이 많아서인가. 현 정부가 兵隊ゴッコ를 좋아해서인가. 결코 아니다. 맹방 미국정부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는 고약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현 정부의 책임도, 어느 특정의 누구의 탓도 아니다. 망국의 한말도, 35년간의 식민지 시대도 교훈 삼지 못한 온 민족의 잘못된 행로가 자아낸 60년 적폐(積弊)의 소산이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처지가 답답하고 원통한 것이다.

설상가상, 저항세력이 적은 지역이라고 선정한 우리 자이툰부대의 주둔지에서 주민 쿠르드 족의 독립축구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하에서 민족자결을 외쳤던 자손인 자이툰 부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난감한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쟁(政爭)을 멀리하고 영지를 모아 오늘의 곤경을 자초한 해방후 부터의 적폐의 소산을 하나씩 꾸준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정부의 비상경계 돌입 보도를 듣고, 2004년 10월 4일)

후속자가 없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회

세상에 서러운 것이 많다. 그러나 후속자가 없는 동문회만큼 힘빠지고 서러운 것도 없다. 우리 동문회는 북쪽에 위치한 함흥고보·함남중학교 출신자들의 모임이다. 실질적으로 남에 있는 동문만의 반쪽 모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서럽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서러운 것은 1946년도(학제개편) 입학생을 끝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점이다. 60년간 후속자가 없었던 모임! 그래서 우리는 동문들의 이름을 '元老院'에서 발견하고 자위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우리 경제력은 장기경제계획 실천의 결실이다. 우리나라 장기경제계획의 효시는 부흥부(1공)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한(1958년) 7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의 planner(분과위원장) 5인 가운데 4인이 놀랍게도 우리 동문이다. 공공기업 분과위원장인 朱源(6회), 상역의 安霖(22회), 농수산의 朴東昴(23회), 광공업의 黃炳駿(24회)의 동문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경제가 존재했을까?

학술계 원로의 모임이 학술원이다. 회원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대별하여 회장직과 부회장직을 교대로 맡는다. 전회의 회장은 자연계열 회원이 맡았으며 李鎬汪(30회) 동문이었다. 금회의 회장은 인문계열 차례이고, 자연계열은 부회장을 맡는데 朱軫淳(21회) 동문이다. 실질적인 학술원 회장직을 우리 동문이 연속 2회 맡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스포츠는 축구다. 일정말기의 전(奎) 일본 도시 대항전에서 함흥축구단이 3년 연속 우승했다(경평전만 들먹이는 자, 축구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군영통 광문당 서점안에서 우승기가 우리를 반겼었다. 한국 축구 123년을 빛낸 7명이 '명예의 전당' 1호 헌액자로 3월 17일 선정됐다. 선수 부문 4명 가운데 洪德泳(26회) 동문의 이름이 빛난다.(참고, 함흥축구단 초대 총무인 광문당 서점 점주는 흥 동문의 백씨)

세월이 흘러도 우리 동문은 죽지 않는다. 智·德·體의 빛을 남긴채 사라질 뿐이다.

나의 發明記 (에너지 절약)

高 景 榮 (28回)

황혼기에 들어서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했다. 부유식 수력 발전설비(浮游式 水力發電 設備…發明)와 정출력 수직축 풍차동력장치(定出力 垂直軸 風車動力裝置…新案) 및 自動車 走行에 따른 에너지 回收 시스템(新案)이다.

이들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개요(종합)

• 發明 계기

평소부터 韓國의 에너지 政策에 關心이 많았다. 에너지 소모는 날로 늘어가는데 油類는 畚의으로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니 油類依存度を 낮추는 데는 대체에너지 開發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왜 浮游式을 고려했는가?

地球上에 물과 공기는 풍부한데 물의 重力과 浮力을 利用한 에너지 開發이 절실하였으며, 이는 에너지의 油類依存度を 줄이는 唯一한 길이며, 大韓民國이 그 先驅者가 될 수 있다. 아직 세계 어느 곳에도 浮游形發電 設備는 없다.

• 유사한 장비의 성향

또 다른 부유식 발전設備의 發明特許를 出願하였으며 현재 特許廳에

서 심의중이다.

그 외의 신안특허가 아래의 1, 2이다.

1. 정출력수직축 풍차 동력 장치를 고안하여 2001年 8月 17日 실용신안 등록하였다. 본 考案은 風力의 強弱에 關係없이 恒常 定出力할 수 있는 風力發電設備로서 商用 價値가 높다.

2. 자동차 주행에 따른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考案하여 2001年 10月 27日 실용신안 등록하였으며, 자동차가 달리는 大地 Impact를 이용하여發電하는 설비로서 거리에서 電力을 回收하는 代替에너지의 효과적 考案이다.

부유식 수력발전 설비

(Floating Hyrdo-Electric Power Plant by Buoyancy)

本 發明은 浮船의 중앙 수면에 凹形의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의 물을 浮力を 이용하여 上下運動을 하는 piston의 힘으로 壓迫하여 排出되는 高壓高速의 水流를 利用하여 水車を 作動시키고 이것이 發電機를 돌려發電하는 設備로서 比較的 簡便하고 高出力の 發電을 하는 長點을 갖고 있다.

本 設備의 특징은 浮船 內의 물탱크 물을 高壓高速으로 排出하기 위하여 piston의 上下運動이 필요함으로 piston의 上下運動을 조성하는 발라스트 탱크가 浮船의 下部에 設備되어 있어서 발라스트 탱크의 물을 조절함으로서 浮力으로 piston을 上向 運動을 시키고, 발라스트 탱크의 물을 充當함으로서 piston의 下向運動을 시키는 機能을 갖는 발라스트 탱크와 그 附屬 設備가 附加되어 있다.

本 設備는 原子力 및 모든 火力 發電을 代替할 수 있는 淸淨에너지 (Clean Energy) 設備로서 地球上에 空氣와 물이 존재하는 한 枯渴되지 않는 代替에너지 設備로서 人類가 放射能 恐怖로부터 解放되고 地球 溫暖

化 재앙의 걱정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設備로서 100만 kw容량의 發電所를 建設하면 年間 150만 ton의 油類를 節減하고 建設費, 時間運用費用을 原子力發展의 1/3水準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發明이 人類 에너지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劃期的인 代案이 되기를 바란다.

經濟的 評價(試案, 발전용량 1KW 기준)

1. cost/kW(건설단가)	\$ 1000
2. 수입	
kwh/年(年 생산전력)	8000kWh(발전효율 90%)
매상/연(年 매출액)	\$ 400(단가 5¢/kWh)
3. 지출	
건설비 年利子	\$ 70(연이율 7%)
건설비 年상환액	\$ 50(20년 均등상환)
年運營費	\$ 100(건설비의 10%)
4. 利益	\$ 180 [400-(70+50+100)]

정출력 수직축 풍차 동력장치

(Steady Out-Put Vertical Axis Wind Turbine Power System)

本 System은 Conventional Wind Turbine의 Out-Put가 自然 風力에만 依存함으로서 그 出力이 一定하지 못했던 것을 改善하기 爲하여 垂直軸 風車와 Diesel Engine으로 作動되는 Compressor 및 Accumulator로 이루어지는 System으로서 風力發電의 不規則的 出力을 改善하여 年間 8000 時間 이상 Rated Out-put할 수 있는 System으로서 Commercial Wind Turbine System으로 가장 Suitable System인 것이다.

Economical Assesment(발전용량 1KW 기준)

- | | |
|----------------------|---------------------------|
| 1. cost/kW(건설단가) | \$ 1800 |
| 2. Sales | |
| kWh/年(연 생산전력) | 8000kWh(productivity 90%) |
| Sale/year | \$ 560(판매단가 7¢/kWh) |
| 3. Financial Cost | |
| 건설비 年利子 | \$ 126(년이율 7%) |
| 건설비 年상환액 | \$ 90(20년 균등상환) |
| 年 운영비 | \$ 180(건설비의 10%) |
| 소계 | \$ 396 |
| 4. profits/kW · year | \$ 164 …(560-396) |

自動車 走行에 따른 에너지 回收 시스템

(Highway Energy Recovering System)

본 System은 Automobile이 道路上을 달릴 때의 Impact를 利用하여 유압을 발생하게 하여 그 高壓油를 Accumulator에 貯藏하였다가 油壓 motor를 回轉시켜서 發電하는 System으로서 commercial 價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conomical Assesment(발전용량 1KW 기준)

- | | |
|-------------------|-----------------------------|
| 1. cost/kW(건설단가) | \$ 900 |
| 2. Sales | |
| kWh/年(연 생산전력) | 5,000kWh(productivity 60%*) |
| Sale/year | \$ 350(판매단가 7¢/kWh) |
| 3. Financial Cost | |
| 건설비 年利子 | \$ 63(년이율 7%) |

건설비 年상환액	\$ 45(20년 균등상환)
年 운영비	\$ 90(건설비의 10%)
소계	\$ 198
4. profits/kW · year	\$ 152 ... (350-198)
	* 14.4hrs/day, 5,256hrs/ year

에너지 기술(E.T)에 대한 희망

에너지 기술을 次世代의 國家戰力産業으로 育成하여 韓國의 지속적인 번영의 기틀을 튼튼히 하기를 바란다.

2001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發電施設容量은 5000万kW이며, 原子力 發電 16기 1300万kW로 포화상태에 있다.

2015년까지 原子力 發電所 18基(1800万kW) 石炭火力 22基(1280万 kW) 國內炭火力 2基(40万kW) LNG 發電 22基(752万 kW) oil 15基(530万 kW) 揚水發電 12基(370万kW) 등 총 106基 4513万 kW로 67조원을 들여 신규로 建設해 總 7906万 kW의 容量을 가질 예정. 이 용량은 oil 환산 年間 약 1억 톤의 에너지 輸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럴당 40\$ 時 400억 \$에 해당하며 年間 oil 輸入에 750억 \$을 支拂해야 할 것이다(2000년 oil 輸入 380억\$) 이러한 現實을 생각할 때 oil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전에는 우리의 未來는 늘 힘겨울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의 에너지 戰略은 바뀌어야만 한다.

그 一案으로 다음과 같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위주의 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 風力 1600万kw
- 水力 4000万kw
- a. 浮力

b. bubble pumps

c. 揚水 by Twin Hydraulic Tank

• LNG total Power System	1000万kw
• Oil	1000万kw
• Total	7600万kw

● 後記

고경영은 28회 동기의 발명가·도깨비·제독

70년대 중반의 그 날(연월일 亡失) 저녁, 나는 몹시 아쉬웠고, 화가 났다. 중학 동문 두 분이 육군과 해군의 총장 임명에서 모두 탈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공고롭게도 육군과 해군의 총장이 함께 교체기에 있었고, 후임자의 강력한 후보자는 육군의 한 신(23회) 대장과 해군의 고경영(28회) 소장이었다. 한 신 선배가 합참의장으로 '儀禮' 승진한 지 며칠 후의 그 날 저녁 고 소장마저 호남 출신 해사 동기의 K소장에게 고배를 마셨다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다.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 감정은 곧 '화'로 바뀌었다. 연속적인 탈락이 정권 수뇌들의 '恐威症' 탓이 아닌가 해서다. 항간에 '아라스카 토벌'이란 용어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신화적인 존재였던 1군 사령관 한 신 선배의 이야기는 빼기로 한다. 고 소장은 해사 2기의 수석 졸업으로 해군정훈감, 해군상륙전단 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국방부 인사국장, 해본 작전참모 副長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2기생의(늘) 선두 주자였고, 해군 소장(小壯) 장교들이 추앙하는 차기 총장의 기대주였었기에 나의 '화'는 이유있는 분노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40대 중반 나이에 옷을 벗었다. 그런데 그는 역시 도깨비(중학교 시절 애칭)였다. 발명가로 변신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명은 스케일이 너무 크다. 금만가가 실용화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우리 도깨비에겐 ‘금 나와라 뚝딱’의 금방망이가 없다. 게다가 요즘은 건강상 술도 삼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 유감이다. 그의 발명기를 정리하여 각종 도면은 생략하고 소개한다.(28회 간사)

풀꽃 한송이 (1)

韓 順 虹 (詩人, 28回 同門夫人)

오솔길 가며 오며
아쉬움 주워 모아
기다림으로 주저앉은 나날
태양의 갓을 잡고 도는
失語症

해와 달이 떨어진 만큼이나
우리 서로는 멀고도 가까워
알알이 흩어진 것 모여진
시간과 시간이
분 단장한 얼굴보다 숫된 말이 되어
뚜옥 뚜옥 떨어지는데
두려워 손 잡을 수 없는
領域

살아온 만큼이나
살아갈 만큼이나
많고도 많았던 말과 말들이
이제 텅 비인 하늘에

낮달로 머물어
이름 없는 불꽃 한 송이 피워 놓고
헤어져 가는가.

벽(壁) 63 (2)

- 활화산(活火山)의 샘수 -

죽고, 죽어서도
채 죽지 못한 망령들이
꿈틀거리는 것은 왜일까
연기 · 연기되어 피어오른다.

분화구 안에서 다시 터진 너는
독(毒)의 가스
분산된 너와 네가
또 너와 너로 하나되어
연기로 화답하는 것은
소리를 삼킨 말
살고픈 자와 죽은 자와의 애매한 표식

죽은 그림자마저도 일으켜 세우려는
그런 미련은
추함을 넘어선 역겨움되어

사람 닮은 덩어리로 움직여온다.

모두가 같은 얼굴

그런 얼굴뿐인 것을

움직임을 멈춘

움직임을 버린 작은 흔들림의

확대된 연막 -

이는 자연의 휴식이다.

우리네 정계(政界)의 술수인

세모꼴, 네모꼴, 가위표, 동그라미는

견잡을 수 없는 혼돈이거늘

이런 표상은 어디에서나

뒷전에는 있는 법

내가 나를

내가 너를

파고드는 뿌우연 셈수 뒤에

따라붙는 또 다른 셈수.

며칠 후에는 더 늘어만갈

기하함수적인 수 속에서

스스로의 올가미를 쓰고

우리도 죽어간다.

호노롤루의 활화산이여

너도 너만의 셈수로는
너를 지탱할 수가 없는가
존재란 숨이 가빠오는 가파로운
승(勝)과 패(敗)

그들은 불바다가
불의 폭포되어 흐를
그 때의 제 모습을
점치고 있다.

● 紹介와 감사의 글

韓 詩人은 朴英傑 동창(28회, 工博, 前 仁荷工大學長)의 夫人입니다. 8·15 직후 우리 동기생 거개가 침식 해결에 급급하고 있을 때 서울대와 숙명여대의 두 사람은 명동에서 젊음을 불태울 수 있는 행복한 청춘이었습니다.

두 사람 결혼식 때의 신랑 돌러리가 동기인 한형주(28회, 의박, 개업의)군, 신부 돌러리가 김명희(전 숙대 총동창회장)양이었습니다. 이를 인연하여 돌러리 두 분은 결혼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서가엔 한 시인의 첫 시집(『彷徨하는 입세』, 1976년)과 한 박사의 첫 수필집(『八字섬의 메뚜기』, 1978)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현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인 한 詩人은 첫 시집의 후기에서 “나는 詩人이 아니다”라고 겸손해 했습니다만 가정주부로 대학강단에 서기도 하면서 시작을 멀리하지 않았음은 계속 발표한 7권의 시집과 한국 현대시인상과 한국문학상의 수상으로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낭군 모교의 동창회지를 빛나게 해주신데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편집위원 hsc)

천재지변과 일본 그리고 사무라이와 사꾸라

申 道 均 (28回)

땅이 드리없이 흔들리고, 느닷없이 갈라진다. 불시에 땅 속에서 탕수가 솟아오르거나, 연기가 뿜어나는가 하면, 드물게는 용암을 쏟아내기도 한다.

이같은 변괴의 거의 다는 지진대에 속해있는 지역에서 돌발하는 자연 재앙이다. 가공할 이같은 천재지변이 동해 저편의 일본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개의 섬으로 형성된 일본열도가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본토인 혼슈우에서 미약한 진도의 지진이나마 직접 겪었고, 규슈우에서는 탕원과 연기를 뿜어내는 화구를 목격도 했었다. 그러나 혼슈우 다음으로 큰 섬이면서 냉대에 위치한 홋카이도만은 그같은 자연재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2003) 8월말 전후의 관광여행에서 그 예상이 잘못임이 분명해졌다. 그 뿐 아니라 공교롭게도 홋카이도 관광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 된 9월 중순에, 바로 그 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많은 인명 피해와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천재지변의 흔적을, 그대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열에너지나 관광자원등으로 개발하기까지 하는 실용주의에 철저하다는 것을, 홋카이도에서 재확인하고는 감탄과 함께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겨우 4박 5일의 관광여행이기는 했지만 숙소 마다에서 아무 때건, 몇 번이건 온천욕을 할 수 있었다. 탕이 크면서, 수온이 다른 탕 몇 개가 있었고, 노천탕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누구나가 느긋하게 여독을 풀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곳은 '도오야'의 썬팔레스호텔의 노천탕이었다.

바다와도 같은 도오야 호와 접해있었고, 탕수와 호수의 수면차도 크지 않았다. 그 노천 탕수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고 있노라면, 불어난 가슴 속에 건조한 한데 공기가 들어차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모처럼 맑게 갠 하늘 저 편에 오뚝 솟은 산이, 주목의 진초록으로 정장한 자태에 매혹된듯한 이 편의 물그림자가, 애모의 미소를 찰랑거리고 있었다.

지진 후의 그 도오야호 주변은, 비탄과 실의에 싸여 망연자실하던 생존자들이 통곡으로 활킨 가슴을 달래고, 어르고, 감싸주려는 조물주에 의해, 다시 조화된 자연조경인 듯 아름답고 잔잔했다.

한편 이방인에게는 유유자적할 수 있는 세상에서, 태평연월을 만끽하면서, 오랫동안 시인묵객의 정감과 함께 사춘기적センチ멘탈에 젖어들게 했다.

그 노천탕이 인간의 이상향을 되새기게도 했다. 인간 스스로가 파괴했던 에덴동산이기에, 의지에 따라서는 재건할 수도 있을 법은 하다마는, 사탄의 유혹을 능가하는 세계 정치인들의 패권주의가 벌리는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도원경 조성은 영원한 몽상인듯하다.

도오야에서 멀지않은 유슈산의 동편 산기슭 보리밭이 쇼와연간(1943~1945)에 솟아오르면서, 그간에 차츰 자라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쇼와산'이라 이름한 그 진기한 화산도 어김없이 관광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지금도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그 산을 건너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유슈산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슈산 중턱 여
기저기에서는 9월 초 맑은 날의 대낮인데도 김이 솟아나고 있었다. 따라
서 휴화산에서 약 200m 거리의 활화산을 조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 우리 관광객들은 섬짓한 생각 보다는 생소한 정경에만 마음을 빼앗기
고 있었다.

옛적부터 천재지변을 자주 겪어온 일본사람들은, 고향땅인 그 흔적을
버릴 수만도 없었기에, 재앙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죽음에 대해서
도 담담해질 수 있는 극기심을 양성해야 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같은 공
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신앙심의 형성과 함께 그 구현 방법
을 축제형식으로 고안한 것이 노보리베츠 탕원에 전해왔다고 하는 실화
일 것이다.

“해마다 더위 막바지인 8월이 되면 지옥곡의 솔뚜껑이 열리면서, 염라
대왕이 붉은 도깨비와 푸른 도깨비를 비롯하여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그 전설에 따라 해마다 8월의 마지막 금, 토, 일요일의 사흘동안 축제가
개최된다는 것이다. ‘지옥축제’라고 이름한 그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
았다.

사당의 염라대왕(우상)을 거리의 웃쪽에 모신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취주악대가 행진한다. 많은 장정들이 도깨비 미꼬시(神輿)를 어깨에 메
고, ‘왓쇼이’ 구호와 함께 서로 상대방으로 거칠게 때밀면서 거리 아래로
내려간다. 저녁에 시작된 축제 분위기는 미꼬시 행진의 구호와 거친 밀
치기의 스릴감에 의한 관중의 비명소리와 함께 무르익고, 다시 북치기로
한층 고조된다. 마침내 붉고, 푸른 도깨비 가면을 쓴 자들이 거리 한복판
에서 춤을 춘다. 관객들도 그 도깨비들의 흥에 이끌려 난무하게 된다.

일본의 이같은 축제를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연례행사이거나, 주민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동네잔치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설화의 고안, 민속의 설정, 행사의 구상, 종교와의 연계 등 그 모두가 민족성에 근간된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창출한 묘책임을 통찰해야한다. 그리고 그들의 실용주의를 가시적인 생산수단이나 방법으로만 보아넘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다.

태평양상의 정착처 탐색 중 노도에 떠밀려, 한반도를 위한 천재지변의 보루가 된듯한 섬. 지진이 잦고 화산이 폭발하며, 다우다습한 해양성기후에다 계절풍기후로 태풍과 폭우가 잦은 나라. 이것이 일본의 외형이다.

이같은 열악한 지리와 자연 여건하에서는, 긴장의 연속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성격이 과격해지고, 생각이 완고해지기 마련이다.

한편 그같은 성미와 유화하기 위해서는 유순하고, 간살해야한다. 그래야만이 이성과 근린 간의 관계를 위시한 사회생활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된다 하겠다.

그 상대적인 사무라이 기질과 초오닌(町人) 성미가 어럽사리 화합할 때 형성되는 실용주의적 특성, 즉 이질적인 인성에 의해 절충된 사고방식인 일본 사람들 특유의 실용주의적 수단과 방법이, 바로 '모방위주'와 '축소지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확상 동양의 후진국으로 안주하던 일본이, 서구에서 유입된 물질문명을 그들 실용주의의 수법으로 수입하면서, 바쿠한(幕藩) 체제를 결연히 개혁했다. 즉 신권성을 강화한 천황을 국가의 중심으로 하고, 신교육 시행과 함께 부국강병, 식산흥업에 총력을 경주하기 위한 통제적 법률 제정으로 제국주의 국가체제를 구축했다.

봉건사상과 그 체제를 고집하던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구미(歐美)의

문물을 끝이끝대로 도입하면서, 더욱 개명한 일본은, 실용주의 노선의 메이지(明治)유신으로 일약 동양의 선진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신문물에서 동양의 선진국이라 자부하게 된 일본의 정치권이, 사무라이 기질을 야마도다마시(大和魂)로 미사(美辭)화한 일본혼과 함께, 생명 공동체적 관념의 고취를 위해 사꾸라(벚꽃)를 국화로 책정했을 것이다. 그 메이지(明治)연간의 군국주의자들은 동양의 패권 장악과 함께, 천재지변의 섬에서의 탈출까지도 실용주의적 견지에서 모의했을 것이다.

마침내 섬나라 일본이 인륜문화를 전수받아온 우리와 중국을 침략하고 강점했다. 뒤이어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을 호기로 삼아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내걸며, 동남아까지도 침공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신문물의 은사격인 영국과 미국을 선제공격하였으나, 수년 후 세계 최초로 투하된 원자탄에 굴복하고 말았다.

앞의 사실(史實)이 불과 100년 사이에 벌어졌거니와, 그 주요 에너지원은 사무라이 기질이라 하겠으며, 그것은 지옥축제를 벌려야만했던 열악한 지리와 자연 여건에서 빚어진 민족성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 사무라이의 정신적 실용주의가 쇼오닌의 산술적 실용주의와 어울려, 민족국가의의식을 고양하면서 단합한 힘으로 아시아의 군사강국을 건설했을 뿐 아니라, 패전후에는 화산 폭발 때 발생하는 그 가공할 에너지에 비할만하다 할 '간바로(이겨내자)!' 구호 십수년에, 일약 세계 일류 경제대국으로 부흥하였으니, 그들의 그 경이로운 정신적인 저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하겠다.

노보리베츠 지옥축제 이틀째 프로 중에서 나의 감성을 자극한 것은, 그 날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춤 시작을 알리는 '예고(豫告) 북치기'였다. 각기 20명 내외로 편성된 듯한 장정, 고등학생, 중학생, 소학생(초등학생)

격고대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대열을 지었다. 그 중 소학생의 자리가 공교롭게도 우리들의 숙소인 유모도호텔앞 광장이었다.

거리 윗쪽에 있는 하나의 대북이 울린 소리를 신호로 하여, 대열순으로 각각 북을 치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대열의 격고가 끝나면 다음 대열이 호응하게 되므로, 소학생들은 네 번째 차례가 되고, 다시 그 순서로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마침내 대북소리를 신호로 장정들의 격고가 시작되었고, 순서에 따라 얼마 뒤에서 소학생들의 첫 번째 격고가 시작되었다. 걸대에 허리높이로 걸쳐놓은 북을 양손에 쥔 한 자 가량의 막대기로 서서 두들기는 것이었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북소리의 장단과 강약은 물론 막대기의 놀림까지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8월말의 밤 8시경에 머리에 하치마기를 매고, 반바지 차림에 훌웃인 하오리를 걸친 것 뿐이어서, 아랫다리는 싸늘했을 텐데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북치기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격고도 제법이었다.

설치해 놓은 북에 따라 정열하고, 격고가 시작되기를 기다릴 때 부터의 어린이들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리고 귀에 익지않은 일본류의 장단과 강약의 북소리였는데도, 어린이들이라는 선입감에서가 아니라, 제법 리드미컬했고, 박진감도 느낄 수 있었기에, 여행 첫날의 피로도 잊고, 세 번째 격고가 끝날 때까지 관찰하며 청취했다.

그처럼 관심이 가게 된 경위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북치기 전까지 조성된 축제의 분위기가, 북소리의 리듬과 강약으로 한층 고조되면서, 대열 속에서 절도있는 행동거지와 함께 타고하는 소학생에게서 사무라이의 환영(幻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저런 연상과 함께 예전 일을 회상하다 잠들었다.

체육시간에 자세를 바르게하라는 구령을 우리는 ‘차려!’ 라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기오쓰게!’ 이다. 그 뜻은 ‘정신차려!’ 인 것이다. 몸의 자세에 대한 같은 구령이면서, 일본에서는 정신상태가 먼저임을 강조한다. 그 호령이 떨어졌다하면, 두 손바닥을 허벅다리 양옆에 찰싹 소리가 나도록 달라붙이며 부동자세를 취해야했을 뿐 아니라, 눈알을 굴려서도 안 되었다.

일어 중에 ‘신겐(眞劍)’ 이라는 말과 함께, 그 복합어인 ‘신겐쇼부(眞劍勝負)’ 가 퍼뜩 떠올랐다. 그 뜻을 직역하면 ‘진짜 칼’, ‘죽음을 건 승부’ 가 된다.

이제 그 복합어의 뜻풀이를 예전 일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대체한다.

—주인공은 이마의 복판깨부터 왼쪽의 눈과 눈두덩 아래까지 빗금의 칼자국이 있는 애꾸눈 사무라이.

그가 찾아헤매던 불공대천의 원수를 용케 만나자, 신겐쇼부인 칼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긴 일본도의 칼끝이 닿을듯말듯 서로의 허점을 노리며 일진 일퇴하는 것이었다. 처절한 긴장이 계속되더니, 상대의 눈길이 흐터진 찰나를 잡은듯한 애꾸눈의 칼날이 전광석화, 번쩍했는가 싶었는데, 글썽! 상대는 고목처럼 쓰러져 있었고, 애꾸눈의 칼은 칼집으로—

지금은 ‘페어-플레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승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짙게 느껴진다 하겠다.

언어에도 그 민족의 의식과 기질이 함축되거나, 일어의 구성상 특징 중에 ‘……하지않으면 안돼!’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와 같이 ‘부정의 부정’ 으로 강제하듯 명령하는 형식이 있다.

천재지변이 잦은 탓으로 이같은 말을 그들은 유년기로 부터 성년기까지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의

고사성어와 함께.

중학교 시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발표되는 날이면, 고사일정을 써 붙이면서, 그 일정표 곁에 위의 고사성어도 모필로 정서하여 붙이고는, 면학의 다짐과 함께 성적의 향상을 소기했던 일이 삼삼하다.

‘혼백’이라는 언어가 있다. 한자대전에서는 그 뜻을 ‘넋, 영혼’이라고 풀이했을 뿐 아니라, “‘혼(魂)’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는 양(陽)적인 것이고, ‘백(魄)’은 땅으로부터 받는 음(陰)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혼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백은 육체의 생명을 주관한다”고 덧붙여 해석하고 있다.

과연 일본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땅에서 받는 음적인 힘 보다는, 하늘로 부터 받는 양적인 기운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인 활동 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에 능동적이기 때문이다. 잠결에서도 바람소리와 사람의 숨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도 될 것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기운이 생리적인 작용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며, 그럴수 있어야지만 사무라이 무사정신이 함양될 것이다.

일본 군벌이 당시의 군사 강국이자 연합국이던 영국과 미국에 도전했던 것은, 사무라이 기질의 오기였다고 본다. 즉 오랫동안 지나친 전장 확장으로 진퇴양난에 빠지자, 국민과 함께 ‘신젠쇼부’를 기도했을 것이다.

전국민에게 야마도다마시와 사꾸라의 정신으로, 천황을 위한 성전에 최후의 한 사람까지 투신하라 독전하면서, 가미가재(神風)라는 자살특공대까지 조직하였다. 즉 지각이 순수한 소년들의 ‘요가렌(豫科練)’에의 입대 선동 목적으로, 비장한 결의의 가사와 멜로디의 군가(軍歌)를 지어 온 국민이 노래부르도록 유행시켰다.

요가렌에서 단기간의 항공조종술만을 마친 특공대원에게 명령이 하달

된다. 일본 근해로 접근하는 적함에의 돌격명령 말이다. 그 지상명령에 따라 폭탄을 탑재한 비행기로 이륙한 소년들은, '어머니!' 가 아닌 '천황 폐하만세' 만을 외치며, 적함에 돌진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적의 함포탄이나, 적함에의 돌진에 의한 폭탄의 폭발음과 그 화염 속에서, 사무라이 기질과 사꾸라의 앞세는 커녕, 자기의 살 한 점, 피 한 방울 남김 없이 산화하여 가미가제로 스러지고 말았으니……!

그 당시 그들과 동년배였던 한 사람의 소년으로서, 순수한 정신을 회생당하고도 겨우 몽달귀로 떠돌고 있을 그들을, 가슴이 아리도록 슬퍼했어야했건만……

사무라이 후예인 명치유신과 쇼오와 연간의 집권세력들의 인명에 대한 실용주의적 목적의식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전쟁수행에서의 인명 희생은, 천재지변에 의한 죽음이나, 사꾸라가 산들바람에 산화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였으리라.

2004년 10월

가을을 곱게 물들이는 광교산 기슭에서

●추기

9월 중순께 이 글의 결론에 고심하던 중, 10월 초로 계획된 일본의 미담지 시고구(四國) 일주여행에 동참키로 했기에, 그것을 그 후로 미루었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랴! 10월에 접어들면서 천재지변이 일본 국토 거의 전지역을 휩쓸줄이야!

시월 초순과 중순에는 세 번의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시고구와 혼슈우

를 강타했는가 하면, 하순에는 본토 중북부의 후구오까 일대의 땅을 진도 6도의 강진이 흔들었을 뿐 아니라, 수일 동안 강진과 미진이 백수십회나 계속되는 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우리의 시고구 여행은 초순에 무사히 마쳤으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올 시월이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천재지변과 일본'을 주제로 한 이 에세이를 마무리 시기에 그 매몰찬 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은 작년 9월에 시작한 홋카이도 관광기행문을, 10월에 에세이로 형식을 바꾸고는 자료조사와 사색적 고찰을 거듭하면서, 퇴고와 수정을 해오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인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않는다.

어찌 되었던 올 10월의 재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안과 동시에, 희생자들을 애도하여 마지않는다.

지구만이 생성하는 자연생태계이기에 생존할 수 있는 인간들이면서, 오염과 파괴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 경고를 겸한 항거성 천재지변이 21세기 벽두에 빈발하는 데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건만……!

◆◆◆◆◆ 29回 ◆◆◆◆◆

- ◎ 祖父任과 定和陵, 은퇴후에 하는 공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 金在楨 (29回)
- ◎ 電蓄/ 金淳郁 (29回)
- ◎ Om Mani Padme Hum(옴 마니 반메 훔)/ 韓在壽 (29回)
- ◎ 못잊을 恨/ 韓依天 (29回)
- ◎ 醫窓에서 명상에 잠기며/ 韓鎮慶 (29回)
- ◎ 이스탄불의 대~한민국/ 朴浩禹 (29回)
- ◎ 南中! 가슴 설레이는 그 이름/ 朱東雲 (29回)
- ◎ 이산(離散) 한(恨), 가 을, 바다여/ 孟厚彬 (29回)
- ◎ 斷食體驗紀/ 朱相彦 (29回)
- ◎ 畏友 金潤鎬 / 鄭哲周 (29回)



祖父任과 定和陵 (1)

金 在 楨 (29回)

“李氏朝鮮承文院注書文科大科及第正字金鏞一”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의 관칭이다. 나의 祖父任은 우리 咸興高普同窓會初代會長이신 李東準동문의 三寸(외삼촌)이다. 다시 말하면 李동문의 어머니는 나의 할아버지의 누이동생이었다. 그러니까 李동문은 나의 五寸叔父이다. 젊어서 文科大科에 及第하신 祖父任은 李王職에 계셨던 관계로 은퇴하실 무렵에 쉬운 일로 定和陵의 管理를 돌보시게 되어 나는 소학교 입학직전까지 할아버지와 같이 어린 친구 하나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지냈다. 어린 시절을 그림게 회상하면서 몇 자 적어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祖父任을 ‘正字나리’라고 존대하였는데 日本人들이 할아버지를 대할 때에는 통역이 필요하였지만 정치인이 아닌 學者로서 존대하였다. 祖父任께서 다달이 받으시던 恩給(은퇴금)의 발신주소는 東京의 宮內省으로 되어 있었으나 할아버지는 親日思想이 없으시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유능한 學者였음을 기억한다. 우리 집 토고리(고물창고)에는 여러 가지 古書와 할아버지께서 급제하시기 전에 쓰신 글과 급제하신 후에 쓰신 책들이 산더미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책들도 人生의 허무한 運命과 같이 되었으리라 본다(이북 사회에서 그 책들을 보전하여 줄리가 없다.)

나의 어린 시절에 定和陵에는 같이 놀 수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陵官舍에 사는 관리직원의 딸아이들이 있었지만 나보다도 어린 나이어서

같이 놀 수 있는 상대는 되지 못하였다. 결국 나는 혼자서 陵의 自然을 동무로 삼고 살았다. 그 때의 기억이 6세 이전의 일들이니 회미한 것도 많지만 똑똑한 것(선명한 것)들도 많다.

때때로 조부님은 나에게 千字文을 조금씩 가르쳐 주셨는데 재미있었다. 때로는 함흥연대의 軍人들이 군사훈련도중에 앞뜰에서 점심을 먹고 지나가기도 하였다. 한번은 일본군인들이 지나간 후에 조부님께서는 내 앞에서 “옛적에는 朝鮮사람이 日本사람들에게 學問과 가교(기술)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라고만 말씀하셨다. 그 당시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후일에 생각하여 보니 조부님은 新羅, 백제시절의 역사를 회상하시면서 마음속의 생각을 혼자서 말씀하셨음을 알았다. 이러한 말씀을 철없는 어린 손자에게 하셨을리는 없다. 그 후에는 조부님께서 내 앞에서 朝鮮과 日本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없었다.

한번은 비가 내린 다음날 소나무(老松)밑에서 놀고 있을 때에 무엇이 힘차게 치고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놀라서 보았더니 큰 뱀(스네이크)이었다. 그 후로는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소나무 밑에서 놀지 않기로 하였다. 뱀은 비가 오면 나무로 기어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 시절에 나무 밑에서 무얼 하면서 놀았는지 아무 기억도 없다.

때로는 가슴에 많은 훈장을 달고 군복을 입은 고관들이 군경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陵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수년 전에 그들이 李垠殿下일행이었다는 것을 우리 동창회지에 실린 선배 동문의 글을 보고 알았다.

定和陵의 老松에는 白鷺가 나뭇가지 끝에 지은 집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나무 밑에서 가늘고 기다란 백로의 털(넓적한 털이 아니고)을 수집하는 것을 낙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 털을 모아서 모자 앞에 장식하였는지(장군들의 모자처럼) 또는 가지고 놀다 버렸는지 기억이 없다.

때때로 陵墓地 비석 앞에 돌로 만든 말(石馬)등에 앉아서 놀던 일이 어

제 일만 같다. 이것이 말인지 당나귀인지 어린 내가 혼자서 올라 탈 수 있는 낮은 높이였다. 나는 이것이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同窓會誌5號의 定和陵사진에서 바로 내가 놀던 그 돌말이 發見되어 반가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교차되어서 감개무량하였다.

그 石馬가 있는 묘소는 평소에 出入禁止구역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돌말서 노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 하여 이런 아이가 혼자서 높은 언덕위의 묘지까지 올라가서 말과 같이 놀았을까. 딱딱한 돌말등에 앉아서 주위의 자연을 쳐다 보면서 좋아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부터 나는 고독하고 처량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陵境內 이곳저곳을 샅샅이 헤치면서 놀았나 보다. 勿論 그 당시 내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껴본 기억은 없다. 미국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인들과 사귀지 않고 친구 없이 홀로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 하는 것은 어린 시절 고독하게 지내던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닐까 라고도 생각하여 본다.

현재 이곳 미국서는 5, 6세의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면 무슨 사고를 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하는 예가 많아서 부모가 법적으로 방임죄에 걸리는데 그 때 시절에는 세상도 좋고 인심도 좋았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착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다고 생각된다.

定和陵王家墓所의 돌말위에 앉아서 혼자 놀던 어린 아이는 이제 백발이 늘어나는 老人이 되어 異國의 방바닥에 앉아서 갈 수 없는 故鄉山川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 人生은 이별(離別)하는 것이고 人生은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다.

은퇴후에 하는 공부 (2)

은퇴하고 나서는 그동안에 醫學工夫에 시달려서 시간부족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였던 여러 분야의 독서를 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을 즐기게 되었다. 한 때는 나는 化學과 物理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일단 마치고 요즘은 英語와 獨語, 露語공부를 하고 있다. 주로 복습하는 공부로서 그동안에 잊었던 것을 되새기는 일이지만 때때로 전연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로 발견하는 수가 있어서 만족을 느낀다.

英語는 문법책을 보는데 수십년전에 출판된 전형적인 영문법책(The Principle of English Grammar)을 마치고 나서 다시 미국인이 쓴 최신판 책(Correct Grammar)을 보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에게 편리하도록 보편적인 습관에 따라서 시정하거나 추가하는 점이 여러 군데 있었다. 아마 영국인들은 이런 점을 찬성하지 않으라고 본다. 獨語는 37년 전에 독일유학에서 직접, 도미하고는 간혹 독일인들과 文通으로 연락이 있었을 뿐이고 직접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는 거의 없어 잊은 바가 많아서 자신의 무능을 느끼지만 하나하나 다시 이해하고 쉽게 습득하는 것이 재미난다.

露語는 英獨語와 대비하여 보기 위하여 뒤져보는데 적극적으로 깊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은퇴 후에 하는 공부는 장차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써 먹을 수 없는) 공부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하는 것이기에 마음의 부담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이다. 하여도 하여

도 끝이 없다.

나는 化學과 物理의 공부를 일단 마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많이 잊게 되리라 본다.

은퇴 후에 하는 공부는 자진하여 自意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이고 젊은 시절의 공부는 他意半 自意半 - 그 自意도 어디엔가는 他意의 압력에 의한 自意로서 순수한 自意가 아난 수가 많다.

다시 말하면 젊은 시절의 공부는 무엇에 승格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은퇴 후의 공부는 아무런 압력 없이(부담 없이) 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더욱 재미가 난다.

이제 우리 세대의 시험지옥을 벗어나 은퇴 후의 自意의 공부를 마음껏 즐기려고 하였는데 어느새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 떠날 준비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떠나기 전에 그리운 함흥 땅을 밟고 오면 좋을 터인데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 탈이다.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3)

고향에 가봐야지. 고향으로 간다간다 말 뿐이지 냉정히 생각하여 볼 때 지금 형편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생전의 고향방문은 불가능한 듯 하다.

요즘 나는 나대로 확실히 고향 방문하는 길을 찾았다. 머릿속에(마음 속에) 반룡산 城川江 호련천 歸州寺 定和陵 南州洞 우리집 부모형제 모든 식구를 그리면서 같이 지내던 옛 시절을 자세히 자세히 회상하는 것이다. 가족들과의 옛 대화(對話)와 그들의 모습을 깊이 깊이 생각하면서

고향의 山川草木을 그리면 비록 몸은 他郷에 있다 하여도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두고 온 옛 가족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

이제는 몸의 고향방문은 불가능하니 마음 하나만이라도 고향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몸의 고향방문은 三八線이 막고 있지만 마음의 고향방문은 아무도 막을 길 없다.

나는 수시로 마음의 고향방문을 하고 있다. 이제는 그길 밖에 없으니깐.

수일전에 혼자서 車를 몰고 가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와 마음의 대화를 할 때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운전이 불가능하여 길가에 멈춰서 눈물을 닦고 다시 운전을 하였다. 마음의 고향방문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차운전 할 때에는 삼가야 한다고 느꼈다.

人生은 꿈과 같다고 생각할 때 꿈에라도 고향에 가보고 싶어도 꿈은 마음의 뜻대로 꾸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고향방문은 자기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서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려는지.

電 蓄

金 淳 郁 (29回)

내가 함흥의 고향에서 자라나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집엔 유성기가 하나 있었다.

그땐 쇠로 된 바늘로 쇼트 플레이 판을 손으로 태엽을 감고 틀 때여서 태엽이 풀어지면 템포가 떨어져서, 코맹맹이 소리가 되는 그런 축음기였다. 판들은 대개 한국 유행가로, 가도 가도 사막의 길, 신고산 타령 같은 그런 곡들이었는데, 중학에 들어갈 무렵이 되니까, 숙부가 마련한 클래식 음악판들이 나타났다. 나는 사랑채의 내방에서 이 판들을 열심히 들었다. 일본의 중국침략 戰爭이 점점 심해지니까, 축음기 바늘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닳은 바늘들을 싯돌에 갈아서 쓰곤 했었다. 어려운 곡들이었는데, 내가 즐겨 틀던 것은 드볼작의 '신세계', 롯씨니의 '가곡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 그리고 내 영어실력으로는 읽지 못하는 모짜르트의 외국어 이름의 곡이 있었는데, 좌우간 이 곡들은 어느것이든, 그곡의 어느 소절이 나와도 다 외울 만큼 틀고 또 틀었었다. 그 한 곡을 다 들으려면, 다섯 장 여섯 장이나 되는 판을 손으로 퇴엽을 감으면서 틀어야 하는 그런 식이었다.

1945년이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다니는 동안 나는 음악을 운운할 계제가 아니어서, 그런 곡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명륜동에 살았었는데, 어느날 '명륜다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 음악의 한 소절

이 다방 안에서부터 들리는 것이었다. “아! 그 모짜르트의 곡! 내가 곡명을 기어이 모른 채로 틀기만 하던 그 곡!” 나는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을 보면서 다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축음기 앞에선 나는 무작정 거기 있는 종업원에게 물었다. “이 곡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아마 그 직원은 좀 머리가 이상한 학생이 들어 닥쳤는가 했을 것이었다. “이 곡은요. Eine Kleine Nacht Musik이란 곡이요” 그것은 독일어로 된 곡이었으니까 중학 때 그 곡명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의 작은 야곡, 모짜르트의 소야곡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겨우 몽매간에 못잇던 그 곡의 이름을 알긴 했으나, 電蓄 같은 사치품은 염두에도 말을 꺼낼 처지가 아니었다.

1955년에 나는 취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무슨 일로 남대문 시장에 나갔다가, 그때로는 보기드문 중고품 이긴 했지만, 작은 電蓄에 몇 장의 롱플레이 판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판들 중에,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이 들어있은 것이었다. 나는 너무 뜻밖이고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는 전력사정이 열악하여 서울에서도 정전이 심심치 않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電蓄이 가당하기나 한말인가? 그러다가 얼마를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비용은 숙부가 대 주셨는데,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주시면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남대문 시장에서 본 電蓄과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신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신혼여행은 이답에 가고, 지금은 이 돈으로 그 電蓄과 판을 사자는 것이었다. 새색시가 신혼여행을 가고 싶겠지, 그 이름도 괴상한 세비리아의 뭔가가 무슨 소린지 어안이 병병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겠는가.

그때만해도 夫唱婦隨를 미덕으로 여겼을 때니까. 그리하여 드디어 나는 電氣가 들어오기만 하면, 세비리아의 이발사를 틀고는, 세상이 내것인양하는 얼굴을 하고 즐거워 했던 것이다.

또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 후속 電蓄 판은 공급이 안된 채, 신 혼여행만 까먹고 살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렸었나 보다. 그런데, 1960년에 나는 미국유학을 갈 기회를 얻어 가보니까 롱플레이 電蓄 판이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었지만, 제일 먼저 산 레코드 판은 Eine Keine Nachtmusik이요, 두번째는 Rossini의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이었다. 그 후로는 매달 장학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선 레코드를 한 두장씩 샀다. Dvorak의 New World Symphony, Mahler의 대지, Beethoven symphony들, Tchaikovski symphony, violin concertos. 사고 싶은거야 얼마든지 있었다. 그래서 결국 귀국 할때는 사오십 장의 롱플레이 판들을 갖고와서 소원을 푼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역시 나의 첫사랑 모짜르트의 소아곡과 루트씨의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 그리고 또 모짜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Sonata였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도 없어, 종내는 이 곡들을 실내악단이나,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으면 해왔던 것이지만, 그런 기회가 한국에서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미국에 이민을 온 후로도 어디 뿌리를 내리는 동안 음악을 들을 여유 같은 건 있을리가 있었겠는가 그러다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들을 맞은 7년간의 뉴욕생활! 그 뉴욕에 가서 나는 조용히 신문 음악회 광고를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날 링컨센터에서 어느 실내 음악단의 연주 리스트에 모짜르트의 소아곡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티켓 두장을 미리 예매하고 그날은 일찌감치 맨하탄에 나가 식사를 마치고 Avery Fisher Hall에 들어가 앉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간 촌 사람에게는 티켓값이 어찌나 비싼지 제일 짠 자리... 3층 구석자리를 사면서, 마누라에게는, 음악은 귀로 듣는거지, 꼭 눈까지 쓰면서 들을거야 없지 하는 따위의 강변을 하면서 앉았던 것인데, 음악을 듣는 동안 계속 무대 쪽을 보게 되니까, 끝나고나니 목이 아프고

뻔뻔한 것이어서 아내에게서 핀잔 깨나 들었었다. 좌우간에 그 비싼 자리들이 짝 차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드디어 그 감미로운 곡이 흐르기 시작하니 그 감개무량함이며! 함흥 집에서 쇼트 플레이로 듣기 시작해 낱낱이 외운 그 곡을 이 지역 땅 미국 뉴욕에서 세계 일등가는 실내음악단의 연주로 이 곡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으리요. 나는 눈물이 나올 지경으로 감격하면서 듣고, 밤늦게 돌아오는 길에서도 그리고 그후 몇일 간에도 내내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하였다. Rossini의 세비리아…는 결국 링컨센터의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로 들었는데, 서곡만 듣고 나니까 그 뒤의 본줄거리 음악은 내게는 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제 어딘가. 뉴욕 오페라단이 연주하는 세비리아의 이발사 서곡을 눈앞에서 보고 들었으니까.

그 후에 나는 이 몇가지 판들은 연주 악단이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사 놓아서 한가지 곡들을 몇장씩 갖게 되었다. 나는 고향 생각이 나거나, 내 소년 시절의 일들이 생각나면 이 곡들을 듣는다. 이 음악들은 그것이 명곡 일뿐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즉, 내 고향 함흥이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던 산수정집이요, 늘 올라다니던 반룡산이요, 그리고 어린 꿈을 키우던 소년의 정렬이라 할 수 있다.

Eine Kleine…는 그후엔 뉴욕에선 듣지 못하고, 은퇴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온후 그해 연말에, 그리 멀지 않은 곳의 performing art center에서 Pacific Symphony Orchestra가 연주하는 스케줄에, 이것이 들어있어, 옹지 여기서도 황재 하는구나 하고 또 잤었다. 내가 뉴욕에 가 있던 사이에 지어진 새 음악홀이여서 깨끗하고, 새로운 디자인인 아름다운 음악당이었는데, 뉴욕에 못지않은 선남선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그 많은 좌석을 짝 메우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나는 이미 함흥 집의 사랑채의 내방에, 반룡산 구천각에, 성천강과 만세교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위에, 송정의 산책길에, 뒷산 키가 큰 문인목들이 서 있는
성텃자리 산책길에, 소학교와 중학교 다니던 길에, 그리고 지금은 다 타
계하고 볼 수 없는 증조 할머니를 비롯한 북에 두고온 온 가족들...과 함
께 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연주가 끝나는 박수가 요란하고, 밖으로 나와도 나는 지금 있
는 이 현실에 곧장 돌아올수 없었다.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을 가진 이들
의 심정을 사람들은 아는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달려가 보는 두고 온 산
천은 이젠 나에게에는 일종의 고통이다. 언제까지 계속 나는 그곳으로 달
러가는 상상을 해야 하는가.

2002년 歲暮

Om Mani Padme Hum (옴 마니 반메 흠)

韓 在 壽 (29回)

내가 언젠가 LA의 영화감독협회 시사실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 어찌다보니 유대인 영화평론가이며 신부이신 라바이(Rabbi) 옆에 앉게 되었다. 그는 인사를 하더니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에게 그는 종교가 무엇 이냐고 물었다. 그래 나는 불교라고 답하니까 그는 자기 목에 걸고 다니는 조그마한 통을 보이면서 그것을 열어보이고 안에서 자그마한 쪼박지를 나에게 펴 보였다. 그리곤 이것이 '옴마니반멧흠' 이라 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스리랑카에 찾아갔을 때 그 곳의 큰 불교 사찰에서 얻었노라 했다. 유대교의 신부가 불교의 상징을 목에 달고 다니다니?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엔 아랑곳없이 태연했다. 현대 '천수경(千手經)' 을 보면 중간쯤에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觀世音菩薩 本心微妙 六字大命王 眞言)하고 '옴 마니 반메 흠' 이 나온다.

여기서 「옴」은 하늘 세상을 말한다. 요즈음 힌두 선이나 불교 선을 하는 미국인들이 그 뜻을 알고 '옴' 하곤 한다. '옴' 하면 하늘 높이 무한히 퍼져 올라가는 소리를 말한다. 또 동시에 '옴' 하면 우리 진리체(眞理體)의 앞머리 부분에서 하얀 빛이 높이 발산되며 그 빛이 다시 내 앞머리로 스며들어선 어지럽고 불결한 것을 깨끗이 한다. 그리고 보석(金剛石, Diamond)의 물결(Vajradhara) 속에서 거대한 힘이 우리의 육체에 들어서는 것을 알게된다.

「마」는 아수라(혹은 수라장), 「나」는 인간, 「반」은 축생, 「메」는 아귀

(餓鬼),

「흠」은 아(阿)하(賀)오(汚)마(磨)의 네 글자가 모여서 생긴 것이라 하며 온갖 교의(教義)는 모두 이 한 글자에 들어 있다고 한다. '흠'은 저 땅 밑으로 끝없이 퍼져내려 간다는 뜻의 소리로 알고 있다. '흠'하면 푸르스름한 빛이 우리의 진리의 본체의 마음에서 저 멀리에 내려가면 다시 우리의 심장으로 용해하면서 마음을 청정(淸淨)한 곳으로 이끌고 간다. 그리고 금강석(金剛石, Diamond)의 파장(波長, Vajradhara)같은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선 위대한 지혜(Maha Prajna)의 거대한 힘을 얻게 한다. 이 여섯자는 지옥 세계의 제도(濟度) 즉 구원(救援)을 가르키며 또한 일체의 복덕(福德), 지혜(知慧)와 모든 공덕행(功德行)의 근본을 갈무리한 진언(眞言) '다라니'이다. 극락에 왕생(往生)하길 바라면서 부르면 죽은 후에 이 6도의 문을 닫게 하며 유전(流轉)하는 재액(災厄)을 벗는 공덕을 얻는다. 주로 라마교(티벳트 불교)의 신자들이 많이 이것을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이 학파의 불교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안다.(진각종)

어떻든 이 것을 몸에 지니거나 손에 가지거나 집안에 두어도 같은 공덕을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이 유태교 신부님도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 허나 쉬웁게 해석하면 선(善)은 선이고 악(惡)은 악이다. 그럼에도 여기엔 선악이 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 특색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음 마니 반메 흠'은 만유(萬有)를 뜻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선(善)이던 악(惡)이던 모든 존재를 인정하는 말인 것으로 나는 안다. 따라서 불교는 어떤 것이던 '아니다'로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선 '받아 드린다(Acceptance)'를 뜻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받아 드리는 능력이 모자라 싸움에 말려들곤 하는 것 같다. 이 'Acceptance'는 현재 정신 치료의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안다.

부처님께선 불교의 원칙적 가르침을 스스로 달마(法) 'Dharmma -

Vinaya'라 불렀다. 이 '달마'란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이며 그 근본적 뜻은 '떠받치다' 혹은 '입증하다'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온 우주와 또 우주의 시스템(法)을 떠받치고 입증한다는 뜻이 있다. 이로 인해 이 말은 '교리(敎理)' '법(法)' 또는 '규범(規範)'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어서 'Vinaya'란 말은 계율(戒律)을 뜻한다. 따라서 'Dharmma Vinaya'는 '법'과 '계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Buddha, 佛)는 높으신 이에 대한 경칭(敬稱)이며 정각(正覺, The Enlightened One)을 이룬 깨달은 분이란 뜻이며 우주의 모든 원리를 환히 아시며 마침내 깨우친 분(The Awakened One)이란 뜻이기도 한다.

부처계선 당초 '시달타 고타마'(Siddhartha Gotama)로 태어나셨다. 시달타는 첫번째 이름이며 고타마는 성(姓)이다. 부처계선 또 '석가모니(釋迦牟尼)'(Sakiamuni)로도 불리운다. 석가모니는 석가 종족을 대표하는 말이며 '석가종족'의 현인(賢人) 또는 철인(哲人)을 뜻한다. 이로 인해 그는 석가 왕국에 왕자로 지내게 된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면서 '여래(如來)'(Thathagatha)라 불리운다. 여래의 '다타'는 진실 또는 진리란 뜻이며 '이와 같이 진실(如實)하다는 뜻도 된다. '가타'는 원래 'Agatha'이다. 이 '아가타'는 가셨다 또는 도달하시고 다시 오시다란 뜻이다. 다시말해 진리에 도달하신 분이란 말이며, 저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열반(涅槃) 'Nirvana'의 피안에 가신 분이며 온갖 이상경(理想境)에 도달한 분이란 뜻이며 'Agata'는 오시다(來格)란 뜻이며 가셨다 다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이며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란 뜻이기도 하다.

불교엔 세가지 전통적 교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Theravada'이다. 이 말의 '태라'란 뜻은 상좌(上座)란 뜻이며 또 장로(長老)란 뜻을 갖고 있으며 '바다'는 교리 또는 가르침이란 뜻이며 부처님 주변에 또는 가까이 계신 분들의 '상좌 또는 장로 불교' 불교를 말하며 두번째가

‘Mahayana’ 즉 ‘대승불교(大乘佛敎)’를 말한다. 여기서 ‘마하’는 ‘크다’란 뜻이며 ‘야나’는 ‘수레(車)’ 즉 마차를 뜻하며 도(道) 또는 방법(方法)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하야나’는 위대한 수레를 타고 도를 닦는 길을 간다는 뜻을 가진다. 동시에 수많은 대중(大衆)을 위한 보살도(菩薩道) (Bhodhisattva, Mahasattva)를 가르키기도 한다. 때론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테라바다’를 소승(小乘) 불교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대중이야 어떻든 자기 혼자 깨우치며 된다는 뜻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것은 때론 어쩌면 경멸하는 뜻도 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Vajrayana’는 금강불도(金剛佛道)를 말한다. 여기서 ‘비주라’란 뜻은 보석 금강(金剛) 즉 ‘다이아몬드’를 말하며 이것은 어떤 것보다 더욱더 강하며 어떤 것이던 다 견디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다. ‘야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레나 도(道)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金剛經)이며 ‘마하 관야 파라미타이다’이기도 하다. 여기서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며 ‘관야’는 지혜(知慧)를 말하며 ‘파라미타’는 모두 다 이룬다 또는 완벽(完璧)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드시고 열반(Parinibbana)에 이르자 제자들이 모여서 평의회(評議會)를 이룬다. 이때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마하 가섭’(Ven. Maha Kassapa)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經)과 부처님의 계율(戒律)과 아비달마(論) ‘Abhidharma’(부처님 설법을 조직적으로 설명한 것)의 세 분야로 나누었다고 한다. 경(Sutra, Discourse)은 부처님 옆에 늘 계셨던 대법사(大法師) ‘아난다’(Ven. Ananda)가 맡았고, 계율은 대사 파리(Ven. Pari)가 맡아 했고, 평의회 의장이던 마하 가섭은 아비달마(불교 형이상학)을 맡아 했다. 여기서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더 집어넣거나 과장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확히 구두(口頭)로 선생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제

자들과 대중들과 스님들은 모두 함께 구두로 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왔다는 것이다.

불경(佛經)의 처음을 보면 이런 글월이 적혀 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래(如來, Tathagata)께서”란 말이 나온다. 따라서 어느 불경에도 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如是我聞)으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직접 경을 쓰신 것이 아니며 말씀하신 것을 제자 아난등이 듣고 적은 것이어서 모든 경(經)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는 어구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래께서 어느 때 비구들이 상주하고 있는 코사라(Kosala)란 나라를 찾으신 적이 있다. 그 나라의 조그마한 마을인 케사푸타(Kesaputta)에 마침 부처님께서 들어서게 되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을 당시엔 카라마(Kalama)라고 불렀다. 이 카라마(Kalama)인들은 높으신 부처님께서 오신다기에 모두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곤 여쭙었다.”

“높으신 분이시여! 이 곳에 고행자(苦行者)들과 부라망(Brahmin)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리곤 자기네들의 교리를 내세우곤 합니다. 더우기 남의 교리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그것들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높으신 분이여! 또 다른 고행자(苦行者)나 부라망들도 이 곳에 와서 자기네들 이야기만 내세웁니다. 그리곤 남의 교리를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선 모든 것이 불확정(不確定)하다고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고행자나 부라망들 중에서 어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어느 누구 그릇된 것을 말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래께서 이에 즈음하여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의심하고 마음이 불확정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카라마인들이 의심과 불확실성은 그대들 마음에서 솟구치는 의아심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되풀이 되는 같은 소리를 계속 듣는 것은 삼가

야 하느니라. 전설(傳說)이나 관습(慣習)에도 너무 기대지 말 것이며 소문이나 풍문에도 기대지 말 것이고 경서(經書)나 성문(聖門)에도 그렇게 기대지 말 것이다. 추측이나 억측으로도 판단하지 말 것이며 때론 격언이나 공리(公理)에도 지나치게 기대지 말 것이니라. 남의 그럴 듯한 능력에도 기대지 말고 어느 특정한 선생의 빛나간 말에도 너무 기대지 말 것이다. 카라마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이것이 옳으며 저것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것이 불건전하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느니라. 또 이런 일이 너희에게 해를 기치는지 악을 가져다 주는지 자못 다 알고 있느니라. 따라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도 너희는 다 아느니라, 어떤 것이던 그것들이 옳고 건전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너희들 판단으로 확산이 설 때 받아 드리면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니라.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 드리고 따라야 하느니라.” 하셨다.

부처님은 세상 만사에 의심에서 시작하라 하셨고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던지라고 하셨다. 세상일은 어느 것이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因)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온다고 속단하지 말라고도 하셨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과(因果)란 말을 쉬웁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다.

오늘날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버그가 불확정성 원리(不確定性原理)를 주장하면서 인과설(因果說)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하이젠버그(Werner Heisenberg)가 1927년에 불확정성원리(The Uncertainty Principle)를 제창함으로써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에 대변혁이 일어난다. 한 분자(分子), 즉 전자의 운동속도와 그 위치를 동시에 분명히 명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한 양자를 더욱더 정확히 측정하려면 다른 양자의 측정이 더욱 정확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 TV에 한때 Quantum Leap란 드라마가 나와 인기를 끈적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양자

가 그 측정 과정에서 이유 없이 방향도 모르게 튀어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쇼에 한국의 2세 젊은이가 “Soul to Seoul”란 TV드라마를 써서 인기를 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4.29폭동 때 나온 쇼이며 Soul이란 흑인들의 Soul Music이나 Soul Food를 생각하면 알게 된다. 그리고 Seoul이란 알다시피 한국의 수도 ‘서울’을 말하는 것이다.

어떻든 이 물리학설로 해서 인과설은 깨지고 말았는데 불교인들 속의 어떤 이들은 인과설을 내세운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연기(緣起)를 말하시면서 인연(因緣, Arising & Interrelationship)에 대해 이야기 하였던 것도 인(因)과 과(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인과설은 유교나 다른 교에서 유래되었을 것인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논리나 높은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할 뿐 그것의 평면(平面)밖에 보지 못한다. 불교에선 이것을 유언변(有言邊)만을 이해하고 무언변(無言邊)과 진소식(眞消息)은 짐작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불교에 들어서는 사람은 여러 의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던지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마침내 해답을 얻게 되면 깨달음의 길에 서서히 나서게 되는 것이라 하시었다.

부처님께선 자기 제자들과 스님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다. “나의 제자들이 ‘나 여래(如來)’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알라, 그래야 비로소 내 가르침에 너희들의 확신이 서느니라 마침내는 나 스승에 대해서도 그 가르침의 믿음이 서느니라! 따라서 제자들이 다 그리 하였던”고 전해지고 있다.(Vimamsaka Sutta)

“연꽃처럼 물에서 태어나

As a lotus flower is born in water,

물에 자라선 물 밖으로 가지를 내어

Grows in water and rises out of water

우뚝 솟아, 얼룩지지 않은 도다…… To stand above it, unsoiled.
 그렇게 나는 태어났노라. So I born in the world,
 세속에 태어나서도 Raised in the world,
 그 세월을 이겨내어, Having overcome the world.
 어지럽혀 지지 않고 살고 있노라.” Live unspoiled by the world

이리하여 부처님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연화좌(蓮華座)에 앉아 계시다. 혹은 이것을 연대(蓮臺), 화대(華臺), 화좌(華座)라고도 부른다. 이를테면 부처님과 보살(菩薩)님들이 앉으시는 연꽃으로 이루어진 자리(臺座)를 말한다. 연꽃은 위의 시(詩)와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덕(德)을 갖추었음으로 불 보살이 앉는 자리를 삼다(三多), 이를테면 더러운 국토에 있으면서 세상 풍진(風塵)을 여의고 청정(淸淨)하며, 이상스런 신비(神秘)한 힘이 자재(自在)한 자리를 말한다.

독일의 본 대학(University of Bonn)의 저명한 식물학 교수 윌헬름 바트루트(Wilhelm Barthlott)박사는 연꽃잎에 대해 특별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꽃잎은 그 표피에 특수한 초(Wax)와 같은 성분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지러운 물이나 더러운 물도 연꽃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한다. 바로 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며 부처의 상징인 것이다.

못잇을恨

韓 依 天 (29回)

나는 北에서의 못잇을恨을, 가끔 回想한다. 우리집은 咸州下岐川 東井里의 西商洞에 있었는데, 曾祖父任이 興南本官 옆 洙邊里에서, 1896년에 長男에게 家事모두를 맡기고 入山하여, 터를 잡았다. 曾祖父任 腴齋는 性理學 畿湖學派의 領袖, 全齋任憲晦의 高弟로, 良齋田愚와 同門受學하고, 申應朝, 宋秉濬, 宋迎洙, 崔益鉉, 柳重教, 宋秉珣, 尹致中, 徐政淳等, 其他 儒賢들과 交遊한 後 歸鄉하여, 鐵嶺以北의 儒宗으로, 歷代道伯들의 訪問을 받아 諮問에 應하고, 都約正으로 鄉約改正에 參與하고, 鄉飲禮의 主賓을 맡았다. 그리고 李容翊의 深衣着用是非와 陸裕信의 黑服令, 斷髮令 強要로, 本宮에서 祖父任을 데리고, 西商洞에 搬移 入山遁跡하여, 살림집 岐亭과 書院인 關北經學齋를, 1898년에 創建하고, 後學들을 養成했다. 또 川西 西隱里 御殷洞에 箕聖廟를 짓고, 祖上崇拜와 民族思想을 길렀다. 그리고 三綱錄과 關北文獻錄과, 20卷 5冊의 文集을 남기고, 箕子遺志를 重刊하고, 宋子大全重刊을 主導했다. 또 箕聖廟齋長을 兼하고, 吏曹와 兵曹에 薦學되고, 參奉과 教授, 博士, 經學院講師에, 任命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했다. 死後에 50日 儒林葬을 치르고, 咸山志와 道誌, 市誌에 評이 傳한다.

또 祖父任 勤謹齋는 良齋田愚의 門人이었는데, 亡國의 선비로 草野에 묻혀, 父業을 이어 經學齋와 箕聖廟를 運營하고, 商洞祠를 建立하고, 晝耕夜讀하며, 山紫水明한 西商洞溪谷을 開墾하여, 數萬坪의 林野와 4萬餘

坪의 田畝과, 果樹園 및 栗園을 造成하고, 세곳의 民家를 建立하고, 宗孫 孤兒를 養育하여 成婚分家하고, 養蜂과 養鷄를 하여 큰 農莊을 이루고, 鄉里의 獎學과 恤貧에 힘썼다. 또 箕聖廟의 碑文關係로 參政 韓圭高을 만나고, 日記와 書簡을 남기고, 腴齋先生文稿를 發刊하고, 書冊, 小說, 新聞, 史書보기를 즐기시고, 數km의 目測導水와 築石, 建築, 農事等に 能하고 5男2女의 子女를 훌륭히 기르시고, 늘 勤務하시어 行蹟이 郡誌에 게재(揭載)되었다.

아버지는 義陵參奉과 咸興本官의 祭監으로 계시면서, 家事를 돕고, 族譜編輯에도 參與하였다. 天稟이 篤厚俊秀하고 名筆이어서 李王職에서 稱頌되고, 나와는 다르게 風采가 좋아 行人들까지 恭待하고, 英親王 行幸時에는 늘 扈從하였다.

또 두 분의 姑母夫와 넷째 叔父任이 咸興高普 出身으로, 社會에 나가 活躍하여 家聲이 높았다. 이러한 이름있고 부유하고 興盛했던 집안이, 不幸히도 解放前後에 어머니, 아버지, 祖父任이 내가 卒業하기도 前에, 잇달아 世上을 떠나 갑자기 戶主가 된 나의 試鍊은 始作되었다. 解放後 나는 土地改革에서, 地主와 名家의 子孫으로 指目되어 林野와 祭田, 栗園의 一部와 齋田·田畝의 一部와 五老驛前의 土地와 宣德의 小作畓을 沒收當하고, 追放對象과 要視察人物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排共清算團事件과 마을의 點組織, 大韓青年團事件에 加擔하였는데, 많은 同志들이 不歸의 客이 되었다.

또 넷째 叔父任은 日本의 宇部工大를 나와, 海州와 滿洲通化에서 勤務하다, 解放後 歸國하여 隱居하다 興南五大工場附屬 中央研究所에 끌려가서 設備課長을 하시다, 排共清算團의 最高委員 兼 五大工場總責으로 暗躍하시고, 檢舉時 避身하여 江界까지 갔다가 돌아와 우리집 다락 고모리에서 國軍進駐時까지 1年半 숨어 살았다. 그리고 6寸兄任도 本官支團長으로 暗躍했는데, 이 事件은 市誌에 실려있다. 나는 6·25때 隱身逃避하

다 發覺되어 끌려가 身體檢査를 받고 一線에 나가기 前夜에 川原에서 脫出, 9月初에 興南天機里에서 체포되어, 1年半의 刑을 받고, 威興에 移監되기 直前に 國軍入城으로 九死一生, 內務署監房에서 나와, 文書係長을 맡아 勤務하다 興南撤收時 社會課長을 하던 셋째 叔父任과 몇몇 市幹部들과 같이 埠頭가에서, 各里의 要選難人名單을 만들어, 美軍民事處와 乘船交涉을 하다, 無一錢 알몸으로 배에 올랐다.

한편 나의 故鄉집에는 孔子, 朱子, 宋子(宋時烈), 箕子, 腴齋의 影幀과 선비들의 書簡, 書帖, 書藝들이, 書櫃에 가득했다. 古書에는 明心寶鑑, 擊蒙要訣, 小學, 孝經과 論語, 孟子, 中庸, 大學을 비롯하여, 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가 있었다. 朱子大全, 二程全書, 老子道德經, 退溪集, 栗谷全書, 資治通鑑, 菜根譚, 喪禮備要, 沙溪集, 牛溪集, 花潭集, 近思錄, 牧民心書, 磻溪隨錄이 있었고, 梅山先生文集, 全齋集, 肅齋遺稿, 眉山集, 心石齋先生文集, 淵齋先生文集, 晚柏先生文集, 古文眞寶가 있었으며, 問可錄, 四禮大略, 順事齋集, 三綱錄, 關北文獻錄, 腴齋先生文稿, 東湖先生文集이 있었고, 思愚全集, 省齋集, 魯湖集, 敬所私稿, 勉菴集, 申箕聖全集, 勤謹齋日記와 族譜, 各姓氏族譜, 遺事, 其他 많은 古書들이 있었다. 또 新書에는 玉篇, 辭典類, 農書, 史書, 世界文學全集과 小說, 詩集, 機械書籍, 新聞, 日本各種圖書, 教科書, 五萬分之一地圖, 其他 등이 山積해 있었다.

집에는 聖學十圖屏風과 虎皮무늬 털 깔개, 程子冠, 갓, 갓집, 거문고, 硯滴, 硯匣, 벼루, 各種붓, 文房諸具, 經床, 書案, 官服, 唐鞋, 말鞍裝, 나막신, 옛眼鏡, 옛眼鏡집, 담배대, 합竹扇, 곱장扇, 佩鐵, 藥用저울, 옛수저, 宕巾, 網巾, 笏託, 옛祭床, 香爐, 香匣, 香床, 香翁, 鑪器춧대, 유경춧대, 蓄音器, 音盤, 燈盞, 石油램프, 카아바이드燈, 舊式다리미, 인두, 함지박, 밥床, 쇠불가래, 쇠불젓가락, 삼발이, 자물쇠, 다듬이돌, 말, 되 등이 있고, 각각 300餘個의 놋그릇과 개다리小盤, 木器, 祭具와 만다리櫛과 饌櫛이 있었고, 銀裝刀, 裝身具, 鏡臺, 閨房小品들과 廚房의 놋대야양푼, 놋그릇

등과 甕器그릇, 藥湯罐, 주전자, 술잔, 국수틀, 떡메, 멧돌 등이 있었으며, 두루마기, 道袍, 마고자와 솜, 베, 비단, 무명, 洋緞, 비로도의 韓服과 누비옷, 洋服, 內衣, 內服, 外套, 털자켓, 옷도리, 남바위, 가죽長靴, 防暑帽, 寒帽, 帽子, 懷中時計, 壁時計 등이 있었고, 디딜방아, 구유, 베틀, 紡織諸具, 額子, 寫眞, 椅子, 冊床, 書架, 平床, 神主, 家廟, 횃대 등이 있었으며, 箕聖廟에는 祭具와 備品, 食器, 記錄簿, 笏記 등이 있었다.

建物에는 岐亭8棟, 關北經學齋5棟, 商洞祠2棟, 箕聖廟5棟이 있었는데, 살림집 岐亭의 안채에는, ① 윗房, 長房, 가운데房, 뒷房, 정지, 부엌, 광과 시멘트마루와 그위에 널마루가 있었으며, 房에 들자면 세네번 디디고 올라야 했다. ② 舍廊채에는 大廳房, 윗방, 가운데房, 아랫房, 뒷房, 長房, 부엌, 외양間과 시멘트마루와 그 위에 널마루가 있었으며, 房에 들자면 두세번 디디고 올라야 했다. ③ 左側에는 세間 크기의 상과음과 ④ 穀食間 두 個와 옷間, 農具間과 ⑤ 수레間, 堆肥造成間, 農具헛間이 있고, ⑥ 右側에는 세間크기의 養鷄舍와 ⑦ 방아間, 地下室, 벌정이間, 나무間이 있고, ⑧ 男子便所, 肥料貯藏間, 女子便所가 있었으며, 안채마당 花壇, 마늘밭, 舍廊채마당, 花壇, 담배밭, 堆肥場, 이들을 감싸는 담과 울타리 大門 앞 살구老木, 집앞 작은 도랑과 桃園앞에 내가 있었다. 또 안채에는 윗房과 長房사이에, 舍廊채에도 윗房과 가운데房 사이에 名句名文을 써붙인 미단이 門과 二重窓이 있었고, 舍廊채 마루기둥에는 懸板이 걸려 있었다.

關北經學齋에는 ① 큰 講堂 세개의 本齋와 마루위의 널마루, 懸門과 二重窓書庫, 東西의 아궁이가 있고, ② 네개의 선비房, 부엌, 마루의 東齋와 ③ 房세개, 부엌, 외양間, 便所의 西齋와 ④ 큰 便所와 ⑤ 懸板이 가로달린 솥을 大門으로 되어있고, 商洞祠는 經學齋 뒤쪽에 ① 腴齋와 弟子 5명의 神位를 모시는 本殿과 ② 中大門과 담이 있고, 階段이 있는 마당으로 되어있었다. 또 箕聖廟는 ① 箕子影幀을 모시고 祭祀를 드리는 큰 세

間的 錫範堂과 碑石, ② 階段위에 左右의 房과 가운데에 大廳이 있는 前殿과 ③ 房세間, 부엌, 헛간의 東齋와 ④ 房세間, 부엌, 외양間, 便所의 西齋와 ⑤ 上下階 樓閣의 白馬門과 마당, 담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봄에는 사과, 복숭아, 배, 살구꽃, 진달래, 철죽 등이 골짜기를 메워 武陵桃源과 같았고, 300餘樹의 밤나무가 꽃을 피웠다. 山에는 道林業試驗所의 잣나무, 이깔나무, 소나무와 丹楓나무, 白楊나무, 참나무, 옷나무, 포플러 등이 뺨뺨했다. 봄에는 냉이, 고사리, 두릅, 도라지, 더덕 등 여러 산나물들이 味覺을 돋우고, 여름에는 딸기, 칩, 益母草, 芭麻子, 나리꽃, 달맞이꽃, 닥나무, 뽕나무 등이 있었고, 개똥벌레, 매미, 하늘소 등이 있었다. 가을에는 松栢버섯, 싸리버섯, 들菊花, 다래, 머루, 잣, 밤 등이 있었고, 丹楓이 萬山을 繡놓았으며, 겨울에는 白雪이 나무나무를 덮어 온 山이 죽은 듯이 고요했다.

1905년에 觀察使 申箕聖이 우리집에 왔을때의 經學齋記에 西商洞은 “온 山이 四面으로 둘러싼 가운데, 平凡하게 퍼져서 멀리 그윽한 林木들이 茂盛하게 뺨뺨하고, 清流가 물소리를 쿵쿵 내면서 洞外로 흐르고, 水石이 絶勝하여 꾸불꾸불 길게 잇달아, 꾸부러 꺾어져 桃源의 溪路와 같아 참으로 한조각의 깨끗한 땅이었다”고 하였다. 山에는 오소리, 살괭이, 멧돼지, 노루, 다람쥐, 토끼, 족제비, 담비 등과 꿩, 까마귀, 까치, 딱따구리, 솔개, 박쥐, 뺨꾸기, 부엉이, 꿩, 소쩍새 등이 있고, 살모사, 구렁이, 도마뱀 등이 있었다. 果樹園에는 사과, 복숭아와 若干의 배, 대추, 櫻桃, 在來種복숭아 등이 있고, 밭에는 조, 수수, 옥수수, 귀리, 팔, 콩類, 무우, 배추, 메밀, 보리, 감자, 고추, 파, 들깨, 참깨, 밀, 오이, 가지, 木花 등이 있고, 벼가 있었다.

農具에는 수레, 발구, 쟁기, 쇠스랑, 곡괭이, 괭이, 호미, 삽, 거릿대, 서래, 삼태기, 쇠삼태기, 낫, 도끼, 나래, 고무래, 미사리, 샷갓, 받고무래, 다래기, 모내기줄, 모내기, 도르래, 씨아, 갈퀴, 도리깨, 지게, 가마니틀, 새

기틀 등이 있었고, 작두, 너가래, 멍석, 달구, 망태기, 멍에, 키, 剪定가위, 剪定톱, 저울, 脫穀機, 噴霧器, 除草器와 數十箇의 果實用箱子, 其他 등이 있었다. 또 工具類에는 정, 끌, 大小망치, 各種대패, 大小톱, 도래송곳, 노루발장도리, 줄, 지렛대, 가퀴, 못빼기, 스패너, 나무망치, 먹통, 자, 줄자 등이 있었다.

나는 오래 前부터 못난 西商洞風景圖를 그려, 그것에 다음과 같은 拙詩를 써서, 篇額에 넣어 壁에 걸고, 그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

내 故鄉

關北땅 咸州岐川 東井마을/ 피와 얼, 생겨 자란 故鄉마을/ 西商洞 靑山 幽溪 平和롭고/ 暖風에 生氣돋아 活氣찾네/ 진달래 복숭아꽃 붉게 피고/ 반디불 달맞이꽃 어우리어/ 茂盛한 五穀白花 豐饒롭고/ 四季節 錦繡江山 華麗한 곳/ 天依山 光周峰이 높이솟아/ 되마다 거느리어 굽어보고/ 紫芝峰 봉우리도 붉어지면/ 봄빛은 周峰너머 찾아왔네/ 筆峰과 두 雙草峰 마주앉아/ 여름의 푸른綠陰 자랑하고/ 箕山의 산새들이 노래하니/ 箕川이 소리내어 흘러갔네/ 秋風이 갈대밭에 찾아오면/ 밤나무 동산에서 밤을 줍고/ 丹楓이 鷹峰너머 사라지면/ 앞 山의 老木에도 雪花뿔네/ 山所와 經學齋는 옛대론지/ 岐亭과 花山識는 언제가리/ 꿈에 본 桃源仙境 가고 싶다/ 지금도 山紫水明 눈에어리네/

요즈음 TV에서 珍品名品과 6時 내故鄉에서 古家와 書院, 山川 등을 볼 때마다 故鄉에 송두리째 두고온 風景과 物品들이 生覺난다. 애초부터 統一이 되었더라면 故鄉에 觀光休養園이나 特殊研究所 研究所 研修修練院 등 하나는 이루어 졌으리라 生覺된다. 왜냐하면 西商洞은 마을에서 無人之境 5里餘 떨어져 있고, 洞口안이 景致 좋고 山들이 深山이나 10里餘에 驛이 있고 1,284m의 天依山 아래에 西山洞 溪谷을 끼고, 東쪽에 591m의

光周峰과 箕山, 筆峰, 322m의 紫芝峰이 있고, 西쪽에 734m의 西峰과 531m의 鷹峰, 雙草峰 周峰이 있어서, 登山하기에 알맞고, 里界山마루에 伐木防水帶가 이어져 있었다. 또 같은 面內에 6·25때의 黃草嶺激戰地와, 黑林江上流 眞興里의 中嶺堡, 黃草嶺碑遺址, 인크라인, 99구비의 黃草嶺길과 698m의 煙臺峰 아래의 金城洞口巖, 溪邊의 萬才峰 鷓巖과 密橋의 巨碧灣과 龍巖, 龍泉의 兩碧灘 등이 있고, 이웃에 長津湖激戰地等 名勝과 4個의 水力發電所가 있었기 때문이며, 咸興에서 西商洞이 70리밖에 되지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西商洞에는 知止窩, 蜂腰, 態巖, 梨塢, 蘆田, 蓮塘 등이 있고 溪谷의 箕川에는 花潭, 花山, 釜池가 있었다.

그런데 1987年刊 五萬分之一地圖를 보니, 獨居하던 西商洞은 洞口안의 옛建物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여러棟의 建物들이, 우리땅에 있었다. 90年度初에 消息에 들으니, 軍部隊가 들어서서 옛建物들은 撤去되고, 民間人出入이 禁止되었다고 들었고, 또 들으니, 附近處 筆峰기슭에 安葬한 어머니는, 箕山 紫芝峰 中腹에 있는 祖父任 山所앞에, 任意로 移葬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90年度末에는 下朝陽仁興里南石에, 祖父任과 같이 어머니도, 다시 移葬 되었다는 消息에 나는 鬱憤이 나고 옛적에 消風오던 西商洞의 집과 風景들과 文化財的 遺物들이 이제는 없어졌으니, 寒心하고 抑鬱하기 끝이었다.

참으로 끝까지 抹殺하는 赤徒들의 蠻行에 鬱火가 난다. 또 우리집안 親姻戚에서 우리母校에 다닌 사람이 22名인데, 南에 나와 8名을 못만났다. 이것이 모두다 6·25의 슬픔이었다.

나는 지금 不歸의 客이 된 많은 同志들의 孤魂을 慰勞하지 못하고 天人共怒할 惡行을 恣行하는 것을 아직도 悔改 못한 것이 恨이되고 안타깝기만 하다.

송두리째 두고나와 歲月은 흘러서, 두고온 血肉들은 굶고 깃눌려 허덕이는데, 悔改없이 強奪, 殘惡, 驕慢을 일삼는 無廉恥, 眼下無人格인 그들

을, 一部인들이 同族으로 同情하여, 屈辱, 低姿勢로 無償의 物品을 보내니, 몇몇 走徒들만 배를 채워주는 格이 되고있다. 그들의 實狀과 屬性을 모르고, 夢想에 젖어있는 꼴이다. 惡의 化身으로 不勞所得하고, 네것도 내것이란 野慾에 찬 非人間의인 그들의 蠻行에 北에서 當한 나의 쓰라린 處地와 體驗이 生覺할 수록 抑鬱하고, 못맛을 恨이 된다.

醫窓에서 명상에 잠기며

韓 鎮 慶 (29回)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을 건강한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 진료에 임하게 된것을 생각할 때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아침 진료시간은 10시부터 시작되는 데 병원 근처 주차장에는 9시 반 경에 도착한다. 어쩌다 늦게 도착되는 경우라도 있으면 주차장 직원은 “6551호 새마을호 열차가 오늘 아침에는 좀 연착 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라고 물어본다. 6551은 내 차의 주번호이다. 내 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하게 달리는 새마을호 열차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아침 도착시간이나 저녁 출발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과는 내가 1968년 5월에 개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계속되었다. 일요일에도 오전중에는 진료를 했다. 일중독증에 걸린 사람같았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들은 또순이오빠, 독일병정, 일본 태평양함대 山本五十六동 몇가지 별명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나의 이런 빈틈없는 생활에 어느날 갑자기 일대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러니까 재작년 2002년 6월 온나라가 월드컵 축구경기로 들끓고 있었을 때 정확히 말해서 6월 17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오전진료를 끝마치고 대학로를 거쳐 낙산공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어찌된 일인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체했나 하고 소화제, 위장진통제 등 이약 저약 먹어 봐야 소용이 없었다.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몸은 차차 지쳐가기 시작했다.

급기야 나는 그날 오후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동침대에 누어져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는 대장하부에 종양이 있어 장폐쇄 증상이 왔다는 것이다. 기진 맥진한 상태에서 어떻게 수술이 시작되었는 지도 모르는 사이에 밤새 큰 수술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눈을 떠보니 다음날 나는 중환자실에 누어있었고 코, 복부, 요도 등 몸 여기저기에 튜브가, 팔 혈관에는 주사침이 꽂혀 있었고 위를 쳐다보니 여러 개의 수액병이 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전날밤 장장 5시간에 걸친 큰수술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천우신조라 할까 우리나라에서 대장, 항문 수술분야에서 단연 권위자인 金南奎 박사가 다음날 해외 학술회의에 참석차 출국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밤새도록 수술하고 다음날 출국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 침대 발쪽에 명찰이 붙어 있었는데 지나가는 의사마다 힐끗 힐끗 쳐다보곤 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몇몇 의사한테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냐고 물어 보았으나 그들은 못들은척 또는 담당의사가 아니라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 간호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데까지 신경쓰지말라는 대답뿐이었다. 내가 보려고 해도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상반신을 간신히 일으켜 거기에 쓰여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쓰러지듯 철석 도로 누워버렸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오면서 “아직은 움직이면 안돼요. 주사바늘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라고 소리질렀다. 명찰에는 굵은 싸인펜으로 Subtotal Sigmoidectomy라고 크게 쓰여져 있었다. 亞全S狀結腸切除術의 원어이다. 대장암 수술시에 쓰이는 수술명인것이다.(亞全이란 거의 전부라는 뜻으로 의학용어 앞부분에 붙이는 수식어)

나는 그동안 대장암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몇달 전부터 하루 한번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보던 배변 습관에 변화가 오면서 오후에 가벼운 복통이 있으면서 한 두번 더 화장실에 가게되어 혹시나 하면서도 대장암의 주요 증상인 혈변이 내내 안보여 흔히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같은 거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한여름의 밤은 짧기만 하거늘 병실의 밤은 너무나도 길었다. 배를 에이는 듯한 심한 통증이온다.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 잠시 멎으면서 잠이 드는데 그다음은 끝도 시작도 없는 악몽의 미로에서 헤매야했다. 통증과 악몽의 순환은 너무나도 무서웠다. 아 내인생도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약 2주일간의 힘겨운 치료끝에 나는 퇴원할 수가 있었다. 퇴원하는 날 김박사는 내 병이 대장암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대장하부를 거의 전부 잘라내는 대수술이었지만 수술이 잘 되었고 앞으로 암센터에서 약 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다. 나는 이미 대충 알고 있었던 터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박사는 두어달 정도 쉬었다가 병원에 나가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환자를 진료하라고 하였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희망을 갖고 활동하는것이 건강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근래 암학회에서도 暗中摸索이라는 단어에서 癌中希望摸索이라는 표어를 만들어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강조 홍보하고 있다. 그후 나는 그 힘든 6개월 간의 항암치료 과정과 인공항문 복원수술까지를 모두 끝내고 지금은 3개월마다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만 받고 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나를 정신적으로 절대 도와준 분이 한 분 있는데 다름 아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東信교회 姜東洙 목사이다. 姜목사는 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부터 여러 차례 찾아와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말라 나는 네 하나님인 됴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 성경 구절을 봉독하고 나서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주곤 하였다.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하였는지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후 나는 홀로 명상에 잠길때에는 자주 이 구절을 외우곤한다.

사실 나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교회에 잘 안나갔다. 姜목사는 나를 만나면 부인이나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韓박사도 그 이복사람의 고집같은것을 버리고 교회에 자주 자주 나오라고 권유하였지만 나는 외면하였다. 그럼에도 姜목사는 열심히 돌봐주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보다 길을 못찾고 헤메이던 한 마리의 양을 끝내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주일날 예배가 끝난후엔 교회 현관에서 꼭 만나보고는 내 건강을 염려하여주고 격려하여 주곤한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많은 친지들의 위문과 격려를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오.

돌이켜 보건대 나는 저승나라의 염라대왕 앞까지 갔다가 유턴한 셈이다. 논어에서 ‘五十知天命’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지금 七十에서 하늘의 뜻을 알게된 것이다. 그 하늘의 뜻이란 무엇이겠는가. 좀더 오래 살려 줄테니까 그 대신 후일에 다시 부를 때까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사회에 봉사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생관이 바뀌었다. 생사관의 정립에도 마음이 잡혔다. 부질없는 삶에 굳이 연연하지도 않겠다. 덤으로 사는 인생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삶의 지표를 뜻있게 설정해보자. 전에는 환자를 보는 마음에서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명의라는 평을 듣고 싶었고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따라서 수입도 많이 생기는 의사가 되고저 하는 마음이 없지않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의사가 되어 남은 여생을

뜻있게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뿐이다. 특히 소외된 계층, 불우한 처지에 있는 환자들 고령화사회에서 점점 많아지는 노인환자와 홀로사는 환자들을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인내심을 갖고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다. 더욱이 나의 건강을 염려하여 “내내 건강하시고 병원도 오래오래 계속하세요”라고 성원해 주는 많은 환자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6·25 군복무 당시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바있어 현재 명예롭게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있다. 이제는 환자진료를 통하여 다시한번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라는 사명감을 함께 지니게 된 것이다.

시간이 날때마다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일은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명상 속에서 자기생활을 반성도 해보고 앞날을 계획하기도 한다. 성경책에서 특히 마음을 잡아주는 대목을 외어보기도 한다. 명상은 생활리듬의 균형을 잡아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人命在天이라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더욱 의미있는 삶을 이어가기를 청하는 마음 뿐인 것이다.

이스탄불의 대~한민국

朴 浩 高 (29回)

2002년 11월 28일

미국 재향군인회와 터키 재향군인회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친선방문계획이 성사되어 한국전쟁후 처음으로 제1진이 터키 공화국 건립 79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받는 형식으로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2002년 10월 27일 ~11월 8일 간의 방문 일정이 확정되어 미 육군과 해병대 한국전 참전용사 13명, 부인 5명, 한국군 출신 회원 참전용사(고용찬, 김은배, 박호설 3명) 동부인으로 6명 계 24명이 Washington Dulles 국제공항을 출발 12시간 후 10월 28일 오후 3시 반에(시차 7시간)수도 앙카라에 도착하여 터키 주재 미 육군 무관 Martin Rollinson 대령의 영접을 받고 Dedeman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우리를 안내한 터키안내원 Wammash Issac Iksan Bey(씨)의 첫 소개는 미화 1불이 1,675,000TL(Turkish Lira)로 통용되는 환율이었다. 터키의 인구는 한국의 남북을 합친 정도로 7천만에 육박하지만 국토는 300,946mile²로 한반도(84,715mile²)의 3배반이며 캘리포니아 (155,973mile²)의 두 배가 좀 안 되는 나라로 북대서양 동맹 회원국이다.

이튿날 10월 29일 아침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되어 인민군 포로수용소에서 미군 포로들과 함께 억류되어있는 동안 희생적인 사랑으로 한 미군포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미군포로를 간호하고 혈어서 못 입게된 내복으로 양말을 짜서 미군포로에게 주어 추위를 이기게 한 전우애로 Mary

Lee Settle 여사가 쓴 『TURKISH REFLECTION』이라는 책에 소개된 Hakim 씨가 지방에서 조카의 부축을 받고 상경하여 호텔에 도착하였다. 그는 인민군 포로수용소에서 휴전당시 석방되어 귀국하였고 우리 일행이 여비를 부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기를 출발 전에 터키 재향군인회에 요청하였었다.

양카라 신문과 많은 보도진의 취재 중에 감격적인 상면과 선물 증정 등의 행사를 마치고 건국기념일 열병분열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사열대에서 터키주재 한국 국방무관 오 세민 준장을 만났으나 인사만 나눴을 뿐 행사 후에는 터키 공화국의 국부인 Mustafa Kemal Ataturk 묘소와 한국 전 기념관의 위령탑에서의 추모 화환 증정 등 행사가 잇따라 다시 만나서 담소할 기회는 없었다.

아타튀르크 國父는 세계1차 대전 때 갈립보리 전투에서 승리한 케말 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군인으로 1923년 10월 28일 터키 공화국을 창건하였는데 그의 공로로 지금의 민주공화제도가 채택되고 집권후 9개월만에 헌터키 문자를 제정하고 아랍어 사용을 폐지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 순신 장군의 공덕 위에 4.19민주혁명의 세뭇을 단독으로 완성한 영웅이며 56세에 사망할 때까지 자기소유의 집은 물론 자동차나 은행통장 하나 없이 국사에만 전념하고 유언으로 자기의 피붙이로 하나밖에 없는 누이의 생계를 정부에 위탁하여 국회에서 생활비 지출을 의결하였다고 안내자가 소개한대로 온 국민이 진정으로 국부로 추앙하는 전무후무한 터키의 영웅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묘소는 9년에 걸쳐 건립한 웅장한 구조물로 묘소의 부속 건물로 지은 유품 박물관도 묘에서 참배하고 전시물 관람하는 추모국민으로 가득하였는데 동원된 군중이 아니고 국부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건국 79주년 기념 공휴일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로 참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모여든 민중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전쟁기념관에 한국정부에서 건립하여 기증한 비문이 있었는데 사괘와 태극이 맞지 않은 잘못된 태극기가 걸려있어서 미국 육군 무관 Rollinson 대령에게 틀린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당국에 요청하도록 부탁하였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모인 터키의 한국전 참전용사들 중에는 많은 분이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오늘의 한국을 관광하였으며 몇 분은 월드 컵 구경도하고 한국 민의 온정에 감사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칭찬하면서 한국군 출신이라는 우리의 명찰을 보고 우리부부들에게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하여주었다. 기념관을 떠나 터키의 가장 유서 깊고 오래된 성곽들을 관광하고 첫날일정을 마쳤다.

10월 30일은 1997년에 European Museum of Year Award를 수상한 Museum of Anatolian Civilization 을 참관하였는데 입구에 진열된 석상들이 여러 고적지에서 지진으로 넘어져서 머리부분이 떨어져나가 몸통만 즐비하게 서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정교한 Hittite문화의 유물과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수많은 有史前의 古器物들을 관람하였는데 터키에서는 명승고적지 등의 공중화장실은 250,000Lira(약 170원)의 요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기에 공중 화장실에 갈 때는 먼저 돈을 확인하여야만 했다.

박물관을 떠나 터키 육군(일반참모) 사관학교를 시찰하였는데 학교장인 삼성 장군이 친히 나와 맞아주고 상황실에서 현황 브리핑을 하는 동안 다과를 나누고 1834 라는 개교연도와 학교 휘장이 새겨진 넥타이핀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사관생도 식당에서 우리일행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한국군 출신 3명을 따로 접견하는 자리에 한국육군사관학교 60

기생으로 앙카라사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2학년에 재학중인 김진우 사관생도를 불러 만나게 해주어 뜻밖에도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잠시 대화를 나누고 일행들과 정문 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학교버스로 강의실, 내무반, 체육관등 주요시설에 안내하여주었다. 교내 곳곳에 7개국 국기가 게양되거나 진열되어있었는데 터키사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국적을 상징한다 하였다. 한국육군사관학교에는 터키 외에 몇 개국 학생이 있는지 교환사관생도들의 조국을 어떻게 예우하는지도 궁금하였다.

터키 국회와 미국대사관 방문일정은 터키의 고적관광여정에 밀려서 취소하고 앙카라에서 갈라디아(사도행전 16:6, 갈라디아 1:2)를 거쳐 일곱 시간이상의 버스운행으로 도착할 첫 방문지인 가바도기아(사도행전2:9, 베드로 전서 1:1~2)로 향하여 사관학교를 출발, 도중에 13세기에 카라반들이 머물던 여관이었던 Agzikarahan Caravansary를 보았다. 석조건물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동물들의 사료를 저장하고 잠재우는데 쓰이고 있었다. 강도들의 습격에서 숙박상인들을 수호했던 높은 돌 벽에 쌓인 경비초소 등 지금까지 남아있는 석조건물을 돌아보고 인근에서 있는 주민들의 장터를 보니 미국에 오기 전인 60년대 한국의 시골풍경에 흡사한 노천 시장이었으며, 목적지인 가바도기아의 행정수도 네부샤이아(NEVSHEHIR)에 있는 Dedemen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저서 어두워졌다.

10월 31일 아침에 일찍이 출발하여 케레메(Goreme)야의 박물관으로 알려진 6~10세기의 암굴교회들을 보았는데 예수의 생애를 상징하며 신약의 4복음서 저자들의 초상을 기독교 문명의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렸다는 벽화들이 벽과 입구, 천장 등에 퇴색된 대로 남아있었고 부엌, 식당, 식품창고 흔적들이 남아있는 옛 교회와 수도원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수가 수백 개라한다. 다음은 터키에 수없이 많은 지하도시중에서 유명한

KAYMAKLI의 지하도시를 보았는데 화산의 용암을 깎아서 걸보기에는 평범하였으나 지하 8층까지 개방한 주거지는 20층까지 파고 들어가 개미집을 방불케 하였으며, 지하도에는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입구를 막고 통로를 차단하는 사람 키를 넘는 커다란 맷돌이 있었는데 어떻게 운반되었는지 궁금하였으며 또 만 명을 헤아리는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으며 박해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엄청난 지하도시를 건설한 믿음의 위대한 힘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구경을 끝내고 은행에서 3천 3백만 리라(20달러)를 바꾸고 케레메 시내 관광안내소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아바노스(AVANOS)라는 동네에서 흰 흙과 붉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토기장의 작업과 구워내는 과정을 보면서 시계접시를 손녀 선물로 사고 K 형네는 수집품 반열에 속하는 크고 우아한 화병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사서 마음이 흐뭇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케 하는 핑크 색의 계곡과 버섯같이 생긴 수백 수천의 천연바위들이 차창밖에 가득한데 원래는 바다였으나 육지로 변한 사암들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바위가 되었으며 서기 1세기에는 사람들이 살기도 하였고 비잔틴 시대에는 수도승들이 숨어살았다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파사바기(PASABAGI) 일대의 고적들과 그림과 같은 절벽과 천연요새들을 관람하였고 버스에 함께 타고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친절을 베풀어 준 가바도기아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호텔에서 헤어졌다.

11월 1일은 아침 5시 반 기상, 6시 식사 후 짐을 차에 싣고 7시에 온천관광지로 알려진 파무크칼레(PAMUKKALE)로 출발하였다. 이 길은 기원전 중국의 비단장사들이 대상을 지어 소 아세아로 오던 길로 장터 옆에 남아있는 Silk Road의 옛날 여인숙이었던 폐허들을 구경하면서 남부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 콘야(KONYA) 시에 닿으니 터키재향군인회 콘야 지회 회장일행이 길가에서 차를 세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11월 3

일 일요일이 터키 총선거 날이어서 콘야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지방유지의 회사 회의실에서 점심대접을 받았는데 재향군인회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치는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인 듯 하였으며 점심과 콘야의 사적을 장식한 액자를 기념품으로 받아들고 기념촬영을 한 후에 경찰 차가 시외 고속도로까지 선도 안내를 하여 주었다.

콘야를 지나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초대 일곱 교회가 모두 터키 서해안의 소 아세아에 있기에 기대가 컸으나 공식여정이 많아서 모두 다 둘러보지 못 하는 일이 아쉬웠지만 가는 곳마다 한글판 관광안내책자가 영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일본어 책자들과 나란히 진열된 것으로 미루어 한국인 성지 관광객의 비중이 큰 것이 틀림없었고 나도 싼 값으로 흥정하여 한 권을 길거리에서 구입하였다. 도중에 안디옥이 있었으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으로 지나쳤고 남부에서 콘야와 비슷한 도시 데니즐리 시에서는 명주실을 누에고추에서 뽑는 과정부터 염색하여 카펫을 완성하기까지의 일관작업을 보여주는 박물관 겸 생산판매공장인 관광명소에서 구경을 잘 하고 원하는 음료수와 피자 빵 점심을 대접받았으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미안하였다.

다음에 들린 곳은 터키의 명산물인 가죽제품공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강당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패션 쇼 형식으로 상품을 소개하였는데 관객 중에서 선발한 모델에 K형 내외가 뽑혀서 일행에게 보여준 즉흥 솜씨와 분장에 모다 감탄해 마지않았다. 쇼가 끝난 후 매장에 안내되어 쇼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윗옷을 내자가 부탁하여 가져와 보니 마치 명주같이 부드럽고 얇은 가죽 제품이어서 마음에 들어 딸에게 줄 선물로 장만하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다음은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석회암 온천이 있는

과무갈레에 도착하니 백색 석회암반으로 된 두터운 산을 푸른색 온천 계단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으며 흘러가는 더운 온천물에 발을 담그거나 걸어다니는 관광객이 있었으나 우리 일행은 주변을 구경하고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도시로 알려진 네크로폴리스(Necropolis)라는 로마시대에 병을 치료하려고 왔다가 죽은 병자들이 묻혔었다는 곳을 구경하였다. 당시의 돌로 된 관들이 지진 때문에 땅위에 노출되어 즐비하게 널려있었다. 이곳을 지나면 버가모 왕국과 로마제국의 찬란하였던 문화의 유적을 보는 헤라폴리스(Herapolis)에 닿는데 서기1세기 후반 도미니안 황제 치하에 지었다는 대리석 도로와 원형극장을 보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사도 빌립의 기념교회와 라오디게아(골로새 2:1, 4:13~16)교회의 폐허가 남아있다고 했지만 수많은 대리석 기둥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 원형으로 복원하려고 조립한 조각돌 만보고 호텔로 향하였다. Lycus River 호텔에는 온천, 터키탕, 사우나가 있었지만 저녁식사를 하니 문을 닫는 아홉시가 임박하여 무료 공중탕에서 온천욕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로마제국당시에 황제와 황족과 귀족들이 와서 요양한 휴양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밤 아홉시면 편의시설들은 손님은 아랑곳없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터키에 와서 아직 터키탕을 한번도 못한 일이 아쉽기만 하였다.

11월 2일도 일찍이 호텔을 나섰다. 빌라델비아(ALASEHIR), 사테(SART), 두아디라(AKHISAR)교회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나 지방도로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기에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고속도로변의 비옥한 농토에 활짝 피어난 목화밭과 한없이 산에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국민의 53%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경작하는 각종 농작물을 설명하여 주었지만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얼마 후에 인구 2만의 소도시 세르츱(Celcuk)에서 약 5마일 되는 거리에 있는 유서 깊은 에베소(사도행전

18:19~24, 19:1~35 등)에 도착했다. 이곳은 수 세기동안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70년대에야 발굴이 시작되어 지금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밤도 섬도 지도상으로는 앞에 보이는 에취안(Aegean Sea)해에 가까이 있었으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반나절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로마인들이 가는 곳마다 건립하는 회당과 원형야외극장을 비롯하여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이층으로 건립하여 터키 서해안 관광안내서 표지사진으로 낯익은 기원전에 건립되어 만권 이상의 서적을 소장하였다는 셸서스 도서관을 배경으로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였다. 사진을 찍고 길 건너에 있는 기원전의 遊廓이었다는 건물과 그에 붙어있는 변소를 보았는데 큰 돌을 깎아 지금의 좌석 변기처럼 다듬어 10개가 넘는 좌석을 기억자로 이어서 20명 정도가 나란히 앉아서 담화를 하면서 용무를 보게되어 있었고 손을 씻는 물이 돌로 된 수로를 따라 흐르게 되어있었으며 배설물처리도 깊은 돌담으로 된 깊은 하수도에 흘러 들어가서 멀지 않은 바다로 빠지는 수세식으로 되어있다고 안내자가 설명하였다.

대리석으로 된 도로를 걸으면서 대리석에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와 X를 조각한 것을 몇 번 보았는데 물고기 FISH를 IXOYS 라고 하니 그 표시 안에는 이 다섯 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I=Jesus, X=Christ, θ =God, Y=is, S=Savior 입을 믿는 신도들간의 신앙심을 다짐하는 증표라 하였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5~6년을 살면서 셸서스 도서관의 전신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였고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요한 복음을 썼으며 생을 마친 곳이었다. 하드ريان 사원을 지나 가까이에 있는 성모 마리아 교회와 언덕 위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돌집과 사도 요한 교회들을 찾아보고 하드ريان 사원을 거쳐 성경에는 서머나(계시록2:8)로 알려진 이즈미르 (IZMIR)의 Kaya Prestige Hotel에 2박 여

정으로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11월 3일은 주일이지만 기독교회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터키 총선거 일이고 일요일이어서 예정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성과 고고학/민족학 박물관이 닫혀서 구경할 구 없었고 북대서양 동맹군 대표들과의 면담도 취소되어 하루를 시내에서 좀 떨어진 휴양지로 찾아가서 KOY라는 터키식당에서 우리들 여섯이 간단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무화과 열매와 차에서 군것질할 몇 가지 콩 종류를 샀다. 시장 구경을 하고나니 오랜만의 忙中閑은 바라던 휴식이었고 돌아오는 길은 이즈밀 항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산 위 공원에서 터키 어린이들에게 동전과 과자를 나눠주면서 일행이 모다 편히 쉬었다. 밤에는 늦게까지 CNN 영어방송으로 터키총선결과를 보았는데 부패한 여당은 의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10%의 득표도 못하고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야당이 집권당으로 미국과의 우호관계유지와 NATO회원국으로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함께 역사함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승리당의 발표도 있었으며 게다가 터키는 1997년에 이슬람 경향의 정권을 몰아내고 군으로 복귀한 군부가 있으니 안심되었다. 이젠 부재자투표를 하고 떠난 다가오는 화요일의 미국 중간선거가 궁금해졌다.

11월 4일 고대 버가모의 성곽을 지팡이를 잡고 걸어다니며 제우스의 제단이었던 높은 망대와 희랍에서 보는 Acropolis 와 같은 여러 개의 지붕을 조립한 무수한 대리석 기둥들과 Asklepon 의 유명한 고대 로마병원의 지혜로운 설계와 건축기술을 연상케 하는 잔해들을 돌아보았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후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였다는 트로이 에서 호머의 이리아드의 무대가 되는 트로잔 전쟁의 폐허, 성벽과 당시의 주택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옛것을 모조한 트로이의 목마

속 망대에 올라가 보고 사진을 찍고, 흑해와 에지언해, 지중해를 연결하는 마마라(Marmara) 해의 해협 관문인 카나칼레(Canakkale)에 도착하니 Akol Hotel 라비에는 터키 재향군인들이 산뜻한 학교 교복차림을 한 학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카네이션을 안겨주면서 성대하게 환영하였다.

11월 5일 오늘은 미국 중간 총선일 이어서 전쟁이라기보다는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공할 무기를 폐기케하려는 이름 그대로 George (조지고) W (double - 곱배기로) Bush (부쉬는) 대통령의 공화당이 신임을 받아 반전 데모에 상관하지 않고 소신대로 대량학살 무기소탕의 목적을 달성하고 MD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NC 와 MN 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당선되어 상원의 다수당이 되고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석 수를 늘리는 중간선거가 되기를 바라지만 일곱시간의 시차로 미국보다 빠른 터키에서 결과를 알려면 하루이상을 기다려야 하기에 터키 선거처럼 자정 너머까지 TV 앞에서 마음조릴 필요가 없었다.

오전 8시 Marmara해를 건너 아세아에서 구라파로 넘어가는 Dardanelles 해협을 건너는 나룻배에 우리가 탄 채로 버스를 싣고 이삼십분을 향해하니 동양에서 서양에 들어섰다. 이 길은 서해안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육로의 지름길이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1차 대전 때 ANZAC (Australian-New Zealand Army Corp) 라고 불린 연합군이 인도양, 홍해, 지중해, 에지언 해를 지나 머나먼 뱃길을 향해한 끝에 수만 명이 Gallipou에서 케말 장군이 지휘하는 터키 군에 참패하고 전사한 군인들이 묻힌 전적지여서 Lone Pine Cemetery에서 화환을 증정하였다. 그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사자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시체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최선을 다해 그들의 묘지를 만들고 추도비와 개인 비석들을 세워 정중하게 적군의 사체를 안장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매년 전

투가 가장 치열하고 사상자가 제일 많았던 4월 26(?)일에는 ANZAC의 후손은 물론 많은 구라과의 후예들이 이곳에서 추모제를 올린다고 했다. 지면관계로 더 많은 설명과 그곳에서 받은 감명을 피력할 수 없음이 아쉽다. 세 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여 백병전을 치른 여러 격전지마다 묘지를 만든 십여 곳을 찾아본 후 Marmara 해안 고속도로를 네시간 남직 달려서 아시아대륙과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시, 인구 1,700 만이 넘는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로 들어가는 Marmara 해상의 거대한 Bosphorus 다리(금문교와 흡사한데 이스탄불을 관광하면서 이 다리를 여러 번 건너다님)를 건널 때는 이미 어두워 오늘로 계획되어 있던 마차 경기장으로 건축한 비잔틴 히삐드롬(Byzantine Hippodrome for chariot races) 관람은 하지 못하고 앞으로 사흘동안 머무르고 귀국하는 마지막 도시 이스탄불의 Aygun Plaza Hotel에 도착하니 좀 피곤하였으나 어려움은 없었다.

11월 6일 하루종일 고적과 명승지 관광을 하게되어 아침 아홉시에 출발하기에 조반 후에 CNN을 보았더니 미국 선거결과가 마음에 들어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버스에 올라보니 재향군인이어서인지는 몰라도 일행 중에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안됐다고 발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 이라고 하던 이 도시는 세계 역사를 좌우했던 비잔틴 제국과 오토만 터키제국의 수도로서 1,600년 간 번영을 누려왔으며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명이 서로 교차한 곳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불거리가 많은 도시라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틀동안의 걸 활기로 끝나기가 아쉬웠다. 내일은 터키 1군사령부와 해군사관학교 방문에 만나절을 소비하게되니 구경에 정성을 기울였다. 처음 찾아간 곳이 토포프(Topkapi의 터키발음)궁전이었는데 16세기 오토만 터키 제국의 회교군주들(Ottoman Sultans)의 궁전으로 지금은 박물관이며 궁전, 보물

박물관과 할렘 등 셋으로 구분하여 각 각 입장료를 받고있었는데 궁전 박물관을 구경하고 KONYALI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과 각종 보석을 박은 어린 왕자의 침대까지 진열된 보물관을 보고 나니 주차장에 모일 시간이 되어 아쉬웠다.

다음에는 이스탄불 곳곳에서 그 웅장한 모습이 보이는 성 소피아 사원에 가보니 6세기에 5년 간 지중해 안 여러 국가에서 가져온 대리석으로 건립되어 중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겪은 파란 많은 흥망성쇠를 알려주듯 훼손된 비잔틴 모자이크 초상화, 벗겨지는 후레스코 화, 십자군전쟁으로 밀려든 침략자들의 파괴와 약탈, 중세기의 대지진으로 파손되고 동방 정교회 성당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변하였는데 1923년에 건국한 공화국이 박물관으로 제정하여 지금은 정교회 성당도 아니고 이슬람 사원도 아닌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안에는 원형 돔의 중앙까지 닿는 발판을 세워놓고 휘장 안에서 일꾼들이 옛 모습을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날이 끊기질 않는다.

성 소피아 사원에서 나와서 안내된 곳이 the Grand Bazaar라고 일컫는 시장이며 4,000개의 점포가 한 지붕 아래에 모여있는 거대한 시장인데 지금은 관광객 전용 시장이 되었으며 각 점포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있었다. 가격 에누리는 반값으로 하는 정도였는데 내가 도중 관광지 행사한테 2천 5백만 리라를 깎아서 2천만 리라에 산 가죽모자를 일행 중 한 사람이 5불(8백 3십 7만 5천리라)에 두 개를 샀다하면서 버스에 오르는데 나도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 큰 시장에서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손자의 가죽조끼를 반값으로 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점원에게 호박 귀걸이도 내자가 싸게 산 것으로 자위하였다. 상품이나 산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스탄불의 Bazaar에서 살

만했고 터키 특산품은 카페트, 양가죽 제품, 파란색깔의 보석, 은 동제품과 해바라기 기름이라 했다. Bazaar에서 떠날 때는 어둡기 시작했는데 하나 특기할 점은 버스운전사의 좁은 비탈길과 골목을 용하게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운전기술과 신호 없이 차선을 바꾸고 추월하는 광경은 한국과 겨룰만 하였다.

11월 7일 아침에 해군사관학교를 이스탄불 거주 한국참전용사들과 함께 방문하여 육군 사관학교에서의 예우에 못지 않은 환영을 받았으며 교내를 순시하고 이곳에서는 영내 장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터키 음식이 해바라기 기름, 올리브유와 양고기 등으로 대체로 기름지니 고추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는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온 동창회 동기 간사 김용식 장로님의 조언을 듣고 고추장을 가지고 갔는데 해군사관학교 장교식당 점심 식탁에 흡사 고추장 같은 것이 접시에 나와서 맛을 보니 분명히 고추장이었다. 같은 식탁에 동석한 장교에게 적어달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ACILI BiBER SALCASI(아시르 비벨 살차스)라 하였고 호텔 식당에는 없었으나 송별만찬을 차린 대형식당에는 있었는데 역시 고추장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보니 터키에서 길거리 간판에 PAK, LEE, HAN 외 두 세 개의 한국이름도 보았고 우리 버스는 일제 이스즈였으나 현대 벤차는 심심지 않게 보았고 기아차 등 한국산 자동차를 볼 때마다 흐뭇하였다. 식사 후에 터키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하였더니 유리창이 3,000개를 넘는다는 4각형 2층 건물로 펜타곤처럼 중앙에 공지를 둔 건물이었는데 사령관 CETIN DOGAN 대장(4성 장군)이 우리를 기밀실에 안내하고 착석한 후에 지휘관회의 때 사용하는 CCTV로 대기시켰던 예하 5개 군단장들이 자기들 사무실에서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작전장교가 1군의 북대서양 동맹군과의 협동 작전 상황과 군 현황을 브리핑하게 하고 다과를 함께 한 후에 전사 보존 박물관 안내를 육군 소장인 참모장에

게 부탁하고 자리를 떠야 한다기에 한국군 출신 우리 일행 3명은 별도로 한국동란 때 참전한 우의에 특별한 사의를 표하였다. 박물관 2층에는 원형 계단을 올라가니 나이팅게일이 2년 동안 전쟁 중에 기거하였다는 침대와 책상이 그의 사진과 다른 유품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오늘까지 보존되어있었다.

참모장은 주한 터키대사관 국방무관으로 3년 간 서울에서 근무하였다 하면서 우리와는 한국말로 의사 소통할 정도로 유창하였다. 참모장이 일행을 군사령부 영내 후보에 안내하였는데 시중에서 2홉 짜리 병에 든 물 값이면 후보가격은 한 되 병 물을 사고도 남을 가격차이가 있어서 물 한 병을 사들고 나오니 후보 앞에 모여있던 장교 가족들인 중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내 목에 노끈 목도리를 걸어주면서 자기들이 운동할 때 우승자에게 걸어주는 메달 대용품이라 하였다. 집을 떠날 때 뜻깊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간단한 기념 선물로 한국 육군 병기동우회 기념 목걸이 타이를 2000년 방한 때 고 차 상익 병기동우회 사무국장이 여분으로 주었던 것을 몽땅 가지고 갔었는데 이미 동이 나서 내차가 달고있던 메릴랜드 한인회 배지를 떼서 그 학생에게 달아주었더니 느닷없이 동료 학생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짹짹' 하는데 월드컵의 기운이 생동하였으며 동행하였던 터키 참전용사 노인들도 합세하여 감개 무량하였다. '대~한민국'은 버스에 타기 시작하니 밋었는데 동행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승차하여 한국에서 주최한 2002 월드컵 축구대회 당시 한국의 응원구호였다고 설명하기까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었다.

저녁에는 여행사에서 접대하는 송별 만찬이 '오리엔트' 식당에서 있었다. 많은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 국기가 놓여 있는 테이블별로 앉아 있었는데 두 테이블에 태극기가 꽂혀있어 손을 들어 서로 인사했다. 이것을

본 웨이터가 우리 식탁으로 성조기 옆에 태극기 하나를 더 갖다주었다. 끝난 후에 인사를 나누려 하였으나 단체로 온 사람들이어서 인지 먼저 자리를 떠나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식사는 쇼를 보면서 진행되었는데 배꼽춤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배꼽보다는 척추가 요동하는 곡선은 어떻게 연습하여 이루어진 춤인지 경탄하였으며 사회자도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나라 민요와 인기가곡에 통달하였고 한국의 아리랑은 물론 서울의 찬가도 멋지게 불러 넘겼다.

11월 8일 귀로에 비행기를 바꿔 타면서 독일 후랭크프루트 비행장 검색대에서 주머니 것을 tray에 놓고 다시 집을 때 wallet를 그대로 놓아두었던 모양으로 비행기 좌석에 앉은 나에게 승무원이 가져다 줄 때까지도 지갑을 잃어버린 줄은 모르고 마음 편히 있었으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간추린 터키 친선방문 회고를 이것으로 마감하면서 준비와 영접에 수고하신 여러분과 워싱턴 덜레스 비행장까지 왕복해 주신 계병전 선배님 내외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중의 안전과 70대 노인들 24명 일행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南中! 가슴 설레이는 그 이름

朱 東 雲 (29回)

두차례의 회장님 명의 원고청탁과 채고장을 받고 늦게나마 붓을 잡는다.

항상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쑥스럽고 조심스럽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세사람의 대통령의 국무장관을 지낸 러스크(Dean Rusk, 1909~)는 그 직을 물러난 후 여러 출판사가 자서전을 쓰라고 수백만 불을 제시하며 유혹했으나 끝내 이를 거절했다. 그의 말은 “공직에 있던 사람이 자서전을 쓰면 불가피 하게 국가 기밀을 공개하게 되어 국가에 누를 끼치게 되고 자신이 한 일을 과장, 미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어릴 때 우리 모교와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것이야 상관없지 않겠는가 한다.

1. 合格

나는 내 평생을 통해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서슴치 않고 함남중학교에 합격한 일이라고 말한다.

함경남도에서 제일 작은 郡인 利原郡 遮湖邑에서 국민학교를 나온 촌 아이가 당당하게 함남중학교에 합격 했을 때의 감격은 함흥의 錦町이나 黃金町 출신의 급우들은 잘 모를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양복점에서 만든 양복을 입고 부친을 따라 함흥에 가서

시험을 치루고는 부지런히 서울로 올라왔다. 떨어지는 경우 이차로 보성중학교 입시를 치기 위해서 였다. 남중 합격발표날이 보성중학교 수험표를 받는 날이었다. 열두시까지 기다려도 전보가 오지 않자 눈물 머금고 보성중학교에 가려고 하숙집 대문을 나서려는데 전보가 왔다. “합격!”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등해 보고 5학년까지는 딱지, 구슬치기에 전념하여 학업은 중간 수준에서 맴돌던 나였다. 학교 선생은 쉬운 중학교를 권하는데도 어린 놈이 무슨 생각을 했던지 남중 아니면 안 간다고 우겼단다. 다행히 학부형 회장이던 부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학교측의 내신 동의를 얻었다. 그 대신 6학년 1년동안 매번 같이 저녁때면 일본인 담임선생의 하숙방에서 공부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합격통지서를 받은후 사나흘 동안 서울 구경을 하고 차호로 돌아갔을 때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개선장군이 따로 없었다. 특히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홍일점 여선생이 나를 안고 빙그르르 한 바퀴 도는데 그 큰 젓가슴의 감촉이 곤혹스러우면서도 아주 좋았다.

그후 나는 아무데서나 누구에게나 출신 중학교를 말한다. 가만 보니까 나뿐아니라 많은 동창들이 묻지도 않는데 “나 함홍고보 나왔오” 하는 버릇이 있는듯 하다. 낚시터 같은 데서 옆의 노인에게 말을 건네서 함경도 억양이 있는 것 같아서 “고향이 혹시 함경도가 아니세요?” 하고 물으면 “예 나 함홍이 고향입니다. 나 함홍고보 나왔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선배를 두 사람이나 만났다.

2. 口頭試驗

우리 29회는 1942년 입학이니까 그해 봄에 입학시험을 치렀을 것이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구두시험 때의 일이다. 시험장 교실에는 꽤 여러사람의 선생님들이 일렬횡대로 앉아 있었고 중앙에 화성에서 온 사람같은 큰

얼굴을 한 선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국어(일본어)과 주임교사인 이가라시(五十嵐)선생이 있다. 시험생이 들어가면 걸어갈 통로와 정지해 서 있을 곳이 마치 자물쇠 구멍 같이 백묵으로 그려져 있었다. 정해진 지점에 긴장하여 서서 몇가지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나니까 예의 화성인 같은 선생이 책상 위의 종이에 무엇을 기입하고 있었다. 나는 무엇이라고 쓰는지 보고 싶었다. 순간 번개 같이 책상 앞으로 다가가서 이가라시 선생이 쓰는 것을 들여다 보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코노 야로오!” 하고 큰소리를 지르더니 내 왼쪽 볼때기를 힘껏 잡아 흔드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일을 처음 당해 봤다. 시골 아이가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런 짓을 해서 뭐라고 썼는지 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쪽 빠지게 아픈 일을 당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후 입학한지 얼마되어서 남하에서 그 화성인 선생을 만나 꾸뻑 짚을 했더니 또 다시 볼때기를 잡아 흔들면서 “너 어떻게 합격했냐?” 하는 것이었다. 그후로는 그 선생만 보면 꾸뻑하고는 반대방향으로 도망가곤 했다.

3. 少年航空兵

재학 중 추억거리는 또 하나 있다. 2학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부른다고 하여 갔더니 구두시험 때 처럼 여러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한참을 뜬을 들이더니 하는 말이 “너에게 폐하에게 직접적으로 봉공할 기회를 주고자 하니 소년항공병으로 입대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란 나머지 한참을 짹짹 매다가 겨우 “그건 곤란합니다” 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하기에 겨우 이유를 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안된다고 할겁니다”고 했더니 틈도 주지 않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만 좋다면 너는 좋은 것이냐?”고 따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야 소레데모 나이시…” 하고 우물 쭈물 했다. 그때 난처하고 괴로웠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한참을 울상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상의

를 하더니 돌아가라고 하여 겨우 면하고 교실로 돌아갔는데 그후 다시는 오라는 말이 없었다. 그후에 안 일이지만 항공병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반의 친구가 지원해 갔다. 그 급우는 일년쯤 뒤에 카키색에 금 단추를 여러개 단 제복을 입고 학교에 와서 강당에서 전교생에게 인사를 했던 일이 생각 나는데 그에 관해서는 그후 들은 바가 없었다. 혹시나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가 희생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 했는데 동기생인 정철주군이 오래전에 만나봤다는데 그는 일군에서는 정찰기를 조정하다가 해방후 서울에도 왔었고 그후 사라졌다고 한다. 神風特攻隊가 되지는 않았다니 그나마 마음이 가볍다. 1981년 봄에 필자는 애틀란타 주재 총영사로 명을 받고 '파리'에 있다가 그곳으로 부임해 갔다.

가자마자 조지아주와 인근 몇개주에서 제일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의 주필인 '짐 민터'라는 이와 의기투합하여 친하게 되었다. 그가 나를 봐준다고 부하 기자를 보내서 나를 인터뷰하게 했다. 수일후 조·석간 합병 일요판에 반페이지 짜리 기사를 내 주었다. 내 사진까지 실은 그 기사는 태평양 건너에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이 있다. "지금 한국과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이 앞으로 이로울 것이다"라는 식으로 된 기사인데 동시에 필자가 성장하던 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특공대에 끌려갈뻔 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이 이야기가 그 동네 명사들에게 의외의 인기를 얻게 되었다. 천황폐하에게 봉공한다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여 겨우 면한 이야기가 그렇게도 재미가 있는 것인지 의외였다. 미국 남부 여러주의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 보다 아주 보수적이어서 겉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인과 한국전에 개입하여 수많은 미국병사들을 죽인 중국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어린나이에 일본군대로 끌려가서 희생될뻔 했던 한국인 친구에 대해 친근감이 느껴지는 듯 하였다. 그곳에서 만 2년 일하는 동안 그 덕을 많이 보았다. 한편 일제시대 충남 공주에서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병

까지 다녀온 가와테 료오(河出了)라는 일본 총영사는 노골적으로 질투를 나타내면서 못나게 굴었다. 그는 자신의 부임시 한번도 신문에 난 적이 없는데 식민지 출신의 총영사가 오더니 신문에 크게 나고 애틀란타 시장과 그밖에 요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하는 등 그 지방과 한국관계가 심화되는 일에 일일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가 하루는 밤중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들과 싸워서 일시구금되는 사태까지 발전하였다. 그후 그는 그일로 다섯 번이나 신문에 나고 급기야는 본부로 소환되어 불행하게 되었다.

4. 興南工場

우리 29회는 일제시대를 흥남군수 공장에서 마감하였다. 1945년 4월 1일 우리는 그리운 南中 구교사에서 시업식을 하고 다음날 흥남공장의 직공들 숙소에 들어갔다. 그때 직공복장뿐 아니라 봉급을 줄거라면서 봉급 통장까지 지급 받았다. 그후 삼교대로 힘들게 일했지만 돈은 한푼도 받은 일이 없었으니 우리는 모두 대일 청구권이 있는 셈이다.

카바이트를 주원료로 하여 4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항공기 연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 일본 해군중장이 책임자였는데 꽤 중요시 하는 군수 공장이었던 것 같다. 3교대로 여덟시간 노동인데 잠이 부족한 것이 제일 괴로웠다.

하루는 미군기의 공습이 왔다고 싸이렌이 울리고 모두 나살려라 반공호로 뛰어 들어갔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뒤에 알았지만 미군 보잉 B·29 폭격기 한 편대가 하얀 비행운을 그리면서 유유히 날아 지나고 있었다. 곡사포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훨씬 아래에서 터지고 일본 전투기 몇대가 그보다 훨씬 저공까지 올라갔다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사격하면 해보지도 못하고 도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일본 선생들은 “야레! 야레!”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하는데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그후 더 우스운 일이 일어났다. 하루는 또 공습이라 하여 모두 방공호 속으로 대피했는데 그때는 콰양! 하고 폭탄이 투하 되어 모두 혼비백산했으나 알고 보니 그것은 폭탄이 아니라 B-29기가 다쓰고 버린 연료탱크였던 것이다. 그때 모두가 놀랐던 일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한편 일본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일이 있는 것이 1945년 5월 하순이었다. 나는 드디어 집으로 도망와도 좋다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

1945년 6월 첫째 토요일 아침 외출증을 받아 들고 함흥으로 간다고 나선 나는 기차로 네시간을 달려 바로 차호집으로 도망갔다. 한방에 기거하던 급우들에게도 그외 아무에게도 말한마디 없이 또 소지품도 다 그대로 두고 도망갔다. 상급학교에 가기위해 할수 없이 공장에서 일했지만 수업료 내고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졸다가 쇠망치로 머리가 깨지지 않을 만큼 얻어 맞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더 이상 당할수 없었다. 얼마 있으니까 학교로부터 죄를 묻지 않을테니 속히 돌아오라는 기별이 왔다. 다시 더 지난뒤 이번에는 헌병대에 연락한다는 협박이었다. 나는 겁을 먹고 있는데 부친은 설마 잡혀가기야 하겠나면서 우리말과 영어공부나 하라고 했다.

5. 解放

그러다가 맞이한 8·15는 그 누구보다도 감격적이고 반가운 일이었다. 삼십육계 줄행랑이 제일이란 말이 참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했다. 줄행랑은 그후에도 결정적인 순간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지만 여기서는 지면 제한으로 생략한다 한편 그때 집으로 도망갈 것을 편지로 허락해주신 도와주신 아버지에게도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해방 후에는 출석보다 결석이 더 많았으니 별로 기억할만한 일이 없

다. 한가지 트로이카라는 제목의 아름다운 러시아 민요를 배운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삭풍이 심한 북방에 외돌기 눈길 달리는 저 썰매의 향수련가 방울소리 애달퍼라” 이런 가사였는데 차호 콩쿠르대회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러 2등을 했다.

중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다. 애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선생은 없고 소리지르고 괴롭히는 선생들이 있었던 것 같다. 작아서 발에 맞지도 않는 돼지 가죽 구두를 억지로 신게 해서 외쪽 발 잔등 뼈가 튀어 올라와 지금도 불편하다. 1956년 봄 근복무를 마칠 무렵에는 이 발이 수도 육군병원과 세브란스 의대의 합동 연구회의 연구 재료가 되었다. 그 대신 오래 서있으면 안된다는 진단서를 받아 그것으로 육군부관학교 여군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교관 발령을 취소받고 3개월 쉬다가 전역할 수 있었다.

선생들 중에서도 사고(佐護恭一)라는 영어 선생에 대하여 언급 안할 수 없다. 1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영어 선생이란 사람이 영어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소리 지르고 일본말 발음과 야마또 타마시이를 가지고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다.

그런데 필자가 여러해 해외로 전전하는 동안 우리 교우들이 사고선생을 두차례 서울로 초청하여 환대했다고 하니 잘한 일이라고 해야 하겠다. 한국사람을 편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적어도 우리 함흥고보 교우들은 가슴이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그분도 충분히 고마운 줄 알았으면 한다.

이제 70대의 후반으로 접어 들면서 돌이켜보면 모교를 빛낼 만한 일은 한것도 없어 아쉬운 감이 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어쩔수 없고 남은 여성 동안이나마 南中의 명譽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갈까 한다.

이산(離散) 한(恨) · 1

孟 厚 彬 (시인, 29回)

사뭇 지켜보고 있었다. 저 드높은 하늘이
청명한 큰 눈으로
50여 년을, 1만 8천 2백 50여 일의
긴긴 날들을……

쓰라린 이산의 아픔
한맺힌 이 겨레 수천만의
안타까운 가슴 속

새파란 소년 백발 할아버지로 둔갑하고
아리따운 소녀 지도처럼 주름잡힌
할머니 되어

오늘 이 만남의 자리에 어정어정
옳기는구나, 힘없는 걸음
그래도 저 하늘의 마음은
무심치 않았구나

끈끈한 핏줄 서로를 당기어

오, 만남의 순간!

심금의 줄 텅기어 쏟아지는 건
오직 눈물뿐

하늘도 울고 너도 울고
나도 울었다
온 세계의 마음 울었다

그 눈물
한강물 되고 대동강물 되어 흘러라
그 눈물
천만금의 고난의 무게 싣고……

이제
백두대간에도 골짜기마다
그 한스러웠던 눈물 흐르리라

그 눈물 이젠
생명의 물 되어
화해의 봄바람 되어
불어라

철벽같이 가로막았던 벽
무너뜨리고
화사한 봄꽃으로 피어나라

이 강산에

뜨거운 가슴

하나로 녹아 들어라

드넓은 동해에 이글이글

떠오르는 태양처럼

1만 8천 2백 50여 일

긴긴 날에 견주면

겨우 이틀간의 만남은

아쉬움과 서운함만 남기지만…….

가 을 • 2

천재의 맑은 사유(思惟)가

익어 가는

질푸른 물리의 공간에

빨간 능금이 맛보는

낙하의 쾌감

지구를 살짝 때리고

깊은 우주의 바다에서
파문힌 진리를 캐낸다

빛의 입자를
겨드랑이에 거뒀들이고
이마의 땀과 열을 식힌
가을

인력의 멍애를 메고
태양은
저만치 가면서
낙엽을 밟는다

바다여 • 3

인간의 온갖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흘러 흘러서 모인 곳, 바다여
너는 동그런 지구를 품에 안고
푸른 머리 풀어 쉬임없이 출렁이면서
장엄한 교향악을 연주한다

억만 년의 모진 세월 가슴에 담고
지금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끼룩끼룩 갈매기 우는 소리는
바다의 간주곡인가?
아득한 수평선 바라보아도
바다는 대답 없고 철석거릴 뿐

호젓이 해변을 걸어가는 나
한낱 모래알 되고 싶구나
드높은 하늘 네 눈동자에 아로새기고
언제나 밝고 푸른 너와 함께
나는 영원히 살고 싶구나, 바다여.

斷食體驗紀

朱 相 彦 (29回)

나는 12년전 66세 나이에 30일 단식했다. 식사는 물론 과일이나 쥬스도 입에 안대고 생수만 마시면서 견디었다. 그리고 학원강의도 정상적으로 계속했다. 피곤을 달래기 위해 휴식시간에는 간호실에서 푹 쉬었고, 후반에는 자주 갈증이 나기에 작은 물병을 들고 들어가 50분 수업 중 두세번 목을 축였다. 가족의 완강한 반대도 물리치고 학원당국에 큰 심리를 끼치면서도 감행했다. 끝날 때는 너무 지쳐서 여러날 쉬어야 했지만.

이렇게 무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한 일을 나는 왜 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무슨 효과를 보았는지 한번 더듬어 보고저 한다.

시작은 간단했다. 직접적 동기는 소위 50肩 또는 60肩이라고 하는 어깨근육통을 고칠 수 있을까 싶어 4일간 예정으로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凡俗의 사슬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 일을 결행하는 데는 내가 50여년동안 師事해 온 신부님의 도움이 컸다. 올해 90세인데도 平日엔 자택에서 신자들께 강론하시고 미사를 집전하시는 朴貴勳신부님. 그는 자연요법주창자로서 단식전문가이시다. 나의 단식은 전적으로 그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님께 의논드렸고, 그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완전히 믿는 분의 지도

없이 그런 모험을 감히 할 수 있었겠는가.

차신부님으로부터 여러해동안 단식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단식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주변의 여러분이 실천해서 효험을 보는 사례를 눈여겨 보면서 나도 언젠가 단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30일 단식이 그렇게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 효험을 굳게 믿고 따랐을 뿐이니까.

단식의 이치는 간단하다 하겠다. 식사를 안하므로써 胃腸을 쉬게 하고 위장을 움직였던 에너지로 신체내부에 축적된 老廢物과 毒素를 제거하는 일에 돌린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먹으면 사람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영양물질로 산다. 자신의 조직기관이나 조직세포의 일부를 自家融解시켜 그 영양물질로 생명을 유지한다. 야생동물들이 병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굶는 이치와 같다. 자동차 엔진 오바호링과 같이 체내를 말끔히 청소 淨化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맥박이 세지며, 머리도 맑아진다. 따라서 精力이 솟아나고 回春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나는 58세부터 아침을 거르는 一日二食을 하고 있다. 1년 하니까 체중이 76kg에서 10kg줄었고, 몸무게는 그 후 별 변동이 없다. 이치는 마찬가지로 하루 한 끼 안먹어도 영양섭취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위장의 휴식시간을 정오까지 연장해 그 기능의 보강을 돕는다는 것. 내가 단식을 오래 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이다.

30일 단식으로 나는 어깨근육통을 치유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면에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도 건강이 양호한 편이어서 지금도 주 2회 테니스를 치며 거의 매일 한시간 정도 걷는다.

단식의 진짜 어려움은 진행중 괴로움보다 끝난 후 補食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이다. 단식을 끝낸 다음 정상화될 때까지 묽은 미음으로 시작하여 죽과 이어서 진밥만을 주로 먹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욕이 난다고 참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 큰 일이 날 수 있다. 대개 단식 30

일이면 보식도 30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엔 20여 일로 끝냈다.

여기서 단식후 처음으로 마신 참쌀 3톨의 미음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맹물과 별 다른없는 미음의 맛은 정말 꿀 맛이였다. 그렇게 고소하고 감미롭고 흡족할 수가 없었다. 지독한 가뭄끝에 느끼는 단비의 고마움에 비길 수가 있을지. 나의 보식은 참쌀 3톨에서 시작해 다음날 6톨 그 다음날 12톨으로 두배씩 늘렸다. 미음을 먹는 동안, 몇일 지나면 포도도 몇알씩 먹고, 또朴시부님이 보내주신 로얄제리 王乳도 마셨다.

이제 단식중 꿈 희한한 꿈 이야기도 해야겠다. 단식 20일쯤 됐을까. 새벽 꿈속에서 마구 소리내어 울었다. “저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俗物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절대자를 향해 고백하면서 참회의 울음을 터뜨렸다. 지질이도 못한 나의 진정한 참회의 갈구가 아니었을까.

미국의 어떤 단식전문가는 1주일 24시간, 1년에 7일 내지 10일간씩 최소한 세 번 단식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나는 주1회 단식을 최근 중단하고 있지만 수개월내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며, 7일정도의 단식도 해마다 시도하고 싶다.

畏友 金潤鎬

鄭 哲 周 (29回)

1976年 4月 22日 大學에서 自宅으로 自전거로 歸家하던 중 不意의 交通事故로 46歲의 젊은 나이에 아깝게 생을 마감한 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립니다. North Carolina의 East Carolina University(ECU) 社會學部 教授(社會學部長) 時節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의 回信으로 兄의 秘書인가 助手인가 하는 분이 兄의 訃音과 함께 그 지방신문에 실린 交通事故 기사를 오려서 같이 同封한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납니다.

中學時節 進學에 대한 꿈과 目標가 있었다면 日本의 高校(旧制)나 城大 豫科 또는 日本의 大學이나 專門學校를 선택하는 것이 慣例였는데 (우리들의 경우 戰爭末期라 교사들도 진학같은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兄은 北京大學 진학을 염두에 두고 2, 3학년 때부터 獨學으로(그 시절 咸興에 중국어 학습 學院같은 것이 있었리 만무하였기에) 中國語를 습득하고 그리고 소원대로 4學年때 北京大學 政治經濟學部에 入學하였소.

所謂 모범생이었지만 극히 凡常의 학생이었던 本人은 兄의 너무나 破格的인 목표설정· 당돌한 指向努力을 오직 경탄의 눈으로 小巨人을 보는

듯 하던 생각이 납니다. 4年동안 같은 班(組)에 속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도 한번도 같은 班(組)에 있는 기억은 없다) 1學年(乙)에서 3番 2學年(甲)에서 2番 그리고 3(丙), 4(乙)學年에서 드디어 1番이었던 키다리 本人과 56~7名中 30番 以下였고 작고 통통한 몸집에 낮고 부드러운 음성의 兄과는 무리지어 쏘다닌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지만 남다른 特徵의 소유자였던 兄과는 그래도 유별나게 친하게 지낸 기억이 납니다.

中共軍이 中國 本土를 휩쓸 때 兄은 고향 함흥에 돌아왔고 6.25때 單身으로 월남하였소. 그리고 누구나 다 겪은 戰亂의 고달픈 生活中에도 남다른 語學재능과 통솔력으로 釜山에서 美國系 구호기관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대로 이런식으로 주저 앓을수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兄은 자유당시절의 混亂과 5.16을 겪은 直後 美國 미네소타 大學에 유학하여 社會學博士가 되었소. 留學떠날 때 兄은 33歲였고 夫人과 올망졸망한 아이들—凡人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어려운 決斷이었소. 當時 서울에 거주하다가 5.16後 한동안 釜山에 머물고 있던 本人은 兄의 出國을 오직 景탄의 눈으로 본 기억이 나오.

兄이 在美時節 訪韓하였을 때는 매번 김포공항에 내리면 旅行짐은 원효로에 있는 조카별 되는 분의 집에 맡겨놓고(그 분은 兄의 조카지만 우리 威興高普 선배이기도 한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소) 잠은 주로 安岩洞의 나의 좁은 집에서 자곤 하던 일이 었그제 같소. 所謂 酒豪라는 소문대로 술을 많이 마시던 本人과(건설회사 任員시절이었으니 오죽하랴) 알콜은 입에도 못대는 兄하고 며칠씩(간혹 釜山에 가 있을 때를 빼고는) 한방에서 지내면서 이야기하며 뒹굴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말로 '認知調和'랄까 요새 너무 자주 입에 올려서 日常化되버리다시피 된 '코드'가 맞아 서인지 몰라도 하여간 우리들은 '죽'이 맞은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소.

兄은 大學의 正教授가 된 70年代 들어서 자주 訪韓하였는데 國內의 政治動向이나 社會的變化에 銳敏하게 반응하고 關心을 가졌소. 美國生活보다 歸國해서 할 일을 恒時 暇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되오. 社會學에 門外漢인 本人이 Weber(Max)에 心醉하고 特히 中國의 社會와 經濟史分析에 방대한 著作과 論文을 남긴 Wittfogel(Karl A.)에 傾倒된 本人에게 그의 너무나 左派的 傾向을 지적하고 밤새워 토론하던 기억이 새롭소. 한편 社會學者로서 實證的 構造기능적인 美國社會學의 主流에서 統計的 計量的 接近方式에 依存하는 研究分野에서 광목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유럽 社會學의 哲學的 基底에 對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兄이었소. 그 後 하루는 美國에서 發刊된 Wittfogel의 著書인 『Oriental Despotism』을 (지금도 소장하고 있소) 小包로 보내와서 그 답장을 보냈더니 兄대신 弟子되는 분이 그 기막힌 事故소식을 알려주었소.

우리의 화두는 자주 Wittfogel의 東洋的 社會(解體過程에 있는) 마르크스·엔겔스의 아시아的 生産樣式, 그리고 지금은 植民史觀이라고 外面당하고 있는 日人 史學者들이 주도하고 朝鮮史 編修會(총독부 부설)나 京城帝大 經濟史學者들의 主流史觀이다시피된 李朝社會의 停滯등 아시아적 停滯性 理論이었고 밤새워 論爭하던 기억이 나오. 社會學의 기초적 체계적 研究 訓練 경험 無 音聲이 높고 答소를 論爭으로 끌고 가는 성미인 本人과는 달리 항상 조용하고 부드럽게 論點과 論據를 짚어가던 兄의 모습이 엇그제 일 같소. 논쟁(결코 言爭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었소) 後에도 오히려 사람을 自己省察로 이끌어가는 魔力같은 것을 兄은 천부적으로 所有하고 있었고 研究者이면서도 뛰어난 教育者的 또 指導者的 資질을 갖고 있었다고 그 當時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두고두고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하오. 함께 同時代를 살아가는 친구의 傑出性을 그가 살아있을 때는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은 나의 미련함이라기 보다 세상이치와

물정에 대한 觀照能力, 消化能力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한 탓이라고 여기고 철들어 감에 따라(어느덧 黃昏에 접어들었소) 깨닫게 되는 것으로 自慰하고 있소.

뎡이 그림소. 친구의 緣을 '天涯知己' 라고 한 先人(李德懋-正祖朝)의 말이 생각나오. 燕巖 朴趾源도 비슷한 말을 하였지만 그는 高談峻論을 나누고 意氣投合한다고 다 친구는 아니라는 말도 잊지 않았소. 昨今 信義 失踪, 不信이 세간의 上下를 덮고, 寸糸를 가리고 他的 사소한 흠결에는 불을 켜고, 비열한 僞善으로 세상사를 가늠하고·曲直의 分別을 外面하는 이 각박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이승에 없는 친구·遠地의 친구·만나 볼 수 없는 血肉을 때때로 생각하는 緣由는 나의 不敏함 때문인가 老衰함 때문인가 생각해보는 요즈음이오.

뎡이 事故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에서 태어난 두 子女를 포함하여 4男妹가 남았고 막내아들은 네 살이었으니 남은 遺族 特히 未亡人의 고초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훌륭하게 長成하여 두 딸은 변호사로 그리고 會社員으로 事業家로 자라 주었다니 대견하고 흐뭇하오.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니 남다른 努力과 突破力이 있었을 것이요.

'Publish or perish' 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던 뎡의 모습과 美國教授 社會의 冷酷한 경쟁과 研究압박의 긴장속에서도 特有的 篤심으로 짧은 기간에도 큰 업적을 남긴 뎡이 자랑스럽소. ECU에서 종신직 正教授로 승진한지 7年만에 갑자기 他界하였지만 지금 ECU의 中堅教授가 된 Dr. Jean Huryn을 위시하여 뎡을 추모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뎡의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서거후 ECU개교 이래 처음으로 社會학부 교사에 Y.H.

Kim, Laboratory를 헌납하였고 28년이 지난 이번 2004년 4월 23일에는 다시 그것을 擴張하여 Dr. Yoon Hough Kim's Sociology Computer Laboratory로 개칭하여 懸板하고 새로이 父의 사진을 걸고 Dr. Y. H. Kim Still in the Hearts of His Students, April 23, 2004라고 조각한 記念牌를 붙여서 재 헌납식(Rededication)을 舉行하였다니 새삼 父의 족적이 크고 넓은 것을 통감하오.

이번 同窓會誌 八號 發刊에 즈음하여 父의 未亡人 김정자 女史에게 父을 기리는 글을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길다란 私信과 함께 Dr. Jean S. Huryn 등 弟子와 동료들의 글을 보내와 신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中國의 鄧小平처럼 작달만 하지만 넓은 度量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그 뛰어난 識見과 野望을 꾀보지도 못한채 요절한 畏友 金潤鎬 博士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그가 그렇게 不意의 事故로 세상을 떠난지 30年이라는 歲月이 흘렀지만 生前에 그와같은 훌륭한 친구를 가진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醜하게 늙지 않으려고 마음을 가져보는 요즈음이오.

(衰暮思故友- 韓愈)

金潤鎬博士는 計量社會學의 先驅者

친애하는 원, 수지, 희승, 남지에게

나는 이 편지에서 자네들의 부친인 金潤鎬博士가 우리들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스승이었으며, 또 East Carolina University(ECU)의 사회학 석사과정과 크게는 사회학계 전반에 어떤 공헌을 하셨는가를 자네들에게 알리려 한다. 金博士는 ECU에서 계량사회학(Quantitative Sociology)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사회학의 첨단에서 계셨다. 나는 ECU에서 碩士課程을 밟을 때까지 方法論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그 당시 學部課程에서 方法論을 가르치는 大學은 아주 드물었었다. 金박사는 ECU에서 처음으로 학부과정의 方法論 講義를 시작하셨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나에게 자기의 方法論講義를 들으라고 권유하셨다. 碩士課程의 工夫에 基礎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方法論講義는 5日 課程이었으나 나는 月, 水, 金의 3日만 출석하여도 좋다고 하셨다. 金博士는 나의 사정—다른 필수과목의 청강필요성, 長距離 운전의 登下校, 家族의 扶養—을 알고 계셔서 여러모로 나를 도와주셨던 것이다.

金博士는 훌륭한 선생님이셨다. 公私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質問에는 언제나 친절히 대답해 주셨고, 우리의 工夫와 進學, 時事問題 심지어는 家族問題에 이르기까지 스스럼 없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다. 자네들을 포함한 당신의 家族을 아주 사랑하셨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다.

金박사는 社會學의 尖端에서 資料의 分析에 必要한 電算프로그램을 남보다 앞서서 開發하였다. 社會科學 統計프로그램(Statistical Program for Social Sciences, SPSS)이 아직 初期段階에 있어서 ECU에는 導入되기 前에 이미 차이, 상관관계, 역행 및 그 외 必要한 통계의 分析에 應用할 當신 자신의 프로그램(his own programs for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regression, other needed statistics)을 만드셨던 것이다. 北캐롤라이나 州立大學(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NCSU)의 教授들은 自身들이 開發한 資料分析 프로그램을 後에 數百萬弗의 事業으로 發展한 통계 분석 시스템(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에 팔아 個人的利益을 올렸으나 金博士는 오직 學生들의 指導와 研究에만 專念하였다.

1972년에 나는 Virginia州의 Richmond 市내에서 열린 AKD 심포지움에 參席하여 論文을 發表하였는데 몇몇 參席者들은 내가 SPSS를 使用하여 그 論文을 作成한 것으로 여기고, SPSS에 대한 나의 意見を 물었다.

나는 SPSS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이어서 ECU의 社會學科에는 統計의 天才教授가 계셔서 자기가 開發한 資料分析 프로그램을 學生들의 研究에 應用하도록 지도하신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로부터 約 1年後 金博士는 ECU에 計量研究(Quantitative Research)를 위하여 SPSS를 導入하였던 것이다.

통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金博士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학교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를 막론하고. 나는 Ed Thorton君과 같이 金曜日 오후에 Austin館에 있는 대형 주전산기를 使用하면서 연구를 하곤 했는데, 하루는 우리 둘의 자료를 함께 분석한 결과가 프린트되어 나왔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 金博士의 집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金曜日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師母任은 우리의 느닷없는 訪問에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프린트 된 것을 보시자마자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우리의 passcode를 물으셨다. 우리 둘은 같은 passcode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알려드렸더니 교수님은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셨다. 즉 서로 다른 자료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入力하더라도 같은 passcode를 사용하면 전산기는 그 자료를 모두 함께 읽고 함께 분석한다는 말씀이셨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passcode를 주셨고 우리는 그 passcode로 각각의 分析結果를 얻을 수가 있었다.

자네들의 父親은 美國의 教育과 人種間의 相互關係에 至大한 關心을 가졌었다. 少數民族의 社會的 地位와 少數民族 相互間의 態度와 關係가 그들 少數民族 學生들의 學習能力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 가에 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하셨다. 東部 Carolina州의 學校들에서 計量的資料를 수집하여 分析하면 여기에 관한 研究를 할 수 있다고 여기시고 國立精神保健院(National Institute for Mental Health)에 研究費 申請을 提出하여 許可를 받아 내셨다. 자료수집으로 現場訪問을 一次하셨고, 그때까지 社會學科는 勿論 ECU全體가 받았던 政府의 研究補助金の 어느것 보다는 많은 金額을 받게끔 되어있었다. 그러나 不意의 事故로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됨에 따라 政府補助金은 勿論이요, 研究自體도 없었던 일로 되고 말았다.

자네들의 父親은 또 美國社會學會의 年別總會에서 研究論文을 發表하기로 決定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그 事故로 取消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論文을 金博士 逝去後 읽어볼 수가 있었다. 金博士에게는 그 외에도 數編의 未完成 論文들이 있었다. 金博士의 學問的業績은 著名한 社會學者들의 認定을 받아왔었고 그의 夭折은 社會學界의 特히 教育과 人種間 關係에 대한 計量的研究分野의 큰 損失로 여겨졌었다.

자네들은 그 當時 너무 어려서 많은 사람들, 卽 學部 및 大學院 學生, 社會學科는 勿論이고 ECU 全體의 教授들, 그리고 金博士를 아는 美國과 韓國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네들과 같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었다는 사

실을 몰랐을 것이다. 자녀들의 父親은 짧은 生涯에 社會學界에 많은 貢獻을 하셨는데 그의 이름을 단 ECU의 電算研究所의 設立과 組織은 단지 그런 貢獻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Jean Scherz Huryu

電算機 한 대로 研究所 始作(抄譯)

나는 1970년에 東캐롤라이나 大學에서 金潤鎬博士를 처음 만났는데 그의 솔직하고 꾸준한 態度가 꼭 印象的이었다.

그는 特出한 學者였고 電算機 한대를 갖고 北캐롤라이나 州立大學의 電算所와의 連結을 유지하면서 東캐롤라이나 大學에 電算研究室을 開設하였다. 이것은 그의 꾸준한 努力으로 이제 그의 이름을 단 電算研究所로 發展 成長하였다.

金博士는 유머가 있는 사람으로 한국 김치가 印度의 차트니(chatni)보다 맛이 있다고 우기곤 하여서 하루는 그의 夫人이 만든 김치와 나의 妻가 만든 차트니를 갖고 金博士의 집에서 두 가족이 즐거운 저녁을 보낸 일이 있었다.

원이 태어난 아침 金博士는 出勤길에 나에게 아기 탄생 소식을 전해왔다. 내가 아들이냐고 물으니

“물론이지, 어떻게 딸일 수 있어. 내게는 이미 딸이 셋이나 있고 아들은 없어. 하느님은 다 알고 계셨을거야”라고 대답하였다.

金博士는 “니 하우스마”라는 中國語 인사를 내게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이 말을 그와 같이 언제나 기억할 것이다.

金博士가 不意의 事故를 당하던 날 午後 나는 大學 주차장에서 그를 만나 좁은 길을 자전거로 退勤하는 것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

Avtar

프로그램 통조림의 開發者(抄譯)

나는 70年代初 東캐롤라이나 大學 社會科學의 統計學教室에서 金博士를 처음 만났는데 그는 꾸밈이 없었고 소탈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만나서 즐거운 스승님이셨다. 내 記憶속의 그는 자상하고 良心的인 스승이었으며 學生들이 理解할 때까지 忍耐力을 갖고 그들에게 勇氣를 북돋아 주며 가르치는 教授님이었다.

學生들의 얼굴에서 問題를 理解하고 난 다음의 미소를 보게되면 선생님의 눈은 검은 테의 안경 뒤에서 크게 빛나곤 하였다.

金博士는 추상적 통계학을 取扱하지 않았고 複雜한 理論과 問題를 다룸에 있어서 實際的 應用方法으로 접근하였다. 이것은 우리 學生들의 卒業後 人生行路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大學院에서도 金博士의 統計學講義를 들었는데 그는 우리들 學生의 人格을 尊重하여 試驗 때에 監督하는 일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自立에 對한 自信心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그는 社會學의 尖端에서 있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천공 카드에 저장할 때 學生들을 爲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의 통조림(canned programs)을 開發하였는데 이것은 SPSS나 SAS와 같은 것이었다.

그의 전산 프로그램 특히 프로그램 통조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社會學科 學生들 뿐만 아니라 他學科, 卽 物理, 化學, 數學 그리고 當時 새로 誕生했던 電算學과 電算情報體系學의 教授들과 學生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金博士는 特出한 教師였다. 그의 夭折은 따라서 많은 親知는 勿論 東캐롤라이나大學에게도 큰 悲劇이었다. 그가 세운 傳統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 卒業生은 勿論이요, 在學生들의 가슴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

나는 결코 金博士를 잊지 못할 것이며 언제나 그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며 또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Diana Beuman Lowe(ECU 人事處 次長)

祝福의 샘(抄譯)

나는 金潤鎬教授를 생각할때면 그에 對한 欽慕의 情을 가눌 길이 없다. 그의 知識과 才致 그리고 叡智는 60年代 末과 70年代 初에 東캐롤라이나大學에서 그의 訓導를 받은 學生들에겐 祝福의 샘이었다.

그는 當時의 反越南戰풍조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社會學的 觀點에서 接近하였으며 時事問題를 知的正直性和 철저한 合理性으로 풀어 나가셨다. 問題의 이런 接近方法은 우리 卒業生들의 社會生活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社會學分野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나 나의 知的發達에 끼친 金博士의 影響에 對해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金博士는 東캐롤라이나大學에서 統計分析의 新天地를 開拓했는데 그의 社會學은 人間關係를 理

解하고 認識하는데 必要한 한가지 方法을 알려준다.

金博士는 客觀的方法으로 事物을 理解하려고 했으나 그는 結局 자상하고 情이 넘치며 사랑이 많은 人間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런 人間으로 金教授를 記憶할 것이다.

Phillip L. Partin

故 金潤鎬 博士(29回)의 弟子들인 Dr. Jean Scherz Huryn(ECU Prof.) Dr. Wiana Beaman Lowe(Associate Vice Chancellor for Academic Affairs Personnel, U.C.U) Phillip L. Partin(Associate Director, The Navigator Military Ministry) Avter 家族 등의 上記 4편의 書信은 生前의 金博士를 기리는 글들이다. 長文의 書信들이므로 Wr. Huryn것을 除外한 3人の 편지는 抄譯하였음. 번역 및 抄譯은 번역전문가 金明哲 同門(31回)이 수고하였다.

◆◆◆◆◆ 30회 ◆◆◆◆◆

- ◎ Baltic Sea의 여러 나라에 기항하면서/ 申森熙 (30回)
- ◎ 고희(古稀)라는 70세 고개에서/ 李英愛
- ◎ 민족의 얼을 지킨 여당/ 李南杓(30回)
- ◎ 삶과 학문 53년 만에 찾아간 나의 고향, 북한 땅/ 元炳旣 (30回)
- ◎ 高原에 올라서서 (1), 꿈에 보는 금강산 (2)/ 金龍澈 (30回)
- ◎ 이런 내조?도 있다/ 申裕恒 (30回)
- ◎ 近代 帝國主義 (1), 李濟馬 (2)/ 金庚台 (30回)
- ◎ 복구의 기후의 급진 변화와 생물상/ 金元謙 (30回)
- ◎ 내 고향 함흥/ 金冕燮 (30回)



Baltic Sea의 여러 나라에 기항하면서

申 森 熙 (30回)

우리 30기의 몫이 70세 되는 古稀를 맞이하여, Baltic Sea를 순양하면서, 10일간에 7개국을 순방한 2000년도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New Jersey의 박영호가 알선하여, 고명삼(분당), 고승영(NJ), 김경태(PA), 신삼희(NY), 한만섭(WA)과 그리고 31기의 양형춘(OH)이고, 물론 영부인들이 동반하였다. 우리의 일행은 17명인데, 3명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2003년 1월 1일에 박영호군이 갑자기 他界하여, 우리는 큰 충격을 겪으며, 惜別하였으나, 그 재회와 고회 여행의 感激은 잊을 수가 없다.

Copenhagen에서 “Au revoir” 인지 “Auf Wiedersehen” 의 기분인지도 모르게 Bus에서 내리면서 비행장으로 그냥 가는 저쪽 네 쌍과 급하게 석별한 우리 네 쌍은, Hotel에 5시에 Check in하면서 6시에 만나기로 하고, 제각기 방으로 가서, 외출 준비를 갖추고 Lobby에서 만났다.

이전에 먼저 가서 구경한 경험이 있는 박영호가 꼭 가보라는 Tivoli를 쉽게 찾았으나, 도보로 한참 간 셈이다. 큰 일이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분분대고 있었는데, 입장권은 그런 대로 Credit card로 쉽게 샀다. 들어가 보니, 큰 놀이터이다. “Disneyland” 처럼 넓지도 않고, 정돈되어 있지도 않다. 한참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시장 끼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지난 10일 간을 생각하니, 신세가 갑자기 몰락한 느낌이다. 중국식 簡易 음식을 제각기 주문하여 먹는데 그 모습들이 꼴 불경이다.

주문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고, 음식도 기대하던 것들이 아니라, 모두들 먹는 꼴이 마치 오소리(Badger)들이 밥 한 그릇을 움켜쥐고 먹는 것과 막 무하리라. 출기도 하고, Soup도 제대로 주문하지 못하여 꼬독 꼬독한 밥이 마치 조밥을 씹는 기분이고, Soup가 없는 자는 맹물로 목을 적시고 삼킨다. 그런 대로 한참 씹고, 훌훌 마시더니, 창자 속에서 기별이 있으니, “잘 먹었다”고 좋아한다.

일자가 잘 맞았으면, Kim아무개라는 한국 젊은이가 지휘하는 음악회에 나 들어 갔으려면, 그것도 못하고, 이 고장의 젊은이들이 뛰어 다니는 모습만 보다가, 마침 Jazz Band가 공연하는 George Gershwin의 “Rhapsody in Blue” 한 곡을 들었다.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여, 옷을 얇게 입은 필자는 더 건디다가는 나중에 감기에 걸릴까 염려되어서, 우리 부부는 먼저 호텔로 향하였다. 그 때가 10 : 30 PM인데, 아직도 흰함이 신기하였다.

다음 날 아침 6 : 45에 Taxi가 제 시간에 왔다. “잘 가요! 또 만납시다”의 인사도 못하고, 우리는 떠난 셈이다. 마침 A religious holiday가 되어서, 길에는 차가 거의 없어서, 공항에는 일사천리 격으로 도착하였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Denmark의 지형을 내어다 보니, 어제 안내자가 말한 대로 과연 산은 전혀 없었다. 수십 개의 도서(島嶼)로 형성된 나라, 높은 언덕조차 하나도 없는 평지국(平地國)이었다. 영국에 가서는 예정하였던 대로 한만섭의 애기(愛機)가 되는 B-767에 다시 몸을 담고 상쾌한 마음으로 Charlotte, NC까지 가서 입국하여, 다시 Albany, NY 공항으로北上飛行하여 집까지 무사히 왔다.

우리 부부는 이번에 5월 13일에 떠나서, 9개국을 순방한 셈이다. 어떤

* 한글의 外來語 表記法에 있어서 F와 P의 표기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原語 發音과 差가 있어서, 필자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기록함.

나라는 한 나절만 보았지만 모두가 깊은 인상을 주었다. Paris와 London에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셋째 날에, 본래 계획대로 양형춘(31기) 부부를 호텔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영국 여행은 동행이 되었다. 2000년 5월 21일 저녁에 Copenhagen에 도착하여, 그리운 친구들을 Crown Princess에서 만나서, 10일 간을 함께 유람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가웠다. 더욱이 興南 工場에 學徒 動員으로 갔을 때에, 가깝게 지내고, 서울에서도 동기생들의 모임에서도 두세 차례 만났었는데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김경태를 만나서, 참으로 반가웠다. 사실 40년 이상 만나지 못한 셈이다. 고명삼과 한만섭을 Hawaii에서 만난 일이 나로서는 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그것도 10년 전이다. 박영호도 한국에서 63년에 보고는 처음이다. 고승영은 10여년 전에 NYC에서 몇 차례나 만나고는 그 동안 필자가 서부에 갔다 온 후는 NYC와 NJ에 한 달에 두 세 차례나 목회 업무상 갔었지만 서로 어긋나고 있었다. 夕食 후에 船內에서 우리 모두가 부인(夫人)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친분을 두터이 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두가 70세인데, 허리도 꾸부러지지 않은, 젊은 ‘아바이’ 족속들이다.

다음 날에 Sweden을 가는 도중에 해상에서 낮 시간을 지내게 되어서, 필자는 선내를 샅샅히 찾아 다녀 보았다. 승무원이 800명이고, 승객은 2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한다. 우리의 객실은 Paris and London의 사성(四星) 호텔보다 넓고 좋다. 더욱이 Closet와 Dresser가 크고 넓어서 좋았다. Baltic Sea는 큰 호수를 순항하는 기분으로 파도가 없었고, Sweden의 해안선을 멀리 보면서 북상하는데, 높은 산은 보이지 않는다. 저녁 식사를 끝내니, 밤 10시가 되었는데, 모두들 Show에 간다기에 갔다 오니, 밤 1시다. 선실에서 밖을 내어다 보니, 수평선 쪽은 아직도 흰하다. 아! 이것이 白夜(The white-night)이구나! 아침이 되었는지 창문이 밝아서 눈을 떴더니, 겨우 4시가 아닌가? 그러니 수평선은 언제 한번 어두워졌는

지? 창 밖을 내어다 보니, Sweden의 해안선을 배가 가고 있었다. 억지로 좀 더 자야겠다고 잠을 청하다가 다시 눈을 뜨니, 7시가 되었다. 배가 Stockholm의 건물들이 보이는 어디인지 정박(碇泊) 준비를 하고 있었다. Stockholm에서 옛 궁전의 마차나 장비를 보았지만, Paris의 軍事 博物館(Military Museum)에서 그 많은 전신갑주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개인의 소유물을 보는 기분이었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시청 안의 예술적 장식은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항구의 한 도크에서 Vikings의 배를 구경하고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다. 얼마 전에 『Time』 잡지에서 Vikings를 주제로 한 글을 읽은 기억을 더듬어서 몇 가지를 물었더니, 이 친구는 그러한 구체적 역사적인 내용에는 門外漢이었다. 조출한 시내의 상점에서 Window shopping을 하여 보았는데, 물가는 미국보다 훨씬 비싼 것을 발견하였다.

Finland의 Helsinki에 대하여서는 이상하게도 관심이 많았는데, 과거에 Russia와 Soviet에게 몹시도 시달리면서 독립심이 강하였다고 한다. 우리 부부는 일행과 다른 코스를 잡았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하였지만, Sibelius Park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중심한 큰 흉상(胸像)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고, 그 옆에는 Pipe Organ을 상징하는 큰 파이프들이 펍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오후에 Sibelius의 生家에 가서, 그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배웠고, 音樂徒들이 와서, 소 연주회(A little concert)를 가졌으니, 펍 인상 깊은 방문이었다. 우리를 태운 Bus가 해변을 지날 때에, 그 많은 개인 보트(Numerous private boats)를 보고,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바다와 호수에 의존하여 즐겨 살아가는 모습을 짐작하며, 겨울에는 춥지만 대 자연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이 다른나라들보다도 소박하고 물가도 저렴함을 보았다.

Soviet의 압정에서 70년을 몸단장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세수도 제대로 못한 그 진부(陳腐)한 St. Petersburg를 신록 속에서 그 옛 모습을 상상하여 보았다. Russian history의 搖籃地(The cradle of Russian history)가 되는 이 여도(麗都)의 웅장한 모습을 옛 궁전에서 만 찾을 수가 있었으나, Peter 대왕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이 도시를 건설한 사실이 뚜렷이 나타났다. 궁전들은 폐허가 되기 직전에 구출되어 회복기를 얻은 감이 간다. 빨갭게 녹이 쓴 시내 bus나 전차를 보니, 굽주림에서 빈정대는 앙상한 이리같이 보여서, 눈물과 화가 함께 남을 금치 못하였다. 길에서는 아직도 'Babska'(할머니)들이 빗자루로 그 큰길을 쓸고 있었다. 공원에서 보이는 Lawn-mower는 미국에서라면 Garage sale에서 \$10도 안 줄 기계로 한 노인이 그 큰 공원을 깎고 있으니, 매일 깎아도 끝나지 않으리라. 하나의 기쁜 소식은 그 넓은 평지를 이용하여, Vinyl house를 세우고, 넓고도 넓게 신식(新式) 농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食生活의 해결책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에 안도감이 갔다. 많은 세월이 지내야 회복될 이 아름다운 도시를 위하여. 궁핍과 축복의 기도를 고요히 드렸다.

Nicolai Rimsky-Korsakov의 동상 앞을 차로 몇 번이나 지낼 때마다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지나치기만 하였다. Alexandrinskii Theatre에서 Ballet를 보았는데, 좌석이 몹시도 작고 딱딱하여서, 허릿병이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점심때에 먹은 마늘 장아찌는 한국의 것과 꼭 같은 맛이 나서, 신기하였다. 겨울에는 몹시 춥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답사하고 싶은 곳이고, The Hermitage 박물관에서는, Peter 大王一世의 死後에 그의 딸, Elizabeth 왕과 Catherine 大女王의 노고로서 모여진 Rembrandt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의 원작품(The original)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았는데, 원작품을 이곳에서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움이었다. 이것도 물론 黃酸(Sulpheric acid)을 사용하여 상처가 간 곳을 전문가들이 능력을 다하여,

10년이나 걸려서 새롭게 완성하였다고 한다. 70년이나 집을 떠났다가 Soviet에서 돌아 온 蕩子가 새 삶을 찾은 모습이 연상되었다. (최근에 방문한 분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선배 金興洙 壽伯의 작품하나가 그 속에 있다고 함). 그밖에도 Leonardo da Vinci, Raphael과 Titian의 여러 작품이 몇 점 있었다. 무엇보다도 키가 7척 가까운 피터 大王은 이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태리, 불란서, 독일에서 저명한 건축가들을 불러서 바로크 式(Baroque style)의 궁전과 주택을 고안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Peter는 西方國의 大建物들을 모방하는 일에 자신을 가졌다. 더욱이 Peterhof 궁전은 壯觀을 보이는 噴水池와 더불어 벨사유(Versailles) 궁전과 필적(匹敵)하는 것으로 준공하였는데, 二次 大戰때에 독일의 포격에 몹시 파괴되었지만 대체로 수복된 모습이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안내된 곳이 St Isaac's Cathedral인데, 수리 중이어서, 내부 구경은 못하였으나, 우리는 증명 사진을 박았는데, 소위 서방에서 보던 성당(聖堂)과 비슷한 모습으로 건축되었었다. 이 교회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둥근 천장(One of the world's largest domed)이라고 말한다. 그림에서 보는 내부는 Paris의 Sacred Heart Cathedral을 방불케 한다.

The Nevsky 거리에서 하차하고, 깜짝 놀란 것은 모스크바 광장의 교회와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한 교회가 잘 단장되어 그곳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883~1907년에 Alfred Parland에 의하여 건립된 獨特한 Russia 형의 교회인데, 이름은 The Cathedral of the Resurrection(부활 성당)이고, 그곳에서 Alexander 王 二世가 1881년 3월 1일에 Terrorist의 폭탄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었다하여, “피 흘린 우리 구세주”(Our Savior-on-the-Spilt- Blood)라는 이름이 있다. 시내를 나누는 큰 강, Bolshaya가 있는데, 그곳에서 一次와 二次 大戰에서 많은 戰功을 올렸다는 순양함, 'Aurora'의 발포(發砲)를 신호로 하여, Russian 혁명이 시작되

었다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정박하고 있는 'Aurora'를 案内嬢이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그 때에 집에서 Home work를 하였다는 김경태 군이 “이 배가 露日 戰爭 때에 日本 艦隊에게 깨꿀난자(함홍 사투리) 당하고 거의 沈沒 狀態가 되었던 배가 아니요?” 라고 물었더니, “Maybe so!” 라고 대답하여서, 경태가 두각을 올렸지요.

Estonia의 수도인 Tallin에 있는 동안에, 국기의 설명을 들었다. 푸른색은 하늘, 검은 색은 땅의 흙, 그리고 흰색은 자유(自由)의 상징이라고 한다. 아! 얼마나 그리웠던 자유일까?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안다. 40년간 소련이 집정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의 30%가 Russians라고 말한다. 그들은 고국에 가도 별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이 나라의 충성스러운 국민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수 백년 동안 인근의 열강국인 Sweden, Germany, Denmark등의 영향하에서 살아 왔는데, 국민성이 강하여서 인지 수도인 Tallin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종교는 루터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핀란드인(The Finns)과 먼 사촌이 된다고 하지만, 다른 이웃 나라와는 혈육적 관계가 거의 없는데, 여자들의 키가 큰 것이 특징이다. 12 세기 이후에 독일계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이곳에 오기 시작하였다. Soviet 정부는 80년도에 Royal Palace앞 광장에 큼직한 Russian Orthodox Alexander Nevsky Cathedral을 세워서 국민을 놀래고, 노엽게 하였는데, 지금은 Russians의 자유로운 예배의 안식처가 된 셈이다. 이 나라에서 수출하는 것은 목재, 철근, 그리고 Computer chip이라고 하며, 과거의 공산 국가로서는 펍 깨끗하게 단장되고, 미국의 중간 도시의 인상을 주는데, 많은 건물들이 새로 정돈된 이유 중의 하나는 1980년에 있는 Moscow Olympic 경기의 한 종목인 Yacht sailing competition이 Tallin의 앞 바다에서 실행하게 되어서, 세계의 관객을 위해 여러 건물들이 새로 건립되고, 호텔들도 새로 단장했기 때문이

라고 한다. 시내가 많이 美化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기 저기에 二次大戰 때의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Poland가 Soviet에서 벗어나기 전에 항구 도시의 조선소(造船所)를 중심하여, 독립의 햇불을 들었던 Gdansk에 우리의 배가 정박하였다. 10일 후에 오는 배를 타면, 이곳에 들리지 않고, 독일에 들려, 관광을 Berlin에서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Poland에 들렀다. 굉장히 큰 도시다. 소위 Downtown 지대에 가니, 공산 정권에서 지금까지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二次大戰에서 파괴된 건물들이 태반이다. 나치(Nazi)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도시가 쑥밭이 되었는데, 4년 후에 蘇聯軍이 들어올 때는 도시가 거의 납작해지고 말았다고 한다. 독일 사람을 모조리 죽였다고 들었다. “쏘련 병사들은 양쪽 팔에 시계를 잔뜩 차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안내인은 깜짝 놀래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나에게 반문한다. 마치 비밀이 폭로된 표정이었다. 그래서, “1956년 이후에 헝가리에서 도망쳐 온 사람과 Soviet soldiers의 이야기를 하다가 Hungary에서도, North Korea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계를 양쪽 팔에 잔뜩 찻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였더니, 그때야 “It was true here. Obviously they did it everywhere!”라면서, 감격스러운 표정이다. 시내 강변의 수리와 재건을 끝낸 신장(新裝) 건물의 모습이 아름다운데 비하여, 전쟁의 흉터를 벗지 못한 곳들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앙상하고, 누추할까. 5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대로 살았을까?

오리오리한 교회들과 다른 건물들이 너무나도 심한 추태(醜態)를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들은 쇠신과 활성화라는 말과 뜻을 국민들의 사회생활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였을까? 아니, 이것은 혁명 사상의 용어와 이념이 아닐 것이다. 웬 사람들이 길에는 그렇게도 많은지!

아마도 그 중의 대다수가 무직자들인 것 같다. 미안해서 묻지 않았다. 길가에는 4~5세의 불구의 아이들이 앉아서 Self-display하고 있었다. 길가에서 음악 소리가 나는데, 세 청년이 Mozart의 Eine Kleine Nacht Musik를 연주하기에 한참 듣다가 땅 바닥에 놓인 모자 속을 보았더니 동전 몇개와 미국 돈 \$1 한 장이 있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잔돈은 없고 \$20짜리만 있었기에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지금도 가슴이 쓰리다. Chopin의 후예들인데, 그들을 격려하지 못 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Norway로 향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北海로 나갔는데, 파도가 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해상(at sea)에 있으니, 낮에 배에서 할 일들이 많았다.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도 Casino에 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나는 그 동안 두 차례 Fitness Room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Steam Room에도 들렀다. 좋은 영화를 보았다는 이야기, Dance를 배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저녁 식사는 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늘 함께 식사했고, 자리를 바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10년내지 40년동안의 사무친 이야기들이 이때에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Oslo, Norway에 들어섰는데, 이곳은 수도이다. Scandinavia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수도이다. 현재의 인구는 약 50만 정도인데, 이 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Oslo항은 이제까지의 어느 항구보다 아름답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Oslo시가지가 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큰 화폭으로 전개된다. 항구 내에는 많은 어선과 유람선도 몇 척이나 정박하고 있다. 여기가 세계의 삼대 어장(三大 漁場)에 가까운 곳이다. 점점이 많은 섬들과 峽谷(Island-studded fjord)이 시내 언덕에서 바로 내려다보인다. 소위 Outdoor Museum(한국식의 민속촌)이 변화가를 벗어난 시내 한 구석에 있었다. Tallin에서 본 것과 Oslo의 것이 비슷하네 이곳은 그쪽보다 70년 정도 후의 건물이어서, 큰 초가집인

데 큰 방 중간에 있는 난로는 굴뚝이 있어서 연기의 피해를 덜 입었겠지만, Estonia의 큰 초가집엔 난로가 아니라, 큰 화덕이 있었으니, 연기가 온 방안에 찻으리라.

Oslo의 것 역시 화력(火力)에 의심이 갔다. 추운 이 지방에서는 겨울에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잠으리라. 한국의 온돌방은 작아도 훨씬 포근하고 따뜻하게 잠 잘 수가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이 도시에는 여러 개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나, 우리는 Adolf Gustav Vigeland가 심혈을 쏟아서 세운 150편의 조각품을 Frogner Park 내에서 구경하였다. 참으로 인상 깊은 조각들이 많았는데, 필자는 특히 'An Angry Child' 에서 두 주먹을 쥐고, 벌거벗은 온 몸에 노여움과 애처로움을 보이며, 우는 한 사내아이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감명을 받았다. 허기야 공원 속의 작품 전부가 全裸像이었다. 참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의 眞實像들이었다. 다음에는 저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Holmenkollen Ski Jump에 안내되었다. New York주의 Lake Placid의 점프장 보다는 주위에 관광석등이 있어서, 더 친근감을 느꼈다. Jump하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곳을 흥미롭게 구경하였다. 그 곳에서 온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그 다음에는 산언덕을 내려와서, Nobel 평화상이 수여되는 Oslo City Hall에 왔다. 건물은 비슷한데, Stockholm의 시청이 더 아름다웠다. 사실은 서쪽에 위치한 Bergen까지 가면, Norway의 기분을 좀 더 알 수가 있고, 그 때에 Edvard Grieg의 피아노 協奏曲의 정서를 맞볼 수가 있다고 책에서 읽음을 기억하면서,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 보는 짧은 구경이 아쉬웠다. 점심을 끝내자 얼마 후에 배가 떠난다. "아! 이것이 마지막 항해구나" 라고 생각하니, 10일 간이 지루하지는 않고 바쁘기만 했다. 오히려 짧은 10일 이었다. 우리는 North Sea에 들어섰다. 파도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더니, 北海의 특색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저녁에 세 夫人들과 한 郎君이 배멀미로 식사를 못하게 되어 놀림감이 되었다.

Copenhagen, Demark에서 下船하는 준비를 질서 있게 시킨다. 무거운 짐은 오늘 밤에 문 앞에 내어놓았다. 마지막 밤을 잘 쉬었는지 아침 햇빛이 눈에 들어와서 깨었더니, 오늘 역시 北歐의 아침 다섯 시다. Copenhagen에서 우리 Group는 한 나절을 관광하게 되어서, Luggages의 꼬리표가 다르다. 우리의 관광 bus에 짐을 싣고, 제일 먼저 찾은 것이 港口의 入口에 앉아 있는 人魚像(Mermaid statue)이다. 寫眞 찍기가 전개되었다.

바위에 외로이 앉아 있는 이 人魚는 몇 번이나 盜難당하는 불행이 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도 宮殿 步哨의 교대의 광경이 구경거리라고 하지만, 영국의 Buckingham 궁전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구경꾼도 별로 없기는 Sweden에서 본 것이나 별 다름이 없었다. 궁전에서는 희귀(稀貴)한 은기(銀器)로 된 여러 가지의 보물을 구경하였다.

안내인은 “여러분이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기에 필자가 “이곳에 조런 키엘케골 (Kierkegaard)과 구른드비Grundtvigs) 목사의 史蹟이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니, 데려다 줄 수가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City Office옆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가더니, 이 동상이 Kierkegaard의 동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양형춘 동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다른 친구들은 1950년도 중반에 한국에서도 철학이나 신학계에 Sensation을 이르고, 유행하였던 실존주의 사상의 한 선구자 Soren Kierkegaard에 대하여 잘 모르는 듯하였다. 그 다음에는 구른드비 목사 기념 교회(Grundtvigs Kirke)에 갔다. 신기한 모양으로 된 건축 기교의 Lutheran Church이었다. 구른드비의 이름은 목사나 교사들은 그 이름을 대체로 알 것이다. 그는 1783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교회, 학교와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교회에 대하여서는 덴마크의 루터 교회의 754 찬송가 중의 271곡이 그의 작품이고, 그는 詩人으로서 名聲이 널리 알려졌다. 그는 국민들의 교육 향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19세기에 고등학교 교

육(A folk high school-ideas)이 농민들까지도 받아야 할 표준임을 강조하여 교육 수준을 향상 시켜,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수립되도록 터전을 닦고 견고케 하는 일에 크게 공헌하였다. 설명서에 의하면, 구룬드비 교회는 내부의 높이 22m, 내부 길이 76m, 내부 넓이 35m, 탑은 49m. 교회에는 1800명이 입장할 수 있고, 노란 색으로 된 벽들은 약 6,000,000개. 모든 기둥은 각각 10,000~12,000개의 벽돌로 세워지고 있다. 교회 안에는 Organ이 두 개가 있는데, 작은 것은 보통 예배 때에 사용하고, 큰 것은 주로 演奏用으로 대 演奏會 때에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주를 녹음한 J. S. Bach의 Tape를 하나 사서 들으니, Pipe-organ 소리가 독특하고, 異色の이다. 우리가 보통 보는 교회 건물과는 전혀 다르게 考案되고 建築된 美麗한 교회 건물이었다.

그 후에 우리는 시내의 한 복판에 있는 Shopping and Stroll Area에 갔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인종 전시회장을 방불케했다. 초여름이고 북녘이어서인지, 검은 색의 옷을 입고, 바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치 屋外 물(Outdoor Mall)을 걸어다니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사람 구경만 하였고, 아무도 Shopping하지 않았다. 수많은 납작한 섬을 연결한 운하(Canal)의 길을 지나서, 어떤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게 되었다. 점심까지 觀光費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일행의 몇사람이 그 곳의 물이 맛없다고 했더니, 잘 생기고도 씩씩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Evian을 무조건 한 병씩 식탁위에다 놓는다. 어떤 친구들은 Wine을 2~3병을 마셨다. 또 어떤 夫人들은 Coke를 마셨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음료수 값으로 Extra \$10을 각자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멋모르고 마신 것에 대한 물바가지를 쓴 셈이다.

우리들 17명은 이번에 영어(英語 - English)라는 방언(方言)으로 7개국을 다녔는데, 그것으로 통하였으니 신기하였다. 1945년 9월에 있었던 해방 후 첫 번째 영어 시간에 우리는 中三이었지만, 영어를 너무나도 몰라

서, “부끄럽지만 2학년 책부터 다시 합시다”라고 영어 선생에게 청했던 생각이 나고, 2학년 때에 영어 선생이 Chapter One을 암기하라기에 “Bob, did you hear the alarm o’ clock?”라고 겨우 외웠던 생각이 난다. 지금 70세이지만, 그 책을 다시 암기하라면, 몇 분이면, 암기할 것만 같다. 왜? 이제는 “방언이 터졌으니까!… 우리의 여행과 재회는 참 좋았어요.”

Let's do it again in the near future! Let me close
it for now because this is the end of the story.

고희(古稀)라는 70세 고개에서

李 英 愛 (30回 申森熙의 배우자)

나는 지난 1월 31일에 70세 고개에 올라 왔다. 여러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분에 넘치는 잔치를 가졌다. 두 아들과 며느리가 California에서 비행기로, Michigan에서는 차를 몰고 오다가 큰 폭설을 만나서 직행하지 못하고 하루 밤을 Motel 신세를 지면서 왔다고 하니 이 어미의 마음은 더 기쁘고 미안했다.

남들도 다 넘는 70고개인데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묻는 사람도 있겠으나 나의 부모님들은 60고개도 정복하지 못하시고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그래서 나로서는 부족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남들이 젊게 보인다는 70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할 뿐이다.

친지들이 잔치 자리에서 70고개를 정복한 기분이 어떠한지를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마음도 설래서 표현을 제대로 못하였으니 이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

70년 전에 나는 만주 땅 지금의 연변인 도문에서 조선족의 한 가정에 태어났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축하 인사로 찾아왔다. “계심둥?” “아 에미는 팬함둥?” “간나 얼리는 젖을 마이 타고 낳겠꼬마.” 나의 어머니 대신 나의 할머니는 “우리 간나는 뉘기 아들 둘과도 못 바꾸게 곱쌌매.” 하시면서 자랑하셨단다. 할머니는 생전에 아들만 셋을 가졌고 딸은 없었으니, 손녀를 보신 일이 너무나 기뻐다. 이렇게 이상한 한국말을 하는 조선인으로써 유치원까지 마치고 두만강을 건너서 조선 땅 南陽쪽으로 이사했

다. 우리 부모님은 만주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는 일은 생각 밖의 일인 모양이었다.

“오마에노 나마에와 나니까?” “와다시노 나마에와 가야마 가즈코(香山 和子)테쓰.” “요시.” 이렇게 입학시험을 치르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니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쓰면서, 일본 선생의 교육으로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될 변화였다.

6학년 때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남으로 나오는 준비로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의 도청 소재지인 咸興에 이사했다. 나의 아버지의 철도국 직장이 그렇게 이동하는데는 편리한 직책이었다. 함흥에 와서는 해방 후가 되어서, “학생! 이름이 무시기니?” “제 이름은 이 화자라고 하꼬마” “무시기라 했니?” “화자라?” 나는 일본 이름의 和子를 대야지 학교 적에 연결이 되는 줄로 알고, “이 화자”로 통하였다. 나는 이 학교가 초등학교로 알고 입학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교정 안에 초등학교와, 여자실업 중학교가 같이 위치한 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분이 女實의 사무실에서 산수와 일본 국어 시험을 보게 하여, 여실에 입학하게 했다.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서는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하니, 그분은 자랑하면서 이 애가 시험을 잘 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시냐고, 우리 부모님께 축하를 하게되어 생각도 없는 중학생이 됐다. 이 때부터 함흥 사투리와 액센트로 말하지 않으면 애들이 ‘만주 피란민’ 이라고 놀려댔다. 나는 열심히 함흥 말과 사투리를 배워서 ‘그랬지비’, ‘아이요’, ‘있습매’ 등을 자유롭게 쓰면서 한 겨울을 함흥에서 지냈다. 그 학교에서 기억나는 선생님들은 음악의 배 선생님과, 미술의 김홍수 선생님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데 후일에 그 김 화백이 내 남편이 다닌 함남 중학의 대 선배임을 알고 크게 놀랐다. 다음 해 삼월 어느 쌀쌀한 날에 우리 학교 쪽이 어수선했고, 공회당 쪽에

서는 총소리가 들려 왔다. “모든 학생들은 집으로 가라”는 교장 선생의 명령으로 집에 오니, 함남 중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반공 시위 운동이 있었다고 들었다.

함흥에서 사는 동안 정평이란 곳에 몇 번 다녀왔는데 그 곳은 우리 할머니의 고향이다. 『반룡』지를 읽는 중에, 우연히 상주(尙州)에 거주하시는 박철선(27회)선생이 쓰신 「미국 기행기」를 읽다가 나의 육촌 오빠(26회)와 이웃에서 친하게 지낸 분임을 읽고 당장 한국으로 전화로 문안드렸더니 한국에 오게되면 꼭 만나 보자고 하셔서, 2002년에 중국 여행에서, 한국에 와서 박 선생님을 방문하여 이틀이나 신세지고 왔다. 도문과 연변에서는 어려서 듣고 쓰던 함경북도 사투리에 향수를 느끼기도 했다.

함흥에서 우리는 평안남도의 陽德으로 이사했다. 그곳에 가니 학교에서 “네 이름이 무어가?” “내 이름은 이화자 임매.” 했더니, “네레 함경도 사투리가 심하구나 야!” “네레 언제 이곳에 왔네?” “은지 며칠 아이 됩니다.” 나의 말은 선생님과 애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노래를 피꼬리 같이 부른다고 귀여움도 받았고, 공부도 잘 하여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다. “양덕 맹산에 흐르는 물”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양덕은 온천지로 아름다운 산간 마을이었다. 이 곳에서 한 여름(5개월)을 살고 남한을 향해서 다시 이사하게 되었을 때는, 나도 제법 평안도 사투리와 액센트에 잘 적응되었는데 선생님께 하루는 “선상님 내래 곧 황해도 海州로 이사가게 되시오” 친구들에게는 “야! 너희와 헤어지게 돼서 내래 참 섭섭하다야!” 하니깐 “네 함경도 사투리는 다 어드랬겠네?” 하고 나를 놀렸다.

나는 황해도의 해주에 와서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정 여자 중학교에 가서 일 학년에 다시 입학하였다. “너 어데서 전학 왔니?” “나는 평남의 양덕에서 이사 왔시야” 하니깐 “야가 평안도에서 왔다는나 덩거당의 덩기 불이 번쩍 번쩍 한다디?” 하며, 놀린다. 나의 어머니가 황해도 분인데, 해주 사람은 께끼 소리를 말끝마다 한다고 하던 일이 생각되어, 나는

“해주에서는 까까를 한다지러?” “내가 언제 까까를 몇 번이나 합디까?” 라고 대꾸해 주기도 했다. 해주에서 6개월 살다가 38선을 넘어서 청단이란 시골 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

서울에서는 제삼 여중에 들어갔다. 서울에 와서는 이북 피난민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살면서 6·25를 당하고, 부산으로 피난가게 되니 이번에는 서울 폐란민이 되었다.

“보이소, 자야 지거 엄마예! 자야가 지금 다쳐서 울고 있소예.”

“무어락 하노? 와 우리 자야가 다쳤단 말이가?” “몰라 얘.” “계시이소.”

이렇게 부산에서의 피난 생활에서, 서울에 오니 나의 집에서 내 자신이 이영애가 된 것이다. 부산에서 사귄 친구들을 서울 거리에서 만나면 “나 왔나?” 하면, 친구들은 “나 왔다”하고 대답했다.

사람들의 언어로써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짐작하게 되는데 나는 서울에서 중학교와 고2까지는, 이북에서 온 아이로, 이북이 고향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니 반 부산 사람이 된 셈이다. 이제는 폐란민도, 경상도 가시네도 아닌, 나 자신이 구성되었고, 경상도 고향같고, 서울도 고향이고, 이북도 고향이 되었다.

서울대학 치과대학을 1956년에 나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Intern과 Resident를 끝내고, 결혼하여 29세에 미국에 치과 의사 연수를 받으려고 왔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을 때는 노경병 선생님이 미국에서 금방 귀국하여 인기있는 의사님이었고, 이때에 검사실에는 이삼열 선생님도 계셨다. 나중에 그분들도 내 남편의 선배로 알고, 함흥고보/함남중학이 어떤 학교이었나? 고 생각하여 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각도의 사투리와 억양을 짧은 시간에 익혀서 남들이 분간할 수 없게 배워 갔는데, 영어라는 혀가 꼬브라지는 언어는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교회에서, 미국 친구들과, 우리 애들과, 며느리들과

사위와 대화하고 살고 있는데도 영어보다는 일본어가,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를, 아직도 쉽게 구사하고 있으니, 비록 미국 시민이 되었으나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는 70세 고개에 오른 여인이다.

두 아들, 두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들을 얻게 되어,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다. 7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긴 여정인데 이제까지 여러 곳을 구경하고, 사는 동안 백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유일한 동양사람으로서, 10여 년을 함께 일하며 살기도 하였고, 흑인 마을에서 그들과 3개월 침식을 같이 하면서 살기도 하였고, 미국 원주민과 3년을 같이 일도 했다. Hawaii에서는 그곳 원주민과 한국 2~3세와도 함께 일하며, 살기도 했다. 나에게서는 그들이 다 같은 인간으로 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흑인들은 정이 많고 누구든지 마음에 들면 My family라고 하면서 친히 지낸다.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당당하게 평등과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60년대에서 21세기인 현재까지 나는 미국 안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가 있었음을 보아 왔다. 과거에는 도저히不可能했던 社會 制度가 可能하도록 변혁된 일들이 수다하다. 인종 차별에서 시작하여, 직업, 주택, 학교의 선택에도 平等과 正義가 具體化되고 있다. 우리 한국인은 흑인들에게 감사와 애민(愛戀)을 베풀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할 것이다. 흑인과 악수를 하면 자기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손수건으로 자기 손을 닦아내던 무식과 편견에서 깨어 나아한다. 우리 한국인은 Mexicans를 '멕작' 이라고, 흑인을 '깜둥이' 라고 천시하는 말은 피해야 한다.

나의 70년의 생애는 저 위에 계신 분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는 세월이었다. 나의 여생은 보다 보람이 있고, 즐거우며 남들과 平和를 누리는 나날이 되기를 염원한다.

민족의 얼을 지킨 여당(黎堂)

李 南 杓 (30回)

新正元日 일기 첫 장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嗚呼感激乙酉歲
亡國回運光復歲
民族相殘遺恨痕
尙未統一危亂歲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2

나는 함흥고보(咸興高普) 출신의 위대한 인물로서 여당(黎堂)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나의 뇌리에 가장 일찍이 각인된 인물이다. 함흥고보 동창회 명부에서 내가 보게된 그의 이름과 벨기 안트와프라고 적힌 주소는 10대의 나에게 신비스럽기만 한 조선 사람이었다. 나도 그와 같이 먼 나라에 응비하는 꿈을 가져 보자. 그러나 그것은 꿈속의 응지뿐이고 장쾌한 행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우유부단의 시절이 흥남공장 근로동원으로 이어지던 때에 김윤호(金潤鎬)가 중국으로 뛰쳐갔다는 소식을 듣고 철퇴로 얻어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함흥상공에 B-29 폭격기가 유유히 나르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지만 일

본군 고사포 사격권 밖이라는 말에 그 의문이 풀렸다. 일인 영어교사 쓰다(津田)가 Task Force 77을 첩관에 쓰고 기동부대라는 역어를 가르쳐 주었다. 초여름의 어느날 나는 아랫동네 선배 댁에 들러 미군 기동부대가 오기나와에 상륙하였다는 토막 기사가 실린 며칠이나 묵은 The Nippon Times를 읽었으며 미국에서 '이승만' 이 고국동포에게 보내는 격려의 방송을 단파방송으로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중한 함구령 경고를 받으면서 그 집을 나왔다. 나는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어 홍남공장에 다시 가지 않았다. 지난해 작고한 박영호(朴永鎬)와 생전에 어느 해 미국에서 만났을 때 잠시 왕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웃었다. 이야기인즉 내가 홍남공장 숙사에 밀반입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었다.

일제말기에 나온 六堂의 『故事通』 신간본과 이선근(李瑄根)의 『근세조선사』를 애지중지 어루만지며 열독하면서 나날을 보내던 때 일인 철학자 三木 清이 투옥되었다는 보도가 은밀하게 퍼졌는데 마침내 8월15일 일황 裕仁의 황복칙서를 읽는 라디오의 혼탁한 소리에 우리 모두가 만세를 외쳤다. 각설하고 김재원(金載元 1909~1990)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없는 겨레의 앞날이 칠혹같이 암울하던 20세 되던 때 함흥고보를 졸업한다. 그는 큰 포부를 안고 눈을 크게 떴다. 그리하여 그는 일본보다 더 먼 나라로 그리고 항일 정치사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음악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일본당국의 여권을 발급받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몸을 싣고 독일 유학의 길로 떠난다. 그는 독일에서 교육학과 고고학을 연찬하는 과정을 거쳐 1934년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40년까지 6년간 벨기에 안트와프에 체류한다.

中國 青銅器 연구로 저명한 학자 헨째교수를 도우면서 그의 본격적인 고고학(考古學) 연구 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며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정세가 긴박하여지는 때까지 이어간다. 그러다가 그는 일제치하의 그 암

올하던 시절에 실로 부급만리(負芟萬里)의 웅지를 품고 그가 고국을 떠난지 꼭 11년이 되던 1940년 5월 한국한다.

고향에서 얼마동안 지내다가 그는 서울에 와서 1941년 4월에 결혼하며 막바지로 치닫는 일인들의 압제에 숨이 막히는 일제 말기의 몇해동안 보성전문학교의 독일어 촉탁강사로 지내면서 일제의 창씨개명 강요를 끝내 거부한다. 광복후 미군정 치하에서 그는 36세의 나이에 국립박물관장으로 임명된다. 여당(黎堂) 김재원(金載元)은 1945년부터 1970년 퇴임하기까지 25년 간 줄곧 국립박물관장 직을 맡아 오면서 그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오로지 외곶으로만 파고들며 그의 천직(天職)을 지켰다. 그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고고학개척에 헌신하였으며 6.25동란 때 평양으로 노략당할 뻔 했던 국보급 문화재를 그는 포장지연책을 써가면서 기어코 수호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기골과 인품은 박물관 공터에 미 군정청 당국이 군인들을 수용하는 막사를 건립하려는 기도를 물리치고 때의 미 군정장관으로부터 견책장을 받은 일이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 비서실에서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관저 장식품으로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일화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黎堂의 이런 기개가 아니었다면 민족의 비극 1.4후퇴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보 5000년 문화재는 보호의 길이 막막하였거늘 그의 슬기와 기민한 조치로 거뜰히 그 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의 주도하에 1946년 해방후의 첫 발굴사업이 경주에서 실시되어 그 성과는 ‘壺子塚과 銀鈴塚’에 실려 출간되었다. 그 후로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발굴사업이 이어져 感恩寺址 발굴조사와 韓國支石墓연구 등의 업적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고대사 연구에 큰 충격을 안겨준 『단국신화의 연구』며 『한국미술사』와 그 밖의 많은 저술과 논문은 국내외의 관련 전문지에 널리 소개된 터이다. 그는 특히 1955년 이병도(李丙燾), 이상백(李相佰)과 더불어 위축상태에 빠진 우리나라 학계의 획기책을 위하여 문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그 시절에 자유중국의 석학 주가화(朱家驊), 동작빈(董作賓)과 부유(傅儒)를 서울에 초대하였다. 이때에 서울대학은 甲骨文의 고고학적 연구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殷歷譜』의 저자 동작빈에게 문학박사 학위를 그리고 주가화, 부유에게는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우리의 문화재가 처음으로 세계 나들이를 하는 韓國美術 5000年展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를 순방하면서 펼쳐진 것은 우리의 나라살림이 어려웠던 시절인 195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그런 시절에 우리 문화재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바로 알리는 사업을 펼치는 일은 黎堂 金載元과 같은 具眼者가 아니고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 자원이 없으며 황무지나 다름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황차 나라의 살림이 좀 퍼지자 넉넉한 정부예산 뒷받침을 얻어 시작한 광화문 사업의 전문성 결여를 보고 여당은 통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이씨왕조(李氏王朝) 500년의 영고성쇠의 자취를 담아온 서울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의 역사, 문화적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읍이다. 광화문은 서울의 영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적이기도 하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태조 4년에 세운 것이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며 대원군이 1864년에 복원하였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경복궁을 가리며 세운 조선총독부의 건물이 들어서자 광화문은 동쪽에 밀려났다. 그러다가 6.25동란 때 파괴된 것을 1968년에 다시 제자리에 복원하였다. 넉넉한 예산을 들여 복원하였다고 하지만 “광화문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누구 하나 말하는 이가 없다”고 여당은 탄식하였다는 것이다.

나는 어느 모임에서 회의의 진행과정에 개의치않고 담소하는 두 분의 老紳士에게 시선이 쏠렸다. 80년대 중엽의 일이다. 파안대소랄 것은 아니었지만 웃음이 큰 신사 黎堂을 보았다. 그때 그의 보청기는 망가진 상태

였다. 그의 웃음은 5000년 우리 문화재의 사랑을 듬뿍 담은 데서 오는 늘 환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의 주인공 함홍고보의 위대한 선배를 우러러 보는 경모의 정을 나는 오래 간직하고 있는 터이다. 그런데 이렇게 적고 보니 나의 10대 소년시절에 黎堂은 이미 모국에 돌아와 있었는데도 나는 마음속에 그를 먼 나라에 두고 동경하였던 것이다.

저 악랄한 金日成부자 치하의 북녘 땅에서 세계를 순방한 우리의 찬란한 5000년 문화재를 전시하며 黎堂의 공적을 되새기면서 모교 재건의 계획을 다듬어 본다함이 한낱 꿈이요 공담일까.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乙酉년 해방회갑은 또한 저 악명높은 유대인 학살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의 60주년임을 생각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다. 이 holocaust의 참극을 지나간 60년을 두고 유대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Never Again! 다시 이런 참극이 없기를 기도하며 그 참극의 실상을 수시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방영한다.

저 악랄한 金日成부자 치하의 북녘 땅에서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재연되고 있다. 300만 인민을 아사, 학살 지경에 몰아넣은 소행이 홀로코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나를 분격케하는 일은 이 대학살이 함경도에서 자행된다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민족참살의 역적 金正日도당에게 미화 2억불에 또 2억불을 퍼주는 金大中과 그 추종배들의 소행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민족정기가 살아있어 이놈들이 처단된다 하여도 우리는 앞으로 60년, 100년을 두고 Never Again! 기도하며 북녘땅에서 아사, 학살당한 우리 동포들이 겪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의 얼이 되는 5000년 문화재를 사랑하며 전란에서 이를 수호하여 그 精彩를 만방에 더욱 빛나게 하여준 黎堂의 업적은 참으로 크다. 그를 나는 함홍고보. 위대한 선배의 후광을 업고 이 글을 쓰게 되니 나의 영광이 이에서 더함이 없다고 자부하며 攔筆.

삶과 학문

53년 만에 찾아간 나의 고향, 북한 땅

元 炳 晔 (30回)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려야 했던가! 하루하루가 무려 52년 하고도 6개월, 햇수로 5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다. 집을 떠나 공부하던 대학 학창시절. 한 달만 집을 떠나있어도 뻔질나게 집으로 가는 어린애 같던 나는 단 하루도 내 고향과 부모님을 잊은 적이 없다. 일본과 캐나다 까지 찾아가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뵙고 간청도 해보았다. 가능성이 크니 한 번 만나보라고 주변에서 권해주었던 분들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 중인 KBS 팀으로부터 금강산에 함께 가자는 청을 받아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게 되었다. 혹시나 입북도 못하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며 북한의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가는 순간, 김일성대학 출신이라는 한 젊은 관리관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변절자시군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어떨결에, “나는 변절자가 아니오. 낙오자일 뿐이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나 마음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생각뿐이었다. 학술교류를 상의하기 위해 금강산을 두 번째로 찾아간 지난 해에는, 우연한 기회에 나를 ‘변절자’라 불렀던 바로 그분과 금강산호텔에서 술 한잔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나의 첫 방북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 기억 나는 이로는 나의 모교, 원산농대 수산과를 졸업한 대학 후배이다. 만물상 부근에서 관광객을 감시하

던 초소의 한 사람이 엉뚱한 신고를 한 일이 있었다. 느닷없이 그곳 책임자라는 사람이 달려와 나에게 다그치는 것이었다. ‘가슴에 마이크를 달고 만물상을 향해 대북방송을 했다’는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보시오, 내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아시오. 나는 남과 북 모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조류학자 아무개요.” 그는 곧 나를 알아 보았다. 또한 그는 말하자면 대학 후배이기도 한다. 원산 수산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중앙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갑자기 명을 받아 가족은 평양에 둔 채 그곳에 근무한다고 했다.

그렇게 기다렸던 방북이었지만 관광 목적으로 개방된 금강산을 방문했던 여행은 고향 방문이라는 내 평생 소원을 더 간절하게 느끼도록 할 뿐이었다. 나는 다시 일본과 캐나다에 거주하며 북한 왕래를 하는 인사들을 통해 방북교섭을 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나를 ‘도망자’로 취급하여 ‘입국 불가자’로 낙인 찍은 듯했다.

그런데 한동안 단념하고 있는 나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 “선생님은 꼭 한 번 방북하셔서 성묘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방북하게 되면 김영남 선생에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한 분은 다름아닌 동독 동베를린의 훔볼트(Humboldt) 대학 출신의 ‘홀마 브로홀로스(Holmer Brochlos)’ 박사였다. 대학 재학시 북한에 유학하여 김일성 대학에서 3년간 조선어문학을 공부한 후 귀향하여 자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40대 중반의 젊은 학자인 그는, 십여 년 전부터 방한하여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근래에는 외국어대학 독문과의 교환교수로 2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동안 가끔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특히 통일 독일 전에는 그분의 동독 자택에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분이 있는 분이기도 했다. 처음 나를 찾아왔던 10여 년 전 그는 대뜸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을 재북시에 들어 익히 알고 있다고 하시며

큰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었다. 그의 부인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일본사를 전공하여 일본 유학 뒤 현재 훔볼트대학 도서관의 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학 졸업반인 딸 하나를 슬하에 두고 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얼마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여러 각도에서 제안의 현실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일개 통역사로 독일 대표단을 수행하는 일원에 불과한 분이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는가도 물었고, 일이 잘못되어 수행자격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던 어느날 나에게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바로 한 달 전 독일 조류학회지의 마지막 난에 기재되었던 작고한 저명 조류학자들의 인물탐구가 생각난 것이다. 독일 조류학회지(99 : 49 - 70, 2002)에 선친과 나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에서 서독으로 망명한 본(Bonn)의 조류학자 노와크(E. Nowak)박사에 의해 소개된 글이었다. 남북으로 분단된 후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남긴 부자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한 내용이었다. 이것을 해마다 방북하는, 독일의 하원 국회의원이며 한독국회의회 친선협회장인 하트머트 코슈크(Hartmut Koschyk)에게 보여드리고 내가 쓴 편지를 북한의 국방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나와 브로홀로스 박사는 이를 곧 실행에 옮겼고,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팩스로 회신이 왔다. 방북 일정과 행선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의 일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곧 회신을 보냈고 베이징을 경유, 입국하기로 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의 허가도 받았다. 어디서 알았는지 나의 방북소식을 물어오는 몇몇 일간지 기자들에게도 비밀로 하였으나, 모든 수속이 끝난 후에는 외국인들도 알수 있도록 영자신문인 코리아 헤럴드 기자에게만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물론 내가 출국한 이후에는 각 신문에서 그 사실을 기사화했지만, 나로서는 조심에 조심을 하

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출발에 앞서 가족들과 일부 친지들이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했다. 안전은 물론이고 많은 다른 학술사업 추진계획도 성사시킬 수 있으리라고 또한 반 백년을 기다려온 소원을 이루는데 무슨 근심이 방해가 되었겠는가. 당시 방북을 준비하던 나의 마음은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진할 많은 학술사업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북한을 다녀온 지금도 당시 내가 세웠던 학술사업, 즉 나의 모교 김일성 대학(생물학부)과 원산 농업대학(농업생물학부와 경제식물학부 등)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할 것과 학술교류 협약서에 합의한 평양의 과학원 동물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답사 등의 학술사업도 하나씩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북한을 대표하여 나를 맞아준 책임자는 북한의 민족화합협의회 김영대 회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회민주당수)이며, 방문 동안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생물학 강좌장 겸 조선동물학회 위원장 박일종, 원산농업대학 과학부 학장 김우범 교수, 경제식물학부 박제은 교수, 그리고 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이수영 소장 등 여러 분이 친절히 맞이해 안내해 주셨다.

북한에 14박 15일간 체류하는 동안(2002. 6. 22~7. 6) 참으로 많은 곳을 둘러보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방문 7일째 되던 6월 28일에는 조류관찰을 위해 방문한 대성산에서 김일성 대학 3년생 식물학(분류학) 실습 중인 학생 일행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고, 26일과 30일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원산농대를 방문하여 교사를 둘러볼 기회도 가졌다. 떠나기 이틀 전 7월 4일에 방문한 평양의 동물원에 갔을 때에는 3개월 된 호랑이 새끼를 사육사 박으로 내보내주어 한참동안 직접 관찰해 보는 시간도 가졌고, 김일성대학,

동물학연구소 및 제1고등중학교 등지에서는 호랑이, 크낙새, 시라소니, 표범 등의 표본들을 자세히 보기도 했다. 그곳에서 선친이 가장 아끼시던 표본이라며 백두산 특산조류인 멧닭 한 쌍을 선물로 주었을 때에는 참으로 감격스럽기까지 했다(현재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방북 기간 동안 둘러본 곳

방북 기간 중 내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단연 김일성종합대학 자연사박물관이었고, 그 다음으로 인민대학습당, 평양 제일고등중학교, 원산 농업대학, 용문대굴, 그리고 백두산과 묘향산 등이었다. 이외에도 동물원의 희귀종, 백두산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여러 마리의 멧황새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 동물 표본실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 제일고등중학교에 전시된 박제 표본들은 진열장에 잘 관리되어 있어 영구보존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지금은 상황이 하락하지 않지만 장래에는 그곳을 방문하게 될 남한의 많은 후학들과 일반인에게도 소중한 자료로 그곳에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호랑이와 크낙새 등 희귀한 종의 표본수가 의외로 적지않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방의 장백산(백두산 후사면)에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마리의 생존 호랑이도 확인된 바 없다. 북한에서도 동물학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같은 실정인 듯하다. 그곳 사냥꾼이 한 두 번 발자국을 보았다는 정도의 불확실한 증거이외에는 생존 호랑이에 대한 다른 어떤 학술적 보고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전후에 잡아 표본한 호랑이가 45마리나 되니 살아남은 호랑이가 있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포획이 염려된 나는 더 이상 상납식 포획은 엄금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호랑이 외에도 나는 크

낙새 잔존 여부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였다. 번식지 탐방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에 없었던 평북 구장의 용문대굴, 그리고 크낙새 번식지 근처인 황해북도 정방산과 성불사를 방문할 수 있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쁜 시간들을 가지기도 했고, 또 평양 시내의 대성산, 만수대와 을밀대 등지에서는 적지 않은 산새들, 특히 서울에서는 자취를 감춘 북방쇠씨르레기가 드물지 않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가 소란스러울 정도였으니,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지경이었다. 또한 정방산 성불사 주변에서는 자유롭게 노닐고 있는 꿩을 볼 수 있었고, 서해갑문 기념관 주변에서는 요란스럽게 지저귀는 개개비류와 박새류, 직박구리 등 많은 소형 조류를 접할 수 있었다.

방북기간 동안 머물렀던 평양의 고려호텔은 훌륭했다. 건물은 물론 내부시설과 식사 등 모든 것이 일급호텔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대학의 건물들도 깨끗하고 잘 관리된 상태이긴 했으나, 여전히 남한의 그것들과 비교할 정도는 못 되었다. 남포의 방조제는 그 규모나 기능에 있어서 북한이 자랑할 만한 대공사인 것이 사실이었으나, 그 역시 우리의 아산만이나 낙동강 하구언, 혹은 호남의 영산강 등지에 건설된 방조제에 비할 바는 못 되었다.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건설된,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땀과 노력이 엿보이긴 하지만, 역시 부족한 자원과 장비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새로 발굴한 평북구장 부근의 용문대굴이나 묘향산 및 그곳 기념관, 선물관 2개 동 등은 수준급의 건물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빈틈없는 관리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는 빼어난 볼거리였다. 특히, 쓰레기는 물론 떨어진 휴지 한 장 없는 깨끗한 묘향산과 백두산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여져가는 우리의 산천을 생각나게 했고, 나의 부러움을 자아

내기도 했다. 그 곳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하루에 두서너 번씩 현지 관리인이 산 정상까지 오르며 정검하고 관리한다니 참으로 각별한 공을 들인 결실이 아닌가 싶다. 또한 용문대굴에서 만난 안내자의 성의와 친절이 기억에 남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결하면서도 사진까지 곁들인 훌륭한 안내서에 그곳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일화나 선전문구만 있을 뿐 중유동굴인 용문대굴의 형성과정이나 지질학적가치 등의 정보가 빠져있는 것이었다. ‘주객이 전도 되었다’는 나의 빼있는 한 마디가 그들에게는 몹시 못마땅 했음직도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기에 그들이 그러한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기회는 가지지 못했다.

이번 방문기간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방문지는 조카들이 살고있는 평양의 아파트였다. 방문인들의 숙소에 한정된 제한된 만남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할 기회를 가지도록 한 것은 참으로 큰 배려가 아닐 수 없기에 그 감회는 더욱 각별했다. 조카들이 사는 아파트는 거실과 부엌, 화장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오래 되었기는 하나 전후 지어진 평양의 대표적인 아파트 중 하나로서, 남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건물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만난 조카들은 평양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깨끗하게 빨아 입은 교복차림의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옛보이던 활기찬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텔을 드나드는 혜택 받은 이들에게서 보이는 윤택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조카 내외들과 그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한 상 가득 나를 위해 준비해 준 정성스런 음식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지난 이야기들은 반가움보다는 서글픔을,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을 더 많이 남긴 기억이 되었고, 하루 속히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마음껏 북한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욕심 같아서는 북한의 조카와 가족들에게 매달 쌀 한 가마니씩이라도 보내 주고픈 마음

이 절실하게 들었고, 지금도 혼자서 가끔 입버릇처럼 그 말을 하곤 한다.

평양 시내 중심가에서는 제비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차량 통행이 적은데다 인구도 많지 않은 까닭이다. 평양의 변두리는 숲이 우거져 있고, 아침 청소도 철저하여 깨끗한 거리일 수밖에 없다. 모란봉 공원과 혁명열사릉 주변의 숲에는 파랑새, 피꼬리, 직박구리, 찌르레기, 박새류 등 산림 조류가 겁 없이 날아다니며 울음소리를 들려 준다. 그러나 동물원에는 군데군데 잡초가 무성하여 그 유명했던 옛 동물원의 모습은 아닌 듯했다. 동물학 연구소에는 출입문이나 내부의 어떤 곳에서도 간판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보안 유지 때문인 듯 했다. 왜 간판이 없냐는 나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걸 보면 그러한 심증이 더욱 굳어진다. 건물 밖에 나와 우연히 바라본 건물 2층의 열린 창문 사이에 남녀 직원들이 보였으나 곧 숨어버렸다. 내가 누군지는 들었을 텐데 그들과 대화도 해보고 방들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안내하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 그곳의 건물들은 대체로 허름하고 낡아 보였다. 표본실도 그랬고 그 외의 건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식물원에서는 경작지에서 연구 중인 보리수 나무와 살구 나무 등 여러 종의 식물열매와 과실을 시식할 수 있었고, 식물학 연구소의 호의로 마련해 준 백두산 특산 자생식물 2종, 관모봉 만능 인가목(*Rosa suavis* var. *polyphylla* Nakai)과 장군풀(*Rheum coreanum* Nakai) 등 백두산 관모봉의 특산식물 표본들을 호텔로 가져와 촬영하여 귀국 후 이를 부탁하셨던 식물분류학자 이영로 선생님께 전하기도 했다.

• 백두산 지역

중국의 이도백하진(二道白何鎮)을 경유하여 여러 차례 정상까지 등정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도로 건설이 한창이던 80년대와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친 90년대의 장백산과 달리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통해 백두산 자연 생태계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삼지연 비행장 주변에는 노랑때 까치가 번식 중이었고, 노랑눈썹솔새는 요란스럽게 이깔나무 숲 속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비행장에서 38km 거리의 정상까지 사이에는 바위종다리가 눈에 띄었고 정상에서는 하늘을 선회하는 칼새가 주종을 이룬다. 삼지연 호텔 앞마당에는 번식기간 중인 것 같아 보이는 긴꼬리홍양진이 수컷 한 마리와 노랑눈썹솔새가 관목덤불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 탐사하고 싶은 백두산 고준지대, 삼지연 일대에서 백두산 정상까지는 최소 10일 정도는 머물며 둘러보아야 간단한 조사와 관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비행장에서 22km~28km(신무성)에는 들쭉나무와 분비나무가 무성하며 포고 1600에서 2000m 구간과 2100m 높이에 바위에 앉은 바위종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2750m의 장군봉과 2,712m의 향도봉, 그리고 정상의 천지까지 단숨에 달려가 본 경관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천지의 둘레는 14.4km, 면적 9,15km², 물의 양은 195,500만 톤, 깊이는 384m(평균 213.3m), 온천수의 온도는 73도라는 설명에 이어, 한 때 괴물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실은 불곰(큰곰)이 천지를 헤엄쳐 횡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귀로의 백두산에서 평양까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고준지대와 산악지대는 우리 남한과 마찬가지로 우거진 숲이 울창하다. 남한에서처럼 연료를 가스로 대체하지 못한 북한의 평지가, 지난 날의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량을 위한 개간과 연료 충당으로 벌거벗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생태계 보존이 이루어진 모습이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생태계를 평하여 남과 북에서 부자(父子)가 노력한 결과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일본 조류학계의 태두 쿠로다 나가히사(黒田長久) 박사의 글이 기억에 새롭다. 나는 남한에서 1966년 이래 30년 동안 문화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류와 포유류 등 40여 건의 종과 서식지 및 보호구 등 보호해

야 할 종과 서식, 번식 도래지 및 월동지 등 거의 대부분의 법적 규제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선천에서 수상의 지원을 받으며 필요한 종이나 서식, 번식 및 도래지 등 천연기념물과 보호구를 지정,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서도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밀렵을 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 원산 농업대학

내가 졸업한 1950년까지 교원 50~60명 미만, 직원 100여 명, 학생 300~400명의 규모에 불과했던 원산 농업대학은 이제 10개 학부 22개 학과, 34강좌와 실험실에 100ha의 실험농장, 6ha의 온실, 그리고 140ha의 시험림 등을 갖추고, 학위 소지자도 무려 200배로 늘어났지만, 한 학과 한 학년의 학생수는 20여 명 내외에 불과하여 나의 학창 시절과 같은 규모를 갖고 있었다. 전국의 각 지방으로 독립되어 설립된 단과대학은 5개 정도라 하는데, 강계 수의·축산대학, 평양 농업대학, 혜산 임업대학, 평양 수리대학 등이 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200km 남짓한 거리로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또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는 106km이고, 평양에서 원산까지의 고속도로에서는 곳곳에 10여 마리 내외의 양(양) 비둘기가 도로 위에 앉아 있다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마무리 지어야 할 내 생애의 마지막 연구 과제를 위해 자주 출판사에 드나들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나의 두 가지 저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 하나는 『한국의 포유동물』, 다른 하나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이론과 현장 탐사를 정리한 『야생동물 보호관리, 특히 조류를 중심으로』이다. 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마무리 지어 종합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포유류를 집대성하면서 총괄 정리한 저서이다. 또한 오랜 연구와 탐사 끝에 그 결과를 모아 집필한 윤명희(尹明熙) 교수(부산 경성대)의 박쥐류(익수목)과, 한상훈(韓尙

勳) 박사(지리산 국립공원 곰 관리팀장)의 토끼류, 설치류 및 식충류(목) 등의 분류군을 다룬 내역들과 바다짐승류(기각아목), 고래류(목)을 종합한 김장근(金場根) 박사(수산진흥원) 및 식육목과 소(유제)목을 다룬 오흥식(吳興植) 박사의 집필을 포함하는 방대한 역작이기도 하며, 올 3월에 간행 되었다. 두 번째 단행본은 조류의 보호와 관리를 중심으로, 전문가에서부터, 일반인과 학생, 교사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연 생태계의 관리와 보호에 관련된 기본 개념과 실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리한 교과서 같은 책으로서 7월에 출간하였다.

그밖에도 평생의 연구를 정리하는 저서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 중의 저서로 『한국의 조류』가 있다. 『한국의 조류』는 한국에 서식하는 조류를 집대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자료로 쓰일 그림들이 2005 중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전에도 비슷한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항상 만족스럽지 못했었는데, 이제 비로서 수준급의 그림을 갖춘 전문서적으로 출판될 전망이어서 몹시 기쁜 마음으로 그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으나 꼭 하려고 마음먹은 다른 저서로 「세계 조류 분포 목록」과 「세계 포유류 분포 목록」이 있는데, 이들 저서는 한명, 영명, 일명, 중명, 노(러시아)명과 함께 학명으로 종합된 안내서이다. 이러한 종류의 저서는 아직 한국명으로 된 단행본이 없을 뿐더러, 러시아, 일본 및 중국에서는 이미 간행되어 있어 늘 마음에 걸렸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잡지사에서 수시로 외국산 조류명을 문의해 올때 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동물(명칭) 목록이다. 물론 이들의 집필을 완성하려면 3, 4년은 족히 걸릴 터이지만, 아직도 자타가 인정하는 내 건강 덕분에 수년 내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또한 앞으로 북한의 모교에서 강의할 날을 대비해 그 내용을 종합하여 편집한 저서를 준비 중이다. 「야생동물 보호관리(학)」이 그것인데, 기회가 닿는다면 곁들여서 「동물계통분류학」

의 원리와 실제도 강의할 생각이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저서는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아직 입문서 조차 나와 있지 못하다. 영어권에는 적지 않은 관련서적이 출판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이론과 실재를 종합하여 경험과 신념에 바탕을 둔 우리만의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여름에는 두 달 남짓한 여정으로 미국과 영국의 야생동물 보호관리의 중앙부서, 훈련기관과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의 전문가들의 브리핑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탓에 예전보다 쉬이 피로를 느끼기도 했지만, 평생을 전국 방방곡곡, 나아가 세계 각 곳을 돌아다닌 탓에 이제는 어떤 곳에 가서도 시간낭비 없이 내가 하려는 일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많은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이제는 국제 학회와 기타 국제적 교류를 통해 꽤 알려진 탓에 어느 나라에서나 나를 알아봐 주는 학자들과 관련 인사들이 도움을 준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생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살아온 내 자신을 새삼 돌이켜 본다. 남한으로 피난해 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군 생활도 마찬가지였다. 제대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하여 박사학위를 수령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모두 나름의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해 옮기려는 내 노력의 결과였다. 운이 따랐던 일도 있었고,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 고마운 분들도 있었지만, 인생이란 믿는 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고, 실천하는 노력 없이는 진전이 있을 수 없따는 게 내 생각이다. 때로 계획보다 늦어지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배가한 분발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원하는 것도 목적인 바도 없는 인생은 허수아비와 같은 삶일 뿐이다. 돌아 보건데,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 보잘것 없는 내 개인의 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도록 해준 것은 다만 야난 계획과 그에 대한 희망, 그리고 땀 흘려 가꾸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가는 고희의 나이를 훨씬 넘긴 이 순간에도

나는 계획 세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할 일도 아직 태산 같다. 심신이 허락하는 한 나의 생활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통일된 나라에서 나의 연구결과 등이 출간되고 읽혀진다면 더 바랄 나위 없으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그 날이 오면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의 생태계 보호와 관리에 대해 젊은 후학들과 토론하며 나날을 보내고 싶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닌가.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할 일을 계획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학문의 길을 돌아보며

미래의 계획을 구상하기 전 다시 한 번 지나온 나의 길을 더듬어 보기 위해 그간 여기 저기 나름대로 발표했던 나의 발자취를 여기에 옮겨본다.

나는 1963년 이래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철새를 조사해오며 그동안 1백 35종의 철새 약 20만 마리의 발목에 가락지를 끼워 날려보냈다. 그 가운데에는 러시아 북한 등 공산지역과 타이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여러 나라에서 나의 가락지가 달린 새가 잡혔다는 보고를 받았다. 북한에도 적지 않은 수의 새가 날아 들어갔다. 한편 서울 태릉의 배밭에서 '평양'이라고 새겨져 있는 알루미늄가락지가 달린 제비가 여러 마리 잡힌 적도 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조류가락지 달기 관계기관에 보고되고 서로간에 정보가 교환된다.

자연의 법칙대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규칙적인 생활을 알자는 것이다.

1963년 6월 6일 가락지를 달아 준 3종 99마리 중에는 여름철새인 북방쇠씨르레기가 82마리나 되었다. 북방쇠씨르레기는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동북지방(만주), 아무르 우수리지역 몽고북부 등지에서 번식하고 월동을 위해 중국 본토를 거쳐 중국 남부해안지방, 인도지나반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로 남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적은 수가 발견되었을 뿐 남한 땅은 물론 앞서 말한 지역 이외에서는 발견된 일이 없었다. 다만 서울에서 북방쇠찌르레기가 번식한다는 사실을 1957년 내가 처음으로 발견, 학계에 보고한 일이 있다.

1965년 여름, 나는 일본 동경에 있는 국제조류보호회의(현재 국제조류보호연맹) 아시아지역본부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다. 여름철새인 북방쇠찌르레기에 「농림성(農林省) JAPAN C7655」라는 일제 알루미늄표지가 락지를 달아 날려보낸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확인, 국제양식에 맞춰 동경으로 회신했다. 동경으로 회신한 지 얼마 후 다시 편지가 왔다. 내 이름을 한자로 알려 달라는 요청과 함께 북한과학원 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북방쇠찌르레기에 표지가락지를 달아준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본부의 일본학자들은 3년 전에 그 표지가락지를 서울의 본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하고 나에게 사실여부를 문의한 뒤 이를 북한측에 알려주자 다시 북한측에서 '원병오'란 이름을 한자로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면 15년 전 전쟁 중에 헤어진 아버지 밖에 없다. 아버지 말고 북한에서 누가 나를 찾는단 말인가.”

나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복녘하늘을 바라보았다. “문의해 온 사람은 틀림없이 아버지다. 아, 아버지가 살아 계셨구나.”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그 무렵 아버지(元洪九)는 북한과학원 생물학 연구소 소장이었다.

평양 만수대에서 잡힌 북방쇠찌르레기는 아버지에게 전해졌고 동경측 답신으로 새를 날려보낸 사람이 남한의 '원병오'로 밝혀지자 아버지는 15년전 헤어진 아들이 아닐까 해서 이름을 조회했던 것이다.

북방쇠뜨레기가 인연이 되어 헤어진 아버지의 소식을 접한 지 어언 37년이 흘렀다. 나에게 조류학의 기초를 닦아준 아버지는 1970년 10월 3일 83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새들도 자유롭게 오고가는 지척의 거리에서 끝내 생전에 만나 뵙지 못한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막내아들인 내 이름만 불렀다고 한다. 그리움으로 목이 메인다.

나는 아버지가 개성 송도고보에 12년째 근무하던 1929년에 태어났다. 이듬해 봄 평안남도 안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안주에서 소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다시 함경남도 함흥으로 가서 살다가 중학 3학년 때 8·15 해방을 맞았다. 그 뒤 평남 덕천과 강서를 거쳐 1947년 평양 김일성 대학 농학부에 입학할 때까지 다섯 차례나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하며 유·소년 시절을 보냈다.

6·25가 일어나던 1950년 북한의 교육정책에 따라 3년간이란 방학도 없애버린 단축수업으로 그해 7월 18일 제2회로 졸업했다.

1940년대에 5년 동안 살았던 함흥은 기름진 쌀, 펄펄 튀는 생선, 먹음직한 과일 등이 풍부한 도시였다. 늦가를 토요일 오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3인승 오토바이를 타고 함흥시를 벗어나 해변 쪽으로 기러기 사냥을 가곤 했다. 오후 5시가 조금 지나면 기러기 떼가 머리위를 지나가기 시작하고 6시쯤 되면 기러기 떼는 직선이나 브이자형으로 수없이 지나간다. 한 두 시간동안 연속 총소리가 나면 으레 5~6마리는 떨어졌다.

겨울에는 열차 편으로 함흥 남쪽에 있는 왕장에도 갔다. 밤차로 돌아올 때에는 20~30마리의 꿩과 한 두 마리의 산토끼가 손안에 있었다. 함흥 교외 오로리에 가면 꿩 외에도 고산조류인 들꿩이나 잣가마귀도 잡혔다. 정평저수지에는 수백 마리의 고니떼가 내려앉고는 했다.

유년시절에는 주로 곤충채집에 열중했고, 소년시절에는 공기총과 새그물로 새를 잡았다. 소학교 때 '나비도감'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 나비 이름은 거의 통달했었다. 조류의 경우에도 '원색도감'을 늘 들여다 봐 둔

터여서 새의 이름을 1백 50여 종 정도는 알고 있었다.

8·15후 평남 강서에서도 한 해를 보냈다. 1946년 2월쯤 중산부근에서 처음으로 본 수백 마리의 두루미떼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1946년 봄 평양으로 온 뒤에는 장거리여행을 통해 조류채집에 열을 올렸다. 사리원에서 쇠물닭과 진귀한 금눈쇠올빼미를 처음으로 채집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유·소년시절에는 여러 차례 옮겨 다니며 살았지만 그 뒤 반세기 동안 을 서울에서 살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서울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나는 부모 곁을 떠나 본 적이 별로 없었다. 대학의 교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짧은 시간 집을 떠나 옮겨 다닌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잠시라도 부모 곁을 떠나 있을 땐 특별한 일도 없이 뻘질나게 집을 찾곤 했다. 아버지는 “무엇하러 그렇게 자주 집에 오느냐?”고 꾸짖으셨지만 어머니는 막내라고 아버지 몰래 간직했던 돈을 슬며시 건네주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1970년 10월 3일이다. 일본 조류학자 우다가와 다츠오 박사의 전보로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들은 나는 곧바로 큰 형님댁으로 달려가 북쪽을 향해 절하며 엎드려 울었다.

월남한 지 어언 54년, 그동안 이산가족 어느 누구든 눈물로 지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마는 나의 어머님도 타계하실 때까지 줄곧 눈물과 함께 막내둥이의 애기로 일관하셨으리라 짐작된다.

해방 후 우리 집은 한 때 그네들이 말하는 친일파 집안으로 몰렸었다. 논과 산 그리고 땅마지기 등 아버님이 평생을 근검절약하여 모으신 부동산 일체를 몰수당한 채,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었다.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던 소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때문이었다.

나는 1978년 모스크바를 거쳐 터크맨 공화국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회의에 갔을 때 어머님의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70년 10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년 후, 1972년 5월 7일 79세로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북한의 대표가 전해주었다. 저승으로 가신 지 6년 만에 알게 된 것이다. 인자하시던 옛 어머니의 환영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동안 편지 한 장 교환하지 못한 나로서는 어머니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한 민족, 한 가족이 어찌하여 서로 만나지도 말아야만 한단 말인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짓밟히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상처를 되새겨 본다.

철부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이루헤야할 수 있으리마는 이제 내 나이 고회를 넘고 보니 그 사랑 비로소 알 것도 같다.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못한 이 불효자를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셨다는 것을, 어머니 곁을 떠난 이제야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내가 찾아뵙고 싶은 부모는 안 계신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었던 부모자식간인데 어찌 만나지도 못하고 새 발가락에 낀 가락지를 어루만지며 안타까움을 달래야만 했을까. 가고픈 고향, 가족을 그리며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가.

나는 1950년 12월 4일 평양을 떠나 남하, 15일 서울에 도착한 뒤 20일 옛 서울대 상대 자리에서 있었던 지원병 모집에 응모하여 이등병으로 입대했다. 3개월 간의 사병생활 뒤 1951년 4월 1일 간부후보생으로 동래의 보병학교에 입학, 다시 3개월 간 고된 훈련을 받았다. 교육도중 특과모집이 있다가 포병으로 바뀌 나머지 3개월간은 진해에서 지냈다. 정의감과 책임감을 키워 준 것도 군생활이었고 무슨 일이든 박력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정신적 바탕을 마련해 준것도 군이었다.

‘새’와 함께 살아온 70평생.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나는 ‘한국자연보존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 육 여사께 대통령내외분을 모시고 식사라도 나누며 이야기 할 수 있게 주선했다

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다는 육 여사의 약속을 받고 나는 회원들과 함께 기금요청액을 의논했다. 최소 2억원 정도는 있어야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펴 나갈 수 있지만 우선 5천만원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은 우리 일행 29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환대해 줬고 우리 의견을 경청했다. 나는 기금 1억원을 보조해 주면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자연보호는 곧 나라사랑이지요.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니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오.”

박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고 얼마 후 육 여사를 통해 먼저 1천만원을 보내준 뒤 1975년 국고 1억원의 보조금을 산림청을 통해 보내줬다. 이 사실은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 모두 보도되었다.

2년 뒤인 1977년 다시 박대통령을 만나 1억원의 이자만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고충을 말씀드리고 다시 1억원을 더 받았다.

박대통령의 배려로 ‘한국자연보존연구회’(한국자연보존협회)는 목적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 4회 펴내는 정간지 ‘자연보존’은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고 매년 학술답사 연구사업 강연회 복원사업 등을 계속 펴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도 해마다 일정액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학술조사보고서 42권 427편의 논문, 자연보존연구보고서 21권, 1백 8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9명의 회원은 1,347명으로 늘어났다.(2002. 1. 10 현재)

‘한국자연보존협회’가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박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배려가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자연보호운동은 즉흥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보호는 더 늦기 전에 중, 장기적인 계획하에 서둘

어야 할 일이고 한두 사람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 낼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생애에서 나를 도와주며 이끌어 준 많은 훌륭한 분들과 접할 수 있었음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

내가 조류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기까지는 일본학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제대하고 얻은 첫 직장인 임업시험장에서는 의욕만 앞섰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생각다 못해 가까운 일본의 생물학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부터 한국의 새와 짐승의 분류와 생태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계문헌이 전무할뿐더러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능하면 문헌도 우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후 회신이 오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연구논문과 심지어 고가의 단행본까지 우송해왔다. 생면부지의 학자들이 나의 편지를 받아보고 친절하게 격려의 편지까지 곁들여 응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학자들이 야마시나, 구로다, 도쿠다 등 일본조류, 동물학계의 태두들이다. 이 분들은 내 학문의 스승이었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자 후원자이기도 했다.

‘무조건 열심히 채집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이라고 짙막하게 연구 방법을 알려주던 구로다 박사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던 나는 지금도 그 당시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세분의 명복을 빈다.

많은 학자들의 도움과 희생적인 지도로 나는 1960년 12월 「산림보호상으로 본 한국의 조수류상에 관한 연구」란 학위청구 논문이 북해도대학 농학부 전체 교수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다.

이미 고인이 된 도쿠다 박사에게 물심양면으로 끼친 폐는 내가 평생을 갚아도 모두 갚을 길이 없다. 그는 항상 “사회적인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했다. 도쿠다 선생께서는 1973년 1월 29일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 학회에서는 도쿠다 미토시 박사 추도 기념호(포유류 과학 제32호)를 간행했다. 그 분의 학덕을 중심으로 숭앙하며, 또 자식들도 마다하시고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노령의 사모님께 간단한 선물과 함께 나의 소식을 전했다니, 지난날을 회상하는 회신까지 주신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린다.

박사학위를 받은 뒤 나는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전임 강사가 되었고 5년간 일해 왔던 임업시험장 근무를 마감했다.

1962년 6월, 뉴욕에서 열린 제13차 국제조류연맹보호회의 및 코넬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조류학회에 참석한 뒤 나는 7월부터 예일대학 피바디 자연사박물관장 리플레이 교수 밑에서 의무나 부담없이 공부를 시작했다.

나에게 학문의 기초를 닦아준 것이 일본학자들이었다면 학문의 세계를 넓혀 준 것은 미국학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회의에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쿨리지 박사(쿨리지 대통령가문)는 1960년 홍콩시험장 조수연구실을 둘러본 뒤 “무(無)에서 시작하여 이만큼 모았다니 대단한 일이다”면서 나를 격려해 줬고 그 당시로는 무척 어렵던 해외여행을 알선해 주고 여비까지 대줬던 분이다. 우리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던 쿨리지 박사를 생전에 다시 초청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1960년의 첫 해외여행 뒤 지금까지 나는 40년간 40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했다. 어느 여행도 새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새가 나를 따라 다닌 것인지, 내가 새를 따라 다닌 것인지 모르겠다.

그 동안의 해외여행,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1960년에 우리나라를 국제조류보호회의(연맹)에 가입시켰고 스위스에서의 국제자연보호연맹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자연보호협회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인적으로는 89년 4월부터 국제조류보호회의(연맹) 아시아 지역 회

장이라는 과분한 자리를 맡기도 했다.

제대하고 홍릉의 임업시험장에서 일할 때, 고대 교수이던 분의 중매로 아내와 만나게 되었다. 둘다 이북에서 내려왔다는 점에서 우선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다.

내 고향은 평안도로 아내의 고향은 함경도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남한 식으로 말한다면 호남과 영남처럼 말씨도 풍습도 다르고 사이 또한 좋지 않다. 서로 함경도니 평안도니 해가며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 간도 사람들이 많아선지 함경도가 더 억척스러운 편이다. 그런데 아내와 나는 정 반대다. 나는 외향적이고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편인데, 아내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다.

서로 성격이 달라선지, 1957년에 결혼해 딸 둘, 아들 하나를 두는 동안 꽤 순탄하게 살아 온 편이다. '서로 감싸주고 존경하면서 살자'는 마음을 서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무던한 아내의 성품에 더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함흥사법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몇달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내는 내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나는 학자로서 연구비를 꽤 많이 탄 편이다. 연구는 내가 했지만, 통장을 따로 만들어 고스란히 연구에 쏟아 부을 수 있게 한 것은 아내의 덕이다. 학자로서 돌아보아 살아 온 행적에 그릇됨 없어서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고향에 찾아가 보고 싶은 소원 하나를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한 것에도 아내의 공이 큼을 잊지 않는다.

한동안 아내와 나는 공부하러 미국에 간 딸이 두고 간 어린 손주의 재롱을 보는 낙을 즐겼다. 딸이 결혼할 때, 늘 내게 저주던 아내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네 주관을 내세우지 말라"는 구식 충고를 했는데, 나는 아내의 충고를 소중히 알고 결혼한 딸이 낳은 손주의 '밥'이 되기도 했었다.

1962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를 플로리다대학의 오스틴박사 집에서 약 일주일 간 머물고 있을 때였다. 그 때 워싱턴에서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다. 국무성 관리가 좀 만나자는 것이다. 학술 연구 용역관계의 일이라고 했다. 뜻밖에도 앞으로 10년간의 철새 이동에 관한 미국의 연구 계획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이다. 나는 공산권에서 남하하는 철새는 거의 한국을 거쳐가므로 매우 뜻이 있음을 역설하고 그 계획에 한국을 포함시키도록 종용했다.

드디어 1964년 봄부터 나는 미국 정부의 넉넉한 예산과 장비까지 지원받아 철새의 이동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약 7년 동안에 134종 약 18만여 마리의 철새 다리에 알미늄 가락지를 달아 날려보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쓴 돈만도 현금으로 3,000만 원이 훨씬 넘는다. 그 밖에 동남아를 돌며 내가 날려 보낸 철새를 확인하기 위해 쓴 여비도 엄청나다. 아마도 지금까지 나의 연구에 쓰인 연구비는 약 10억 원은 되리라고 추산된다. 이 중에서 국내에서 얻은 돈은 불과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거의가 미국에서 지원해 주었다.

지금까지 나는 40여 차례에 걸친 국제회의나 학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때로는 나의 건의가 결의문에 새로운 조항으로 삽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자연보존협회는 여러 선배들과 함께 내 자신도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기금이 2억 5천만 원이나 된다. 1966년 스위스에서 국제자연보호협연맹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협회는 단체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정식 의결을 보아 1969년 인도 뉴델리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나는 이 두번의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 신청서를 내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또한 1960년에 우리나라를 국제조류보호연맹에 정식으로 가입시켰다.

지금까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류·포유류 등 사라져 가는 동물에 대해 아직 남은 있는 몇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강화했다. 수렵 포유류의 종류도 훨씬 줄이고 보다 규제를 받게끔 했다. 이와 같은 일에 관여한 지도 40년이나 되었다.

국제 자연보호연맹 종보존위원, 국제조류보호회의 아주(亞洲)지역 회장, 문화재위원, 산림청 조수보호위원, 한국자연보호회 회장 등 학교의 일 이외에도 나는 야생동물과 자연보호를 위한 많은 명예직을 맡아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자기 나라를 위해 봉사할 줄 모르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국에 봉사하는 삶을 위해 학문의 길에 더욱 매진하련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학문의 완성으로 대신 한다면 조금은 기뻐하실런지.

高原에 올라서서

金 龍 澈 (30回)

내친 걸음으로
하염없이 기어오른 인생의 高原……
영문도 모르고 들어선 이 한 마을을
사람들은 古稀라 부르더라

참말로 뜻밖이다
이토록 후미진 산간 마을에
이토록 희귀한 산지에
나약한 이 목숨이 성한 채로 와 닿았으니

숨 가빠 기어온
저 험한 꼬부랑 산길들은
내려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놓치고 온 혈육이랑
떨어뜨린 벼들을 못 잇는 밤이면
悔悟의 정이 내 가슴에 불을 지른다

하지만

이 古稀의 산골에 들어앉아
젓더미 가슴만 껴안고 지낼쏘나
산지가 험하고 높다 하여
어지럼만 타고 있을쏘나

보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지붕 삼고
저 앞에 질펀히 트인 高原의 별관을

나는 또 가야 한다
저 별관, 저 하늘의 온 길이를
나는 걸어가야 한다
내 머리끝과 발끝이
다 뻗었다고 주저앉는 그 날까지.

꿈에 보는 금강산

몸소 가서 못 보는 금강산을
꿈에서 본다.

금강산 가는 길 가로막힌 지
어언 반 세기도 넘었건만
장벽 너머 저 영(靈)의 산을

이젠 꿈에서나 본다.

땅 위에 얼어붙은 장벽을 피해
배 타고 금강산 찾아가는
애달픈 사연도 있다지만

꿈에 보는 금강산은
온 세상 향하여 담대히 선언한다.
“그건 나를 찾아오는 정도(正道)가 아니니라.”

배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겨냥 대어
풍악(楓岳)의 골짜기를 선전문으로 도배하는
치졸한 술수도 있다던데

꿈에 보는 금강산은
온 세상 향하여 처량히 하소한다.
“내 가슴에 박힌 정치의 썩기를 뽑아 나오.”

꿈에도 잊지 못할 영(靈)의 산이여,
님을 향한 우리의 열띤 눈정기가
원한의 장벽을 녹여 치우는 그 날

우리 모두 정도(正道)를 타고 올라가
님 가슴에 사무친 썩기의 아픔을 달래 드리오리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보던 님 본래의 모습 앞에 서서
온 세상 향하여 높이 구가하오리다.
“때묻지 아니한 영(靈)의 산이여,
우리의 영원한 금강산이여!”

이런 내조?도 있다

申 裕 恒 (30回)

일요일마다 집을 떠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 저녁때가 되어 어슬렁 어슬렁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남편을 좋아할 아내는 아마도 지구상 문명국 치곤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이나 잡지에서 주말이면 낚시한다고 나가서는 딱 짓만 하고 돌아올 때는 시장에서 물고기 몇 마리 사다가 아내에게 넘겨준다는 기사라든가 등산간다고 해 놓고는 딱짓만 하고 돌아올 때는 시장에서 산나물을 사다가 아내에게 생색을 낸다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하는 때인지라 나의 일요일마다 채집행각 후 집에 와서 나비며 풍뎡이, 잠자리를 펼쳐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똥은 꼴이 아닌가.

혹시나 내 남편도 하고 한번쯤은 의심 받을 만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쯤의 일이다. 나는 대학에서 곤충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분류학을 전공한지라 곤충채집은 나의 본업이었고 곤충생태 사진촬영은 거의 필수적인 강의 준비의 일부였다.

IMF 전까지만 하여도 사보가 각 회사마다 유행처럼 번지고 품위 있는 광고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반 서민들의 호기심과 관심거리 기사를 찾아내어 실으려고 편집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런 기사거리로 곤충이 인기가 있어 원고청탁이 많았다. 그 시절만 하여도 곤충을 전공하고 글을 쓸 만한 필진들이 많지 않았다. 한 사보에 글을 실리면 그것을 다른 사보담당자들이 보고 원고청탁을 하곤 하였다. 원고지 15매 안팎의 원고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진자료 4~5매가 필수였다. 이런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메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찍어댔다. 곤충생태사진 촬영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다. 혼자서 터득하다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헛돈도 적지않게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채집활동으로 곤충들이 많이 사는 곳을 아는지라 짧은 시간내에 원고에 따르는 사진자료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거의 갖추게 되었다.

그 시절 사보원고수입은 나에게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달은 정규 월급에 근접할 정도의 수입이니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 지출해야 할 곳은 많은지라 원고요청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썼다.

이런 나의 사정을 소상히 알리 없는 아내는 나에게 일요일 내가 나갈 때 같이 가면 안되느냐고 슬쩍 떠보는 것이다.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저없이 가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무엇이냐고 하길래 현장에 도착하여 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나에게서 1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인기척에 예민한 곤충들은 쉽게 도망치기 때문에 나의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협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쉽게 수긍하였다.

그 시절 내가 자주 찾은 곳은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주금산으로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여 숲도 좋아 곤충종수도 많고 또 개체수도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데리고 가끔 야외실습을 하기로 한 곳이다. 어느날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늦여름 아내와 같이 집을 떠났다. 버스에서 내려 30분쯤 걸어 산기슭에 도착하면 작은 연못과 민가가 세 채 있는 곳에 닿는다. 이곳에서 잠시 쉬 다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나 오솔길을 따라 산중턱 풀밭으로 가면서 나비도 잡고 사진도 찍었다. 약속대로 아내는 나의 활동에 방해가 될까봐 10m쯤 떨어

져 뒤에서 따라왔다.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거리가 7m, 5m로 점점 가까워 진다. 산길이라 약간은 겁이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 있었다.

섬서구메뚜기가 있기에 접근하여 초점을 맞추라치면 확 도망간다. 쫓아가서 또 초점을 맞추라치면 또 도망친다. 계속해서 메뚜기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잠시후에 여보! 하고 부른다. 왜냐고 물었더니 여기 섬서구메뚜기가 있으니 사진 찍으라는 것이다. 다가가서 보니 메뚜기는 이상하게도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사람이 다가가도 움직이지 않는다. 뭘 그렇게 쫓아가면서 애 쓰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제까지 그것도 모르는냐는 투로 한 건 해결한 사람모양 의기양양하다. 카메라 초점을 맞추려고 파인더를 쳐다보았더니 팽팽이 뻗어있어야 할 더듬이가 아래로 축 늘어져 있다.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더니 메뚜기를 잡아 땅에다 세게 내팽개쳤다는 것이다. 핵주먹 타이슨에게 한방 얻어 맞은 상대선수 꼴이다. 생태사진의 생명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공이가하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철칙이다. 그러기에 어렵다. 아내에게 카메라 파인더를 쳐다보라고 하였다. 본 순간 할 말을 잊은 듯 조용하다. 다소 실망스러워 하였다. 나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아내의 이런 마음씨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이런 일이 있는 후로는 다시는 내가 하는 야외활동에 따라가겠다는 말이 없었다.

近代 帝國主義

金 庚 台 (30回)

1. 19世紀 帝國主義

18세기말인 1793년에 불란서 革命으로 루이 16세와 그의 처인 마리아 안타누티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太陽王으로 베르사이유宮에서 갖은 호사를 누리다가 죽은 그에 비해, 불과 35세를 일기로 간 모차르트는 貧民墓地에 있는 큰 壕안에 많은 屍體더미위에 던져진 후 灰粉이 뿌려져 찾을 길도 없이 사라진 것이 그맘 때 일이다. 그의 鎮魂曲을 배경음악으로 한 名畫 아마데우스의 마지막 장면은 悽慘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개 주검보다 못하게 잊어진 루이 16세의 존재에 비해 樂聖 모차르트는 우리의 心琴을 울리며 영원히 살아 있다.

그 후 革命餘波에 편승해 구라파를 휩쓸던 나포레온도 실각해 엘바섬으로 流配된 것이 1814년이다. 그로부터 꼭 100년 후인 1914년에 일차 世界大戰이 일어난다. 帝國主義 國家들이 치열한 植民地 競爭을 벌이는 百年 동안 조용한 아침의 나라 朝鮮은 아침 단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았을 때이다.

産業革命에 이은 機械혁명은 여러 가지 생산기계, 철도, 기선, 자동차, 비행기, 전기, 통신 등 모두가 百年간에 생긴 發明 들이다. 이것들은 주로 영국에서 이루어 졌으니 그 果實은 모두 大英帝國이 거둬 드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것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아니다. 保守的인 가톨릭의 나라에서 일어난 불란서 革命은 프로테스

탄트의 新敎의 나라 英國에 별로 影響을 끼친 것이 없다. 오히려 불란서는 영국의 合理的인 議會制度나 産業, 기계 기술 등을 배워야 했다.

太西洋 건너 미국도 뒤따라 大陸橫斷 鐵道를 가설하고 그 광대한 西部 開拓에 여념이 없어 다른 곳에는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서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南美를 침범 못하게 몬로주의라는 先手를 선포할 만큼 충실한 국력을 갖추었다. 유럽의 발달한 기계 공업은 다량의 製品을 생산하고 原料가 필요해 힘이 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 등을 侵犯한다. 단연 先頭走者는 영국이었다. 영국의 식민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自治領植民地로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 공화국처럼 영국에 오히려 부담이 되니 分離自治制 連合형태로 大英帝國에 포함한 것이다. 주로 英屬로 색슨 등 白人系 사람들이 가서 정착한 식민지다.

두 번째는 直轄植民地로 有色人種에 대한 收奪 榨取的인 支配식민지다.

그 시절의 세계 版圖를 보면,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 질러 북쪽 凍土를 모두 차지했고, 남쪽에는 영국이 가장 큰 노획물인 印度를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었다. 동남아 여러 弱小國들은 이미 강대국 수중에 들어갔고, 극동에서는 유럽 강대국들이 앞을 다투어 중국을 蠶食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德川幕府末期인 19世紀 中葉까지 그런대로 무사했다.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는 알렉산더, 씨저, 모슬렘, 몽고 등 구식 제국주의와는 사뭇 달랐다. 무자비한 殺肉대신에 博愛라는 허울 아래 기독교 전도사들은 흔히 侵略의 前哨兵이 되었고, 흑시나 殉敎라도 당하면 그것을 제일 좋은 보복 침략의 구실로 삼아 不平等 條約을 強要하였다. 불란서 혁명으로 귀중한 自由와 平等은 얻었으나 이 둘은 어찌 보면 서로 相反 矛盾되는 개념으로 左右派로 갈라져 되풀이 되는 정치 사회 혼란의 惡循

環으로 많은 사람들이 斷頭臺에서 목이 잘렸다. 영국처럼 제국주의 침략의 주도권은 잡지는 못했으나, 이런 사회 불안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불란서는 어느 정도 식민지 정책에 성공한 셈이다. 거기에 비해 統一國家를 늦게 이룬 獨逸은 너무 뒤 늦게 끼어든 탓에 차지할만한 곳이 별로 남지 않았다.

러시아가 19세기 중엽에 토이기를 무찌르고 콘스탄티노블을 기웃거릴 때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영국은 토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몰아낸 것이 클레미아 전쟁이다. 유명한 나이팅게일 일화는 이때 일이다. 영국이 토이기에 애정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토이기와 인도를 露國에 喪失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이르자 세계는 유럽 열강들이 分配 競爭하기에는 너무 좁았고, 서로 질시하고 憎惡하는 사이에 軍費확장을 다투며 同盟을 만들어 상대방 축을 凝視했다.

産業主義가 지배하는 사회의 모든 構造는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계급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사이의 紛爭을 부추기는 성질을 갖고 있다. 18~19세기에 유럽이 侵略者로 나타날 당시,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사실상 東洋의 中世的 문화와 西洋의 産業적 기계적 발전의 차이였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양보다 거리상으로 훨씬 가까운데 위치한 검은 아프리카 大陸은 손 가까운 먹이거리였다. 그 分割競爭의 주역은 영국과 불란서였고, 독일과 이태리, 포르토갈, 화란 등은 늦게 끼어들었다. 1870년경부터 30년 동안은 그 파이를 차지하는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시기였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면 복잡한 퍼즐 모양새이고, 당시 얼마나 심하게 亂刀질 당했나 짐작이 간다. 18세기 말에는 西아프리카 大陸에서 美國으로 매년 6만 가까운 奴隸가 잡혀가 마치 멸치 젓 항아리처럼 빼곡히 실려가다 많이 죽었다. 실로 西歐人들이야 말로 食人種이었다. 南阿에 있는 보아共和國은 和蘭系 농민들이 정착한 곳으로 金鑛이 발견되어 골드 러쉬를 이루더니 그 후에는 길에서 아이들이 번쩍이는 돌로

공기치기 노리를 하고, 어떤 原住民이 주는 주먹만 한 번쩍이는 돌덩이 (83카라트)가 후에 유명해진 '남아프리카의 별' 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 寶石이다.

이것을 놓칠리 없는 영국은 이곳을 猛獸처럼 덮쳐 여러 해 고전 끝에 화란인들 게릴라를 물리치고 드디어 그곳을 차지하고야 말았다. 어디든 지 肉塊만 있으면 굶주린 野犬들처럼 물어뜯고 찢어간다. 바로 그 고기 덩어리가 아프리카였고, 그것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世界植民地 分割 史이다. 언젠가는 遊星占領 爭奪戰도 있을 법한 일이다. 아프리카 內陸의 奧地에는 前人未踏 未知的 暗黑지대로, 食人種들이 사는 未開 野蠻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선교사 겸 의사로 리빙스턴과 슈버이처는 기독교적인 人道主義로 그들과 접해 존경을 받고, 그들 원주민들이 野獸 같은 식 인종이 아니고 오히려 素朴한 어진 백성들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비해 北 아프리카 地中海沿岸에 있는 애급, 리비아, 튀니시아, 알제리아, 모로코 등 나라들은 이전부터 西歐기독교와 모슬렘文化가 서로 자주 접한 관계로 비교적 잘 알려진 開明된 나라들이다. 특히 튀니시아는 古代 韃靼인 아 칼타고가 번영했던 곳으로 튀니시아와 씨칠리섬만 장악하면 地中海를 制霸한다고 했다. 이곳들을 거쳐 알프스를 넘어 쳐들어간 한니발 장군은 유명한 이야기다. 二次大戰때 北아프리카 作戰과 이탈리아本土 상륙작전 때도 튀니시아가 連合軍의 중요 거점이었다.

불란서가 점령한 알제리아를 배경으로 한 '外人部隊'란 영화는 기억에 새롭다. 당시의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有色인종을 隸屬支配하는 침략주의를 굳이 罪惡視하지 않았다. 도리어 白人으로서의 選民的 優越感은 지금도 미래에도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先進文化를 가진 서구인들이 後進國 民族들에게 진보된 文明을 傳達해 教化 向上시키는 것이 人類文明의 進步, 幸福을 위해 짊어져야 할 神이 내린 義務라고 생각하는 듯도 하다. 그것이 自由 民主主義 移傳을 위해서라면 武力도 불사하겠다는 帝國

主義的侵攻의 戰略이다.

舊約의 모세 出埃及記에 나오는 小빛다湖는 수에즈運河남쪽 紅海에 임한 곳에 있다. 1870년 수에즈運河 開通을 축하하기 위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가 카이로 歌劇場에서 초연됐다. 凱旋의 장면에서 드높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그 후에 에지푸트의 國歌가 된다. 에지푸트의 將軍라다메스와 에치오피아王女 아이다의 열띤 사랑이 悲劇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그 후의 에지푸트와 수에즈運河의 悲運을 暗示하는 듯했다. 수에즈 운하야 말로 그 후의 시베리아鐵道와 바그다트鐵道와 더불어 서구 제국주의의 象徴이라 할 수 있다. 이 운하가 개통된 1870년경부터 서구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운하의 개통으로 구라파와 아시아의 거리를 거의 半가까이 단축시켰다. 이 어려운 공사는 佛의 레썬프스가 7년여 걸려서 달성했다. 이것은 自然에 대한 人間의 勝利로 賞讚되었다. 이 운하는 國際수에즈運河株式會社의 管理 하에 들어간다. 株主로 佛國이 제일 많은 주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英, 和蘭 순으로 에지푸트는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되는 株밖에 없었다. 세계의 七海를 制압하고 있는 영국으로서는 불란서가 이 운하를 완성한데에 대해서 자존심이 몹시 손상됐을 것이다.

카이로 철도와 나일강 유역 개발 등에 영국의 자본이 워낙 많이 투자되어 있고 경제, 군사 면으로 중요한 이곳을 불란서에 양보할 영국이 아니다. 1882년 이곳에 民族主義 排外운동이 폭력화에 이르자 이것을 좋은 기회로 프랑스를 제치고 재빨리 군대를 파견해 制壓한 영국은 그 후 30년간 에지푸트를 軍政下에 지배한다. 一次세계대전 중에는 결국 영국의 保護領으로 되어 나중에는 3C(케-프 타운, 카이로, 칼카타)의 一角으로 중요한 據點이 되었다.

2. 印度

英國의 代表적인 植民地정책이었던 印度 支配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겪은 일제 36년의 殖民地 受難은 약과이다. 그 방식과 冷酷性이 좀 달랐을 뿐이지, 대체로 그 식민 정책에는 별 다를 바 없었다. 알기 쉽게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렇다. 요즘 텔레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프리카의 동물 生態界를 보면 재미난다. 獅子와 사슴 떼들이 相扶相助하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서 유유히 지내고 있다. 사슴 떼를 습격하길 좋아하는 더럽게 생긴 하이나 떼들이 사자가 버티고 앉아 있으면 접근을 하지 않는다. 사자는 배만 부르면 가까이에 있는 사슴을 해꼬지 않는다. 가끔 병들어 무리 移動에서 落伍者가 된 코끼리를 먹이로 제공 받기만 하면 된다. 시장기가 든 사자는 한참동안 사슴 떼를 노려보다 갑작이 돌진해 나간다. 그중에서 병들고 老弱한 사슴은 무리에서 처지기 마련이다. 銳利한 사자의 관찰력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 덮친다. 福音과 진보된 醫療를 가지고 선교사들은 未開地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다년동안 宣敎活動을 벌이며 그곳의 자세한 실정을 본국에 보고 한다.

17세기 경에는 英, 佛과 포르투갈 정도의 나라가 印度의 해안가 도시에 소규모의 상업-군사적 據點을 지배한 정도였다. 당시 인도는 무갈 帝國의 통일이 서서히 해체되면서 일종의 戰國時代에 들어가 한 동안 내부 不和와 分裂로 弱해질대로 弱해져 있었다. 나약함과 어리석음은 반드시 壓制를 불러 드리기 마련이다. 18세기 중엽에 푸랏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하자 영국은 인도를 독차지하게 된다. 인도의 大衆을 搾取하고 짓밟아 온 거대한 機械야 말로 영국의 산업 資本主義 제도이다. 착취한 利潤은 영국에서도 거의 特定 계급의 손에 들어간다. 물론 그것의 일부는 인도내의 특정 계급에도 分配된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국민이었던 영국은 가장 뒤 떨어진 인도의 보수적인 지방 領主들과 결탁했다. 영국 통치 直轄領 외에도 500여개의 土候領이 있었는데 지방自治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 封建的 지배계급을 권력의 保壘로 이용하는 'Split and Rule'의 원칙을 적용한 영국 통치 정책의 본보기다. 1949년의 투표에서

인민의 의사에 따라 파키스탄, 카쉬미르와 반그라뎃쉬 등은 독립해 나갔고 나머지 토후령들은 인도 연방에 귀속 되었다. 전통을 중시하는 인도인을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어 영국인 資本家들은 宗教니, 惡習이니 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전념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본토에 있는 대부분의 영국인들, 특히 良心적인 人道主義者나 宗教家들의 눈에 비친 것들은 오히려 인도 사람들의 지극히 憂慮되는 道德상태나 貧困한 生活形態였다. 인도의 카스트제도(身分階級制度)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賤民들의 일상은 비참했고, 그들은 이런 사회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本來 自由로워야 할 것이라는 것 초차도 몰랐다. 따라서 그곳에는 난잡한 性的行爲를 결들인 殘酷한 狂信的 宗教가 일부 지방에는 盛行한 모양인데, 그 소문이 영국에 전해질 때는 針小棒大됐을지도 모른다.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에서 이런 끔직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그 나라가 자기들의 식민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시의 열렬한 福音主義 運動家들은 어떤 큰 使命感 같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運動과 植民局의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人道主義者나 傳導者들의 인도 내에서의 活動이 시작된다. 그들은 새로운 教育, 자유로운 言論들을 도입함으로 英語를 翫得한 지식 계급을 形成하여 서구의 문명을 알게 된 인도 사람들이 증가 했다. 그들은 식민지 통치의 下級官僚, 하급司法官, 변호사 등이 되어 점차로 하나의 社會層을 형성하게 이른다. 그러나 傳統的文化를 고수하는 사회층과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敵對視하게 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이 委託된 使命感을 갖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이고 인도 사람 쪽에서 영국인에 아무것도 위탁한 적이 없다는 점, 이것이 두고두고 장래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 한 것이다.

영국인의 눈으로 본 憂慮할 상태의 하나로 인도 女性의 地位라는 문제가 있었다. 요즘 미국도 폭탄을 퍼 부어가며 아랍 여성들의 奴隸같은 처

지를 걱정하는 모양이다. 하가야 아무가 보아도 극히 걱정할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제3국이 어떤 수단으로 介入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비슷했지만 인도에서는 더 심해 여자가 10세 미만이면 본인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부모가 定婚해주고 남편이 죽은 後의 再婚은 惡德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唯一의 남편이 죽으면 그에 대한 愛慕의 情이 별로 없어도 심하게 悲痛에 잠겨야 하고 가문의 名譽를 위해서 他意반 自意반으로 亡夫의 火葬하는 불속에 몸을 던져 焚身하는 것이 최고의 美德으로 여겨지고 烈女의 婢石도 세워진다. 이런 弊習을 사티(殉葬)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폐지시킨 일은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3. 淸帝國의 興亡

16세기말 壬辰外亂때 豐臣秀吉의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와 明나라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 滿洲지방 女眞族들이 合勢하여 丙子胡亂을 일으켜 朝鮮을 征服하고 17세기 중엽에는 長城을 넘어 中原에 쳐 들어가 大清國을 建立한다. 三百年동안 明나라만 섬기던 朝鮮인지라, 辨髮을 하고 漢文字도 모르는 賤한 夷狄인 野蠻族의 나라를 깔보았다. 그러나 누루하치, 훈타이지, 順治帝 다음인 淸朝三帝인 康熙, 雍正, 乾隆帝는 17세기의 후반부터 18세기의 말까지 거의 140년에 걸쳐 中華帝國중에서 최고조에 달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세계를 통틀어도 최대, 최강 그리고 경제력도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지난 반세기餘 동안의 美國의 國力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다. 三帝가 모두 漢學에 뛰어나 특히 康熙帝는 孔子의 저서들을 태반 暗記하고 있었다고 하고, 그의 시대에 編集된 康熙字典은 漢字의 正字書體로 알려져 있다.

乾隆帝는 天山南路를 평정해 新疆省이라 했다. 이 길을 통해 唐나라 때부터 서구의 상인들이 絲綢之路를 통해 빈번히 상거래를 하며 중국의

명주 陶磁器등을 거래하며 東西文化 교류도 있었다. 그 후 영국은 산업 혁명을 걸치면서 많은 茶를 수입하는 대가로 毛織物외에 특산품을 팔려고 하지만 워낙 그 시대 중국은 여러 가지 물자가 풍부해 외국 물건은 별로 원치 않았다. 그런 관계로 자유무역은 원치 않아 무역항으로는 廣東 港 하나만 열어 놓았다. 그 대가로 중국은 다량의 銀을 벌어들여 되어나라가 富強해지고 국민들도 잘살게 되었다. 반면 貿易逆調를 가져온 영국은 대신 인도에서 생산되던 阿片을 드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아편을 사기위해 다시 銀을 팔 정도로 중국전체가 아편中毒症에 빠져 廢人이 되어 瀕死 상태에 이른다.

이것을 방지할 수가 없게 된 청조는 아편의 嚴禁令을 내리고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때는 嘉慶帝말과 道光帝시절 청조가 아편으로 斜陽길을 더욱 재촉하던 때이다. 궁여지책으로 道光帝는 빅토리아女王에게 구세주의 이름으로 慈悲와 善處를 懇請하나 默殺당하고 만다. 冷血族인 그들에게는 良心的인 倫理道德이란 기대할 수가 없었다. 弛禁論者들은 愚民들의 아편 중독은 自業自得으로 過剩人口調節에 도움을 주고, 다만 漏銀으로 오는 경제문제에만 신경을 썼다. 그 반면 嚴禁論者들은 道德, 人道的인 면에서 아편의 有害 亡國性을 주장했다.

廣州總督에 부임한 林則徐는 영국인이 들여온 아편을 몰수해 불태워 버린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편전쟁이 일어난다. 산업혁명으로 근대화한 영국의 군사력에 낡은 장비로 싸운 청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天下 國家로서의 自存心과 中華思想은 이 아편전쟁에 패함으로 크게 손상당했다.

1850년을 전후로 해서 세계정세는 숨 가쁘게 소용돌이치고 돌아갔다. 그 무렵 道光帝가 죽고 咸豐帝(西太后的 남편)가 즉위하자 太平天國의 亂이 일어났고, 미국은 大陸橫斷을 이루고 空前의 金鑛을 加州에 발견한 다음 중국을 향해 太平洋航路 開拓을 목표로 페리 艦隊를 일본에 파견했

다. 영국은 빅토리아女王의 길고도 긴 治世下에 있었으며(1837~1901) 西太后와 朝鮮의 明星皇后등 세 女傑이 막상막하하게 각자 자기 나라를 주름잡고 있었다. 5년 동안 太平天國의 亂에 시달리던 동안 아로 전쟁이 돌발한다. 청국 관리가 영국 깃발을 단 아로號를 臨檢함으로써 영국 국기에 侮辱을 가한 사건이다. 중국에 더 많은 利權을 구하던 영국은 이것을 구실로 다시 파병하게 된다. 같은 시비꺼리를 찾고 있던 불란서도 얼마 전 宣教師가 살해당한 일을 구실 삼아 출병한다. 英佛의 함대를 沿岸을 북상해 天津에 이르러 天津조약을 맺는다. 이 아로號 전쟁은 두 번째로 中華사상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이 조약을 批准하기 위해 북경으로 가던 英佛 사절이 탄 배에 淸兵들이 포격을 가해 외교상의 큰 失態를 연출한다. 이에 英佛軍은 북경에 쳐들어갔다. 咸豐帝는 熱河에 피난가고, 英佛 점령군은 갖은 暴行을 하며 圓明園에 불을 지른다. 그때 많은 財寶를 略奪하고 四庫全書를 비롯해 귀중한 古典들을 불태운다. 이렇게 하여 北京條約이 체결된다. 外國하고의 조약을 맺고도 淸朝는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外交上的 蹉跎을 되풀이 거듭하고 불리한 처지를 自招하여 궁지에 몰리게 됐는가. 본시 中華大國은 朝貢을 받치는 屬領이외의 아무 나라도 이 지구상에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外務省따위는 있을 필요가 없었고, 다만 朝貢國들을 취급하는 禮部(요즘 같으면 儀典局) 밖에 없었다. 그러니 漢字 筆答외에 외국말을 변변히 할 수 있는 譯官도 모자란데다가, 中央集權制가 철저하지 않아 지방 軍閥은 제각기 독자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전쟁에 패한 청조는 급한 대로 임시변통으로 외국들과 조약은 맺어 놓았으나 認准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서의 施行착오가 자주 일어났다.

언제나 이런 混亂期를 틈타 魚夫之利를 거두는 露國의 움직임은 보자. 러시아는 네루친스구條約으로 시베리아 東北部에 진출하게 된다. 중국의 북쪽에 널리 펼쳐진 시베리아大地에는 17세기에 들어와 로스케들이 썰매

를 타고 슬금슬금 진출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엽에는 아므르江에 이르러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동쪽인 延海州와 남쪽에 滿洲를 엿본다. 18세기 초에는 가무차카半島를 점령하고 일본을 성가시게 군다.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강희제는 이를 무력으로 제지하는 한편 달래기 協商으로 國境線을 아므르江 훨씬 北쪽에 그음으로 러시아의 東方進出에 쐐기를 박았다.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를 경영 하기위해서는 아므르강의 수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청조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무렵 아로호 전쟁이 일어났다. 청조가 맥없이 屈服하는 것을 본 러시아는 이때라 생각하고 清朝와 조약을 맺고 아므르강과 그 이북 영토를 삼켜버린다. 얼마 후 英佛軍이 북경을 점령하자 러시아는 調停에 뛰어들어 北京條約의 締結을 알선한다. 이때 러시아도 이 조약에 한목 끼어들어 우스리강 以東의 땅을 먹고 이것을 沿海州라 하고, 우라지보스토크에 軍港을 건설한다. 우라지(占領) 보스토크(東方)의 소원을 달성한 셈이다. 이때, 즉 1860年代는 청조가 安南문제로 남쪽에서 불란서와 싸울 때여서 북쪽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

明代末부터 清代初에 걸쳐 중국에 布教로 와 있던 기독교 선교사들은 서구의 문물들을 전했으나 그것들을 받아드리는 중국과 일본의 受容태도는 사뭇 달랐다. 아직도 中華思想을 못 벗어난 중국인지라 새로운 西歐文物에 접하고 驚異(wonder, 놀라움에 이상하게 여가다)롭게만 생각한데 비하면 비교적 未開했던 일본은 驚歎(wonder and admiration, 놀라움에 몹시 찬찬함)하여 뒤로 자빠지면서 정신을 차린다. 하여튼 일단 놀란 청국인 중에는 어느 정도는 感銘을 받은 자들이 있었으리라. 그러나 선뜻 배우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었다. 이에 비해 好氣心이 강한 日人들은 長崎라는 바늘구멍 만한데서 숨어드는 서구 문명을 기를 쓰고 배웠다.

그 후 아편전쟁과 아로호 전쟁을 경험한 중국인들도 비로서 西歐近代文化가 優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洋務運動을 일으킨다. 그러나 뿌

리 깊게 儒敎思想에 젖은 청조는 洋務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正體성이 흔들리게 된다. 마치 統制的인 北韓政權이 自由民主體制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主體性을 더 내세우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래서 洋務로 중국에 攝取된 것은 기술物質的인 것뿐이고, 精神的인 것, 道德, 정치 사회구조 등은 역시 중국 것이 제일이라고 고집 부리며 舊體制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 상태로는 西洋의 기계 기술을 아무리 도입한들 富國強兵이 될 수가 없었고, 더구나 洋務자체도 腐敗墮落한 官僚들에 의해서 遂行되니 그 結果는 뻔한 일이다.

4. 極東의 火藥庫

올해가 露日전쟁이 일어 난지 꼭 100년이 되는 해 이다. 그 시절 조선과 만주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엉키면서 드디어는 極東의 火藥庫처럼 되어 갔다. 그 당시 러시아의 기본擴張정책은 不凍港을 獲得하려고 서쪽에서는 토이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하고 팽팽히 맞서고 동쪽에서는 무력한 청조를 상대로 별로 큰 저항도 없이 黑龍江의 하류를 넘어 우스리江 동쪽의 땅을 손에 넣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하고 접경하게 이른다. 이에 조선을 둘러싼 淸日의 抗爭에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虎視 탐탐히 지켜보고 있던 북쪽의 곰은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조선에서 일본의 경제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하에 조선에 대한 청국의 宗主權만 인정해 준다면 구미열강들이 조선과 국교를 열고 통상 관계를 맺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별로 마다하지 않았다. 그 당시로 말하면 오랜 鎖國에서 깨어나지 못한 조선정부에는 제대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 턱이 없고 거기에도 國際法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야말로 隱遁의 나라 조선이었다. 그럼으로 외국과의 교섭은 우선 北京에 있는 李鴻章의 주선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조선을 열강들의 대립, 충돌의 무대로 극동의 火藥庫

로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그후 壬午軍亂(1882)이 일어나 구식군대에 의하여 일본 공사관과 일본 군사교관들이 피습당하는 난동이 일어나자 조선조정은 청국군대를 끌어 드려 진압한다. 이어 1884년에는 일본의 사주를 받은 개화파가 甲申政變을 일으키나 청군의 간섭으로 실패한다. 이렇게 淸日軍의 마찰이 심해지자 天津條約이 체결되고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한다.

해를 거듭하며 조선 사람들의 어리석은 無知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외국의 경제침략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민생고는 날로 극심해져 간다. 그 시절 천주교와 서학이 민간에 퍼지면서 민심을 혼란케 한다는 개탄이 일자 西學에 대한 東學思想이 기세를 부리게 된다, 呪文과符籙 등으로 병도 고친다는 迷信적인 요소도 가미된 外勢排威攘夷論으로 마치 19세기 중엽의 중국에서 일어난 太平天國의 亂과 흡사하다. 이亂은 亞片戰爭에 패한 중국이 南京條約으로 香港을 英國에 割讓하게 되는 屈辱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당시 香港島는 해족의 근거지로 아무런 설비도 없는 황무지여서 간단히 내 쫓지만 여기에다 英國은 백년동안 대도시를 건설하였다. 또 무역의 확장을 위해 複州, 廈門, 寧波 그리고 上海까지 합쳐서 5港을 열기로 했다.

官軍의 힘으로는 도저히 東學亂을 막을 길이 없자 조선정부는 하는 수 없이 援兵을 청국에 청한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은 陸海軍을 派兵하게 이르니 淸은 牙山에, 日軍은 仁川에 상륙하여 언제든지 開戰할 태세를 갖추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일본은 隱居중인 大院君을 업어내 궁궐로 쳐들어가 친일정부를 세웠다.

淸日開戰을 앞두고 당시 서태후나 이홍장은 現狀維持를 원하고 日本을 상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願치 않았다. 그들은 國家의 存亡보다 權力鬭爭에 더 重点을 둔 淸조의 末期症狀을 드러내고 있었다. 심지어 서태후는 자기 還甲을 맞아 北洋艦隊를 現代化하는데 씌어질 자금을 이화

원 改修에 流用했다. 이런 관국에 인천 앞 바다에서 청국增援兵을 실은 수송 선박과 함정들이 日海軍에 의해 擊沈敗走당했다. 牙山의 陸戰에서도 한 시간반만에 청군은 敗走하고 말았다. 이것은 序戰에 불과했다. 8월에 접어들자 서로 宣戰布告을 했고 李鴻章은 증원군 萬여 명을 평양에 집결시키고, 山縣有朋大將이 이끄는 2개 사단 日軍병력이 이에 맞섰다. 처음 이들은 견고한 堡壘에 의한 청군의 저항이 頑強했으나 포위당한 것을 알아차린 청군은 백기를 올리고 야간도주 해버렸다. 며칠 후 丁汝昌이 이끄는 北洋艦隊를 日本의 伊東祐享이 지휘한 聯合艦隊가 黃海上에서 擊滅한다.

5. 義和黨과 露日의 對立

淸日전쟁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자, 세계 列國들에게 분명해 진 사실은 중국은 이제 잡자는 獅子가 아니고, 죽은 송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도에 보일까 말까한 일본이라는 작은 섬나라에게 싸움다운 전투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敗北한 大清國의 무력함에 놀랐다. 이것을 보자 列強들은 死屍에 덩벼드는 독수리 떼 같았다. 體面을 잃고 궁하게 된 淸國은, 배상금을 갚기 위해 서구열강들에게 借款을 구걸하기에 이른다. 이것을 놓칠세라 露국이 獨, 佛로 하여금 돈을 淸國에 꾸어 주도록 주선을 하고, 그 대가로 시베리아鐵道を 北滿으로 연결시키는 권리를 얻어 냈다. 이리하여 할루빈을 지나가는 東淸鐵道가 생기고 이어 露國艦隊는 淸國保護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旅順港에 들어와 그냥 눌러 앉았다. 이렇게 露國은 한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遼東半島를 손에 넣고 長春 旅順間의 南滿鐵道까지 건설해 만주 경영의 길을 열었다. 한편 독일은 山東半島지방에 영국은 揚子江沿岸에 佛國은 廣東 廣西 雲南 지방 등을 차지하자, 한발 늦게 중국시장에 손을 내민 미국은 중국의 문호개방과 機會均等을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중국 본토는 순식간에 구미 열강의 半植民地가 되

어 갔다. 당시 福澤諭吉의 脫亞入歐論이 일본의 變身願望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淸朝解體의 위기가 가까워지는 19세기말 啓蒙사상가인 康有爲는 光緒帝에게 상소를 올린다. 그의 주장은 청조가 서구의 근대 기술과 군비를 도입했는데도 일본에게 맥없이 패전한 이유를 들었다. 말하자면 일본은 政體를 갈아 立憲制를 실시한 연후에 서구의 문명을 도입 했다. 거기에 비해 청조는 根本을 그대로 둔 채 末端적인 것에만 열중한 까닭이라 지적하고 專制君主制를 폐지하고, 일본처럼 立憲君主制로 고치는 變法을 實施하여야 하며 이것외는 무너지가는 청조를 구할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淸末의 華北 일대에는 列強의 壓迫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민생고가 극심해져 民草들의 憤怒는 爆發하기에 이른다. 산동성에서 일어난 義和團도 이러한 비밀결사의 하나였다. 여러 가지 迷信의인 熱狂者도 많아서 돈을 삼키고 呪文을 외우면 칼이나 총탄도 피해간다고 믿었다. 당초에는 反淸의인 경향이 강했으나 청조는 이것을 排外運動으로 轉換利用해 암암리에 支援까지 함으로 扶淸滅洋(淸을 돕고 서양인을 친다)을 슬로간으로 삼았다. 1900년 黃巾 紅巾을 쓴 義和團은 北京으로 쳐들어가 外國公館들과 外國인 거주區域을 包圍하고 威脅하게 이르자, 急遽 援軍이 필요했다. 이에 일본과 서구 열강들은 연합군을 派兵한다. 의화단 사건은 직접적으로 歐美列強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진압 군사 행동에 참가할 아무런 이유는 없었지만, 이전부터 중국 分割에 처치지 않으려고 한 일본은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제국주의 연합군에 가담 한 것이다.

당시 영국은 남아프리카 강탈을 위한 Boer전쟁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의 민족운동 진압 때문에, 佛, 獨, 露國들은 거리상 병력파견에 시일이 걸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본이 총 병력의 半가량을 파견해 전투의 主力을 이뤄 진압에 가장 강력한 先鋒을 이루어 열강 제국주의의 極

東의 憲兵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처음으로 열강하고 對等한 입장을 얻고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이른다. 義和團세력이 만주에 퍼지자 러시아는 滿州鐵道를 보호 한다는 구실로 만주에 파병한다. 그리고 열강들에게는 亂이 平定되는대로 撤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별도로 露都에서 청국과 교섭을 해 威壓적으로 만주에서의 駐兵權과 獨占的 權益을 확보하려고 했다. 극동에서의 露國의 행동을 不安과 不信으로 지켜보고 있던 英國은 極東에서의 協力者로 일본이 유능한 적임자로 생각돼 英日同盟을 체결했다.

露공사관에 遷居중인 高宗은 사실상 일년씩이나 露에 生捕당한 상태였고, 이에 일본은 속수무책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버렸다. 처음에 露國公使는 北緯 39도선에서 鴨綠江까지의 부분을 中立緩衝지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懦弱한 나라는 強大國들(日, 露나 美, 蘇)이 제 마음대로 동강내 잘라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다음은 滿韓交換論이 擡頭된다. 러시아는 大連, 旅順을 점령한데 대한 일본의 불만을 완화하기위해 조선에서 一步後退하고 日本의 기득권을 잠시 인정하고 만주만 확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조선에 남하할 地盤을 얻은 셈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으로서는 만주를 러시아에게 양보 하는 대신에 朝鮮을 확고하게 차지하자는 野慾이었다. 하여, 스타린의 使囑를 받은 김일성이 6·25 南侵이란 도박을 한번 해 봄직도 한 일이었다.

義和團事件이 全國的으로 惡化되자 서태후는 무모하게 열강에 宣戰布告를 하고, 자신과 황제는 멀리 西安으로 蒙塵을 떠나고, 연합군은 북경에서 掠奪을 마음대로 자행했다. 다음 해 청조는 굴복하고 和約을 체결한다. 조건은 外軍의 주둔과 다액의 賠償金지불 등이었다. 이리하여 청조는 財政的으로 列強의 半植民地가 됐다.

露日戰爭을 겪고 난 3년후(1908) 74세에 달한 西太后는 病席에 눕게 되자 시동생인 醇親王을 다시 불러 遺言을 남긴다. 그를 攝政王으로 그

의 둘째 아들 溥儀를 入宮시켜 養育하도록 명한다. 그의 나이 3세도 못된 때 일이다. 그 다음날 건강했던 光緒帝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서태후도 이어서 죽는다. 西太后는 물론 만주인이지만, 중국의 古典에 통달하고 書, 畫, 音에 모조리 빼어난 才女였다. 그녀가 권력을 잡자 宦官의 橫暴과 買官 腐敗가 극심해진다. 太后派와 皇帝派로 兩分이 된다. 西太后는 나이 들자 颐和園 萬壽山에 물러앉지만 太后派인 李鴻章 曹國藩등이 계속 實權을 잡고 있었다. 淸日戰爭이 일어나도 자기 권력유지를 위해 몸을 도사리고 자기들 私兵의 消耗를 주저했다. 당시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서태후派는 일본과의 전쟁을 좋아 하지 않았다. 당시 23세였던 光緒帝의 督戰命令에도 李鴻章은 응하지 않고, 뒤에서 講和謀議을 하고 있었다. 곧 다가올 還甲을 맞이한 西太后는 新型軍艦을 살 막대한 자금을 이화원 별장을 改修하는데 낭비했다. 이렇고서 전장에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루사이를 두고 光緒帝와 西太后가 죽자, 溥儀는 卽位해 元號를 宣統이라 하고, 아버지 醇親王의 攝政 밑에서 立憲改革政治를 시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야흐로 廢滿興漢, 즉 만주족에 의한 지배는 廢하고, 漢민족의 중국을 부흥하려는 孫文이 주도한 辛亥革命이 1911년에 일어나니 韓日合併 다음 해 일이다. 東北地方의 누루하치가 1616년에 女眞을 통일해 太祖가 된 후 300년으로 창조는 幕을 내린다. 淸朝의 마지막 皇帝 溥儀, 愛新覺羅의 自敘傳은 Root를 쓴 흑인 작가 Heiley가 From Emperor to Citizen 라는 책으로 소개됐고 그 후 상영되어 人氣를 끈 The Last Emperor 로 잘 알려져 있다.

6. 露日戰爭

百年전 1904년 滿洲와 朝鮮을 놓고 두 제국주의 國家가 서로 死生決斷으로 한바탕 붙은 전쟁이다. 중국의 義和黨사건이 平定된 후 러시아 兵力을 1903년 4월까지 만주에서 철수하겠다고 철석 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南滿洲의 군대를 오히려 增加시키기까지 하며 러시아는 사건 해결 후에도 놀러 앉아 물러날 氣色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 쪽에서는 시초부터 일본을 앞잡아보고, 필요하다면 아무 때든지 전쟁을 할 작정이었다.

페리의 黑船이 나타난 후에, 할 수없이 開國해, 근대화를 推進한 日本은 外國侵略을 제일 두려워했다. 만약 朝鮮반도가 大國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면 다음에 침략을 받을 나라는 日本일 것이라는 危機感을 強하게 느꼈다. 해서 러시아로서는 領土擴張의 일환이지만 日本의 立場으로는 國運을 건 死活이 걸린 決死의인 문제였다. 당시 國際情勢는 英國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두고 러시아와 맞서고 있을 때라 外交의力學으로 英日同盟이 맺어진다. 또 미국도 러시아의 滿洲進出을 달가워하지 않아 영일동맹에 好意的이었다. 背景에 두 強大國의 돈줄이 생긴 일본은 한번 冒險을 해 볼만하다고 계산 했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慧眼이 밝은 伊藤博文은 젊은 시절 四個國艦隊의 長州攻擊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기억하고 있던 터라, 先進文明의 可恐할만한 破壞力을 몸소 熟知하고 있었다. 淸國과 달라서 大國인 러시아하고 對決해서는 도저히 勝算이 보이지 않는다고 豫見한 그는 避戰協調路線으로 나간다. 그러나 戰機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桂內閣과 山縣有朋등 軍部는 러시아와의 決戰을 決意하기에 이른다.

眞珠灣攻擊처럼 기습공격으로 鈍重한 러시아를 緒戰에서 기선을 制壓해 再起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國際적으로 日本의 일방적 勝利처럼 보이고, 미국으로 하여금 調停에 나서도록 하자는 心算이었다. 이것은 여러 帝大教授陣들이 桂首相에게 說得한 시나리오라고 전해진다. 한 치의 差跌이라도 있으면 일본은 영영 敗亡한다는 위험한 賭博에 주사위를 던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해서 1904년 2월 8일 일본의 함대는 인천과 여순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하고 이틀 후에 비로소 宣戰布告를 한다. 이와 같은 기습공격은 청일, 중일,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항상 써 먹던 手法이다.

한편 구로빠도킨은 어떤 戰略을 갖고 있었는가. 1812년 나포레온의 모스코바 침공이나 2차大戰때 나치독일 침공 때처럼 露軍의 傳統的인 後退戰術은 광대한 나라 러시아에게는 잘 먹혀 들어간 全술이다. 말하자면 兵力에 큰 손상 없이 敵에게 消耗戰을 입히고 最後에 敵의 補給線이 길어지고 지칠 때를 보아 비로소 大攻勢에 들어간다. 이려고 보면 遼陽, 奉天 전투에서도 일본이 勝利한 것처럼 보이나 구로빠도킨은 시베리아 철도로 大部隊를 增強해 哈爾濱 근처에서 지친 일본군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때까지 시간을 벌면 멀리 발틱艦隊가 여순 함대에 가세하여 일본 해군을 무찔러 制海權을 장악하면 補給路가 끊긴 일본의 戰力은 자연히 消滅될 것이라 豫想했다. 사실은 奉天 大會戰後에는 日本의 戰力이 현저하게 減退해 그 이상 北進이 無理해 질 때였다. 彈丸이 바닥이 나고 總兵力의 40% 이상이 損害를 입은 일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때 마침 天運이 도와 東海 海戰에서 발틱함대가 完敗 당하고 만다. 戰爭이라는 것은 銃 때만 가지고 반드시 勝負가 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國際情報과 輿論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 하는 듯하다. 당시 世論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弱者인 日本편이어서 緒戰에서 일본의 連勝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國際的印象도 일본의 勝利처럼 보이고 戰費調達을 위한 外債도 잘 풀리고, 미국도 調停에 나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전세가 기운 기미를 보자 러시아편에 섰던 프랑스도 中立을 지키게 되고, 발틱艦隊가 回航中 石炭 供給이나 佛領 월남의 坎蘭灣에 머무는 것도 拒絕했다. 이런 好機를 失機하면 일본은 들이킬 수 없이 敗亡할 것이라 생각했다. 러시아 艦隊가 海底에 消滅했다고는 하나 陸軍은 講和제의를 뿌리치고 滿洲벌판에서 일본 육군과 한판 벌일 태세였다. 때마침 러시아 社會에는 革命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져 갈 때라 그 이상의 戰爭遂行에 큰 차질이 생겼다. 전쟁 전부터 레닌 등이 지도하는 혁명바람이 일고 있었으나 황제

정부는 국민의 주의를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革命을 促進시키게 된 것이다. 노동자 農民 蜂起가 일어나자 軍의 戰意도 떨어지니 호랑이가 순식간에 고양이로 변했다. 1905年初에 일어난 '피의 일요일' 이라고 불려진 혁명은 1만 4천 명이 처형당하고 실패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성공을 거둔 1917년 혁명의 서막이었다. 영국과 미국의 資本家들은 일본이 完勝해 만주를 獨食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전쟁이 계속해 러시아 革命이 성공해 짜일이 사라지고 共產革命이 들어서는 것도 우려하였다.

사실 露日戰爭의 終結은 日本의 完勝도 아니고 러시아의 完敗도 아닌 애매한 선에서 끝나 미국이 나서 일본의 손을 반쯤 들어준 격이 됐다. 그러나 인도의 간디와 중국의 孫文은 아시아의 小國 일본이 白人 露國을 물리친데 격려를 받았다. 다음 해 1905년에 桂首相과 미 육군장관 터프트가 포오츠머스調約을 체결한다. 日本이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지지해 주는 代價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기로 비밀히 약조 하였다. 講和條約은 일본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극단적 軍國主義者들은 한 푼의 賠償金도 못 받은 屈辱의 조약에 울분을 터트렸다. 강화 반대의 국민대회는 日比谷공원에서 전국적인 反政府운동으로 확대되어 그 규모가 3,1 운동 정도였던 모양이다. 薩摩, 長州의 藩閥獨占정부를 반대하고 責任內閣制를 요구했다. 전쟁 전후로 막중한 軍費와 重稅에 시달리며 民生이 塗炭에 빠지고 수많은 犧牲을 치르고 얻은 補償은 너무 하잘 것 없었다. 그럼 왜 이런 全國적인 큰 騷搖 사건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자.

明治維新으로 開化 富強해진 일본이 半世記도 못되는 동안 淸, 露 二大國을 完敗시켰다는 것이 日本은 勿論 全世界를 놀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한 대로, 戰爭 中半에 日, 露 兩國의 避치 못할 事情으로 그 이상 전쟁을 繼續못할 처지에 이르렀고 또 미국이 國

際정세에 유리하게 싸움이 完勝 敗하기 전에 休戰시킨 것이다. 이런 內
 密事情은 세상에 公表되지도 않았고 日本政府 報導기관도 일본의 일방적
 連戰連勝만 보도하며 國民들의 戰意를 高陽시키려고만 했다. 그럼으로
 愚民이 돼버린 일본국민들은 日本이 神秘的인 神州強國이라고만 洗腦되
 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軍神들의 武勇談들을 讚揚하는 教材들로 小學校
 教育은 채워지고, 그렇게 믿어진 世代들이, 얼마 후에는 昭和陸軍의 幹部
 가 되고 狂暴해져서 2·26事件등을 일으켰다. "昭和의 維新을 위해서 閣
 下の 한 목숨을 가져가야겠습니다" 하고 尉官級將校들이 大臣들을 殺害
 했다. 이런 상황에서 軍部主導下的 昭和時代는 우리가 겪은 滿洲 中國,
 太平洋戰爭의 15年을 구렁텅이로 빠트렸다. 과연 大文豪 司馬의 말 "日
 比谷公園의 暴舉가 日本敗亡의 始初였다" 하는 말이 비로소 首肯이 가는
 듯 하다.

參考文獻

坂の上の雲	司馬遼太郎
世界の歴史	中公文庫
世界の歴史	河出文庫
日本の歴史	中公文庫

북구 기후의 급진적 변화와 생물상

金 元 謙 (30回)

세계의 기후변화는 예상보다 빨라서 시급히 다가오고 있으며 변화에 의한 세계 인구 이동, 생태계변화, 특히 식물상(植物相)의 분포변화는 회복할수 없는 인류 역사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은 위기는 자연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들의 생활양식과 태도의 변화에 의해서 초래되고 있다. 큰 원인의 하나는 증가하는 탄산가스(CO₂)의 공기중의 함량이다. 우리 인류나 동물들에 의해서 생기는 탄산가스는 곧 식물작용에 의해서 흡수되어 태양의 빛과 물(공기중의 수분)과의 화학작용 즉 식물의 광합성작용에 의해서 탄수화물, 즉 당(포도당, 과당 등), 더 나아가 고분자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이것이 동물에 의해 섭취, 분해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르기에 의해서 동물이 활동한다. 이 과정에서 즉 동물의 호흡작용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는 식물에 의해 흡수되어 유기물 합성에 이용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우주창조이래 우리 지구에서만 볼 수 있는 화학과정이며 인류 기원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있는 이유는 식물과 동물이 상호 각기 배설물을 이용하는 아름다운 과정에서 나오는 신비의 미라고 할수 있으며 우주천체에서 지구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과정을 종말상태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급진적 기후변화라고 할수 있다.

그 이유로는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탄산가스를 들 수 있다. 즉 CO₂가 우리 인류 또는 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보다 더 많이 현대 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

많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의 소모량 이외에 석탄을 태워 나오는 열로서 물을 끓여 생기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서 산출한 전력을 이용할 때 막대한 CO₂ gas가 생겨 나온다. 또 몇 천 만대나 되는 자동차는 휘발유를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성하여 움직이게 되는 반면 식물이 소모하는 몇 천배나 되는 CO₂ gas를 공기중에 배출한다. 이결과로 CO₂ gas가 북극상공에 집중되어 캐나다 서부쪽의 북극 지대의 온도는 섭씨 4도나 올라가서 백곰(Polar Bear)의 수가 감소되었고 해마(Walrus)의 수도 감소중에 있다고 하여 이대로 간다면 21세기 말에는 종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또 캐나다의 원주민의 한 그룹(Inuit 사람들)이 사냥하여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순록(Reindeer)도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Manitoba주의 북쪽에 있는 수목의 성장 한계가 온도변화에 의하여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영구동토층(Permafrost)이 몇백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Manitoba주의 북쪽 도로(道路)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 주에 존재하고 있는 두 큰 호수는 더 커짐으로서 그 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북극의 얼음이 녹아 생기는 물은 태평양과 대서양의 수면(Water Level)을 높이게 함으로써 해류의 방향을 변경할수도 있으며 단지 90cm 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이 올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렇게 되면 남쪽 부분의 미국 Florida주는 물에 잠기게 되고 그 지방의 생물상은 변동될 것이라 보고있다.

이와같이 찬 북극 물이 흘러나오면 대서양의 북향난류는 기온이 차게

되어 북대서양지역의 일반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고 보고있다. 그럼으로써 북미대륙, 구라파의 겨울 온도가 더차게 되고 농업에 지장이 생겨 식량난이 올 기회도 많아 질 것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생활 양식을 조정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구의 기온 변동을 방지하는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

문제의 하나는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80% 이상이 fossile fuel(지구원유) 즉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재검토와 또 그 위기 상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지난 11월 24일 Arctic Council(북극지문위원회)이 Iceland의 Reykjavik에서 만나 신중한 정책을 모색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했다고 한다. 인류의 복리를 위해 이 문제는 앞으로 UN기구를 통해 의논되고 참여국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최대의 협조를 지원해야 할것이다.

내 고향 함흥

金 冕 燮 (30回)

함흥이 나의 고향이라 한들 누가 무어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실은 내가 함흥에서 태어 났는지 함주군에서 태어 났는지 나도 잘 모른다. 확실한 것은 어렸을 때 함흥에서 황금정국민학교에 다닐 때 여름 방학이 되면 신발과 옷을 벗어 책 가방에 넣어 머리에 이고 어른의 손을 잡고 성청강 맑은 물을 건너 십리 정도 걸어서 할아버지가 농사지으시면서 계시는 함주군 삼평면 수흥리 고향으로 가서 천진난만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 놀았다는 사실이고, 그때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 그리움을 달래곤 한다. 어렸을 때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특징이 있나보다. 더욱이 오랜 시간을 지냈을 때 짧은 시간이나마 즐거웠던 기억이 더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하여 나는 고향이 함흥인지 함주군인지 혼돈 된다. 그래 내 고향은 함흥이기도 하고 함주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함주군 삼평면면민회가 있어도 참가하고 함흥시민회가 있어도 참가한다. 점심 도시락을 타 먹으면서 삼평면민회에서는 삼평면민들과 즐겁게 지내고 함흥시민회에서는 함흥시민들과 즐겁게 지낸다. 이렇게 고향 모임에 나가 서로 즐기기는 정년 후 몇 년 지나서부터였다. 그래도 정년이 오래전이었으니 10년은 넘었다.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황금정 2정목 신작로에서 두 번째에 있던 작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뜰도 없는 부엌이 달린 방 한 개와 마루가 달린 방 한 개의 집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마루가 비에 젖곤 했

다. 보통 아이들은 방에서 지내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엌 달린 방에서 지내셨다. 방이 작아서 아이들이 엉켜서 겨우 누어 잘 정도였다. 그래서 옆집 아이들과 큰 옆집에서 놀 때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누나가 와서 강제로 업고 갈 때까지 놀기만 했다. 우리집 앞집은 냉면과는 집이었다. 그 냉면집 이름은 모르지만 그 냉면이 그렇게도 맛 있었던 것 같았다. 아마 감자가루로 만든 물냉면이었던 것 같았다. 돼지 고기 한 점과 계란 반개와 얇게 썬 무가 놓여져 더욱 맛있는 것 같다. 맛이 있는 것은 하도 못 먹던 때라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 보통 집에서 즐겨 먹는 냉면은 까만 냉면이다. 이 까만 냉면은 언 감자 가루로 만든 국수발이 까만 색이기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함흥지방은 추운 곳이므로 감자를 잘못 저장하면 얼기 마련이다. 겨울에 땅을 깊이 파서 그 속에 감자를 넣고 가마니를 감자 위에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움을 만들어 얼지않도록 저장한다. 그 움에는 필요할 때에 감자를 꺼낼 수 있도록 사람의 팔이 들어 갈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두고 이 통로는 헨 옷 따위로 잘 막아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감자가 얼지않도록 한다. 하는데도 어는 감자가 많기 마련이다. 언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찌어서 찬물에 오래 담가두면 언 감자는 까만 가루가 되어 가라안는다. 이 까만 가루를 말려 두었다. 반죽하여 국수발을 만든다. 이것으로 만든 온면 또는 냉면이 까만 국수이다. 까만 국수의 일미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나이에 집을 황금정 3정목으로 옮겼다. 황금정 신작로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면 오른쪽 집이었다. 마당이 넓고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집 크기는 먼저 집 두배 정도로 전보다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대가 낮아 여름 장마 때가 되어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물이 마루 앞까지 차는 때가 많았다. 나는 이 집에 살때에 황금정국민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입학할 때에 입학시험을 치렀다. 간단한 몇 마디 말을 시켜보더니 입학을 허가하였다. 그때 내 몸은 여러 가지 병으로 약해져서

드디어 2학년이 되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년 휴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는 의술이 보잘 것 없어서 병에 걸리면 별도리가 없었다. 물론 약도 구하기 힘들었고 약을 살만한 돈도 없었다. 이런 삶이 그 때의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나는 할아버지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용케 병을 이기고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국민학교 사학년이 되어서 또 집을 옮겼다. 이번에는 성청정 3정목 소장대 거리 근방으로 이사하였는데 소장대 정문 길 건너 맞은편 골목 제일 안집이 우리집이었다. 이후 줄곧 월남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이 집은 마당이 꽤 넓었고 집도 세 채나 되어 한 채는 세를 주고 다른 한 채는 고향 수흥리의 6촌 형들이나 친척 형들의 공부방으로 사용되었다. 그 때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수해야 하였으므로 그 방은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재수용 방으로 사용되곤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히 소수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소장날은 일주일에 한번으로 기억된다. 소장날이면 함흥 주위 농부들이 꽤 먼곳으로부터도 기르던 소를 끌고와서 판다. 이때 소 거간들은 소가 크고 건강하다든지 힘이 좋아 일을 잘할 것이라든지 큰 소리로 살 사람을 끌어 드려 흥정을 부쳐 매매를 성사시킨다. 그때 소는 주로 농사 일을 하는데 이용되었고 식용으로는 늙어 일하기가 어려운 소만이 사용되었다. 소장날이 아니면 소장대는 텅비어 있었으나 우리들은 소냄새가 지독히 나서 그곳에서 놀지는 않았으나 뛰어 놀 때는 얼마든지 있었다. 성청강 모래사장은 물론 성청강 뚝과 신작로와 골목길 할것 없이 모든 곳이 우리들의 놀이 마당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는 많은 변화가 왔다. 그 중 특기할만한 것은 누구 인가는 확실하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막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모름지기 우리 주위에 돌아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식민지를 벗어날 시기가 언제일까는 종잡을 수 없었으나 반듯이 온다는 확신은 서가고 있었다. 중학시절에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거의 패전해 가고 있었을 때였으므로 학교에서의 공부는 하지 못했고 소나무 뿌리를 캐러 소나무가 많은 함흥정화능의 산으로 가는 것이 일과였다. 이 소나무 뿌리는 소나무 뿌리기름을 짜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소나무 뿌리기름은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인 연료를 만드는데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다 못해 중학교 3학년 때에는 흥남봉공에 있는 비행기 연료를 만드는 군수공장에 아예 가서 합숙을 하며 집에도 오지 못하고 최소한의 잠곡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일했다. 이와 같은 어두운 세월은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끝이났다. 이런 일들은 지금부터 약 60년 전 일들로 우리들의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광복이 되어 소련군인들이 함흥에 들어왔다. 이 소련군인들도 함흥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함흥역 앞의 큰 창고에 하나 가득 싸여있던 생활필수품을 몽땅 빼앗아 갔으며 심지어 공장기계까지 뜯어 기차에 실어 소련으로 가져갔다.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도 우리 함흥시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함흥 넓은 평야에서는 쌀과 오곡 야채 등이 풍부하게 나서 우리를 살지게 하였으며 주위 야산 과수원에서 생산되는 국광, 홍옥 등 많은 맛있는 과일들은 지금까지도 그 맛을 잊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30리 밖 동해 푸른바다에서 잡히는 가재미, 은어, 정어리, 명태, 털게 등 풍부한 어족의 맛도 잊을 수 없다. 함흥은 모든 것의 중심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잘 간직한 곳이다.

광복 후 많은 함흥사람들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찾아 월남하였다. 월남한 함흥시민 약 200여명은 1947년 봄에 장춘공원에 모여 함흥시민회

를 만들어 서로 정을 나누며 고향 함흥의 그리움을 달래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살기로 하였다. 그 후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아직 우리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함흥시민회 회장을 지내신 분으로 함흥고보 선배로는 세분 계셨다. 한분은 16회 김연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함흥시민회 회장하실 때 함흥시장학회를 만들어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았으며 그 장학회가 오늘까지 함흥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후진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한 분은 19회 주근원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함흥시민회 기강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 하신 분이다. 다른 한분은 29회 김희국 선배님이신데 이 분은 함흥시민회의 화목에 크게 이바지하셨다.

월남한 함흥시민들이 남긴 업적은 수 없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기 할일은 함흥영생여학교 동창들이 성금을 모아 수원에 함흥영생고등학교를 세운 일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슬기롭게 해낸 함흥영생여학교 동창들의 업적은 우리 함흥의 큰 자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함흥영생여학교는 작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고 또 개교 100년사를 금년 봄에 펴냈다. 함흥영생중고등학교도 몇년 후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 지금 그 준비에 한창인 줄로 알고 있다. 함흥농업학교도 긴 역사를 가진 학교이며 함흥상업학교, 함흥사범학교, 함남고녀, 함흥실과여고, 대흥상업등 함흥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이 있었다. 광복 후에는 학제가 달라져 여러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다. 함흥에는 유치원까지 헤아리면 40여 개의 학교가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동창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중고등학교 동창회는 조직되어 잘 운영되고 있어 함흥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모임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함흥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모든 함흥사람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 같다. 함흥시민회 회칙에는 함흥시민이란 함흥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이 있는 사람과 그 자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것이다. 지난달에 이북 5도청 강당에서 함흥시민의 날 행사가 있었다. 함흥시민회가 조직된 후 지금까지 매년 가을에 함흥시민의 날 행사를 하여왔다. 보통 약 500명 정도가 모여 망향의 한을 달래며, 고향에서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보내며 왔다. 금년 함흥시민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 동창회장이신 이삼열 선배님이 함흥시민들에게 유익한 좋은 주제로 축사를 하여 주서 예년의 함흥시민의 날 모임과는 달리 대단히 보람있게 치러졌다. 앞으로도 함흥시민회가 함흥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고향 함흥은 꿈에도 잊지 못할 곳이다. 얼마전에 함흥의 소식을 들었다. 함흥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함흥은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나의 친척과 친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타계하신 모양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내 나이를 돌아보니 나도 70 중반을 넘어서 있다. 세월이 빨라서 인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종잡을 수 없다. 함흥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랄 따름이다.

◆◆◆◆ 31回 ◆◆◆◆

- ◎ 증세 아랍과학사 서설/ 高庚式 (31回)
- ◎ 뽕땅론/ 朴鎰忠 (31回)
- ◎ 빨간 마후라의 회상/ 李培善 (31회)
- ◎ 흐 름/ 權鎮均 (31回)
- ◎ 위대한 애국자 성재 이동휘 선생/ 柳俊馨 (31回)



중세 아랍과학사 서설

高 庚 式 (31回)

서 로마 제국이 476년에 침입한 고트(Goth)족에 의해 멸망되고 나서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될 때까지의 약 1000년간을 사가들은 흔히 중세라고 부른다. 이탈리아 반도에는 많은 고트족의 왕국이 있었으나 게르만의 한 부족, 프랑크족이 민족 대이동 때 라인 강 동안의 원주지를 보존하면서 갈리아(Gallia)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프랑크 왕국을 건국하고 게르만을 통일하여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여 통일 유럽의 기초를 닦았다. 프랑크 왕국이 쇠망한 이래, 로마 법왕의 교권에 의해 유럽은 통일되었으나 새로운 유럽의 민족은 고도로 난숙한 고대문화를 계승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치하였다.

중세에 있어 기독교 문화권에 대립한 것이 이슬람 문화권이다. 이슬람교는 시조 마호메트외 영도 하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란, 시리아, 이집트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마호메트의 정계(正系)를 끌어뜨린 사라센 제국 초대 칼리프인 무아위야(Muawiya)는 왕조의 도읍을 다마스쿠스로 옮기고 그 원정군의 일부는 서 인도에 이르고 다른 일부는 아프리카에서 지브롤터를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점거, 이슬람의 판도는 피레네 산맥에 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이슬람은 마케도니아를 능가하는 대제국이 되었다. 또한 이슬람교도는 고대 문화민족을 정복함과 동시에 그 고전을 수집하여 아랍어로 번역하여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고대 유산을 보존하였다. 더욱이 이슬람의 광대한 판도를 동서로 여행하

는 사람이나 상인의 손에 의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견이 도래되므로 고대 그리스의 학문에 독창적인 지견이 가해져 에게해의 천재들이 이룩한 과학을 더욱 정밀화 하였다.

여기서 중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는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말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며 학자로서는 보에티우스(Anicis Boethius : ?~524)부터 니콜라우스 쿠사누우스(Nicolaus Cusanus : 1401~64)까지이다. 보에티우스는 흔히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부르며 쿠사누우스를 마지막 중세인이라 말하기도 한다. 학자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학문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과학의 역사라 하여도 철학자나 신학자까지도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시기가 넉넉하게 보아 대체로 1천년이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일반사에서든 그랬듯이, 특히 과학사에서는 미개척 분야가 산적한다. 그것이 '아나토미아'의 해부생리학이건, '물리학'이건, '생물학', '천문학', '의학' 등, 중세에 관계되는 자연학의 책을 읽으면, 처음에 그리스가 있고 다음에 로마, 아랍이 있고, 중세에 관해 약간은 언급하나 기다렸다는 듯이 르네상스로 이어진다. 간단한 한 분야라면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과학사인 경우는 그 것으로 용납될 수는 없다.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라 말할 때는 과학 본래의 의미에 되돌아가 '안다는 것', 즉 학문 전체를 고려해야 하므로 처음에 창조적인 그리스가 있고 그것에서 한 때 암흑시대라고 불리었던 골짜기를 지나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단순화는 용납될 수 없다. 흔히 중세를 암흑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세에 관한 지식이 암흑인 것에 불과하다.

역사는 영웅 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과학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과학사를 열전체(列傳體)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의 문제이지 특별히 영웅숭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르키메데스나 갈리레이는 상세하게 연구되어 지금은 훌륭한 전집도 출판되

어 확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다. 무명전사에 관해서는 때마침 그것을 전하는 자료를 접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러한 자료를 맞이하기란 대형 빌딩 공사현장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찾는 정도의 확률에 불과하다.

중세에는 이렇다할만 할 발명도 발견도 없지 않는가 하는 물음도 있을 만하다. 화약과 나침반을 들수 있으나 누가 발명했는지 계속 물으면 모른다고 밖에 답할 수 없다. 자석을 알아낸 것은 중국이라고 하나, 실제로 나침반을 사용한 것은 지중해의 선원들인 듯하다.

또 하나 종이의 발명보급이 있다. 이것도 발명은 중국이 처음이었고 아랍과 중국이 싸울 때, 제지기술을 알고 있던 중국인이 아랍에 잡혀 사마르칸트에 제지공장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삼대발명을 말해도 아직 설득력은 부족한 듯하다. 또한 중세는 그리스나 로마의 학문 문화를 잘 보존하여 이것을 근세에 전했다고 말하면, 그러한 일은 스타나 천재가 아낌없이 예지를 경주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일축 당할 듯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전승이란 것조차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또한 전승을 포함하여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것을 밝히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기도하여 학문적 가치가 있는 일이므로 스타라 해서 하지 못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말했지만 한마디로 중세라 해도 실은 일천년에 걸쳐 있으므로 전체로는 매우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세를 전, 중, 후기로 나누어 보자. 물론 이것은 외형상의 것으로 기능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는 앞에서 거명한 보에티우스 이후의 수세기로 쇠퇴일로의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이 전해지는 시기로, 아랍의 학문이 일어날 때까지의, 즉 8세기 초까지이다. 그 여명을 유지하는 학문의 중심은 알렉산드리아와 비잔티움이었다.

중기의 부분은 아랍학문이 번영한 시기이며 8세기의 어느 시기부터 9

세기, 10세기의 황금시대를 걸쳐 쇠퇴해 가는 12세기경까지이다. 이 시기에 아랍어가 라틴어에 대신해서 과학용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용어로 하는 지역이 유럽에도 꽤 확산되었다. 이 아랍어를 사용하여 저술된 과학을 우리는 아랍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인종에 관계없이 이슬람교인이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슬림(Muslim)이라 부른다. 이 부분은 중세과학사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언어의 제약 때문에 가장 발전되지 못한 연구 분야이다. 마지막 후기부분은 아랍학문이 일반적으로 쇠퇴하는 한편, 유럽이 지적 활동을 시작한 12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이다. 그 종연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종래는 일반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또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중세의 끝, 근세의 시초로 하였으나, 그 어느 것도 유럽인의 시각에서 본 구분인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교도에 빼앗긴 것은 유럽인으로 보면 큰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사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지리학상으로는 약간의 의미가 있을지언정, 발견이란 것은 유럽인이 말하는 것으로 그 곳에 사는 원주민으로는 발견은 고사하고 오히려 침략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인쇄술의 발명에다 설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1450년에서 크게 뒤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구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 결국은 15세기 속에 모두가 수용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외형상 전·중·후기로 나눈 3개의 부분 중에서 중기의 아라비아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라비아 과학은 그리스의 과학을 번역하여 후세에 전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흔히 듣는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아라비아 과학의 소산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전승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12세기쯤 유럽의 라틴 세계가 지적 활동을 재개하려 하였을 때, 라틴

의 학문세계는 그때까지 오랫동안 황폐하고 있었으므로 마치 공부하려는 데 교과서가 없는 것 같은 형편이었다. 이때 이븐 루슈드(Ibn Rushd : 1126~98)가 아라비아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주석을 첨가한 것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교과서로 하였다. 천문학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책을 아라비아어로 번역한 것이 라틴어로 다시 번역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그 자취가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Claudius Ptolemaeos : ? ~?)의 천문서 '알마게스트(Almagest)'로 발간된 이 아라비아어로 『위대한 작품』이란 제목의 책은 그대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다가오는 르네상스 영웅들의 초기의 예술이나 과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역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리스어 원전을 찾아 그것을 읽어야만 한다고 말한 것이 로저 베이컨(Roger Bacon)이었다. 이러한 책은 비잔티움에서나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려면 안내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구해 올때까지는 아라비아어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대체로 이 정도의 준비는 필요하다. 베이컨의 염원은 그의 생존 중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그야말로 탁견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아랍의 학자들은 어디에서 그리스의 과학을 배웠을까. 거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루트가 있다.

그 하나는 네스토리우스 파의 학승들이었다. 네스토라우스 파는 그리스교의 일파이나 이단으로 선고 받아 그 학승들은 당시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추방되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비호를 받아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준디샤플에 정착하였다. 이 학승들 중에는 그리스의 의학이나 기타의 과학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다. 이것은 아직 이슬람 제국이 생기기 전이지만 이 전통은 오랫동안 이 곳에 남았다. 이슬람의 칼리프(Caliph)는 궁중의가 필요하게 되어 준디샤플에서 뛰어난 의사, 의학자가 칼리프의 궁전에 초대되어 어의(御醫)가 됨과 동시에 그리

스 의학의 서적을 아라비아어로 번역도 하게 된다. 의학의 진보와 더불어 수학이나 철학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아랍의 학자가 생겨났다. 또 아랍의 어느 임금님(칼리프)이 ‘루움’ 나라에는 훌륭한 학문이 있는 듯하니 그대들은 가서 책을 구해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학자들도 모시고 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사자(使者)를 콘스탄티노플에 보냈다. ‘루움’이란 로마란 발음이 편의상 바뀐 것으로 실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을 뜻한다. 그리고 그리스어와 아라비아어를 아는 학자들에게 번역시켰다. 그중에는 시리아어를 중개하여 번역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번역 사업이 8세기에 시작하여 9세기, 10세기로 계속되었다. 번역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 주석이 가해지고 내용을 연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의 의학, 수학, 생물학, 천문학의 두드러진 것의 거의 전부를 약 200년 동안에 번역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물론, 규모는 이 경우하고는 비교될 수 없지만 창설하는 한국군의 초창기에 미국 군대의 야전교범이나 기술교범을 번역하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영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통역(번역)장교란 제도를 군에 설정하여 거의 모든 야전교범(Field Manual), 기술교범(Technical Manual)을 번역하여 발전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어쨌든 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책이라면 코란 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므로 이 빛나는 학문 문화를 목격한 것이다. 정복자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설복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도 학문은 필요하다. 단순한 호학심만으로는 약 200년 동안에 그리스의 의학이나 철학을 거의 전부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아랍인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사온 사본류는 고전 그리스시대의 유품인가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비잔티움의 학자가 직접 자신이 사본하였든가 사본요원을 고용하여 필사시킨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은 아랍의 사자가 비잔티움에 책을 사러 갔을 때, 즉 8세기에

그곳에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이 유클리드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자가 있었다는 것이 말해 주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실은 대단한 일이다. 무지인 경우에는 이리스토텔레스도 보통의 종이, 이니 양피지의 쓰레기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실은 또 하나의 서방 학문을 전재 주고 있던 풀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인데 여기에서는 전승이란 문제만을 언급하기로 하자. 이런 일을 길게 끄는 것은 외당 스타가 하는 일이 아닐 지 모른다. 그러나 연극은 스타만으로는 할 수 없다. 기타 연기자들은 물론이고 무대 뒤에도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런 일은 으레 무대 뒤의 소도구의 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당시의 아랍 지식인에게는 수단은 어쨌건 찬란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대단한 의지와 학문적 정열이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인의 연구법을 익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자연을 보고, 그리스의 고전에 수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추가하였다. 그중의 한 사람이 라아제스(865~925 : 아랍 이름 Abu Becr Muhammad Zakrija)이다. 페르시아의 코라산에서 태어나 바그다트에서 활약한 이 학자는 연금술, 철학, 의학에 정통했고 200여종의 대 저작이 있다. 그중 의서 엘하위(EI Hawi)는 라틴어로 번역되어 'Continens'라 불리우며, 서방 기독교단에서 의학의 성전으로서 존경을 받았다. 아랍 생물학, 특히 식물학은 라아제스 후에 이베리아 반도의 3인의 학자에 의해 승계되어 '약물서'에는 동식물 2600여종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다. 로마의 학자 플리니우스의 '자연지'에 기재된 것이 1000종에 불과한데 비하면 그 내용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약물서'는 그 내용에 있어 저자 자신의 관찰에 기초한 정확한 것으로 문헌을 편집한 것이 아니다.

되풀이 하지만 아라비아의 과학은 결코 그리스의 학문을 전승한 것만은 아니다. 대수학(代數學)은 명실공히 아라비아의 소산이다. 삼각법(三角法)도 아라비아에서 발달하였다. 이것은 관측 천문학과 관계하고 있다.

연금술은 영터리 금 만들기가 아니고 화학적 연구를 다분히 함유하고 있다.

아라비아의 의학 등에 대해서는 이미 19세기에 뛰어난 연구가 있었으나 과학 전반에 걸쳐, 또한 넓은 의미의 과학에 대하여 깊이있게 조사 연구한 최근의 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죠지 서튼(1884~1956)이나 이태리의 알도 미엘리(1879~1950) 등이 있다. 서튼의 연구는 매우 신중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대체로 신뢰받고 있으며 미엘리도 아라비아 과학에 대해 최초의 모노그래프를 작성한 공로는 높이 인정받고 있을지언정 신중성에 있어서는 다소의 결함이 있다는 평도 있다. '중세과학사 서설' 이란 제목으로 그것도 모교의 동창회지에 실는 글에 약 700명을 넘는 아랍 연구자들의 업적을 요약하거나 그 저술, 그 사람에 관해 언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흥미를 이끌게 하는 아라비아 과학의 서구로의 이입에 대해서는 스타인 슈나이다같은 뛰어난 아라비아 학자에 의한 연구가 이미 19세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의 동일한 연구를 보충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업적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을 하는 연구자는 자신의 모국어와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아라비아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문제는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서방 라틴의 학자에 대해서도 중세말의 아랍 과학사 부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가 많다.

문예부흥(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최대의 인물은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일 것이다. 그는 너무나도 거물이며 또한 중세라는 영역 밖의 인물이기 때문에 별격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레오나르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은 다음부터는 의사인 갈레노스(Galen : 129~199)를 공부하였다. 그는 인체를 그리기 위해 인체를 해부하였다. 물론, 그 뿐만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화가는 모두 인체를 해부하였다. 그는 그림에 필요한 인체 표층의 근육을 해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3백년

에 걸쳐 그리스의 고전을 번역하면서 독자적으로 진실만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습득한 아랍의 자연학자들도 알고 있는, 즉 진실을 묘사하기 위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부의 형태까지 확인하였다. 르네상스의 예술은 필연적으로 과학으로 이어진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해부학자, 수학자, 회화론, 새의 비상론, 발생론, 수리학자로서 넓은 분야에 걸쳐 남아 있는 그의 업적 등에서 근세 초기와 마주하는 중세 말의 과학은 단순히 고대 자연학의 계승만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정신 속에 자라, 이아트로 화학이나 이아트로 물리학이 대두하는 연원도 된다. 인접 과학의 발전은 없고 그 활약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생명현상을 화학과정으로나 물리학적으로 보고 생물학의 본질을 화학과정이나 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입장의 학문을 이아트로 화학(iatrochemistry) 또는 이아트로 물리학(iatrophysics)이라 부른다. iatro는 의학의 의미이다.

르네상스는 연극의 막이 오르는 것 같이 돌연히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화려한 무대는 긴 시간을 드러 준비된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이미 13세기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앞서서도 잠시 말했지만 로저 베이콘의 '알마게스트'는 그리스어의 원본을 찾아 직접 그리스어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르네상스적 발상이다. 그렇다고 13세기 초에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표현일 것이다.

과학사의 시대 구분에 있어 중세의 끝과 근세의 시작을 활판 인쇄술의 발명을 기준으로 삼아 이것을 일반적으로 문화사, 문명사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다. 활판 인쇄술의 발명이야말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 문명 상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종이가 출현하기 이전의 문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종이가 출현한 이후의 사본조차도 초심자들이 구해 본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려운 일이었

을 것이다. 이 발명의 대표자는 구텐베르크라 하나, 활자를 만드는 합금의 연구와 금속활자에 부착시켜 종이에 베껴내는 잉크의 고안이란 기술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제지의 발달이란 배경에 뒷받침되어 성공한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활자에 의한 인쇄기를 조립하여 시험인쇄를 한 것은 성서의 '시편' 이었다고 한다. 기독교 문화권의 일이었으니 그럴 만도 할 일이다. 이어서 종교서도 인쇄되었을 것이며 인쇄공장이 서서히 유럽의 큰 도시나 아랍 세계에도 설치됨과 동시에 과학서도 의외로 많이 인쇄되었다. 인큐나블라(incunabula), 즉 활판 인쇄의 최초기부터 1500년까지에 인쇄된 서적 중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한 목록이 클렘스(Arnold C. Klebs, 1938)에 의해 작성되어 있다. 의학을 제외한 자연과학중에서만도 중세말기, 특히 15세기 후반(이 때는 이미 중세는 아니지만)에 인쇄된 아랍과학사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방대하게 있다. 그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저작이 유럽의 각지에서 인쇄되었고 그 중에는 판이 10판 이상의 수에 이르는 것조차 있다.

대(大) 알베르투스(알베르투스 마구누스)로는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 이것은 13세기의 사람인데 알베르투스 폰 삭센이 대 알베르투스하고 혼돈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을 거듭한 동명동서외에 동명에서, 이명동서 등이 있어 상당한 시간과 주의를 경주해야만 하는 것도 꽤 많다. 더욱 분야를 좁혀서 조사하면 아랍, 서구 양 세계에 걸친, 특히 중세 아랍과학사에 관한 귀중한 자료가 발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금도 추정하고 있다. 아라비아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인큐나블라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중세 과학사 연구자에게는 흥미로운 과제이다.

뽕땅론

朴 鎰 忠 (31回)

일요일 날 마누라가 교회에 간 사이 나는 열심히 책장의 책들을 끄집어내어 한 권씩 펼치면서 그 속에 숨겨놓은 수표와 헌금을 찾고 있었다. 오래전의 일이라 그것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렇게 혈안이 되어 찾은 것을 보면 지금 돈의 가치로 2백만 원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며칠 전에 그것들을 기분 좋게 바라보고 나서 어떤 책 속에 넣었는데, 그것이 평소의 구획과는 다른 데 있는 책이었던 모양으로 이미 2백원은 넘게 뒤졌으나 나오지 않는다.

하도 정신없이 찾다보니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 오후 1시에 마누라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방바닥에는 약 50권의 책이 넘려있었다. 작업 시간이 얼마가 걸릴 지 모르는 데 서서 작업을 하다가는 곧 허리가 아파오고 피로가 찾아올 것이라 믿고 책장에서 내려놓은 책들이었다. 아내는 평소에 내가 이런 식으로 독서하는 것은 본적이 없으니 대뜸 눈치를 채고 “당신 또 돈을 찾고 있군요.” 했다. 나는 당황한데다 약간의 죄의식 때문에 아부가 섞인 헛웃음을 치면서 “그래.”라고 자백했다. 이 경우에 아니라고 잡아떼 보았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내가 직장에 나간 사이, 아내는 여유롭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면…” 하는 따위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책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내리시어 쉽게 찾게 해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돈은 얼마

가 나에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때 내내는 “내가 찾는 것 도울 테니까 찾으시면 반은 저 주세요.” 한다. 이 말에 나는 “공짜 좋아하긴” 하고 소리를 지를뻔했지만 위에서 말한 불리한 입장 때문에 화를 꼭 참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도 나오지 않던 돈이 마누라가 찾으니 10분도 채 안 걸려서 나왔다. 마누라는 해해하면서 그 반을 약탈해갔다.

그 후 나는 책의 이름을 잊어버려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돈은 『생활의 발견』, 『중세의 발견』, 『중국의 발견』 등 제목에 ‘발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들에 숨겨 넣었다. 그러나 다니엘 부어스틴의 『발견자들(The Discoverers)』은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사용하지 않았다. 발견자는 오직 한 사람, 나여야지 복수가 되면 곤란하지 않는가.

옛날 월급날이면 우리는 이미 마누라 모르게 쓴 돈, 또는 앞으로 빙땅 할 돈, 그런 것들을 월급명세표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아니 한점 틀림없이 계산해서 적어 넣었다. 많은 동료들이 경리과에 가서 명세서 용지를 받아와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계산, 특히 뺄셈을 한 후 숫자를 기입했다. 또 본인 필적으로 쓰던 위조 명세서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니까 기록은 서로 바꾸어서 했다. 그래서 월급날 우리는 산수 실력이 더욱 향상되고 또 동료 간의 정의도 많이 돈독해졌다.

약 30년 전쯤 나는 어떤 전문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월급날은 수위 아저씨들이 사람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서 의상값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학교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어서 의상값 받으러 오는 업소 사람들은 의상값 받아내야 할 사람을 잡는 데 2분의 1의 성공률을 바라보고 한 쪽 문전에서 기다렸다. 근처 중국집에서는 주인의 동생으로 날렵해 보이는 20대 청년이 와서 기다렸고, ‘OB HELL’이라는 틀린 철자 간판을 1년이나 걸어놓고 영업하던 지하 맥주홀

의 마담도 거기에 있었다. 이날 수금하러 온 사람들은 출입시키지 말라는 엄명은 술꾼으로도 관록이 대단했던 학장이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직접 내린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우리는 그를 더욱 존경했다.

어느 월급날 나는 대학 동창 L군의 직장인 Y통신사로 찾아갔다. L군이 일하는 편집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수위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위아저씨가 여간 권위주의가 아니어서 “당신 이름은 뭐요. L씨와는 어떤 사이요?” 하고 무섭게 굴었고, 내가 세일즈맨이 아닌가 생각하는지 내 낡은 가죽 가방을 힐끔힐끔 보았다. 그런데 이날따라 그 수위는 수위실 밖은 내다보지도 않고 뭔가 정신없이 쓰고 있었다. 잘 보니 월급 명세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쓰는 것을 보면서 약 5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 그 5는 6으로 보이는데요.” 하고 훈수를 할까하다가 참았다. 그는 겨우 가 입을 끝내고 볼펜을 놓으면서 수위실 밖을 보았고 그제서야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을 보곤 히죽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아, 아까부터 누가 와 있는 것 같더라니, 미안하오.” 하는 뜻이 읽혀졌다. 그 후로는 내가 찾아갈 때마다 이 양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올라가라고 계단 쪽을 가리켰다.

약 20년 전 봉급자들은 거의 모두가 생활이 어려웠다. 아이들이 대학에라도 다니면 겨우 살림을 꾸려나갔고 신용카드라는 것도 없을 때였으니 돈이 떨어지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서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돈이 떨어졌다고 처제한테 빌리러 가는 마누라를 보면서도 나는 책갈피 속의 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속으로 그 당시의 비양심적인 기업가들을 비난하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하는 말을 머리에 떠올렸다.

1980년대까지도 모든 버스에는 차장이 있었고 그들 중 어떤 아가씨들은 손님에게서 받은 운임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했는데 이것을 ‘뺑뺑’이

라고 했다. 이 말의 어감이 재미있어서 나와 친구들은 이 말을 애용했다. 요새 이 말은 쓰지 않는 것 같다. 잘은 모르겠으나 뺑뺑이라는 말의 쇠퇴는 그 관습 자체의 쇠퇴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뇌물을 받는 자들, 횡령을 하는 자들은 지금도 많고 이런 자들은 지금도 뺑뺑을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봉급자들은 뺑뺑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지도 오래다. 뺑뺑의 쇠퇴를 가져온 결정적转机(轉機)는 아마도 월급을 직장에서 은행에 송금하는 제도의 도입일게다. 월급이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내들에게 가게 되니 돈을 만지지 못하는 남편이 월급의 일부를 숨긴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나나 그 통신사 수위아저씨의 경우처럼 꺾꺾한 구석이 있는 월급 봉투라 할지라도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넘겨줄 때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은 한껏 높아지고 아이들에게도 집안의 수장은 분명히 아버지이며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시켜 주었다. 남편은 묵직한 존재감이 있는 구체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은행에 월급을 보내는 제도가 생긴 후, 아빠는 돈을 번다는 데 어쩐지 그런 것 같지도 않은 희미한 존재, 하숙생 같기도 하고 식객같기도 한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외경(畏敬)의 마음도 잊게 되었다. 가장의 위신을 되찾고, 또 뺑뺑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편들은 옛날식으로 '월급은 은행이 아니라 본인에게로'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세상 마누라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반대할 것이니, 지금의 남편들의 용기나 기개 수준으로는 그런 건 기대하기도 어렵다.

책갈피 속에서 불어나는 돈을 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래서 더 불리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축심이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그 돈은 진짜 반한 애인같이 아름답고 소중한다. 그런 존재를 아끼지 않을 수 없으니 낭비하는 법이 없게 된다. 대부분의 카드 빚 연체자들은

처음에는 이 정도의 액수가 뭐 하고 우습게 알고 돈을 뺐 것이 차차 저도 모르게 버릇이 되고 그 액수는 또 불가사의하다할 만큼 빨리 늘어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큰일났구나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저축, 즉 뽕땅한 것이 있었다라면 처음부터 현금서비스라는 것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뽕땅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간간한 인상의 이회창 씨는 전혀 '탕감'이라는 이름의 때먹기 같은 것으로 자기들을 구제해 줄 것 같지 않으니 이들은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가지 뽕땅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돈의 용처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또 갑자기 병이 드셨단다. 아무리 무던한 남편이라도 지금 말하기는 좀... 하는 마음 착한 아내의 경우라든가. 지난번 중학교 동창 친구가 단란주점에서 한 톱 냈으니 이번에는 내가 한 잔 사야지, 그러자면 50만원은 있어야겠는데... 하루밤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아내는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이고 알면 속상해 할 것이다. 하는 의리 있고 속 깊은 남편들의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부부가 서로 모름으로써 고통받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다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당신은 뽕땅에 있어서의 제법 전문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모았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일종의 취미로 하는 것이니까 돈을 불리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또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빈다면 이건 민감한 문제이므로 금액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서는 그저 수백만 원 된다고만 해두자. 위에서 돈을 숨기는 책 제목에는 '발견'이 들어간다는 민감한 점을 밝혀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참인데... 이번 기회에 코드명을 댄 것으로 바꿀 생각

이다 - 액수까지 밝힐 수는 없지 않은가.

앞으로 나의 걱정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도서관 같은 곳에 기증된 나의 장서 중 하나를 누군가가 빌려서 책장을 펼치다가 이게 무슨 황재냐, 백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지 않나 하고 기뻐하는 장면이다. 내가 무슨 로또 같은 도박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상금을 내건 적도 없으니 내 돈을 이렇게 이유 없이 가지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그를 용납할 수 없다. 내 돈은 많건 적건 마누라나 아이들에게 가야 한다. 그래서 요새 나는 내 가족이 해독(解讀)에 성공한다면 어느 책 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암호 같은 것을 남길 수 없을까 생각하고 있다. 포우의 『딱정벌레(The Gold-Bug)』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책장에는 보이지 않으니 이 작품을 구해서 잘 연구해 보아야겠다.

(작년에 발간한 “어바웃 계당선생” 중에서 <http://ILCHOONG.com.ne.kr>)

빨간 마후라의 회상

李 培 善 (31회)

1. 시작하는 글

193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나는 1948년 12월, 공산체제에 대한 환멸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 월남했다.

18세의 나이로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삼엄한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철의 삼각지대 부근이 된 철원, 김화의 험난하고도 깊은 산길을 통해 월남하였다. 그 이듬해인 1949년 3월, 공군에 입대한 나는 6월에 공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중 1951년 임관, 비행훈련과정을 수련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전투조종사로서 92회의 출격을 완수하였으며, 그 후 조종 교관으로 조종사들의 후배양성에 힘썼다. 비행훈련 대대장시절 나는 미국 공군 조종사의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전투비행단 근무를 거쳐 안전과장과 안전 감으로서 항공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의 확립에 노력했다.

1967년 김해 비행학교 교장 재직시, 전반적인 부대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휘검열에서 우리부대는 전 공군의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반규정 이행, 철저한 감독, 신상 필벌의 통솔방침과 그리고 정직과 청렴을 신념으로 했던 나는 21년간의 군대생활을 마감하며 1970년 4월 40세에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나의 21년간의 군대생활을 회상해 볼 때 전쟁 중 치열한 적의 대공포화 속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92회의 전투출격과, 내 고향을 향해 단 한번도 포탄을 투하하지 않아도 되었던 행운에 대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 후 예편과 동시에 나는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다시 한번 비행기와 인연을 맺고 제2의 비행생활을 시작하였다. 민항기 기장으로서 승객들의 쾌적한 비행과 안전한 운항을 위해 21년 6개월을 보내고 1991년 6월 28일 60세의 생일을 맞으며 정년퇴직 하였다.

민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돌발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긴급 착륙을 위한 접근도중 낙뢰를 맞아 위험을 안고 어렵게 착륙했던 기억과 당시 외국 항공사 조종사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휴식시간 시차극복의 어려움,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 가족이 필요로 하는 중요하고도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떠 오른다.

본인은 1992년 퇴직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와 현재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나의 인생은 지극히 단순하다면 단순하여 공군에서의 21년, 민간 항공사에서의 22년의 조종사 생활, 인생의 3분의 2를 하늘에서 비행기와 더불어 살아왔다.

총 비행시간 2만 1천 시간!

총 비행 2만 1천 시간은 서울에서 미국의 로스엔젤레스까지를 약 1000번 정도 왕복한 시간에 해당된다. 결혼생활 30년 동안 3분의 1이상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했던 아내의 내조와 지금까지 잘 자라준 나의 세 자녀에게도 감사하며 내 인생의 어려웠고 위험했던 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시작한다.

2. 월남 수기

서울에 있는 형님이 좋아하는 말린 가재미 40마리와 배가 고플 때 식량으로 대용할 엿덩어리가 든 배낭을 짊어지고 함경남도 함흥의 정든 고향 집을 떠난 것은 1948년 11월 1일,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새벽녘이었다.

월남을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감시가 심하기에 한달전부터 기른 수염과 허술한 차림새로 행색을 갖추고, 부모 형제들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뒤, 월남행을 시작하였다.

공산 정권으로부터 늘 감시의 대상이 되어 자유로운 가정생활에 제약이 많이 받아왔고, 대학 진학의 길도 가정성분 관계로 막혀 부득이 38선 이남으로 월남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은 38선을 여러 번 건너 다녀 경험이 풍부하였으며, 이남까지 인도하여 주는 댓가를 받아 사는 그야말로 분단이 낳은 희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제대로 길을 가리켜주지 않고, 산속에다 월남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혼자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만 받고 남쪽까지 가지는 않고 산속에서 며칠 밤만 세우다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나는 다행스럽게 제대로 된 길잡이를 만났던 것 같았다.

우리 일행은 60세를 막 넘긴 나의 고모부와 나 그리고 15, 6세 정도 되는 2명의 소녀들과 안내자까지 합하면 모두 5명이었다.

1948년 후반기는 사실상 월남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그 이후에는 조사가 워낙 심해졌으므로 적발될 시에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져 월남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우리는 함흥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 도착한 후 다시 철원행 열차로 갈아탔다. 원산역을 출발하자 차내에서는 조사가 한층 심해졌고 나는 조사원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하면서 차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위

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나이 아직 스물이 안된 청년으로
쉽지는 않았다. 기차 안에서 떨리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척 애
를 써야 했다. 다행히 미리 준비한 나의 변장솜씨 덕분인 듯 나는 단 한
번의 간단한 조사를 받았을 뿐 성공적으로 기차에서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38선과 가장 가까운 종착역인 철원역의 도착을 앞두고 철원역 조사가
심하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는 철원역 전인 평강역에서 내려 약 30리가 되
는 철원까지 걸었다. 철원에 도착한 뒤 다시 전철로 약 1시간 가량 소요
되는 김화에 도착해 저녁 늦게 허름한 여인숙에서 여장을 풀 수 있었다.
당시 해상을 통하거나 평탄한 길을 통한 월남이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
으므로, 우리가 월남경로로 택한 길은 부득이하게 6·25사변 말기의 격전
지였던 철의 삼각지대 부근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일행을 데리고 길잡이가 선택한 월남경로는 지금도 뚜렷하게 떠
오르는데, 첫 숙소였던 김화 여인숙에서 새벽 4~5시경쯤 떠나, 깊은 산
속의 오솔길을 하루종일 걸은 후 해질무렵 중간 경유지인 작고 허름한
서당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루를 쉬 후에 다시 이른 새벽 서당을 출발
하루종일 걸다 보면 포천 북쪽의 첫 이남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 계
획이었다.

이 경로는 이북에서 소를 가지고, 이남으로 와서 팔면 약 3배 가량이
넘는 이익을 남기므로, 이익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소 장사꾼들이 38선
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들을 피해, 깊은 산속을 오가던 길을 길잡이들이
월남하는 사람들의 남하용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떤 지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어서, 다만 이 길을 이
용한 소의 배설물을 확인하면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워낙 험한 산길이고, 밤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하므로, 아무리 산길에 자
신이 있는 사람도 몇 번을 다녀도 새 길처럼 느끼는 험한 길이었다.

김화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 3시경 우리 일행은 간단한 아침식사를 마친 후, 험한 월남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출발 2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우리는 험한 숲속을 걷고 있었고 동행하던 나의 고모부가 점점 뒤로 처지기 시작하면서 행군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런 고모부에게 내가 다가섰을 때, 본인은 힘이 빠져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월남을 포기하고 고향인 함흥으로 되돌아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서는 계획대로 안내자와 함께 가라고 당부하였다.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인 내에게도 고된 산행길이 육십이 넘는 고모부에게는 무리였었다. 그 당시 나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고모부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그곳에서 작별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고모부는 혹시라도 나이든 자신이 산행을 계속하다 다른 일행에게 피해를 줄까봐, 특히 조카인 나마저도 월남을 못할까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점점 더 험해지는 깊은 산길, 가파른 경사, 찌뿌듯한 날씨에 구름이 낮아지더니 이윽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출발 후 4시간정도 지났을 무렵 나는 지쳐서 힘이 떨어지고 일행들과 보행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점점 일행의 대열에서 처지기 시작했다.

눈발이 제법 커지면서 눈은 땅에 쌓이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길은 미끄러워 걷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나는 탈진증세에 이르렀다. 이런 나를 보며 안내자는 수시로 빨리 따라오라고 재촉의 고함소리를 질렀다. 안내자가 지르는 고함소리에 야속함과 무정함도 느끼지 못한 채 경사진 미끄러운 산길에서 일행을 쫓아 가려는 필사의 노력을 해보지만 이제는 정말로 단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 하여 나는 그만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동안 부실했던 식사량과 갑작스런 심한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면서 탈진이 되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순간, 나는 어머님께서 배 고플 때 먹으라고 주셨던 옛 덩어리가 생각났다. 정말 그 와중에

옛 생각이 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배낭 속을 정신없이 뒤져, 옛을 찾은 후 돌로 깨뜨려 한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먹기 시작했다.

옛 한 덩어리를 먹은 후, 신기할 정도로 탈진증세에서 회복이 되어 원기가 나기 시작했고 기력을 되찾으면서 나는 되려 일행을 앞지르며 산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눈이 오는 깊은 산속을 헤메다 탈진하여 쓰러진 채, 어둠과 추위 속에서 짧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사랑이 담긴 한덩어리의 옛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이다. 월남한 뒤, 입시철이면 흔히 볼 수 있는 옛을 대할 때마다 나는 나를 지켜준 그 옛이 생각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절이게 한다. 또한 한편으론 옛을 볼 때마다 사선을 헤매던 비참했던 그 당시의 순간들이 머리속 한편에서 영영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한편 깊은 산속에서 소의 배설물을 찾으며 길을 찾아가던 안내자가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려,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안내자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시만 따르던 우리들은 그의 당황한 모습을 쳐다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안내자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사람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구조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감시의 눈을 피해 험준한 월남 경로를 택한 우리 일행이었는데, 첩첩산중 눈 오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자, 오히려 우리가 피했던 이북의 경비원이 나타나, 구조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는 이념과 체제를 등지고 월남하겠다는 나의 욕망보다 훨씬 절실하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목이 메도록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네 사람의 고함소리는 산울림으로만 크게 되돌아 올뿐, 주위는 여전히 적막하였다. 한시간 이상 외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지른 메아리뿐이고, 아무도 우리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껏 소리를 질렀기에, 안 그래도 지친 우리는 힘도 떨어지고 목소리도 메

있고, 곧 어두움과 추위도 다가오고 있었다.

또 한번의 죽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한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현지점에서 기상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머물러 있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행히 안내자가 갖고 있던 성냥으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다. 조금씩 추위를 달랠가면서 간단한 음식으로 시장기도 떼워나갔다.

그 때 우리 안내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최소한의 비상품목으로 성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우리 일행에겐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약 그 당시 성냥이 없었다면, 깊고 험한 산속에서의 추위와 눈 내리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 남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닥불에 둘러앉은 우리 네 사람은 추위를 잊게 하는 불의 따듯함에 생사의 걱정도 잠시 잊은 채 약간의 잠도 이룰 수 있었다. 새벽 세시경이 되었을 무렵, 그렇게도 평평 내리던 함박눈이 멈추고 개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총총하게 떠 있는 별들은 유난히도 맑으면서 밝고 가깝게 보였고, 이는 내게 생존에 대한 희망과 월남한 이후의 나의 생에 대해 축하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든 후 이른 아침 깨어보니 맑고 개인 푸른 하늘이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아 주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가야할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우리 일행이 길을 잃을 당시 남겨놓았던 발자국이 언 상태로 눈 위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발자국을 다시 따라가면 잘못 들어온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눈 위의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고, 약 1시간 쯤 지난 후 드디어 정상통로를 찾아내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이미 앞서 소 장사들이 소를 몰고 지나간 흔적, 즉 소의 배설물을 발견하였다. 소의 배설물을 보고 우리처럼 기뻐서 소리지

르고, 환호한 사람은 아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에게 소의 배설물은 냄새나고 더러운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기에 그 순간 이제는 살았다는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중간 경유지인 서당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고, 하루정도 쉬고 떠나려 했던 우리의 일정을 약간 수정하였다.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정신적, 육체적 피곤함으로 인해 약 3일간 그곳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서당은 당시 지리적으로 이북의 관할지역에 속해 있었으나, 산이 깊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었다.

3일간의 휴식은 우리에게 다시 산행을 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기력을 주었고, 우리 일행은 새벽에 서당을 떠나 다시 험한 산길의 남행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북에 살던 부자들이 그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귀중품을 가지고 월남하던 중 이런 깊은 산골에 이르면 안내원이 강도로 돌변하여 귀중품을 강탈한 후, 사람들을 깊은 계곡에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안내원으로부터 들으면서 우리는 잠깐 길을 잘못 들기는 했어도, 좋은 안내원을 만난 것에 감사하였다. 조금 걷다보니 북쪽 경비병의 초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걸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아가며, 우리의 순조로운 산행은 계속되었다. 해질 무렵에는 38선 이남 최북단에 위치한 포천 북쪽에 있는 시골 마을에 도착하였다. 숲을 굽는 산골마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드디어 그리던 38선을 넘었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딱딱하고 불편한 마루바닥이었지만 편안한 하룻밤을 보냈다.

지금은 그 시골 동네가 휴전선의 이남에 있는지 이북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게는 찾아보고 싶고, 가고싶은 곳 중 하나이다. 38선을 넘은 후, 안내자와 헤어져서 혼자 길을 걸어가며 서울 방면으로 향하였다. 처음으로 만난 조그마한 읍에 다다르니 경찰지서가 보였기에 나는 경찰

서로 들어가 이북이 고향인 월남자 입을 밝히고 자진하여 조사를 받고, 또한 몸수색과 휴대품 검사도 받았다. 당시 나의 휴대품은 서울에 있는 형이 좋아한다고 해서 가지고온 말린 가자미 40마리와 몰래 숨겨 가지고 온 광목 태극기가 전부였다. 경찰서의 조사 후 다른 이상이 없는 단순 월남자라는 증명을 받아 가지고, 나는 당당히 그리고 그리웠던 희망의 서울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걷는 도중에 숲을 적재한 화물차 뒤에 몰래 매달려 가다 조수에게 적발되었는데, 운전수가 어떻게 서울까지 차 뒤에 매달려 가겠느냐며 차로 올라오라고 하는 통에 정말 운 좋게 공짜 차를 얻어타게 되었다.

월남해서 처음 만난 마음씨 좋은 아저씨 덕분에 나는 그동안 힘들었던 여정도 잊어버리고, 서울 돈암동 전차 정류장까지 쉽게 올 수 있었다. 가진 것이 없기에, 고맙다는 말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을 전하며, 서울까지 올라왔다. 이남의 공기는 그 동안 내가 살았던 함흥의 공기와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마저 자유롭다고 느꼈다면 나의 지나친 생각일지는 몰라도 그 당시 나는 힘든 월남을 참으로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로 향했다.

나는 월남하기 삼년전인 1945년 8·15 해방직후, 서울 고모 집에 약 3개월동안 기거한일이 있어 비교적 서울지리에는 익숙한 편이었다. 그래서 서대문 북아현동에 있는 고모집에 가기 위하여 서대문행 전차를 종로에서 타고 서대문 정류장에서 막 내리려 하는데 그때 그 전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형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함흥이 고향인 형제가 서울 서대문 한복판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다. 형님을 보자 울음이 활짝 터지면서 형의 어깨에 파묻혀서 나는 한참동안 월남중의 고생과 설움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 나는 고모님댁에 도착하였고 그간의 많은 고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세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8년 11월 1일, 내가 고향을 떠나 11월 7일 서울에 도착한 일주일의 시간은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공포와 죽음의 기로에서의 절망감의 연속이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경험이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쉽지않을 때였다. 7일 동안의 시간은 그동안 살아왔던 18년의 세월과도 맞먹는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후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요,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 이후 항공기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하늘에 대한 동경심으로 나는 1949년 3월 15일, 공군병과 3기생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6월 16일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후보생으로 입교하였다. 입교 1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이 발발하였고 1951년 7월에 사관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공군 소위로 임관, 1952년 11월 비행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휴전하는 날까지 92회의 전투출력을 완수하였다.

3. 6·25 발발 후 3일간(1950년 6월 25일~27일)

6·25 전쟁 발발 하루전인 1950년 6월 24일은 토요일이었다. 토요일은 군대 병영생활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외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날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나섰다. 고된 훈련에서 해방되어, 먹고 싶은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배고픔도 달랠 수 있었던 토요일의 외출시간,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일요일인 저녁 8시까지의 자유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병영생활에서는 가장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또한 내게 이 외출시간이 더욱더 소중했던 것은 부모 형제를 두고 월남한 실향민으로 한분밖에 안계신 친형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출 할 때마다 늘 형님을 만났고, 형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푸근하고 편안해 마치 온 가족과 함께 있는 느낌이었다. 형님은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번 몇푼 안

되는 돈으로, 동생에게 늘 값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었다. 우리는 때때로 군것질도 하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는 정담을 나누었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면 외출 나온 시간은 어느새 다 가버리고, 귀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쏠살같이 다가온다. 귀영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김포가도 입구까지 대방동행 전차를 타고 와서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나서야 형님은 늘 떠나곤 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에도 나는 형님을 만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합정동에 있던 큰고모댁을 방문해 지내다가, 6월 25일 일요일, 형님과 같이 서대문 북아현동에 있던 작은 고모 댁으로 인사를 하러 가던 중, 중부경찰서 앞에 걸려있던 커다란 공고문을 보게 되었다. 북괴군이 38선을 넘어 남침 중이니 모든 군인은 즉시 귀대하라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처음 이 공고문을 보면서 나는 크게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모처럼의 외출 시간을 즐기고 있던터라 빨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귀대하리라 마음먹었다. 서점에 들려 책을 한 권 사고, 을지로에서 전차를 타고 서대문 로타리에서 하차한 시간은 오전 11시경이었다. 처음 공고문을 본 후 약 30분이 경과한 시간쯤이었다. 그때 나는 군용 JEEP차에 부착한 확성기에서 울려 나오는 “모든 군인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는 긴박한 음성을 들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나는, 서대문에서 형님과 서둘러 헤어지고 서울역 노량진을 거쳐 김포가도 입구에 대기 중이던 부대차량으로 급히 사관학교로 귀대하였다.

짧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달되었던 것은 김포비행장의 연료 DRUM통을 분산, 소개하라는 지시였다. 작업을 마치고 도보로 귀대하는 도중, 우리는 적 전투기에 의한 기총 사격 공격을 받아, 길양쪽에 있던 보리밭 속으로 긴급 대피하였다.

처음으로 적에 의한 공격을 받은 순간, 이제 전쟁이 시작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적과의 전쟁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다. 귀대 후 저녁

시사를 하고 있던 중 우리 사관 생도들은 또다시 적의 기총 사격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즉시 식탁 밑으로 긴급히 몸을 숨기며 대피했다. 순간 나는 전쟁의 긴장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어울려 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교차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6월 26일 오전, 나는 말로만 들어왔던 제2차 세계대전후에 개발된 제트 추진식의 최신형 항공기의(미 공군의 F-80(SHOOTING STAR)) 초계 비행을 목격하였다. 그 비행기는 빠른 속도와 고공비행 그리고 날개와 동체의 길이가 비슷한 독특하고 믿음직스런 모습의 신예기로, 그 비행기의 모습을 보니 다소 흥분되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적의 전투기 공격에 대응하여 미 공군이 공격을 시작한 것은 6월 26일이었다.

지금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나는 전투장면이 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에 있는 미국 민간인들의 긴급대피가 시작되며, 이들을 일본으로 후송하는 미 공군 C-54 수송기가 김포비행장을 이륙하였다. C-54 비행기가 강나루 한강 근방을 상승비행하는 중, 갑자기 나타난 적의 전투기가 한 대가 접근하여 공격강태세에 들어가자. 이에 공중에서 C-54 비행기를 엄호하고 있던 미군 제트 전투기가 재빨리 추격하여 적의 전투기를 일격에 격추시켰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추락하는 적 항공기를 목격하며 나는 통쾌함의 박수를 쳤고,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동료들의 사기도 한층 높아졌다.

제트형 항공기 F-80이 처음으로 개발된 후 실전에서 적의 항공기를 격추시킨 첫번째 사례가 된 이 전투는 항공전사에 나올만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투를 내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6월 27일 오전, 나는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기총 사격 소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들려 왔다. 급히 밖으로 나가 보았더니, 적의 전투기가 400미터 상공에서 제트 전투기에 격

추되었다. 적 전투기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급강하하면서 배면 비행을 하고 있었고,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적 조종사는 낙하산 강하도중 지상으로부터의 우리측 사격에 의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적기는 사관학교에서 약 700미터정도 거리에 있던 논두렁에 추락하였다. 학교당국에서는 추락한 항공기엔진을 교재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후보생들에게 엔진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마땅한 장비가 없었던 당시 상황으로서는 결국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이북의 공군전투기는 IL-10, YAK-9 등 프로펠러형 소련제 항공기로 주로 아군의 비행장과 그 주변의 시설공격에 주력하였는데, 적군의 이런 공격 도중, 미 공군의 F-80 신형 제트 전투기가 여러 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것을 26일과 27일 양일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다.

한편 전투기를 보유했던 이북의 공군전력에 비해 L-4, L-5 각 10대와 국민모금에 의해 구입한 F-6 훈련기 10대만을 보유한 우리 공군의 전력은 비교가 안될 만큼 열악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우리 공군이 할 수 있었던 전투는 경비행기에 수류탄을 싣고 비행기의 후방 석에서 적 지상군을 향해 이것을 던지는 것이 최선이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발된 전쟁의 첫 3일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너무도 많았다. 항공전 역사상 첫 사례가 된 제트형 전투기에 의한 적기 격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었던 점, 고공 비행과 빠른 속도 그리고 특이한 모양의 신형전투기의 믿음직한 모습에서 받았던 강렬한 인상, 그리고 일격 필추의 미군 조종사 기량에 대한 감탄 등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전투조종사가 될 목표를 가지고 있던 나에게 전투조종사로서 큰 희망과 교육적 효과를 주었고, 필승의 정신적 함양과 일격필추의 기량 연마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4. 첫 출격

사천에서 약 1년간에 걸친 조종훈련 과정을 수료한 공군사관학교 1기생 13명의 G-CLASS A반 요원들은 전투 출격을 위해 공군 전진 기지인 동해안 강릉에 위치한 제10전투 비행단에 배속되었다. 미 공군소속 C-47형 수송기로 강릉에 도착한 것은 1952년 12월초의 어느날 오후 6시경이었다.

동해안의 싸늘한 바닷바람!

12월 초의 이른 어둠!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전쟁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긴장감을 감추려는 전우들의 표정이 역력했다. 우리는 수송기에서 각자의 사물함을 내려 차량에 실었고 배정된 조종사 숙소에 도착한 후 각자 짐들을 정리하였다. 철침대도 아닌 목침대가 전부인 조종사 숙소 옆 전우와의 경계는 사제 사물함 이었는데, 이것이 나의 책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 침대의 가장자리는 의자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휴게실과 독서실 그리고 오락실 같은 위락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환경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매일 출격에만 전념하고 있는 선배 조종사들을 보며 그들에 대한 존경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강릉 활주로 중심 우측에는 비행단본부와 지원부가 있었고 좌측 바다에 가까운 끝부분에 조종사 숙소와 의무실, 식당이 있었으며 모든 건물은 콘서트라고 하는 둥근 모양의 야전용 철판 건물이었다.

저녁식사를 위해 우리는 조종사식당으로 갔다. 건강하고 와일드한 모습의 빨간 마후라 선배 조종사를 보니 정말 믿음직스러웠고, 언제 우리도 저 정도의 관록에 찬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하고 생각했다. 선배들은 모양새 없는 낮고 둥근 코일 스토브(COIL STOVE) 주변에 용기종기 모여 앉아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시큼하고도 구수한 냄새는 우리들의 식욕을 돋구어 주었다. 비록 야전 건물에서 하는 식사지만,

분위기는 우리들의 젊음과 낡은 주크 박스(juke box)에서 흘러나오는 넷 킹콜(Nat King Cole)의 “Too young”과 “Pretend”의 아름다운 선율은 식당분위기를 낭만적으로 만들어주었다. 또한 전쟁의 긴박감과 불안감으로 늘 경직되어 있는 병아리 신참 조종사의 긴장과 초조함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했다. 90여차례의 출격을 하고 돌아오면 늘 나를 어머니의 품처럼 편히 쉬게 해 주었던 나의 첫번째 보급자리에 대한 인상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졌다.

한편 비행장에서 약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해안의 도시 강릉. 이곳은 젊은 전투 조종사 빨간 마후라의 사랑과 많은 추억이 담긴 잊을 수 없는 휴식처였고 정다운 고향 같기도 한 도시였다. 강릉 전진기지에 배속된 우리는 비행장 주변의 지형을 익히기 위해서 2~3회의 관측 비행을 실시하면서 출격명령을 기다렸다.

드디어 1952년 12월 14일 첫 출격명령이 하달되었다. 처녀출격에 대한 긴장과 흥분 그리고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생각에 밤잠도 설친 채 아침 종합 브리핑에 참가하여 출격편조, 목표 및 종류, 그리고 적 대공포 배치 방향 등 각종 정보와 상황설명을 빠짐없이 적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당시 한국 공군이 주로 수행했던 항공작전은, 적의 후방군사 시설인 교량과 철도의 파괴와, 보급물과 병력집결소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근접공중지원(close air support)인 육군 지상군 엄호작전이었다.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중전인 air to air mission은 적 공군 JET형 전투기였던 MIG-15과 대등한 성능의 F-86 전투기를 보유한 미 공군이 담당하였다.

나의 처녀 출전 작전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4개 편대 16대로 구성되었고 이중 나는 4편대의 2번기에 편성되었다. 공격목표는 DU0309 사리원 북방에 있는 보급소와 병력집결소 그리고 적 지상군의 사단 본부였다. 출격 직전 편대군장은 우리에게 자세한 주의와 요망사항을 강조하여 설명

하였다. 특히 편대장은 첫 출격하는 나에게 편대장기를 놓치지 말고 잘 따라다니는 것이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공격에 우선된다는 지시를 따로 해 주는 등 자상함을 보여주었다.

패라슈트, 해상구명대등 비상장구와 권총을 항공 장구반에서 수령하여 우리는 배당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트럭에 올랐다. 모든 것이 서툴기만한 우리는 그저 선배 조종사들이 하는 대로 눈치를 보며 따를 뿐이었다. 트럭안에는 잠시 후 적지에서 적과 싸워야 될 전우들의 긴장된 표정과 불안한 모습, 그리고 별로 대화가 없는 고요함이 흘렀고, P.S.P라고 하는 철관으로 된 유도로를 달리는 트럭바퀴 소리만 더욱 요란하게 들렸다.

잠시 후 배당된 항공기 앞에 하차했을 때 대기중인 정비사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내가 첫 출격을 하는 신참 조종사임을 알아챈 정비사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는 것 같았다. 500파운드의 폭탄 2개와 2.75인치 로켓 2발을 무장한 P-51 무스탕 전투기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만 했다. 항공기 외부 점점 도중 악어 입처럼 길쭉하고 무딘 모양의 P-51 항공기 기수를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나는 오늘의 첫 출격비행의 무사와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항공기에게 부탁했다.

적의 대공포화에 의한 희생과 돌발적인 항공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열심히 잘하자.” 그리고 “하늘의 뜻에 따르자.”는 신념으로 마음을 가다듬었고 곧 모든 불안감과 걱정은 동족을 침범한 적에 대한 분노심, 아니 적개심으로 돌변했다. 적지를 향하여 출격하는 조종사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까 모든 언행에 극히 조심스럽게 시중을 들어준 후 정비사는 나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리고 나는 항공기 엔진의 시동지시가 있을 때까지 목표지점까지의 항법연구에 전념하였다.

100만분의 1 지도, 50만분의 1 지도, 5만분의 1 지도 그리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목표까지의 항법과 목표를 확인하였다. 엔진 시동을 위시하여 모든 것은 사전 약속에 따라 가능한 한 수신호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이

루어진다. 기지를 이룩한 4개 편대로 구성된 16대의 항공기는 기지상공을 선회한 후 기지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적지를 향했다.

철원상공을 지나자 적의 고사포탄의 폭발로 인한 검은 연기가 항공기 우측에서 터졌다. 모든 항공기는 좌로 서서히 이동을 하고 또 다른 포탄이 좌측에서 터졌다. 다시 우회, 윗쪽 그리고 아래, 순식간에 고사포 탄 폭발연기로 16대의 전투기는 둘러싸였다. 약 5~10분간의 고사포 공격에 별다른 피해 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비행을 계속하였다.

목표 상공에 도달한 후, 제일 편대 1, 2, 3, 4번기, 제2편대 1, 2, 3, 4번기 순으로 종대길이로 대형을 유지하며 폭탄공격에 이어 로켓 공격 기총사격 순으로 공격을 진행하였다. 이때 나는 D편대(제4편대) 2번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편대장기를 놓치지 말라는 주의사항에 따라 공격의 정확성보다는 편대장기를 따라다니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공격이 끝난 후 적지를 통과하여 아군지역에 진입한 순간 나는 긴장된 마음을 추스리며 안전한 비행과 멋진 착륙을 위해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 해야했다. 착륙 후 항공기 엔진을 끄고 나서야 사선에서 돌아온 용사의 안도와 드디어 해내었다는 성취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공포감과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과 더불어 적에 대한 적개심 등 여러 감정들이 연속적으로 밀려왔다.

이와 같은 출격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당분간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될 것이므로 나는 이 생활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굳게 다짐해 보았다.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이야기 꽃을 뒤로하고 우리는 대기 차량에 몸을 실으며 출격 후의 브리핑을 위해 작전실로 향했다. 브리핑 이후 꾸집한 전과에 더욱 만족해 하면서 나의 하루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저녁에는 몇몇 전우들과 함께 강릉시내에 나가 첫 출격을 축하하며 마

치 전쟁의 영웅이 된 듯 소주잔을 부딪히며 정신없이 수행한 적 포화에 대한 회피기동과 젓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아 다니듯이 필사적으로 편대장의 비행기만 쫓아다녔던 첫 출격 그리고 공격 후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적군 지상 포의 불덩어리둥 이야기의 꽃을 피웠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5. 장렬히 산화한 동기생 임택순 중위

휴전이 가까워짐에 따라 아군의 육군에 대한 엄호작전의 횟수가 증가되었다. 미 5공군 작전부로부터 지상 공격 목표가 대개 24시간 전에 하달되면 그날 아침에는 오늘 있을 작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있고 편대장에 의한 출격 전 브리핑이 뒤따르게 된다.

먼저 춘천에 모 기지를 둔 모스키토(모기가 우는 소리와 흡사한 항공기 엔진 소리를 내어 갖게 된 별명)라는 멸명을 가진 T-6형 정찰 항공기가 목표물을 사전 파악한다. 이어서 공격편대는 적지상공을 선회하면서 무전 교신으로 자세한 목표물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가르쳐 준다. 정찰기에 장착한 smoke탄이 발사되고 탄착점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몇 미티에 있는 것이 목표물”이라는 방식으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된다. 사실 완전히 은폐되어 있는 적의 지상 목표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적의 목표물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된 후 전투기가 공격하고 이것을 관찰한 후 그 전과에 대해서 무전으로 통보하여 준다.

지상군 엄호작전은 대개 1개 편대 4대의 P-51 전투기로 구성되어 2번기는 편대장의 지시를 받고 4번기는 분대장의 지시를 받으나 종합적인 지휘는 편대장이 하게 된다. 전투경험에 따라 2번기에서 4번기로 그 후 3번기로 그리고 3번기에서 편대장 순으로 승격하게 된다.

G-CLASS 공사 1기생 출신 조종사들은 훈련 조종사의 부족을 보충하고 작전량의 증가로 인한 임무증가로 훈련 도중 A, B반으로 나뉘어 A반

은 B반보다 약 3개월정도 빨리 훈련을 마치고 강릉기지에서 배속되어 전투에 임하였다.

G-CLASS B반에 속해 출격 중이던 임택순 중위는 출격 경험의 증가에 따라 분대장 견습을 위해 2번기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는 3번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의 36회째 출격이었고 임 중위는 15회째의 출격으로 기억되는 1953년 3월 6일, 출격의 목표지점은 DT423756인 동해안 고성 북쪽지역으로 아군지상군의 옹호 작전이었고 목표의 종류는 박격포진지(mortar position)였다.

그날도 목표지점을 확인한 후 우리편대는 폭탄 공격을 시작하였다. 공격에 참고되는 사항을 무전으로 계속 제공 받으면서 2번기 임 중위의 공격이 끝나고 3번기인 내가 공격개시, 날개 끝이 목표점을 통과한 2~3초 후, 90도의 급강하 선회로서 목표에 정대하고 조준을 계속하면서 적절한 고도에 이르렀을 때 폭탄을 떨어뜨렸다.

급강하도중 목표 500m 미달지점에서 폭발에 이은 큰 화염을 목격하였다. 그 당시 판단으로 순간 다른 숨겨진 목표 즉 탄약저장소 같은 것에 폭탄이 우연히 명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공격 이탈 후 본인이 2번기 위치에 있음을 발견했을 때 순간 앞 비행기를 놓쳐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로켓 공격에 이어 45회에 걸친 기총사격을 끝으로 공격이 끝나고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집합을 했을 때, 비행기는 모두 3대뿐 한 대가 보이지 않았다. 편대장이 무전으로 확인하였으나, 임 중위가 탄 2번기로부터의 응답은 없었다. 순간 불길한 느낌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내가 폭탄 투하 진입 시에 있었던 폭탄 발화음이 혹시 적 대공 포화에 의해 추락된 임 중위의 항공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2번기 자리를 비우고, 임 중위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편대장과 본인이 공격지점 부근으로 향했다. 임 중위에 대한 걱정으로 위험도 잊은 채

초 저공 비행을 감행하였다. 그때 우리는 산산조각 난 항공기의 잔해, 즉 태극 마크가 선명한 비행기 동체의 잔해가 아직도 화염에 쌓여 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격렬히 뛰었고, 나의 손과 발은 떨리며 경직되었다. 적 대공 사격에 피탄 되어 산화한 동기생 전우를 목격한 순간이었다. 임 중위는 폭탄투하를 위해 급강하하는 순간 적의 대공사격에 의해 전사된 것이었다.

나의 동기생 임택순 중위

그는 ‘딱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온화하면서도 순진하고, 어눌한 말 솜씨로 가끔씩 우리를 웃겼던 유머를 가졌고, 훈련이 끝나고 출격 전 휴가에서 만난 사랑하는 애인에 대한 자랑도 늘어놓았던 그의 생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지로 귀환하여 전사한 그의 유품을 정리할 때의 그 비통함과 애절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고, 앞으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다. 계속되는 동족살상의 처절한 싸움, 전우의 넋을 위로하고 본인은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는 다짐을 굳게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나는 50년이 지나 이제는 퇴색이 된 나의 출격일지를 넘기다가, 1953년 3월 6일 바로 임택순 중위가 전사한 그 날에 썼던 기록을 보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 흥분하고 비통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발이 떨려 어떻게 착륙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비상시의 침착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발견하며 생각할 바가 많다” 나는 이렇게 그날의 비통함과 나의 비행 미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본인은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곳 정문입구에 세워진 고 임택순 중위의 동상이 눈에 띄었다.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감투정신 그리고 희생정신 등 그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모범과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로서 전투에서 첫

번째로 전사한 동료 임택순!...

긴장된 전투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출격하였던 전우. 그러나 그의 애기와 시신을 적지에 두고 홀로 돌아왔을 때의 그 비통한 심정이 다시 되살아나 나는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6. 휴전 되던 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조인된 휴전협정이 저녁에 발효되면서 모든 전투가 중지되었다. 휴전이 발표되면 당시의 전선이 휴전선이 되어 영토가 정해지게 되므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적군의 야간 침공에 의해 빼앗긴 땅을 주간에는 아군 공군의 엄호하에 지상군이 재탈환 하는 등, 주야간의 땅 주인이 수없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휴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공군도 주로 지상군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인의 90회째 출격! 목표 DT414741 적 지상군 집결소의 파괴와 동해안 고성 북방 351고지 지상군 엄호작전이 하달되었다. 폭탄과 로켓으로 무장한 4대의 P-51 무스탕 편대는 강릉기지를 이륙하여 약 25분 후 목표상공에 도달하였다. 우리 지상군의 우군임을 나타내는 오렌지 색깔의 대공 표식판이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이윽고 T-6 모스키토 정찰기의 목표지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목표 확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적 지상군 막사와 병커 그리고 은폐지역에 폭탄과 로켓 그리고 기총사격 순으로 7~8회 공중폭격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 기지로 귀환하는 도중 공격에 임하는 다른 편대와 마주칠 때면 우리는 서로 "GOOD LUCK"을 기원해 주었다.

어느덧 출격 90회의 경험, 나는 이제 백발백중의 명중을 자랑하는 역전의 빨간 마후라 용사가 되어있었다. 밤낮없이 참호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지상군에 비해 일단 출격 후에는 후방기지로 돌아와

전쟁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며 내일을 위한 재 충전의 기회가 부여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었다.

90회 출격을 마치고 돌아와 쥬스 한잔 마시고 있는데 비행복 속의 땀이 마를 겨를도 없이 또 다시 출격명령이 하달되었다. 나는 다시 항공기로 돌아와 같은날 91회의 출격을 시작하였다. 목표 DT397747 지점의 적 지상군 병커와 포대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곳은 적의 대공사격에 의해 작렬히 전사한 임택순 중위의 사고지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이었다. 다 시금 비통한 심정이 되살아나며, 적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마음을 가다듬어 목표물을 명중시킨 후 기지로 돌아왔다.

점심식사 후 우리에게는 또 한번의 출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기지에 있는 모든 탄약을 소비하라고 외치며 92회째 마지막 출격을 시작하였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각별한 결의와 다짐, 또한 전쟁 중에 희생된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영혼에 대한 보답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상포대와 병력집결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면서 항공기의 바퀴가 땅에 닿는지도 모를 정도의 부드러운 착륙으로 나는 나의 마지막 출격을 멋지게 장식하였다.

항공기의 엔진을 끈 후 정비사가 비행기로 뛰어올라오며 성공적인 임무완수와 무사귀환을 축하해주었다. 작전에 임하는 항공기의 철저한 정비에 전력을 다해준 정비사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며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비행안전은 이 부대에 속해있는 전 장병에 의해 이루어짐을 실감하였다. 비행 약식 모자의 창에다 92개째의 작대기를 내려긋는 순간에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흐뭇함과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으로 깊은 감회에 젖어보았다.

100회 출격을 하면 이에 따르는 성대한 행사, 강릉 여고생들의 환영꽃다발 그리고 동료 전우들에 의한 멋진 축하, 아울러 100회 출격자에게 주

어지는 미 공군 훈장 D.F.C(Distinguished Flying Cross)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한 내 자신에 만족함으로써 출격을 마쳤다.

매 출격 전과 목표 공격 직전 그리고 귀환 때마다 이번 비행이 나에게서 최후의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던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을 기원하였다. 다시 한번 무사히 나의 전투출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신 아나니, 매 출격마다 함께 계셔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7. 출격일지

나는 1952년 12월 처녀출격에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던 날까지 수행한 92회에 걸친 출격, 비행에 관한 사항을 2권의 노트에 기록했다. 한 회 한 회의 출격이 나에게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출격을 바탕으로 내일의 보다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폭격, 로켓 공격 및 기총 사격 등 목표에 대한 정확한 공격을 위한 것과 출격 비행 전반에 관한 검토와 분석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어나갔다. 조종사 숙소의 저녁 시간은 대개 한적하고 쓸쓸함 마저 감돈다. 무사히 귀환한 기쁨과 언제 나의 생명이 다할지 모르는 전쟁이 가져다 주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풀기위해 전우들은 출격에서 돌아온 후 외출을 하여 청춘사업과 술 한잔으로 오늘을 잊고 내일을 맞이하기도 한다.

동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외출하는 저녁시간이면 난 텅빈 공간에서 목재 사물함을 책상삼고 그리고 목침대 가장자리를 의자 삼아 걸터 앉고 고요한 숙소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출격을 회상한다. 그리고 펜촉에 병 속의 잉크를 찍어 한글과 한자 그리고 영어를 섞어가며 무딘 글씨로 하루의 출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일을 계획하였다.

이륙, 이륙집합, 적지행진, 항법, 신속한 목표발견, 목표진입, 폭탄공격,

귀환편대비행, 그리고 착륙 조작등 비행훈련 교육시 작성하였던 비행일지와 흡사한 내용으로 적어나갔다. 목표지점(좌표로 명시 DT123456), 목표 주변지형, 대공포화의 위치, 공격진입 및 이탈경로 그리고 비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도 포함되었다. 치열한 전투 중 참호 속의 병사 중에 무신론자가 없듯이, 수없이 사선에 노출되는 전투 중 나는 하나님에 의지하며, 대공포화에 의한 피격과 항공기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 등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 존재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나의 신념은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 적에게 승리하는 것이 내가 살아 남는 길이며, 승리한 나에게 부여된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나의 임무였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내일의 보다 나은 임무 수행을 위한 기본으로 삼고, 이를 위한 노력과 과정이 전투조종사로서의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맡은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다룬 것이 출격일지의 기본 정신이다. 미국 사관학교의 교훈인 의무와 명예 그리고 조국을 언제나 잊지않고 간직한다는 것이 나의 생활 신념이었고 나아가선 나의 인생관이 되었다.

92회에 걸친 나의 출격을 회상해 보면, 출격 도중 대공포화에 의한 피탄 그리고 항공기에 어떤 경미한 사고도 없이 무사히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겨졌으며 이것은 나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현재의 나도 그리고 성공적인 과업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내가 쓴 출격일지의 원본은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그리고 공군 박물관에 각각 보존되어 있으며 한편 이 출격 일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준 군 당국에도 감사한다. 적의 대공포화에 피탄 산화한 동기생,

중무장 이륙 중 항공기 고장으로 동해상에 추락한 동기생, 훈련도중 순직한 동료… 출격 중 적 포화에 피탄 되어 기지로 귀환도중 황성의 육군비행장에 불시착하여 전복된 항공기에 거꾸로 매달려 “큰일났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릅니다”라고 무전기로 절규하던 동기생의 목소리…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의 내 조국과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나의 출격일지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전투는 즉 교육이다.

출격은 산 실체의 교육이고 실습이다.

출격을 통해 배움에 노력하라.

배움과 공부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지휘관이 되었을 때

부하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

Note Book

Made of paper
Specially prepared in Lin-han

1952 年 12 月 14 日
癸巳年十一月十四日
一九五三年十二月十七日
1953 年 1 月 27 日

出臺日誌

李培善

任中尉戰死 (39)

3月6日

目標 DT 423 756. *mountain position*

1200



新感

1. 攻軍의 經路를 詳查하라

任中尉의 戰死를 보았다 最初에 있어서
Cm jump 가 砲火를 避할 時 山 아래로 下り
2 番機는 영永 不 變 不 變 不 變

나는 3 番機 로서 山 頂 上 下 地 上 上 上
火 氣 煙 霧 等 을 見 出 した 大 小 各 各 各 各
衝 撃 隊 員 等 無 一 不 死 不 死 不 死

2. 非 常 狀 態 下 恒 常 固 執 不 變 不 變 不 變
山 頂 上 下 地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山 頂 上 下 地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3. 非 常 時 自 己 身 體 的 耐 力 耐 力 耐 力
今日 是 如 何 耐 力 耐 力 耐 力 耐 力
나 쿠 터 時 耐 力 耐 力 耐 力 耐 力
심 각 할 必 要 有 有 有 有
非 常 時 的 沈 着 性 이 必 須 有 有 有 有

任中尉

12月14日 初出壘
 目標 DU0309 師團本部



攻壘要領

전함이 대한 攻壘이었다 西쪽으로 進入하여 東江 바다 쪽으로
 難脫하였다 單縱隊으로 부타 들어갔는데 戰斗 隊形으로써
 難脫하여 難을 보았다.
 나는 Dog flight 2 條 橫隊로 들어갔는데 長機와 너무 가까이
 붙어 들어갔다. 難脫의 動作이 너무 완만하였다.
 概法 初出壘이라 地形을 分辨이 없어서 目標을 찾았다.
 target에서 煙氣 散 안났으며 發射하기 아주 困難하였을
 것이다.

新感

難脫 行動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 너무 완만하였다.
 概法과 地形 判別이 부족하다.
 着陸 操作이 確切하였었다. 特別 難着陸이 가진 難點으로 하를
 인식시키라
 此 戰 編隊 中에서 沈黙히 부자. 編隊 中 難着陸

흐름

權 鎭 均 (31回)

황혼은 산마루에
오늘도 어제가고
나그네길 기약없이
내일로 오늘가네

定和陵 진달래
피는 듯 저버리고
불같은 장미
정열은 타버리고

설레는 단풍
기러기 우는소리
말없이 낙엽의
이별의 정을

회상과 아쉬움의
어두운 밤에
서쪽하늘 바다멀리
외로운 꿈은

옛날던 마을길을
홀홀로 헤매인다

뒷담의 아카시아
별들은 노래하네
아득한 어린날의 꿈을

위대한 애국자 성재 이동휘 선생

柳 俊 馨 (31回)

관북이 낳은 위대한 애국자 성재 이동휘 선생은 1873년 함경남도 단천에서 빈농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단천 군수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통인(通引)시절, 군수의 기생에게 하는 추행을 보다 못해 화로를 군수에게 뒤엎은 사건 후 이동휘는 통인 직을 사직하고 서울로 도피하여 대한제국 사관 양성소 제1기 생으로 입학하셨습니다. 이동휘는 졸업 후 육군 참위(소위)에 임관되어 그의 청렴강직과 충성심 때문에 고종에 의하여 삼남검사관(三南檢査官)으로 임명되어 군인과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적발·처벌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육군 참령으로 승진한 이동휘는 국방 요지인 강화진위대장으로 부임하여 강화도 주민의 존경을 받았으나 1904년에 노일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자 1905년 강화도 진위대장을 사임하였습니다.

사임후 이동휘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일본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문화활동과 기독교 전도활동에 더욱 주력하였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자 이동휘는 서북학회와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통하여 계속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09년 이후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의 전도사로서 함경도 일대에서 기독교 전도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한일합병에 반대하는 각종 활동에 가담한 이동휘는 일본의

감시를 피하여 1913년 초 압록강을 건너 북간도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는 북간도에서 신 교육보급과 기독교 전도활동을 통하여 동포들의 단결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일본의 위협이 북간도에도 미쳐오자 북간도를 떠나 러시아의 연해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동휘는 동포사회의 파벌해소와 만족단결을 강조하면서 한인사회의 단합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1914년에는 만주와 러시아의 민족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북간도에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그는 정도령(正都領)에 취임하여 광복전쟁 계획을 총지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러시아가 일본의 동맹국이 되면서 그의 광복전쟁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으며 1917년 3월 러시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이동휘는 새로운 조국광복 운동을 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휘는 러시아 10월 혁명 후 볼셰비키 세력과 연대하여 항일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1918년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하고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한인적위대 조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 운동 당시 국내외에서 조직되었던 여러 임시정부에서 이동휘는 정부수반으로 선임되거나 국무총리, 총재 또는 군사 책임자로 선임되었으나 어느 직책도 이동휘는 수락하지 않았다.

1919년 8월 상해의 임시정부와 연해주의 국민의회가 선포한 한성정부의 국무총리, 총재로 선임된 이동휘는 우여곡절 끝에 1919년 11월 3일 새로 출범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역에 취임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상해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주지역의 모든 독립운동 자금을 독점하였고 끝내야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동휘는 강력히 반발하였고 상해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제대로 활동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1921년 1월 초 개최된 국무원 회의에서 제시된 국무총리 이동휘의 임

시정부 개혁안은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1921년 1월 24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그 후 김규식, 유동렬, 안창호 등의 각료들이 연속 사퇴하게 됨으로서 통합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하나의 독립 단체로 전략 하였습니다.

1919년 말에서 1921년 초까지 국내외 각지에서는 한인 공산당 조직이 활발하였는데 이들 공산당 단체를 지도할 중앙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한인 민족운동의 전통과 경험에 뿌리를 두고 민족 혁명을 제1차적 과제로 하고 독자적인 공산당 조직의 건설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사회당 세력은 이르크츠크 파의 고려공산당 창당에 자극받아 상해에서 별도의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이동휘는 이들 두 고려공산당의 연합에 전력하였지만 끝내 실현시키지 못하고 말년에 몰프(MORP : 국제혁명운동 희생자 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중 지방을 방문 후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 도중, 강한 눈보라를 만나 심한 독감에 걸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가 1935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이동휘는 분명 러시아식 공산주의를 답습하여 이를 우리나라 혁명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던 이른바 전통 공산주의자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제공산당에서 이동휘는 비 공산주의자적이며 심지어는 반공주의적 요소를 지닌 인물로 평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며 공산주의자라기보다 민족혁명가였습니다. 이동휘는 민족해방을 제1차적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조국 광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동휘는 조국 광복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에 앞장서는 진보적 행동가 였으며 권위와 사회제약을 개혁코자 했던 그의 혁명성은 다른사람의 추종을 불허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재 이동휘 선생의 독립운동이 늦게나마 기독교의 원로, 사학자 및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5년 제50주년 광복절에

건국의 공로가 인정되어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 받으셨습니다.

끝으로 2004년 11월 3일 독립기념관에서 성재 이동휘 성생의 애국어록비를 제막하였는데 이 애국어록비에 새겨진 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립전쟁

이천만 동포는 다 최후의 일인이 필사(畢死)하기까지
최후 일인의 혈점(血點)이 필적(畢滴)하기까지
독립(獨立)을 필성(必成)코야 말 줄로 확신하노라.
정의(正義)와 인도(人道)를 표방하여 우리 독립을 국제연맹에
요(要)함도 물론 외교상에 일수단이어니와 나는 우리 독립을
단순한 외인의 찬조(贊助)에 의뢰함보다도
내가 내 혈(血)로써 우리 자손 억만대의 광영(光榮)이요
행복(幸福)되는 완전 무결한 독립을 사려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최후 혈전(血戰)이라야 반듯이
영원한 독립을 성공하리라 하노라.

대한민국 원년 11월 3일 이동휘

◆◆◆◆ 32, 33회 ◆◆◆◆

- ◎ 동유럽 기행, 과연 흡연이 폐암의 주범인가?/ 宋榮澁 (33회)
- ◎ Colombia의 Cocaine농사/ 姜在錫 (33회)
- ◎ 長壽와 長命/ 徐潤煥 (33회)
- ◎ 한복치마와 삼가성(三佳聲)/ 李七煥 (33회)
- ◎ 호남지구전투 (참전기), 강원지구전투(참전기)/ 權柄池 (33회)
- ◎ 속초 유정/ 李大鍾 (33회)



동유럽 기행

宋 榮 澁 (33回)

인생살이의 본질은 고뇌와 웃음을 배우는 것이고, 모든 사물을 떠 다니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여행이야말로 인생 행로의 한 순간들을 쉬면서 배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더구나 노경에 든 우리들로선 친구나 그 내외들과 서로 어울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여 여생을 즐기도록 하세나.

여기 재작년 8월말 동유럽 4개국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몇자 엮어 보았다.

동유럽의 매력은 흔히 갈 수 있는 서유럽의 도시들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풍모의 건축물들에서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다. 지형학적으로 독일과 러시아 등 강국들에 둘러싸여 약소국으로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살아왔으면서도, 500년 전부터 시간이 멈춰져 있는 듯한 중세의 옛 도시들. 그리스 정교회 특유의 비잔틴 양식,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전파된 고딕 양식, 웅장한 바로크 양식과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이 서유럽과는 또다른 식으로 발전된 형태의 건축물들 속에서 이들의 과거 영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유럽의 수많은 고성들 중에서도 딱 두 개만 꼽으라면 남독일 쾰른의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프라하의 프라하 성을 꼽을 정도로 이 두 성의 아름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물론 관광사진으로도 대강 짐작할 수 있으나, 직접 그 앞에서 보면 웅장함과 함께 새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

는 정교함이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또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동유럽은 '유럽 음악의 고향' 이라고 불릴 정도로 19세기 서양음악의 대가들이 살아 숨쉬던 터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비엔나에는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요한 시트라우스의 묘소가 있고, 찰스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며 프라하는 모차르트가 오페라 '돈 지오반니' 를 작곡하고 초연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계절 연주되는 콘서트와 오페라가 넘쳐나고, 특히 베토벤이 생애 태반에 걸쳐 40회나 이사다니면서도 늘 거닐며 작곡에 전념했다는 비엔나의 숲을, 은은히 울려 퍼지는 요한 시트라우스이 왈츠를 들으며 관광하는 감흥은 직접 가 본 사람이 아니면 느끼기 힘들다.

자연 경관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다. 동유럽을 관통하는 다뉴브(도나우)강은 굽이마다 절경을 빚어내고, 알프스 산맥이 서유럽 지역에서 융플라우의 웅장한 절경을 만들어 낸다면, 오스트리아에 이르러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의 배경이 된 찰스부르크 주변의 아기자기한 산야와 호수의 풍경을 배려해 놓았다.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부담스러운, 다소 외국인을 깔보는 듯한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사는 서유럽 사람들과는 달리 동유럽에서는 어딘가 부끄럼을 타는 듯한 소박한 시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사실 시골 풍경을 보게 된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 동유럽을 강타한 물난리로 이곳 저곳 도로가 침수, 멀리 우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 지역의 시골 풍경은 정겨웠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공산주의 실험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지연된 것이 오히려 인정을 보존한 듯한 느낌이다.

기나긴 여정을 다 소개하려면 읽는 이도 지루하고 별 유익함도 없을 것 같아 동유럽 자랑은 이 정도로 하려 한다. 매년 여행을 다녀오면 한 두가지씩 배워 오는 것이 있지만, 이번 여행에서 새로 배운 것 몇가지를

심심풀이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디를 가거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말 탄 장군의 동상인데, 그 말의 앞발 위치에 따라 동상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을 아시는지? 말이 앞발을 단단히 내딛고 네 발이 모두 땅을 밟고 있으면 '승전' 을, 앞발을 들고 말이 뒷발로만 서 있으면 장군이 '전사했음' 을, 앞발중 한 발을 들고 있으면 '부상당한 장군' 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그동안 무심하게 봐 왔던 수많은 동상들이 다시 눈앞을 스쳐갔다.

비엔나에서는 요즘 현대 여성들이 애용하는 패션용 가발의 시조가 18세기 중유럽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실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여제의 권위와는 달리 그 목적인 머리의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니 고소를 금하기 힘들었다. 아무튼 수천년전부터 의전용, 예식용으로 사용되던 가발을 패션용으로 바꿔 놓은 것이 그녀의 공이라니 수궁할 밖에.

동유럽의 농촌에서는 아직 산업화의 때가 묻지 않은 순박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와인을 담근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맛을 보시라' 는 뜻으로 소나무 가지를 거꾸로 매단 집들이 줄지어 있는 광경도 훈훈한 인정을 느끼게 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이 마냥 낙후돼 있는 것도 아니다.

겨울에 가축들에게 먹일 사료용 사일로는 없어지고 약 20kg 가량의 건초를 비닐 봉지에 넣은 뒤 Lacto - Vacillus 균과 암모니아 가스를 함께 넣어 밀봉한 뒤 저장하는 이른바 벌초에서부터 포장까지 완전 기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비엔나를 지나며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 인물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 북부의 소도시 리츠 태생. 화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약관의 나이로 비엔나 미술학교에 지원하지만 낙방, 고심 끝에 군에 지원했다가 어찌 어찌 하여 정치운동에 투신, 수천만의 인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만약 그가 미술학교에 합격했다더라면 세계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비엔나의 높은 예술 수준이 다소 알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긴 그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일제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역사의 공과란 쉽게 따지기도 어려운 일이다.

과연 흡연이 폐암의 주범인가

1. 흡연환경의 현실을 개탄한다.

오늘날 애연가들은 호젓한 흡연환경은 고사하고 닭장같은 흡연실, 너구리 굴속같은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흡연하고 있다.

더구나 직장에 따라서는 그것마저 허용되지 않고, 죄인 취급 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차원의 길거리 흡연규제법 움직임마저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과연 흡연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의 큰 적인가?
한번쯤 짚어 생각해 볼 일이다.

2. 흡연만이 폐암유발의 주범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가. 줄담배 애연가가 장수한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영국의 처칠경은 자타가 공인하는 줄담배 애연가로서 91세까지 장수했으며, 세계적 문호 톨스토이도 담배연기 덕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을 뿐 아니라 81세까지 장수했고, 한국의 최장수자 최남이 할머니도 하루 종일 줄담배를 피웠었던 골초임에도 115세까지 장수했다.

나. 폐암유발은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크다. 의학적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선천적인 가계유전의 영향이 일반인보다 4~7배 정도 크다고 학술 발표된 바 있다.

다. 최근 한국 초일류 종합병원의 폐암전문치료 주임교수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역시 초일류 종합병원의 폐암전문치료 주치의사의 부인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실 등등도 담배흡연으로 돌릴 것인가.

라.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석면(石綿) 대책이 강력히 시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죽음의 섬유로 불리는 석면은 단열재나 방화마찰제로써 아직도 선박, 자동차는 물론 아파트같은 건축물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제조나 사용과정에서 먼지를 들이마시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비롯한 기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것이다.

산업보건연구원 및 전문가들은 석면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는 96년까지 모두 6,636명으로 이중 10년 이상 근무자는 2,0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바 이들은 일단 발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그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60~70년대 선진국의 사양산업으로 국내에 유입된 석면산업은 아직도 안전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의 매일신문은 2000년 2월 16일자 기사에서 일본 후생성 조사 결과 아스베스토스(석면)에 의한 사망자는 2,242명(과거 4년간 일본 국내의 규제가 너무 늦어서)으로 집계되었고, 또 그 원인과 선진국의 동향까지 기술하고 있다.

선진국 13개국은 2000년 이전에 이미 석면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EU)은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불법화하고 2005년까지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 국내시책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마. 폐암의 유발주범은 담배흡연보다 자동차 매연이 아닌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도 중 서울은 폐암을 유발하

는 미세먼지 1위, 오존원인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은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런던이나 파리와 비교할 때 각각 3.5배와 1.5배나 높다. 이렇게 심각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대부분이 경유차에서 나오며, 우리나라는 경유차 비중이 이미 30%로 높으며, 이 경유차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50%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유 승용차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할 원칙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구조에 대한 근본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유차(승용) 시장 확대 압력에 못이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와 함께 2005년부터 시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3) 국내 산업 경유의 질이 고유황 함량면에서 정유회사의 정제과정 미흡으로 외국산 경유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한국은 430PPM, 독일이나 영국은 350PPM이다.

(4) 국산 경유차의 고유황 함유, 매연의 여과시설 장치를 갖추려면 차당 가격이 100만원 상승한다고 계속 방치할 것인가.

(5)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산업화에 따른 공해물질이 폐암사망의 주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기오염의 증가로 1983년 우리나라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2,155명으로 인구 10만명당 5.7명이었으나 11년 후인 1994년에는 8,196으로 증가하여 인구 10만명당 19.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공기 1입방미터당 오염물질이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사망자수가 8%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날로 흡연과 무관한 폐암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대기오염(200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490만톤)이라고 학계에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자동차가 끊임없이 뿜어내는 일산화탄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多環芳香味 炭化水素 : PAH), 입자상 부유물질 등이 우리들을 잠재적 폐암환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6) 우리가 애용하는 SCOTCH WHISKY 중 「OLD PARR」는 맛이 부드럽고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임은 다하는 바이다. 그 BRAND MARK인 사진에 나와있는 「OLD PARR」라는 이름은 152세까지 장수한 영국 쉐로프셔의 농부 토마스 파의 이름을 딴 것.

그는 일생동안 담배를 즐기면서 80세때 처음으로 결혼하여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122세때에 재혼까지 하여서 당시 국왕 찰스 2세는 그를 런던에서 살게 했는데, 얼마안가 런던시내의 석탄매연으로 인하여 사망했다. 국왕은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인코너에서 장사를 지내게 했으며 지금도 사원에 묘비가 남아있다. 이는 흡연보다 매연이 더 인체의 유해주범임을 응변으로 실증하는 것이 아닌가.

3. 국민건강증진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가. 담배 한갑당 150원씩 연간 7,000여 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거두면서 애연가들의 건강증진 및 피해자 구제 그리고 예방사업은 외면한채 애연가의 설 땅을 계속 뺏을 것인가.

나. 폐암의 유발주범인 자동차 매연 특히 경유자동차 매연관리가 타부처 소관이라고 계속 수수방관할 것인가.

다. 알콜중독으로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과도주관행(過度酒慣行)을 국민정서상 이유로 수수방관 할 것인가.

4.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건강의 정의는

첫째 육체적으로, 둘째 정신적으로, 셋째 사회적 안정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완전한 건강이 유지된다고 했다.

5.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담배유해론을 내세워 첫번째의 육체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신적인 면에서의 담배의 미학적인면은 나 몰라라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역사의 반역자로서 회노애락을 함께하여 왔으며, 사교상 매개일 뿐 아니라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일상생활에서 무료함을 없애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작가 몰리에르의 주장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건 이 세상 모든 철학이 동원되어도 담배를 당해내는 것은 없어, 인류의 총애를 받는 담배, 담배없이 사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고 할까? 담배는 인간의 두뇌를 즐겁게 하여 줄 뿐 아니라 영혼의 덕망을 높여주고 신사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그만치 담배는 피우는 자에게 사교적인 매개체로서 명예심과 덕망을 불러일으킨다" 고 했다.

아울러 정신적인 감정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잠재적 창의력을 발현시키고 유발시키는 담배연기 한모금의 참뜻을 몰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Colombia의 Cocaine농사

姜 在 錫 (33回)

나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朴啓周씨 소설 『純愛譜』를 읽은 적이 있는데 희미하게 기억되는 부분에 아편 중독된 아버지가 五老里 아들 집에 들렀다가 아들의 구두를 훔쳐 갖고 나오는 대목이 있다.

마약으로 중독되면 이렇듯 인격의 파탄과 심신의 병폐를 가져와 인간이라는 한 개체를 완전히 황폐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인간은 이러한 마약의 유혹에 빠져 일시적 향락에 沈潛하여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에 후회하며 발버둥을 칠까?

오래 전에 내가 서울에서 병원을 할 때 모 영화사 사장 L씨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은 몸이 쇠약하다며 5% dextrose나 Linger주사를 자주 맞으러 왔고 가끔은 수혈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 사냥 갔다 다쳤으며 허벅지에 약 2~3cm의 상처가 생겼는데 상처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창상이 창백하고 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루는 실례를 무릅쓰고 아편을 쓰고 있지 않는가를 의심하여 상처의 상태를 설명하며 넋지시 짚고 넘어가려는데 “아이고 원장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라며 아편중독의 자초지종을 실토했다.

그는 돈깨나 만지는 동향의 친구들과 牛耳洞 골짜기에서 기생파티를 열고 Morphine의 몽롱(朦朧)함 속에 성의 쾌락을 즐기다 되돌릴 수 없는 아편중독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근작 『National Geographic』에 의하면 Colombia 남부 Amazon강 유역의 깊숙한 Jungle속에서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즉, 콜롬비아 반군의 점령지역내에서 그들의 보호하에 생산되는 Cocaine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으로 밀수되고 있다고 한다.

Colombia의 Caqueta지방에 농사의 뿌리가 내린 것은 1960년대인데 정부는 농토가 없는 Colombia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권유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적은 인구를 동원하여 울창한 밀림 속의 넓은 지역을 개간하여 경험도 없는 자들에게 농사를 하라니, 글썽 울시다? 농토를 개간하기 위하여 밀림에 난도질 하고 산불을 놓아 화전을 일궈서 쌀, 콩, 유카를 심었는데 병충해 예방, 施肥 등에 전혀 경험이 없으니 무슨 농사를 지었을까?

그뿐아니지요. 한 발자국도 옮겨 놓기 힘든 밀림 속에 길이 있어야 외부와의 교역이라도 해볼터인데, 결국 Colombia오지의 농사는 그렇게 실패하고 그 기회를 노리던 반군은 이들을 보호하며 마약인 Cocaine의 재배를 독려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에는 마약 Cartel을 기반으로 멀리 떨어진 Mcdillin과 Cali지역의 농민들에게도 Cocaine을 경작하도록 부추겼고 마약 Cartel은 농민들이 생산한 반제품을 사들여 정제하고 또한 코카의 최종 산물인 Coacine을 매매하는 일까지도 맡았다.

이 마약 사업이 boom을 이룬 것은 1990년대인데 이때부터 국제기구에 의한 마약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Peru나 Bolivia 그리고 Colombia의 마약 경작 농가는 전멸, 완전히 꺾이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Colombia 정부는 이 마약 Cartel를 해산해 버렸는데, 이 기회를 노린 것이 Caqueta지역 좌익세력에 의하여 조종 받은 반군세력으로 이들은 점령지역내 코카인 재배 농가를 보호하고 마약 공급자들이나 새로 시작한 개인 사업자들로부터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아 내고 있

는 것이다.

받은 세금은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하여 쓰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공무원들의 태만으로 도시는 발광하는 군상들의 터전으로 변화하고 말았다.

주말의 시장 거리는 활기가 용솨음치고 코카 농장 부근에서 온 사람들은 Penas Coloradas에 나와 마약을 사서 공급하고 친구와 만나선 bar를 덮치고, 또한 이 도시는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금융거래 중심지가 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6,000km의 바다를 넘어 진주만을 공격했다지만 우리가 아는 Amazon강은 그 보다 더 긴 6,300km나 된다니 경이로운 장강임에 틀림 없지만 Penas Coloradas의 주위를 둘러싼 Amazon 유역의 Caguan River는 90mile이나 되어 이 지역의 유일한 Highway로써 모든 물자의 수송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운임이 너무 비싼게 탈이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마약을 재배하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는 점이다. 그러나 술을 한잔 걸치면 사정은 달라지고 월요일 날 아침엔 길가마다 시체가 즐비하다니 참!!...?

그래서 Colombia반군의 엄중한 단속법으로 정한 것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금주하도록 하고 음주 후 고성 방가로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다 체포되면 밀림 속의 도로 건설이나 교량 건설등 중노동 사업장에서의 노력 동원을 강요 받는다.

‘음주 소란’을 피우거나 ‘처음으로 마약’을 하는 자는 2개월, 살인자는 일년간의 형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마약이 인간을 황폐화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법을 어 기면서까지 하여 마약을 재배해야하는 그들의 말을 들어 보자.

-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는 이것외 무엇을 해야 합니까?

- 우리는 마약이 해롭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삶의 전부다.
- 매년 약 3000에커의 연작으로 인한 땅을 버리고 새로운 처녀지를 불태워 화전으로 일구어야 한다.

Cocaine의 약리작용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한다.

1. 국소 마취작용 : Cocaine은 임상적으로 쓰인 최초의 국소마취약이며 이후 Procaine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성 국소마취약의 Proto - type으로써 점막에서의 흡수가 좋아서 표면 마취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

2. Catecholamine 재흡수 억제작용 : 교감신경이나 부신수질에서 방출되는 Catecholamine의 일종인 Norepinephrine은 대부분 신경 종말에서 섬유내로 흡수됨으로써 작용을 끝내는데 교감신경의 활동 결과 내인성으로 유리되거나 외부로부터 투여되거나하여 Catecholamine의 작용을 증가시켜 국소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3. 중추흥분 작용 :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뇌피질에서 연수, 척수에 이르는 강력한 중추흥분작용을 보인다.

따라서 피로감의 소실, 정신적 발달, 성적 쾌감을 얻을 수 있음으로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기 쉽다.

Cocaine중독

여사한 Cocaine의 약리작용을 미루어 볼 때 Cocaine 중독의 원인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만성 중독에 대해서만 약간 언급기로 한다.

Cocaine도 어떤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체증상으로는 식욕부진, 변비등 소화 장애를 호소하고 정신장애로는 일과성 환촉(Tactile Hallucination), 환시, 환청이나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 망상이 출현하고 특징적인 환촉은 벌레가 온 몸에서 기어 다니는 것 같은 환상

으로 몸이 성한데 없을 정도로 상처를 내며 쥐어뜯는다.

이러한 만성 중독은 약물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입원가료토록하면 금단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약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약물의존성은 재발 할 수 있으므로 늘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마약 중독은 돈 있는 사람에겐 더한 쾌락을 위해서, 실의에 빠진 사람은 정신적 해방을 위해서 일어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지만 그냥 호기심에 의한 한번의 잘못이 깊은 수렁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추락시키고 말 것이다.

長壽와 長命

徐 潤 煥 (33回)

平均壽命에 관하여

우리들은 뒷을 독촉 받을 때나 일을 미루고자 할 때 흔히 소털 같은 많은 歲月이라든가 세월이 녹 쓰느냐 라는 말을 하게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보니 그 소털 같이 많던 歲月이 다 지나가고 지금에 와서는 세월이 한참 녹 쓸고 있지않은가. 70을 훌쩍 넘어선 오늘날, 앞으로의 老後生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 하기가 오래 산 것 같기도 하다. 73년이란 세월은 날짜로 치면 26,645日이요, 시간으로는 639,480時間, 분으로는 38,368,800分에 이른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등에 달고 태어난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向하여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平均壽命의 나이를 넘어서 죽음을 맞이하면 天壽를 다하였다고 한다.

옛적에는 長壽란 말은 있어도 '長命'이란 말은 없었다. 長命이 곧 長壽였기 때문이다. 당시는 삶의 질로 보아 長壽나, 長命이냐로 구분되지 않았고 장명도 오직 天壽로만 받아 들여졌다. 즉 長壽의 조건이 되어야 長命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文化와 의료문명의 발달로 삶의 價値와 壽命이 向上되면서부터 健康한 늙음과 건강치 못한 늙음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고 우리들은 前者를 長壽, 後者를 長命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醫術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을 延長하여 평균수명이 80세 시대에 들어

선 結果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 장명할 경우 오히려 오랜 삶을 주체 못하며 고통으로 역겨워진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살이나 안락사 또는 존엄사를 바라기도 한다. 비근한 예로 1968년에 70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는 老醜가 싫다하여 74세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였다.

日本の 경우 평균수명은 1991년에 男性은 76세 女性은 82세를 넘어섰고 2003년에는 남성 78.36세, 여성 86.33세가 되었다. 2002년까지의 3년간의 年間 平均伸張은 男 0.6, 女 0.2세였다(毎日 2004. 7. 16). 이러니 古稀란 말이 무색해졌다. 고회잔치를 하더라도 집안의 행사로 끝나게 된지 오래다. 지금 같으면 卒壽(90)와 비교된다거나 할까.

古稀란 말은 당나라 시인 杜甫의 [曲江2首]에 등장하는 시구로 원래는 70세 까지는 살지 못한다는 自棄自爆적인 뜻이 담긴 말이다. 시구를 소개한다.

酒債尋常行處有 가는 곳마다 외상 술값은 예사고
人生七十古來稀 옛적부터 70을 사는 일은 흔치 않은 일

平均壽命의 虛實

平均壽命 80歲란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이 평균하여 80세까지 산다는 것이 아니다. 平均壽命이란 지금 태어난 0세의 어린아이의 平均餘命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라는 뜻이다. 즉 平均餘命은 각 年齡層별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숫자로 表示하는 것이며 20세에서는 20세의 평균여명이, 65세는 65세의 평균여명이 있고 이중에서 0세의 평균여명을 平均壽命이라고 한다. 평균여명 80세라고 하는데는 大前提가 있다.

갓난아기가 평균여명 80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아기가, 현재 80세의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환경에서 20세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

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豊饒속에서도 평균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다.

老後에 관하여

老後란 말이 있다. 人生에 있어서 어느 때쯤부터 老後라고 規定지을 수 있을까? 劃一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다. 個體의 健康도에 따라, 경제적 環境에 따라, 또한 人生觀에 따라 얼마든지 伸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늙음은 인생역정의 한 과정이지 살아가는 인생의 덤도 아니고 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 하여 老後란 말을 아주 싫어한다. 즉 열심히 살아온 結果로 받는 褒賞으로서의 '때' 이며 인생을 마무리짓는 가장 값진 때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장명 아닌 장수를 누려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죽음은 인생의 終末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라고 한다. 그러나 마무리 지을 일이 없는 凡人들에겐 역시 죽음은 인생의 終着驛이다.

장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생활습관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飮食은 안되며 술도 안된다는 등 이것저것 禁忌事項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거동하기에도 불편해 진다. 이것이 무슨 삶인가 라는 녀두리가 절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장수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우리들의 주위에는 장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노후인생들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빈곤으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나라가 잘되고 국가의 '老後' 정책이 韋도에 올라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노후란 것은 그렇지만 않다. 저의 경우는 70대의 중반에 들어섰는데도 今年 初 체스와 쇼오기(일본 장기)를 배워 현재 초등학교에서 特活講師로 활동하고 있다. 손자 같은 兒童들을 가르치며 집에서도 教科課程의 준비라고 하여 떼떽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강사교과과정에서 “이기는 것 보담 지는 즐거움”도 배웠다. 체스와 쇼오기를 배울 때 강한 相對만 골라 두었으니 질 수밖에. 相對편은 이겨서 좋고 나는 져서 즐겁다. 즉 [진다고 돈이 드는 것이 아니며 相對로부터 공짜로 [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부를 떠나서 게임을 두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다 보니 勝率도 좋아져서 젊은이들과 어우러져 <반타작>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생활은 力動的이라고 自負한다. 가벼운 腦卒中 증세가 있는 후山行은 무리여서 그만 두었고 그러나 1日平均 7000步 이상 걷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産經, 日經, 朝日新聞도 계속 열람하고 있다. 가끔 바둑(아마 4단), 장기(아마 초단)도 둔다. 병으로 인하여 금년의 聖書讀破계획은 이행이 不可能해지고, 20년래의 연간 100권 이상의 일본 서적 讀破實行(한자가 없는 한글 전용 서적은 구독하지 않고 있다)도 금년에는 어렵게 될 것 같다. 讀書速度가 3분지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福祉會館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고 있으며 卓球도 제법 즐기고 있다. 그 곳에서 한때 日本語講座를 맡기도 하였다. 이 原稿도 서너 차례 배운 實力으로 서틀기는 하지만 컴퓨터로 치고 있으니 즐거움이 배가된다.

不適切한 長命

日本の 경우 장수사회가 아닌 長命사회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이여 ‘돌아가’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란 “하이쿠”(俳句)가 발표되어 온 나라 안이 떠들썩했지만 결국 作者가 70대의 노인으로서 학적인 의미에서 지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습은 되었지만… 왜 우리나라도 여당의 어느 시건방진 작자가 작년의 총선에 즈음하여 “老人들은 投票할 필요가 없으니 집이나 보라”는 趣旨의 발언을 하여 物議를 빚은 일도 있었다.

노인들의 삶이 이렇게 천대받아서야 되겠는가. “늙기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울소냐”라는 시조가 절로 생각나는 요즈음이다.

病으로 살아가는 장명의 苦痛은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苦痛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원할까. 長期간 린겔을 꼴은채 酸素 마스크를 하고 苦痛에 시달려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悲慘이다.

이러한 長命은 가족들에게도 經濟적으로나 生活面에서 큰 부담을 안겨준다. 거기에다 치매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地獄같은 家庭이 된다고 한다. 치매노인에 대하여 ‘本人은 天國, 家族은 地獄’이란 말도 있다. 이래도 죽지도 못하니 살 수 밖에 없다는 운명도 자기팔자의 소관이라 하겠다.

長壽의 要訣

할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며 잔소리깨나 하면 그야말로 ‘덩치 큰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孫子 孫女를 돌보려고 하니 힘이 딸리고, 바깥出入은 ‘낙매’(넘어져서 허리나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낙마에서 유래된 함경도 사투리)가 두려워서 삼가 하고, 新聞이나 책은 눈이 나빠 읽지 못하며, 귀가 갠이니 테레비나 라디오를 한껏 들어 놓아 이웃에 폐가 되는 등 아무데도 쓸모 없는 [덩치큰 짐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장수를 맞이하였다 한들 외톨이가 되어 삶의 보람을 期待하지 못하거나 함께 지낼 ‘이웃이’ 없다면 행복한 長壽를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독거노인에게 치매증세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한다. 가끔 컴퓨터로 바둑과 같은 게임으로 소일하는 노인을 보는데 이것은 매우 해로운 자학 행위다. 노인일수록 자폐중에 걸리는 비율이 높으니 가급적 남과 어울려야 한다.

특히 노후의 사림은 人生의 오랜 歷程, 成長과정,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環境이 달랐으므로 쉽사리 胸襟을 터놓고 사귀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슴도치 사귀’ 이란 말이 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면 疏遠해지고 하니 적당한 距離를 두고 지내라는 忠告다.

또한 돈으로 사귀는 것도 한 방편일 수도 있다. ‘결코 돈으로 우정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 老人間의 사귀에서 相對를 尊重히 여겨 상대편 보답 이 쪽에서 좀 더 積極의이고, 자주 待接한다는 뜻이다. 물론 금전적 여유가 있는 편에서 말이다.

長壽한다는 것은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매일 健康유지를 비롯하여 長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간간이 將棋나 바둑 같은 놀이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것도 승패를 넘어서 마음 편하게 두어야하며 승부에 집착하면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롭다. 어디까지나 즐거야 한다. 그래야 우정도 오래가고 친구도 많이 생긴다. 그리하여 병에 시달리지 않고 健全한 노후를 즐기다가 어느 날 平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至福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인생100년, 마지막은 1주일’ 이란 삶이 우리들 最大의 소원이 아닐까.

老人 醫療에 대한 提言

‘無病’을 욕심내지 말고 ‘小病’으로 만족하자, 60대를 넘어서면 노인 4대 질환 즉 高血壓, 糖尿, 高脂血症, 動脈硬化 등의 병이 오기 마련이다. 병원에서 혈압의 최고치가 130이 나오면 나이 70넘어서 그 정도면 괜찮다고들 한다. 기준치가 120이니 이미 건강이 나빠졌어도 70대를 넘어서면 다 그렇게 되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無病하기를 바라지 말고 자질구레한 병을 안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老人이 병원에 가서 어깨나 귀, 눈 그리고 4대 疾患 등으로 몇 군데 病科를 돌다보면 약봉지가 한 보따리가 된다. 저 많은 약을 다 먹어도 괜찮은지, 도리어 害로운 것은 아닌지, 혹은 患者가 멋대로 약을 줄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병원의 어느 醫師 한 사

담도 責任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겁나는 이야기다.

西洋醫學은 征服사상이 매우 강하다. 의사는 병을 억지로 고치려고 덮어놓고 검사를 하며 강한 약을 처방한다 예로서 抗癌劑와 抗바이러스劑를 併用하여 副作用이 발생한일이 생겼는데, 이런 것도 症狀이 빨리 나타났을 때는 곧 치료하게 될것이나 그 부작용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

高齡者가 되면 병이 있기 마련, 검사에서 數値가 이상하면 걱정이 되어 노이로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많다. 늙으면 어딘가 탈이 나게 마련인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 야단법석이다. 거기에다 좋아하는 음식은 마음껏 들면서 血糖이나 高血壓 같은 것을 약으로 抑制하려고 한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전에 자기건강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켜야 한다.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다. 卵 종류(鷄卵, 生鮮알 따위). 甲殼類, 軟體動物 등은 구미가 당기는 음식이지만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우선 생활부터 바로잡고, 약이나 醫療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위한 補助手段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氣와 5臟 6腑의 조화를 증시하는 한방이 도리어 노인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結 語

인생은 어차피 늙으면 마감하게 마련이다. 이미 터득한 사실 같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죽음은 언제나 슬픔을 자아낸다. 이 글도 나의 마지막 글이 될는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기 때문이다. 어디 여행을 다녀도, 누구와 만나는 일도 언제나 마지막이 될는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대한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다음의 劉廷芝의 詩(代悲 白頭翁)로 이 글을 마감한다.

금년에도 꽃이 지니 얼굴이 늙어가고 今年花落 顏色改

명년에도 꽃이 피나 과연 누가 남을까 明年花開 復誰在

.....

해마다 꽃은 변함 없이 피고 지는데 年年歲歲 花相似

해마다 사람은 어이하여 같지 않느고 歲歲年年 人不同

準備된 죽음

내가 죽었을 때 남은 유족들이 나를 위하여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미리 일러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紙上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유족들간의 유산 분배의 다툼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집안의 창피만 아니라 죽은 이로 하여금 욕되게 하는 일이다.

◎부고의 連絡處는

◎遺産 처분 등에 관한 遺言은

◎葬禮에 관한 사항은 (葬地, 장례양식 및 葬禮費 확보 등)

◎身邊整理 사항은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하여 유족들이 장례를 잘 치르도록 준비합시다.

〈附錄〉

1. 體內 年齡 체크

體內年齡은 生活사이클이나 食習慣의 변화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보통, 實際年齡보다 많이 “老化” 되고 있다.

內臟의 “老化”를 알아보는데는 血管年齡이 尺度가 된다. 血液年齡측정기를 사용하면 現在혈관의 老化度를 알 수 있다. 機器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혈관과 장의 연령을 生活態度的 체크를 통하여 測定하는 방법을 紹介한다.

가) 血管年齡의 測定項目

1) 가슴이 조여진다. 2) 손발이 저리다. 3)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4) 스낵菓子を 좋아한다. 5) 담배를 피운다. 6) 손이 닿는 範圍 내에 물건을 많이 둔다. 7) 일이나 가사 등을 숨써 좋게 처리한다. 8) 뭔가 짜증이 날 때가 많다. 9)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

이상의 9개 項目 중에서 해당항목이 2개 以內면 實年齡과 血管年齡이 거의 비슷하다. 5개 이내이면 實年齡에다 10년을 加算하며 6개 이상이면 20살이나 많을 可能性이 높다.

血管을 젊게 하는 要領은 한 짐 늘어져서 때로는 집안 일에 피를 부러게 으름을 피우는 등 부지런한 生活形態를 느긋하게끔 바꿔 본다. 비타민 E가 풍부한 大豆제품이나,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잎사귀, 야채나 감귤 종류를 자주 먹는다.

나) 腸 年齡의 測定項目

한편 內臟 脂肪度の 尺度가 되는 것은 腸의 연령이다. 高칼로리의 맛 있는 음식은 腸의 연령을 급속도로 “老化” 시킨다.

1) 1週日간 절반은 고기料理를 먹는다. 2) 인스턴트 食品을 좋아한다. 3) 野菜를 먹지 않은 날이 있다. 4) 잠자리가 어수선하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 5) 무언가 不滿으로 자주 空空거리다. 6) 皮膚가 거칠어지고 어깨가 결린다. 7) 最近에 똥똥해졌다. 8) 階段을 오르면 숨이 찬다. 9) 아침에 便意가 없다. 10) 最近에 방귀냄새가 쿠리다.

血管年齡의 경우와 같이 개인차가 있으며 3項目 이상 6항목 이하이면 10살, 7項目 이상이면 실제연령 보다 20세나 老化가 進行되고 있다는 徵兆가 된다. 腸의 노화방지에는 腸내의 이로운 菌을 증가시키는 作用을 하는 요구르트나 食物纖維가 풍부한 사과즙 등을 많이 먹도록 한다. 그리고 매일 腸을 자극하는 運動을 하도록 한다.(운동요령 省略)

2) 존엄사와 안락사

尊嚴死와 安樂死는 둘 다 죽음을 앞에 둔 切迫한 患者의 意思에 立脚하여 治療를 中斷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措置를 말한다.

安樂死는 毒物 따위를 注射하는 등 積極的인 方法으로 죽도록 할 경우를 말한다.

尊嚴死는 生命維持裝置를 떼어 내는 등 積極的인 延命措置를 하지 않을 경우를 指稱한다.

俳句3句

主もなき 墓間に さきし すみれかな

NUSIMO NAKI HAKAMANI SUMIREKANA

初孫や この世の ごほうび 青嵐(あらし)

HATSUMAGOYA KONOYONO GOHOBI AOARASI

散る花も 九く花もあり 老いの道

CHIRU HANAMO SAKUHANAMO ARI OINOMICHI

한복치마와 삼가성(三佳聲)

李 七 煥 (33回)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점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옷은 남을 위해 입는 것 보다는 우선 자기 보호를 위해 입는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의 치부를 감추려는 심리가 먼저 발동하는데서부터 사람이 옷을 입게 된 동기가 있었다고 본다.

예부터 '옷이 날개다' 또는 '옷 잘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헐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또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의 의상문화를 살펴보면 옛날 한국 여성은 키가 작은데 비해 엉덩이는 이쪽저쪽 불쑥 튀어나와서 덩실하게 크지만 서양 여자처럼 멋있는 'S' 형을 그리지는 못한다. 더욱이 상체가 긴데 비해 하체는 짧다. 옷 저고리는 짧은데 비해 치마는 가슴까지 올라간다. 아무리 몸매가 못생긴 신체부위도 아름다운 한복 맵시에 가려 슬쩍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 한복의 특성이다. 요즘 서양의 짧은 스커트를 즐겨 입는 현대 여성들이 한국식 온돌방에서 거처 하기란 이만저만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게 아니다. 의자 생활을 하는 서양 여성들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더라도 그들이 의자에 앉은 모습을 보면 각선미가 아름다워 남성 눈에는 오히려 섹시하게 보이지만 온돌방에서 스커트를 입고 시부모 앞에 앉을 때 우리 여성들은 다리 사이가 상대방에 들여다보일 것이 두려워서 수건으로 앞을 가리고 어색하게 앉는다.

단칸방에서 여러 형제가 기거하던 옛날에는 여성들이 속옷을 갈아입을

공간 조차 없었던 웅색한 환경이었지만 치마를 가리고 앉아서 얼마든지 그 속에서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 그런 습관이 현재까지 이어 내려와서 종종 해수욕장에 가서도 탈의실에 가지 않고도 속옷을 잘 갈아입는 테크닉으로까지 발전했다. 치마는 건강관리에도 한 몫 한다. 여성의 생리시기에는 통풍이 잘 되어 악취를 그때그때 치마 밖으로 몰아내며 몸속의 습기를 외기에 의해 건조시켜 건강에 도움을 준다. 밭에서 일하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밭에 앉아 치마를 슬쩍 가리고 볼 일을 본다. 추운 겨울에는 여러겹 옷을 안에 끼입고도 겉에 아름답고 예쁜 치마 한 장만 가리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다.

여름철 살결이 들여다보이는 모시 치마를 입으면 육체미가 은은히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미니스커트보다 훨씬 섹시하게 보인다. 특히 햇볕이 비칠때 모시치마속의 속살이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각선미를 돋보이게 한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비가 쏟아지는 한 밤중에 멀리서 처벅처벅 달려오는 말발굽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석양에 노을이 질 무렵 목동이 양떼를 몰아오기 위해 부는 가냘픈 피리소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깊은 겨울밤에 아내가 잠자리에 들기전 불을 끈 후 먼저 자리에 든 남편에게 다가가며 스스로 명주치마를 벗는 소리가 낭만적이며 신비스러운 소리의 극치란다. 2차대전중 일제하에서 남자들은 군에 나가고 여자들만 남아서 남자 역할까지 맡았던 시대에 우리 여성들은 일본여자들이 밭에서 일할 때 입는 몸빠라는 바지를 입고 일했다. 그것에 비해 우리 전통의상은 어느 경우에 부딪히더라도 돋보이는 다용도 의상 중의 하나다. 오색빛이 아롱거리는 색동저고리와 긴 치마를 받쳐입고 장구를 두들겨가며 민속무용을 공연하는 우리나라 '리틀엔젤스'는 세계를 한바탕 놀라게 만든 소녀 무용단이다. 소녀의 무용도 훌륭했지만 그 독특한 전통의상이 더 한층 돋보였다.

한때 세계적인 무용가로 알려진 최승희여사는 멋진 치마저고리를 입고 천부적인 율동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계인의 마음을 독점했다. 오랜기간을 두고 우리나라 전통의상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개량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특히 긴치마의 그 독특한 선율은 의상으로써 뿐만 아니라 예술의 꽃으로 우리겨레와 영원히 숨결을 같이 할 것이며 이를 과시할 것이다.

호남지구 전투 참전기

權 炳 池 (33回)

깊어가는 가을, 감사의 계절이 지나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반세기전 조국 대한민국은 동족 상잔의 회오리 6·25을 겪으면서 퇴로가 차단되어 지리산 지구에 잠입한 공산계릴라 소탕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진눈개비가 내리는 어느날 구례읍에서 조금 떨어져 섬진강쪽에 위치한 구례 경찰서가 야간 습격을 받아 건물이 전소되고 경찰관 전원이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구례 경찰서는 사주를 돌면서 수로가 축조되었고 그 안쪽에 왕대나무를 총총히 엮어서 울타리 장벽을 만들고 일본식 목조건물 이층 옥상에는 수냉식 구경 30미리 경기관총을 설치한 난공 불락의 요새로 평가되었는데도 맥 없이 파괴되고 말았다.

경찰서를 습격한 계릴라 부대는 섬진강 넘어 좌측계곡에 위치한 화엄사라는 사찰쪽으로 잠입하였고 그 계릴라는 남조선 유경대 사령관 이현상 부대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같았다.

구례경찰서 기습 다음날부터 화엄사를 중심으로한 사방을 완전 포위하였고 증원부대가 속속 투입되었다. 밤이되어 어둠이 깔리면서 국군 선무대에서 비행기 확성기를 이용 선무 방송이 있었다. 방송내용은 대략, "산중에 계신 유격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아까운 목숨을 받쳐가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따뜻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 오십시오. 흰 손

수건이나 천을 흔들고 나오거나 산중에 살포된 뼈라 공민증을 제시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사찰의 건물은 이미 예전에 소실된 상태였고 소실된 건물의 뒷편으로 큰 바위들이 뿔뿔히 있었는데 그 속의 몇개 지점에 공비들이 잠입 은신하고 있었다.

사찰로 진입되는 도로가 비포장이었으나 백사토로 표면이 잘 다져져 있었고 길 양쪽에는 약 7~8년생 되는 벚꽃나무인가 자장나무인가 낙엽이 지고 앙상한 뼈대만 보이고 있었다.(50여년의 성상이 지났으니 그 나무들이 아직 있다면 나같이 고목이 되었으리라)

여기에서 피아의 사황을 조금 소개하면 적은 그들 나름대로 혁명가나 적기가를 부르면서 국군에 잡히면 엄청난 고문을 당한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명령없이 이탈하는 자는 즉시 처형한다며 상호 감시와 독전을 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찰은 ‘검은개’ 그리고 국군은 ‘노랑개’로 부르며 박멸의 대상 즉 조우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훈련되어 있어 내부단속이 강화된 것 같았다.

아군의 사기와 군기면을 잠깐 살펴보면 토벌 작전에 투입되기전 순천 국민학교 교정에서 야영할 때 시범적인 공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도망병, 강간병, 적전비행 등 3명의 공개 총살은 군기의 엄함을 보여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또한 ‘전훈’이라는 강령이 있었는데 서문과 5개 조항으로 첫머리 서문에 나의 임무를 공산군을 격멸하여 세계 각국이 승인한 우리 민족의 단 하나인 나라 대한……

2항 : 나는 전투중에 명령대로 전진하여 후퇴하는 전우나 부하를 보았을때는 참다운 애국심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를 총살하겠다.

3항 : 나는 전투중 총기를 지극히… 유효 사거리내… 총기를 잃거나 버

리는 전우도 역시 총살하겠다.

5항 : 나는 전투중 부모 형제와 국민이 기대… 특히 죽음의 길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적의 포로가 되어 포로라는 더러운… 요건대 자손만대 길
이길이… 이번 공산군 침입전투에 일신을 바치게 된것을 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소위 말하는 즉결처분의 법적인 근거로 활용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사기진작에 심리적 영향을 많이 끼치는 국군이 부르는 군가중에는
'용진가'가 있었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도치는 애국의 소리
돌격돌격 독립전선에
천하무적 우리군대 누가 당하라
보아라 휘날리는 태극 깃발을 애국의
가슴이 울리는 애국의 소리”

이 군가는 제법 행진곡으로 작곡되어 많이 불리웠으며 충성가도 같이
불렀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고구려 삼천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아~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어딘지 자학적인 군가임에도 상당히 불렀고 심지어 진중에서 자작으로
부르던 공비토벌의 노래도 있었다.

“앞집의 영자야 몸성히 잘 있느냐
……날아가는 기러기야
소식을 춘자에게”

조금 자유주의적이며 낭만적인 노래지만 진중송으로 상당히 불렀다.

심지어는 흥도야 울지마라, 원산엘리지 등등… 노래의 제목은 모르지만 아래와 같은 노래도 생각한다.

“사나이 이십여세 꽃피는 이가슴
내일의 싸움터를 찾아서 간다.
사랑도 하소연도 무슨 소용 있으리
꽃 같은 우리 아내 언제나 보리”
“아내여 새 세상을 굳세게 사세요.
당신과 만날때의 백년언약을
지금은 이별가로 합창하고 있구나.
꽃 같은 우리 아내 언제나 보지.”

이 노래 역시 향수심에 젖는 노래였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유희작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고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가 잘 있거라…’ (박시호 곡)란 노래가 나왔다. 이 노래는 제법 행진곡풍의 군가같은 박력이 있었으나 요사이 소련의 제정 러시아 때와 혁명후의 붉은군대에서 부르던 ‘바르샤바 여인’ 노래의 편곡이란 말을 듣고 씩씩한 생각이 든다.

여기서 피아간에 불리던 노래를 언급한 것은 세계 1차대전(1914~1918)이 한창이던 구라과 전선에서 대치중인 연합군과 적군 최 전선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을때 어느쪽에서 먼저 불렀는지 모르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문힌 밤…”의 합창이 이루어졌고 피아간 몇발의 충격이 있었지만 공중을 향하여 축포형식으로 이루어진 발포로 하루의 평화가 유지된 사례가 있어서 만일 같은 언어와 문화로 살던 아군과 게릴라 사이에도 대치중 공통된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 ‘반갑습니다’ 등등 노래로 합할 수 있었겠건만 뭇뻘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또 1차 대전시 연합군이 4월 종대로 야간행진하고 있었는데 얼마후에 5월이 되었고 날이 밝아 확인한 결과 다섯번째의 열은 적군임이 확인되

어 그때부터 군 계통에서는 첩자 또는 간첩을 5열분자라고 부른다.

구레 경찰서의 피습사건도 어느 5열분자가 활약한것 같았다.

또 일본군의 군가중 “고꼬와호꾸만 난바꾸리-도-꾸 고꼬오 하나레데” (여기는 북만주 몇만리나 멀리 고향을 떠나와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행진곡 풍의 이 군가도 제정러시아 정보기관의 5열(간첩)이 일본군의 항수심을 유발하여 사기저하를 목적으로 작곡한 것으로 판명되어 금지곡으로 처리된 걸로 아는데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노래는 내용도 분명한 ‘꿈따리 빵빵’ 등 이상한 것을 보면 ‘쫄쫄’ 불쌍한 생각이든다. 건전한 노래와 가사가 좀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음악이나 그림계통에 문외한인 사람의 평가라 무시하여도 좋지만 그래도 너무 무시하지 말기를.

포위망이 점점 압축되면서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다.

중대와 대대간, 소대와 중대간의 무선기 호출이 잦아졌다. 호출부호는 백두산, 한라산, 두만강, 압록강, 고구려, 백제, 신라, 물새, 참새…… 등등이었으며 어떤 무전기에서는 지휘부의 높은 분이 어떤 중대장을 향하여 왜 빨리 진출하지 못하였느냐고 당장 총살시켜 버리겠다는 욕설도 섞여 있었다.(무전기는 무거웠고 요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위키토키 보다 못한 성능으로 연결이 자주 끊기고 잡음이 많았다)

“가능한 한 사살하지 말고 생포하라” 유격대 사령관을 생포하는 작전이었다.

적군쪽에서 선제 공격으로 집중 사격이 가해져 왔다.

그러나 그들은 3내지 4명에 소총 1정 정도의 무장과 수류탄이 고작이었는데 백운산쪽에 있는 그들의 병기창에서 생산한 탄약으로 융해점이 낮은 낫쇠를 부어서 조잡하게 제작하였으므로 탄환이 일정한 탄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큰원을 그리면서 지그재그로 날아오기 때문에 소리는 요란하게 썩-썩 내며 날아왔으나 별 것이 아니었고, 근접 전투에서는 그들

의 세열 수류탄이 몇개 날아와 터졌지만 이것 역시 팽하는 폭발음은 컸지만 세열이 되지 않고 두쪽으로 갈라지는 수준의 늦쇠 수류탄으로 인마 살상의 효과는 별로 없었다.

국군에서도 당시 국방부 조병창에서 제조하였다는 '마식 수류탄'을 사용하였다.(마찰식이란 말로 탄체는 미세 수류탄같이 구열 무늬의 표피에 심지를 뿜기면 성냥을 그어 발화시키는 것같이 점화되어 기폭제인 뇌관을 통해 충전약이 순간폭발 하겠끔 제조되었는데 이것 또한 방법이 부족 불발탄이 많고 폭발시 세열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피장 파장이었다)

선제 공격을 받은 국군쪽에서 집중사격이 아닌 위협사격을 60mm 박격포(거리 약 300~400야드)와 더불어 경기관총 자동소총 등으로 하였고, 그 결과로 적의 화력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막간을 이용 투항 권고가 한번 더 있었는데 일부는 사찰의 뒷산쪽으로 도피하고 일부는 손을 들고 투항하였는데 도망가던 무리쪽에서 다시 응전 사격이 감행되어 몇명은 사살되었다.

지휘부에서는 적군 사령관의 생포를 고대 하던터라 전과 보고의 독촉이 무전기를 통하여 심하게 전해 왔는데 대략 사살 몇명, 생포 몇명 계속 수색 추격중이란 보고만 하고 전투는 종결단계에 접어들었다.

생포된 사람을 조사하면서 피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 부대의 지휘관은 구례군의 노동당 위원장으로 교전중 사망하였고 지난날 구례 경찰서를 습격한 것도 자기들이라고 진술하여 상급부대로 보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악질적으로 양민을 너무 많이 학살하였으므로 참수하여 후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구례군민들이 너무나 원해서)

군인이 총기를 이용 적군을 사살한 것은 몰라도 목을 찢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참수하는 방법도 문제였다. K상사가 시체를 30야드 정도 앞애다 놓고 경기관총으로 목쪽을 정조준하여 연발로 드르륵 드르륵 사격하였는데 소나무같이 잘라지지 않았고 결국 오두출 병장이

(경남 함안쪽의 사람으로 안강전투에서 일등병 때 전사 하였는데 그 자리에 고성에서 피난오다 잡혀온 본명 김규창이라는 사람이 오두출이라는 전사자의 이름으로 근무) 야전삽으로 절단하여 생포된 여자 게릴라의 치마에 싸서 지휘부에 보냈다.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피살자의 소지품에서 구레군 당원 명부를 발견하여 지휘부에 보냈더니 아주 만족해 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러 명이 훈장을 받았는데 대대본부, 연대본부의 사무계통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다.(투철한 군인 정신과 어찌구 저찌구...)

전투병은 항상 꿈이고 나까오리(중절모)를 쓴 사람들은 항상 따로 있는 법.(요새 지리산에 시베리아 산 곰 6마리를 풀어 놓았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옛날의 지리산 곰이었던 나도 올라가야지.) 전리품중엔 당원 명부 외에 소련공산당사와 사상교육용의 팜플렛 몇 권도 있었다.

포로들은 거의 모두 상급 사령부로 압송하고 얼굴이 번듯한 여성 동무 한 명은 국군작업복을 입혀 중대장의 특별참모로 있게 하였다. 산중 생활이 몸에 베여서인지 산을 잘 탔고 행군에도 남자못지않게 잘 따라 왔다. 간단한 빨래도 했고 취사당번을 하기도 하였다. 반합에 쌀을 담아 밥을 할 때 짓궂게 슬쩍 물어보았다.

“노랑개가 올라 탔는데 기분이 어땠어?” 빙그레 웃기만 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하여 아느냐?”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였다. “왜 싸움판에 들어와서 전투에 참가하느냐?” 그것도 모르겠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였다. 적군이 내 자궁까지 쳐 들어왔다는 어느 파라오 궁녀의 탄식이나 원성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사상이 어느쪽이 어떻고 전혀 몰랐다.(이글을 쓰는 나도 모르지만)

지치고 피곤하게 동물농장의 짐승같이 끌려 다니면서 산중에서의 게릴라 생활을 타고난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에 울고 정에 우는 가냘픈 한국의 여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범 그 자체였다.

지난 1960년대 중반 지리산의 마지막 공비 정순덕이란 여자를 잡았다는 신문 기사를 본 후 그 여인이 40년의 세월을 비 전향으로 감옥에서 보낸다는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였다.

언제쯤 시간이 허락하면 구례읍에 한번들러 조그만 교회당이라도 찾아가 잠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든다. 우리 세대의 나그네길의 세월들이 험한 세월이었다고……

성경의 창세기에 야곱이 바로에게 토로한 고백의 한 토막을 나도 토로하고 싶다.

어느날 곡성과 임실의 중간쯤되는 산중을 행군할 때 한 떼의 산 멧돼지가 나타났다.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한 병사가 M1소총으로 사격을 가하자 옆에 있던 몇명이 합세하여 멧돼지를 향해 집중사격이 가해졌다.

지휘부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무전기로 계속 다구친다. 입장이 곤란해진 소대장과 중대장이 영겁결에 수 미상의 적과 조우 교전중 계속 추격한다는 상황을 보고했다.

정찰기가 출격 살살히 관측하다 의심가는 곳에 연막탄을 투하하고 가 버렸다. 그리고 주위를 돌던 경비행기에서 작전명령이 떨어진다. 좌표 ○○○을 중심하여 수색하라는 명령이었다.

밤이되어 부근의 야산에서 야영.(항상 사주방어 배치로 산의 중앙에 지휘부와 행정부 그리고 자위력이 약한 중화기 부대원이 배치되고 산의 주위에는 소총 부대가 배치된다)

산돼지가 몇마리 잡혔으니 그날 저녁은 돼지 곰국으로 오랜만에 고기 맛을 좀 본것 같았다. 조금 과식하면 금방 설사하는 병사가 많았다.

깊은 밤중이 되었는데 산 아래쪽의 계곡에서 일단의 부대가 손전등(후래쉬)을 켜들고 긴 행렬로 행군하며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아무리 공비들의 화력이 약하고 보잘 것이 없지만 저렇게 무방비로 행군하여도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든차 아니나 다를까 양쪽에 매복한 게릴라에 의해 협공 집중사격이 가해졌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의 일부는 우리의 야영지로 퇴각하여 올라오고 많은 총기와 실탄 무전기 등을 약탈 당했으며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다 중간에서 전부 무참히 살해되는 참극이 있었다.

『실록 지리산』 백선엽 장군이 기술한 책을 보면 그때 사항을 경계 소홀로 인하여 기습공격을 받고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야간의 부대 이동을 지시한 사람과 적의 화력을 무시하고 유유히 전등불을 밝히고 행동한 지휘관 등 누구도 처벌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았다.

기습을 감행한 게릴라 부대는 임실 근처의 어느 조그만 촌락으로 들어갔다 토벌군의 정보망에 포착 섬멸 당했다.

백운산속에 있는 게릴라 본부 그리고 섬진강변쪽으로 연한 조계산 속의 병참기지(쌀독을 돌밭에 묻어놓고 뚜껑을 돌로 씌워서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그들의 정미소(물레방아식) 광양쪽에서 도설봉(뽕죽한)으로 연하는 그들의 야전 훈련장들.

지금은 다 흘러간 한토막의 옛말인 것을……

강원지구 전투 참전기

강릉, 양양 공격이 끝나고 설악산(1708고지) 공격을 위하여 오대산쪽으로 진격할 때다.

야간 행군으로 북쪽으로 전진할 때 마침 월정사란 사찰 옆을 지나면서 대처승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꽃가마의 행렬이 목격되었고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우리 주력부대가 그 근처에 주저항선을 형성 전개하고 있었으며 야음을 이용 J상사가 졸병 부하 2명을 데리고 산사의 신방을 강습하여 신랑을 강금하고 초야권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조지훈 시인이 20세 때인 1940년에 월정사에서 읊었다는 시구 ‘꽃이 떨어진다고 바람을 탓하라’ 어느 정치가의 실세가 읊조리던 구절이 그때부터 징크스로 작용 하였는지 모르겠다.

당시 우리 중대장은 성격이 곧으며 상관의 명령엔 절대 복종하는 충절이 있었는데, 박 정권때에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권력의 중앙까지 올랐다가 불란서 파리에서 실종된 인물로, 그때에 임시 대위(중위)로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전투만 끝나면 군법회의에 회부 총살시켜려 하였다.

그러나 죄에는 벌이 따른다고 하였는가?

다음날 설악산 쪽으로 진격하던 중 부대의 주력이 지뢰지대에 걸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적 박격포의 집중사격인지 또는 야전포병의 탄막에 걸렸는지 몰랐지만 곧 지뢰 매설지대의 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칠혹같이 어둔 밤 비는 억수로 내리는데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며 움직일수록 인계철선을 건드려 대인지뢰가 사방에서 작열하였다.

산의 정상으로 올라 가려해도 진흙 바탕이 미끄럽고 복부에 심한 찢과상을 입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자기 손바닥으로 끌어당겨 뱃속으로 쑤셔 넣으면 저쪽으로 쏟아지고 두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심장이 뚫린 사람, 어떻게 지뢰지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염려하던 중, J상사가 외쳤다. 철모를 전부 벗어 던지라고 하였다. 철모가 굴러 내려가면서 몇발의 지뢰가 터졌고 자신도 한쪽 다리가 나간 상태였는데 밀로 몸을 날려 굴렀다. J상사의 몸에 걸린 지뢰가 마지막으로 터지고 본인은 벌집으로 변하여 숨을 거뒀으나 부대는 퇴로가 열렸다.

그때 그사람의 죄는 무겁지만 몸을 던져 희생한 덕분에 많은 인명을 구하였으니 이 사람의 죄와 공로를 어떻게 저울에 달아야 할지 지금까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부상자의 후송은 도저히 불가능함으로 현장에서 죽든가 자력으로 살아남든가 두가지의 길밖에 없었다.

커다란 희생을 치르면서 설악산쪽으로 서서히 다가설 무렵, 워낙 험한 산악이라 후방의 병참선이 멀어지면서 식량과 탄약이 고갈되어 고전하고 있었는데 일본기지에서 발진한 쌍발 수송기 약 30대가 5~6대씩 편대를 편성, 아군의 후방 분지에 낙하산으로 군수물자를 투하하였다. 한 비행기에 2개의 동체가 있었고 여기에서 쏟아내는 낙하산이 심산계곡에 꽂이 핀 것 같이 내려 앉았다.

빨간색의 낙하산에서 탄약과 폭발물, 하얀색의 낙하산에는 식량과 피복, 파란색의 낙하산에는 기타 물품 등으로 기억된다.

식량의 포장 한 개가 일인분으로 비스킷, 참쌀미수가루, 튜나 통조림, 짹짹한 대구포, 드롭프스, 담배 한 갑(CAMEL), 커피, 설탕 각 1봉지씩 들었고 포장의 곁에 'MENU' 라고 표기되었는데 야전 식량을 한국인의 기호에 맞춰서 일본에서 조달한 것 같았다.

다른것은 다 아는데 커피에 문제가 생겼다. 한약같이 쓴 것이 왜 들어

있느냐? 어디에 섞어서 먹는 양념인가? 아니면 방부제의 일종인가?

마침 이웃 인접 부대에 있는 일본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중사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고-히’라는 건데 향이 좋고 이것을 먹으면 잠이 안오고 감기에도 좋다고 하였다.

분대장이 커피봉지를 모두 모아서 배낭에 넣었고 최전방에 잠복 척후조로 나가는 잠복조(2명의 초병)들에게 한 봉지씩 가루채로 강제 복용시키고 자지 말고 근무하라는 당부와 격려의 선물로 사용하였다.

매일 계속되는 행군과 진지구축에 피로가 쌓이면 커피 2개를 먹어도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은 항우 같은 장사도 들어 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든가. 처음에는 끌고 나간 TS10(티에스텐)이라는 송수화기로(유선으로 자석이 작용하는 전화기인데 벨은 울리지 않고 대화만 전달가능) 이상무 보고와 더불어 훑아 떨어지니 아마 최전선의 반은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노래를 들으면 옛날 쓴 커피의 향수가 다가오는 것 같다. 스타박스라는 커피점에는 54가지의 커피가 있으며 커피의 향기는 800가지고 한국인도 일년간 한 사람이 300잔의 커피를 평균적으로 소비한다고 하니 지금도 쓴커피 한가지만 고집하는 내 심사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

태백산맥 지대에서의 전투를 소개하면 중서부쪽 U.N(미군)군은 밤이 되면 적진의 상공에 강력한 써치라이트를 수없이 비쳐서 구름에 반사케 하여 대낮같이 전방 시계를 밝히면서 계속하여 각종 화력으로 화망을 형성 적을 제압하고 있는 현상이 한 눈에 들어온다.

포탄과 탄환을 쏟아부어 개미 한마리도 뚫지 못할 정도로 마치 24시간 교전중인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동부전선에 배치된 한국군의 전면은 반면 캄캄 오리무중으로 보이며 간혹 멀리 동해바다에 떠 있는 해군 군함에서 함포사격과 조명탄 그리고 중심 배치된 한국군의 포병대가 요란사

격 형식으로의 지원사격이 고작이니 역시 강한 군대가 되려면 풍부한 국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동해에 떠 있는 군함에서 발사되는 포탄이 포구를 떠나는 순간 누런 추진 화약을 뿜어내면서 불을 토하고 그 포탄이 아군의 머리 위를 심한 금속음을 내며 넘어가서 멀리 외금강쪽의 적진에 떨어져 폭발하는 순간 까지 대략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았다. 음속이 320m/sec로 환산하면 13,000m의 비탄거리인것 같았다.

어떤 때는 야전포병의 105mm 및 155mm 곡사포가 아군의 후사면을 강타 오폭할 때도 있었다. 주저항선(대치하고 있는 적의 정면쪽 약 8부능선) 바로 뒤에 있는 후사면쪽의 후방 지휘소와 취사 및 지원 근무부대가 아군의 오폭으로 큰 피해를 볼 때도 있었지만 최전방에 나와 있는 포병 관측장교가 '사격중지' 악을 쓰지만 계속 오폭할 때는 정말 한스러운 생각만 들었다.

오대산 전투가 끝나고 설악쪽으로 북상하면서 낙하산으로 투하된 탄약의 운반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총탄은 괜찮은데 특히 60mm와 81mm 박격포탄의 운반을 위하여 군인 1명당 5발씩 할당되었는데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다.

나는 당시 60mm 박격포 사수를 하였는데 포탄 3개만 짊어지고 가다 도저히 무거워서 포탄 알맹이는 바위틈에 버리고 콘데이나 껍데기만 메고 행군을 하였다.

드디어 설악산의 태반도 장악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60mm 박격포를 설치하고 포관을 다치기 위하여 시험 사격도 몇발 끝내고 집중사격지역(적의 접근로 중에서 아군의 직사탄으로부터 차폐된 곳)과 탄막형성지점(적의 용이한 접근로의 개활지등)을 향하여 몇개의 가늠대도 설치하였다.

주) 박격포의 사격각도는 최저 45°(최장거리) 최고 85°로 전투대비태세 일 때는 그 중간인 62°에 설치하여 상향전개시 상하 어디든지 신속히 작동한다.

이제 한단계만 더 올라밀면 금상산도 점령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중동부전선이 중공군의 대대적인 춘계공세 때문에 뚫리면서 대관령쪽에서 포위당할 처지인데 옆친데 덮친다고 대낮에 후방쪽으로 잠입한 인민군 타격부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당하여 주력이 와해될 처지가 되었다.

황급히 대오를 정리하여 철수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박격포 포탄이 문제가 되었다. 그냥 두고가면 적의 화력으로 변하여 아군을 괴롭힐 것이고 휴대하고 갈려니 시간이 촉박하여 할 수 없이 콘테이나 포장을 뜯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 설악산 계곡의 물 흐르는 바위틈으로 전부 폐기하고 후퇴하였다.

적군의 박격포는 아군에 비하여 구경이 1mm가 크게 제작되었다. 아군의 60mm에 비하여 61mm 또한 81mm에 비하여 82mm로 아군은 적의 포탄을 노획하여도 사용할 수가 없지만 적은 아군의 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격포는 포구장진식이므로 약간 헐렁해도 쓸 수 있지만 큰 사이즈는 들어가지 못함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투중 적의 박격포탄을 노획한 일이 있었는데 영성한 나무상자에 방청(防鏽)용으로 탄체에 구리스(찐득한 기름 콤파운드)를 잔뜩 발라서 사용시 걸레로 닦아야 하고 신관과 뇌관 그리고 추진용장약(화약)이 따로 통조림통에 밀폐 포장되었기에 일일이 재결합 사용하여야 하지만 미제 포탄은 둥근 콘테이나통의 테이프만 뜯어내면 신관과 뇌관이 착실히 장착되어 있으며 추진장약도 4개가 있는데 사거리표를 보고 몇 개를 떼어 버리기만 하면 사용이 용이하니까 미제 박격포탄은 그들에게도 소중한 것이었다.

아마도 중공군이 장개석군의 포탄을 쓰기 위하여 사이즈를 1mm씩 늘린것으로 생각된다.

위대한 수령동지 김일성이가 5살 때부터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였단니까 그의 선견지명이 미제의 포탄을 쓸 수 있는 박격포를 만들었는

지도 모르겠다.

언제인지는 잘 몰라도 미국의 대통령후보인 아이젠하워가 전선을 방문할 때 입고 다닌 잠바가 아이크잠바라하여 국군 지휘관 대부분이 모방하여 아이크잠바를 입고 다녔고 또한 미국의 8군 사령관 밴프리트 장군이 전방순시에 나설 때 군용탄대에 군복양쪽어깨 멜빵을 걸치고 거기에 미제 세열 수류탄 2개를 양쪽 가슴에 한 개씩 달고 다녔는데 이 또한 전 부대의 고위 지휘관들이 모방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백두산 정기를 흠뻑 받고 태어났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복장이 또 유행하면 어쩌나 하고 큰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크잠바는 연회색의 카키색으로 얇은 편으로 앞은 작크식이고 아래 쪽은 약간 시보레로 보였음.

그리고 우리의 연대장은 모교의 선배이신 한신 대령이었으며 부대의 통상 명칭은 1연대였다. 그리고 부대의 표상은 범호자 호부대였는데 나중에 맹호사단의 모체가 되었다.

특히 수도고지 전투가 한참일 때 해방 후의 모교 체육선생이시던 이덕환 선생이 신임 소위로 임관되어 소총중대의 화기소대장으로 부임한 것을 보았는데 워낙 치열한 전투중이라 그 후의 안위는 잘 모르겠다.

이땅에 다시는 대량살상의 전쟁이 없기를 바란다. 김정일 큰형도 큰통의 정치를 약속한다니까 지켜볼 일이다.

속초 유정

李 大 鍾 (33回)

속초에 수 십년 만에 처음으로 설악산 단풍구경으로 갔다. 직장 생활에 매달리다 보니 추석이나 신년 새해 연휴를 빼곤 통 시간이 없었다.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은 눈 온 겨울 아니면 푸르름의 계절뿐인데 금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나왔다. 참 좋아 벽에 걸었다.

추석이나 설에는 남들이 다들 고향으로 가느라 민족의 대 이동이 펼쳐지고 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겸하여 몇번 가본 일이 있는 속초길이 해가 쌓일수록 마음에 와 닿고 망향의 정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어 시간이 있으면 속초로 간다. 우선 속초로 가는 길이 좋다.

강원도 산이 있고 높이가 있어 좋고,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 구룡령, 진부령 다 같이 특징이 있어 좋고, 굽이굽이 허덕이며 올라온 길을 설이 설이 내려가니 탁 트인 바다를 보게 되어 가는 길 힘들어도 가고나면 좋은 곳이다. 지금은 많이 변하였지만 속초에는 우리의 고향이 있었다.

중앙동에서 청호동 가는 거룻배를 타고 가면 거기에 우리의 고향마을이 있고 풍물이 있고 생활과 음식이 있다. 중앙시장에는 홍남, 퇴조, 신포, 차호, 홍원 등지에서 온 우리 고향 사람이 있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에 젖게 되어 좋다. 그리고 내설악, 외설악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온천이 있다. 산행에 지친 몸을 척산 온천물에 담그고 울산 바위를 바라보는 맛은 가히 일품이다. 지난날 아흔아홉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이 지금은 대관령 새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뚫렸고 터널 일곱을 지

나면 주문진이고 양양이고 속초이다. 서울에서 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삼십년 전에는 일곱 시간 이상 걸리는 먼 길이고 한번은 겨울 눈 덮인 설 연휴에 도로공사가 한참이던 한계령을 차를 갖고 넘다 눈길에 미끄러져 십년감수 한 적도 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속초에 가면 중앙동에 있는 작은 호텔에 든다.

설악동에 묵으면 갇힌 기분이고, 중앙동은 여러 가지 고향 음식점이 있고 교통편이 좋다. 거진, 대진 등지로 가는 버스 편이 있어 좋고 간성, 거진, 대진, 등지에 가면 해물이 정말 싸고 좋다. 또한 가는 버스의 양쪽 풍경도 너무 좋다. 바른쪽은 바다요 왼쪽엔 설악 백두대간과 호수가 있다. 6·25때 나는 1연대 1대대 수색대에 있었다. 단독무장 가벼운 군장으로 주문진, 양양, 속초, 간성, 거진 등지를 수없이 오르내리고 하였다. 눈 덮인 산야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좋았고, 간성의 흰 등대는 지금도 뇌리에 박혀있다. 흰 등대를 바라보며 행군할 때 삶의 상징과 희망과 용기를 얻었고 마음의 길잡이었다.

나는 수색소대를 지원해서 갔다.

스무살 철없는 젊은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보고 싶었고, 수복되는 고향을 남보다 먼저 밟고 싶다는… 한없이 어리석음에 젖었던 시절이었다.

전쟁도 몇 개월이면 끝날 것으로 믿었다. 그것이 반세기하고도 내년이면 5년이 넘어 55년에 접어든다. 타향살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인정도 변한다는데… 그 세월은 부모형제를 두고 온 이산의 세월은 지금도 계속되고 끝이 보이질 않는다. 두세기에 걸쳐 분단 된 국가는 지금 세계 지도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동쪽의 극에 위치한 한반도 일 뿐이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보스담, 알타 회담에서 미국이 참전 십여 일이 되는 소련에 38선을 경계선으로 서로 대치하여 주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우리는 분단의 불행의 역사의 늪에 빠진 것이다.

작년 10월 초순에 미군의 정보제공으로 동해에 침범한 잠수한 두 척을 수색, 폭뢰까지 터트리며 삼군 합동으로 삼사일 작전을 펼쳤으나 오리무중이었고,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하였다. 물론 잠수함 침투도 미군의 첩보가 없었으면 알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현대 한 달 후에 남중국해 오끼나와 남쪽에 나타난 국적불명 잠수함을 일본이 탐지하고 중국에 항의하였으나 중국은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일본은 이 잠수함의 출항지와 그 항적을 제시하는 정보력을 발휘하였다. 물론 중국은 머리를 숙였다. 우리하고는 너무나 비교되고 슬픔마저 느끼게 된다.

나는 속초에 갈 때마다 새벽 해돋이를 보러 간다. 거룻배를 타고 청호동에 가면 그 앞이 바다이고 해돋이를 볼 수 있다. 동이 붉게 트면서 솟아오르는 불덩이를 보면 누구나 소원을 기원하기 마련이다. 물론 가족의 안녕을 빌고는 꼭 남북통일, 이산상봉, 국태민안까지 거창하게 빌어본다. 그런 세월이 여러 십년은 되었건만 이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에겐 남북통일과 이산상봉이 한낱 정치 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된다. 한 사람은 햇볕정책이다 하면서 되지도 않는 소리로 백성을 현혹하고 그냥 놔두면 다쓰러졌을 정권에 돈과 쌀과 비료, 시멘트 등을 한 없이 퍼주어 기사회생시켰다. 물론 그 돈과 쌀 등의 물자들은 일반 북한 동포와는 상관이 없었고 그들 체제를 옹호하는 무리와 군사력 보강에 충당하였음은 말할 나위 없다. 햇볕정책이 시작한지 5년이 지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간첩을 잡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햇볕정책을 시작한 정권이 가고 젊은 대통령이 들어서더니 정말 한심하고 기막힌 일들의 연속이고 KBS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온통 왜곡되고 좌파적이고 편 가르기 싸움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급기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선된 미국대통령을 만날 일정을 잡아놓고 그 미국 땅 LA에서 대미 공개 메시지를 날렸다. “북은 테러조직과 연계된 증거 없어… 대북 무력행사와 경제 봉쇄는 안 된다.”,

“핵이 외부 위협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 없고 북쪽 정권의 대변인이 아닌지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155마일 전선에 남과 북 100만이 넘는 젊은 군인이 총과 칼, 전차와 대포 장사포와 다연장 로켓포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의 말인가 하는 한숨과 자탄의 소리가 나올 뿐이다. 북한 핵은 수백만 이북 동포를 기아와 아사의 구렁에 넣으면서, 수만의 탈북자를 만주 벌판에 내 몰면서 오직 김일성, 김정일 그 일족의 권력 존속을 위하여 대를 이을 왕조의 보위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일차적인 가상 피해 대상은 우리나라와 남쪽 국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오직 대화로만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말 순진하고 이상에 찬 문학소녀 같은 소리이다. 북의 집단과의 대화로 남북간의 현안과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다. 그런 젊은 좌파 성향의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 작금의 이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노장과 청년등 연령별로 지역별로… 숨이 꼭 막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 법안을 놓고 온통 싸움판이 되었다. D.M.Z 삼중철책선이 뚫렸다. 2005년도 국방백서에서는 군의 주적개념이 삭제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답한 세월 속에서 기분 좋고 마음에 꼭 드는 일이 2004년 11월 3일에 있었다. 미국에서 부시대통령이 재선 된 것이다. 한국의 젊은 386세대 국회의원 삼십명이 미국의회에 인권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철없는 일이 있었다. 진작 나서야할 당사자인 우리정부와 국회에서는 북의 학정으로 쓰러져간 수십만의 생명과 참혹한 강제노동수용소, 직업의 선택권, 거주지 자유마저 없는 북의 인권현실에 왜 말 한마디 없고 온통 북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다. 이런 무기력한 현실 속에서 연간 2400만 달러씩 4년간 사용하는 예산이 포함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 된 것이고 그 첫

째 행동으로 질서 있는 집단적 탈북자의 미국입국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나는 부시 대통령 2기 정권 4년을 기대하고 있다. 인권법 통과는 궁극적으로는 북의 정권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속에 금상첨화인 것은 콘드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이다. 스탠포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학장까지 지낸 50세 흑인 독신녀. 소련 문제 전문가로 구소련 붕괴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큰 눈에 정말로 기대가 크다할 것이고 부시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4년 동안 역사에 남는 일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 라이스 국무장관은 소련을 붕괴시킨 경험을 살려 그 솜씨를 보여 줄 것이다. 동두천, 의정부에서 평택의 350만 평 부지에 옮겨질 미군은 새로운 동북아의 그림을 그리는 힘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또한 중국의 4세대 새 지도자들도 북의 세습왕조에 회의적이고 일부에서는 북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정말로 우리세대는 역사의 소용돌이치는 중심핵에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모두들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 부시 대통령 4년을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자. 새해에도 속초로 갈 것이다. 고향으로 가는 희망을 재 충전하기 위하여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을 보러 갈 것이다.

부 록

나의 아버님 / 韓英順(韓恂鉉先生 次女)

同窓會 會則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同窓會誌 第8號 發行을 爲한 內譯

同期別 名單

海外 同窓會 會員 名簿

作故者 名單

編輯後記

나의 아버님

韓英順(韓恂선생 차녀)

가친 韓恂은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근엄거사로만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아버님의 일면만 보고 내린 편견이다.

아버님은 풍류도 알고 게다가 유머러스한 면도 있었다. 처남들(나의 외삼촌)과의 모임에서는 우스개 이야기도 잘 하셨다. 인정넘치는 인자한 아버님이었다. 가벼운 반주로 기분 좋으실 때엔 우리들 자매에게 우리들이 모르는 생전 또는 어릴적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셨다. 이 글 가운데 기록에 없는 이야기들은 그때 들었던 기억들의 재생이다. 빈곤했으리라 하는 추단도 몸에 배인 절검(節儉)에 유래한 속단이다. 함남고녀 시절의 교장선생님은 함남중학교에서 영전하여 오신 塩崎선생이었는데 당시의 연중행사였던 '모내기'에 동원되었을 때 교장선생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 일대 논은 모두 네 아버지 것이다"라면서 미소지으셨다. 함흥고보 졸업생 한 분의 권유로 근검절약해서 저축한 돈에다 금융조합에서 대부 받은 돈을 합쳐 구입한 값싼 밭이 수리조합사업으로 옥답으로 바뀐 결과였다고 한다.

아버님은 1893년 함흥교외의 함주군의 작은 마을 나촌(羅村)에서 4남매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촌은 한씨 집성촌이며, 이성계(이태조)의 첫째 부인 한씨가 태어난 곳으로 매년 성대한 제사가 있어 유명하다. 아버님의 생가는 넉넉지 못하였다. 서당에 갈 처지가 못된 아버님은 서당마당에서 놀면서 귀동냥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총명함을 발견한 훈장님의 권

유로 할아버님께서 보통학교에 등교케 해 주셨다. 나흔부터 함흥 소재 학교까지는 수십 리 되는 거리다. 게다가 겨울 바람으로 유명한 성천강(城川江) 다리를 건너야 하니 통학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강한 바람에 날려서 강물에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재미로 고생을 모르고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등교시간을 알기 위해 마당에 나무가지를 꽃아 해시계를 만들어 놓았는데 해가 난 날은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었으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난감했다고 한다.

전 학년을 수석으로 마치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할아버님에게 서울엔 관립중등교육기관인 漢城학교(경성고보→경기 중, 고교로 교명 변경)가 있는데 수업료와 기숙사비의 면제는 물론이고, 교과서와 학용품도 모두 무료 제공하여 전국 영재를 모아 키우고 있으니 그곳에 진학케 하라는 권고가 있어 입시차 상경한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절이라 먼 길을 10대 중반에도 못미친 소년이라도 보로 상경하자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여비가 충분치 않아 도중의 숙식도 노력제공에 의한 현지 해결이었다니 이십수 일 걸려 서울에 도착했을 땐 몸이 쇠약할대로 쇠약해졌을 것이다.

그래도 입시는 자신있게 치렀는데 이외에도 불합격이었다. 실의에 빠져 귀향하기도 그러기에 고향과 반대 쪽인 남쪽에 가서 일생 농군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입시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학교를 찾아갔다. 마침 교직원회의 중이었다. 들어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나는 내 시험답안지에 틀린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불합격인지 이유를 말해주세요.” 외쳤다. 그말이 끝나자마자 체육교사가 아버지를 안아서 창밖 운동장으로 던져버렸다. 아픔을 참고 다시 들어가 더 큰 소리로 되풀이 외쳤다. 그 교사는 짐짝같이 다시 던져버렸다. 단념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학교 급사가 자전거로 쫓아와 교장의 부름을 전한다. 학교장은 불합격 이유가 신체쇠약에 있었다면서(上京길의 과로가 탈이었

다!) 1학기 동안의 개근 등의 건강상태를 담보로 하는 조건부 가입학을 허용했다.

1학기 동안의 침식적정 없는 기숙사 생활은 몸을 건강케 했고 1회의 결석도 허용치 않았다. 게다가 성적도 수위였다. 가입학이 해제되었고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운동장에 내동댕이쳤던 전날의 체육선생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안하다고 했더라. 금의환향 보통학교 훈도로 취임한다. 당시의 사진을 보면 아버님은 제복에다 칼을 차고 있었다. 총독부의 무단(武斷)정치가 한창인 시기였다. 동료교사인 여선생과 '연애결혼'을 했으나 아들 하나만 남긴채 사별한다. 굳이 '연애'에 액센트를 두는 이유는 함흥고보, 함남중학 졸업생의 인식과는 달리 아버님이 얼마나 신식사고의 소유자였는가를 알리기 위함이다. 상투머리가 정상이던 1910년대의 '교내 커플!' 아버님은 '하이카라 족'이었다.

이때의 태생이 창숙 오빠(17회, 무사시 고공 졸업, 작고)다.

몇 년 지나 상처의 아픔을 딛고 상경하여 경성공업전문학교 응용화학과에 입학한다. 같은과 2년 선배에 동향의 朱鍾宜(3.1운동 학생대표, 해방전 보성중학교 교장, 해방후 초대 흥남종합비료공장 공장장)학생이 있었다. 인연이 되어 후일 그의 9남매 형제중의 단 하나인 여동생(朱賢子)와 재혼한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자 명부를 보면 20년도(공업전문학교 응용화학과 제3회)와 22년도(제5회) 졸업자 명단에 외삼촌과 아버님 이름이 보인다. 졸업후 아버님은 휘문고보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1925년에 함흥고보로 옮긴다. 함흥고보·함남중학 재직시의 아버님 이야기는 생략한다. 그러나 침언하고 싶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아버님의 기행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는 흥미위주의 무근거 또는 과장된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엔 昌淑오빠 가족과 貞順언니(함남고녀 1942년 졸업, 재미) 내가 일정시대부터 살고 있었다. 해방후 혼자 먼저 상경하여 안암동 오빠 집

에 기숙하면서 숙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46년의 함흥학생 사건이 있은후 아버님이 단신 월남하여 오빠집에서 합류하였다.

아버님의 상경후의 첫 직장은 동승동 소재의 국립공업연구소였다. 안동혁(상공부장관 역임, 작고)씨가 초대 소장일 때였다. 안 소장은 경성고등공업학교(공업전문학교 교명 변경)응용화학과 1926년도 졸업생인데다 휘문고보 출신이다. 아버님의 같은과 4년 후배에다 아버님이 교사로 있던 고보 졸업생(제자인지의 여부는 불명)이란 인연으로 아버님은 부소장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버님 연구실 앞 대학로 건너편에 경의전(의과대학 전문부)교사가 있었다. 아버님은 그곳에 출강도 하셨다. 얼마 후 어머님을 위시한 나머지 가족 중 시골 외할머님과 함께 지내던 어린 여동생만 남겨두고 모두가 월남 상경, 서울의 아버님과 나 모두 7명이 합류하여 韓建淑(제16회)씨 집을 빌려 서울 살림이 시작됐다. 얼마 후에 원효로 쪽 신계동에 집을 장만하여 이사했다. 이즈음 아버님은 연구소에서 성남고등학교(교장)로 직장을 옮겼다.

6.25 전쟁 전에 숙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경남여중·고에 직을 얻어 단신 부산에 내려 갔다. 전쟁이 일어난 후 아버님이 슬가하여 부산으로 피난오니 아버님은 늘 내 뒤를 따라오는 격이 되었다. 부산 고등학교에 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아버님은 영어공부를 하면서 무료함을 달래셨다.

환도후 용산고등학교에서 근무중 뇌졸중으로 와병, 투병생활의 첫 1년은 의욕적으로 대처했으나 별로 차도가 없자 차차 투병 의욕이 감퇴하는 듯 보였다. 강수만 박사(6회)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다. 그러나 병 중에도 제자들을 만나면 좋아하는 약주를 드시고 돌아오곤 하셨다. 2년동안의 투병생활 끝에 혜화동 집에서 1958년 2월 14일 64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님 사망 당일, 오빠는 제주도에 출장중이었다. 통신과 교통이 오늘 같이 편리한 시절이 아니었다. 전보로 연락했으나 당일 귀경은 불가능했다. 겨우 다음날 15일 낮에야 KNA(당시엔 KAL도 없었다)편으로 상주가

도착했지만 하마터면 평양으로 갈뻔 했었다.

제주도 출발 서울행의 다음 편이 공중납치되어 평양으로 간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의 마지막 가족애의 배려였다고 오빠는 후일 두고두고 이야기 했었다. 그런데 기연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상주가 도착한 후 장례절차를 정하고 부고문안을 만들어 동아일보 광고 접수처에 접수시킨 시간은 마감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15일은 토요일이어서 접수가 거절 당하면 부고는 18일(화) 조간에 실릴 수 밖에 없는데 18일이 발인이어서 부고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 당시 일간신문의 휴간일이 월요일이어서 생긴 일이다. 그런데 부고문을 접수한 직원이 읽어보더니 “한 선생님이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애통해 하지 않는가. “선생님은 중학교 은사입니다” 하면서 다른 기사를 빼고서라도 게재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16일(일)의 동아일보에 실린 부고를 보고 많은 친지와 제자들이 출상전에 찾아와서 추도해 주셨다. 고마웠던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른다. 당시 동아일보에 寸鐵殺人이 한자 단문으로 지가를 올렸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함남중학 24회 졸업의 崔 皓 기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의 여부는 모른다. 이 글을 빌려 47년전에 돌아가 감사말을 드린다.

아버님은 좋은 학교에서 좋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사회 각처에 포진한 유능한 옛 제자가 있었기에 행복했었다.

이런 글을 동창회지에 신게 배려해 주신 이삼열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고마우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아버님 추억담을 마칩니다.

(필자 한영순은 한순현 선생님의 2녀인 바, 선생님의 장남 昌淑 동문이 작고 하시고, 장녀도 미국 이민이어서 선생님의 국내 거주 유족 가운데

최연장자이다. 장문의 추억담이 된 것은 편집진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또한 추억담에 오른 동문의 졸업회수 등은 편집진의 조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로 알립니다.)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咸興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校)同窓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調 團結을 公高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會員：私立咸興高等學校, 私立咸興高等普通學校,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咸南公立中學校 및 咸興中學校 卒業者와 同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2) 特別會員：母校에 在職하였던 敎職員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 同時에 會務에 關한 發言權과 決議權을 갖는다. 但, 特別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 會 長 1名
- 副會長 3名
- 監 事 1名
- 總 務 1名
- 副總務 1名

-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 (4) 會長 有故時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會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功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第九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 合同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期間동안 會務에 參與하고 次期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第十條 各 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키로한다.

第三章 會 議

第十一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 案件의 承認
- (2) 臨時總會：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 員 會：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 (4) 幹 事 會：各 期別 幹事의 會議로서 任員會의 要請으로 開催할 수 있다.

第 四 章 財 政

-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함은 原則으로 한다.
-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豫置한다.
-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九月三十日로 한다.

第 五 章 補 則

- 第十五條 本 會則 第二條의 支會를 設置하고자 할 때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此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는다.
- 第十七條 本 會則의 改正은 總會 出席委員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十八條 本 會則의 未備點은 任員會의 決議에 依據 處理키로 한다.
- 第十九條 本 會則은 通過된 날 부터 施行한다.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 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 九日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基金 造成 沿革은 同窓會誌 第4號, 第6號 및 第7號에서 記述하였으므로 省略한다.

基金은 特別히 募金하지 않고 年例行事인 春季野遊會와 秋季定期總會 그리고 이번까지 여덟번째에 걸친 同窓會誌發行과 같이 그때 그때 必要한 經費를 充當하기 爲하여 뜻이 있는 會員 여러분들의 齎出로서 造成되었다.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2005. 4. 10 現在)

贊助金總計 132,561,412
\$ 5,660

1. 個人別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李東準	1	50,000		朱仁鎬	21	2,300,000	
姜洙滿	6	190,000		劉喆	21	400,000	
金載元	9	70,000		元勳基	21	400,000	
李東沂	10	130,000		李相胤	21	200,000	
金聲近	10	400,000		李英環	21	200,000	
金連珪	16	900,000		朱軫淳	21	700,000	
崔昌植	16	150,000		趙在衡	22	2,820,000	
金漢范	17	230,000		徐昌仁	22	100,000	
朱永在	17	100,000		金祐雙	22	100,000	
趙漢龍	18	1,650,000		洪昌杓	22	100,000	
崔英植	18	250,000		朴東昶	23	5,980,000	
朱權源	19	1,020,000		韓信	23	230,000	
金河駿	19	60,000		金瑛河	23	600,000	
洪滢杓	20	5,330,000		任昱彬	23	400,000	
權泰弘	20	50,000		朱圭演	23	200,000	
全世經	20	120,000		朴昌均	23	200,000	
金興洙	20	1,020,000		李漢淳	23	200,00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趙誠福	23	200,000		劉炳千	25	100,000	
崔宗相	23	250,000		劉炳敏	25	500,000	
黃忠炫	23	100,000		金珉河	25	150,000	
李世得	23	100,000		金仁鶴	25	100,000	
金斗墳	23	100,000		金熙宰	25	50,000	
徐正溶	23	150,000		朴鼎惠	25	50,000	
玄鳳學	23	100,000		劉長得	25	100,000	
周憲銓	24	2,050,000		趙成國	25	50,000	
金廷圭	24	200,000		崔浩益	25	50,000	
高明元	24	200,000		韓相豹	25	50,000	
柳炯極	24	500,000		金聲進	25	100,000	
廉仁必	24	1,300,000		韓承五	25	650,000	
韓時坤	24	1,400,000		韓鼎燮	26	1,130,000	
朴泳馥	24	300,000		李三悅	26	1,408,000	
金性均	24	100,000		金瑤煥	26	100,000	
崔昌彬	24	150,000		石東壽	26	170,000	
韓承銀	24	100,000		河烘權	27	750,000	
韓學綸	24	100,000		元章煥	27	1,100,000	
金東勳	24	300,000		劉 鋼	27	2,000,000	
黃炳峻	24	100,000		金明壽	27	300,000	
朴承咸	25	60,000		朴澈善	27	200,000	
盧庚昞	25	2,730,000		朴昭會	27	100,000	
權宅淵	25	300,000		安 滉	27	200,000	
金銀式	25	300,000		韓淳輔	27	200,000	
金吳麗	25	200,000		廉聖龜	27	200,00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沈鳳燮	27	300,000		韓春熙	29	100,000	
朱炳七	27	100,000		孟厚彬	29	100,000	
李鴻範	27	200,000		宋徽林	29	100,000	
李洙灝	27	200,000		李盛茂	29	100,000	
趙誠國	27	100,000		朴升鐸	29	150,000	
尹元基	27	100,000		朱相彥	29	50,000	
金允善	28	930,000		李善植	30	1,400,000	
李命英	28	5,100,000		李元鏞	30	1,650,000	
宋榮冕	28	50,000		朴溶夏	30	1,550,000	
趙東喆	28	380,000		朴世雄	30	200,000	
魯一協	28	300,000		李鎬汪	30	100,000	
吳哲求	28	250,000		高明三	30	500,000	
韓炯周	28	600,000		白昞烈	30	600,000	
高明東	28	100,000		李寅華	30	1,600,000	
申道均	28	100,000		都相豹	30	100,000	
金鳳混	28	310,000		韓相洪	30	100,000	
朱赫淳	28	300,000		崔嘉鳳	30	300,000	
鄭哲周	29	1,830,000		金光彬	30	100,000	
金熙國	29	100,000		李 河	30	100,000	
趙 鎰	29	200,000		李承奎	30	100,000	
林舜均	29	200,000		申裕恒	30	100,000	
韓鎮慶	29	700,000		金秉喆	30	200,000	
韓錫元	29	400,000		金冕燮	30	300,000	
金光浩	29	500,000		柳承敦	30	200,000	
林鍾一	29	200,000		李南杓	30	100,00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全龜淵	31	105,000		徐康洛	32	100,000	
金致敬	31	500,000		柳榮潁	32	50,000	
金明哲	31	1,000,000		金桂碩	32	30,000	
都址石	31	200,000		李相龍	32	100,000	
朱繪淳	31	400,000		李大鍾	33	900,000	
金泰	31	500,000		李七煥	33	200,000	
朴炳哲	31	250,000		姜在錫	33	300,000	
全夏鏞	31	100,000		朱宣淳	33	100,000	
林浩	31	200,000		韓永喆	33	500,000	
柳榮龜	31	100,000		尹炳陽	33	100,000	
柳俊馨	31	400,000		廉昌錄	33	100,000	
辛應夏	31	100,000		宋榮達	33	150,000	
金·陽	32	100,000		金相龜	33	100,000	
朴承宰	32	2,050,000		申東虎	33	100,000	
鄭在銓	32	150,000		崔熙仿	33	400,000	
于龍範	32	50,000		金桂淑		505,000	
金炳鉉	32	50,000		外26名			
尹明鎭	32	50,000		小計		81,538,000	

2. 同期別

同期別	金額	備考	同期別	金額	備考
15	150,000		26	3,250,000	
16	100,000		27	4,220,000	
19	150,000		28	3,980,000	
20	350,000		29	4,000,000	
21	2,050,000		30	4,690,000	
22	1,730,000		31	4,070,000	
23	3,250,000		32	4,090,000	
24	3,350,000		33	4,185,000	
25	3,720,000				
함고이사회	100,000		小計	47,435,000	

3. 海外 同窓 個人別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馬鍾國	8	\$ 120		朱翰裕	21	\$ 20	
金子勳	15	\$ 230		文相駿	21	\$ 130	
金滢次	15	\$ 500		玄鳳學	23	\$ 150	
都相禧	19	\$ 30		金會鎬	23	200,000원	
文錫垠	19	\$ 100		宋基澈	23	200,000원	
		60,000원		金應浩	24	\$ 200	
韓大淑	20	\$ 700		吳正喜	25	100,000원	
金壽永	20	\$ 200		金秉萬	26	\$ 30	
崔潤煥	20	\$ 300		李柱衡	26	\$ 80	
金時彦	21	\$ 80		吳炳憲	26	\$ 20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姓名	同期別	金額	備考
金澤濟	26	\$ 100		金弘杓	29	\$ 100	
金東萬	26	\$ 30		金雄植	29	\$ 150	
孫錫鳳	26	80,000원		韓萬燮	30	\$ 170	
曹圭榮	27	\$ 50		高勝榮	30	\$ 200	
朴昭會	27	\$ 100		曹秉均	30	\$ 50	
李英得	28	\$ 20		金恭根	30	\$ 80	
李澈男	28	\$ 400		趙 哲	30	\$ 80	
		308,280원		金龍澈	30	51,350원	
金和極	29	\$ 100		申森熙	30	\$ 30	
		100,000원				124,000원	
張聖洛	29	202,190원		金庚台	30	49,249원	
李通堦	29	\$ 100		李仁根	30	\$ 50	
韓世鎬	29	\$ 100		黃載鎮	31	\$ 100	
朴浩高	29	\$ 100		朴炳元	31	\$ 150	
		102,190원				100,000원	
金淳郁	29	\$ 130		楊炳春	31	\$ 100	
		600,000원		韓碩惠	32	\$ 50	
金在楨	29	\$ 180		權炳池	33	100,000원	
		51,350원		在美一同		1,059,803원	
李培石	29	\$ 50				3,588,412원	
		100,000원				\$ 5,660	

同窓會誌 第8號 發行을 爲한 內譯

合計金額 14,658,672

1. 個人別 8,900,000

(2004. 12. 20~2005. 4. 10現在)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19	朱權源	100,000	27	—	—
20	金興洙	100,000	28	韓炯周	200,000
21	朱軫淳	100,000	28	朱赫淳	300,000
22	趙在衡	300,000	28	吳哲求	100,000
23	金瑛河	50,000	28	申道均	100,000
23	崔宗相	50,000	29	韓鎮慶	200,000
24	周憲銓	100,000	29	李盛茂	100,000
24	崔昌彬	50,000	29	孟厚彬	100,000
24	康仁必	100,000	29	金光浩	200,000
25	故 盧庚昞 遺族	1,000,000	29	韓錫元	100,000
25	韓承五	300,000	29	朴升鐸	100,000
25	劉炳敏	300,000	29	鄭哲周	300,000
25	權宅淵	100,000	29	朱相彥	50,000
25	金銀式	100,000	30	朴溶夏	200,000
25	金聲進	100,000	30	李南杓	100,000
26	李三悅	1,000,000	30	李寅華	200,000
26	石東壽	100,000	30	金冕燮	100,000
26	金溶煥	100,000	30	金先彬	100,000
26	韓鼎燮	100,000	30	白昞烈	100,000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30	李元鏞	200,000	32	千龍範	50,000
31	金泰	100,000	32	鄭在銓	50,000
31	朱漣淳	200,000	33	韓永喆	500,000
31	金明哲	200,000	33	李大鍾	200,000
31	申應夏	100,000	33	姜在錫	100,000
32	朴承宰	300,000	33	宋榮達	50,000
32	尹明鎮	50,000			

2. 期別 3,700,000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23		300,000	29		300,000
24		300,000	30		700,000
25		300,000	31		300,000
26		300,000	32		300,000
27		300,000	33		300,000
28		300,000			

3. 在美會員 2,058,672

同期別	姓名	金額	同期別	姓名	金額
25	吳正喜	100,000	29	金在楨	51,350(\$ 50)
28	李澈男	308,280(\$ 300)	30	金龍澈	51,350(\$ 50)
29	金淳郁	500,000	30	金庚台	49,249(\$ 50)
29	張聖洛	102,190(\$ 100)	30	權炳池	100,000
29	朴浩高	102,190(\$ 100)	30	在美會員一同	694,063(\$ 700)

同期別 名單

第 10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聲近	137-061	瑞草區 方背1洞 917-4	585-0268		

第 1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壹教					
李在玉					

第 1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蔡奎燦	122-120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金佶熙					
朴俊燮					

第 16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麟河					

第 1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朱永在	626-822	慶南梁山市 東面 법기리 山180-1	(055) 383-5375		
韓萬堦					
高允明					

第 1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完龍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86 빌라맨손	797-6995		
金寅彪	130-080	東大門區 里門洞 346-51	962-6588		
李中性	132-030	道峯區 雙門洞 現代APT 101-604	906-9036		
趙漢龍	110-340	鐘路區 益善洞 91	765-3577		
韓蒙淑	122-070	恩平區 驛村洞 75-25	359-0480		
韓翊洙	132-023	道峯區 放鶴洞 新東亞APT 9棟 701號	956-3210		

第 1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朱槿源	136-060	城北區 敦岩洞 616-1 한신APT 112-408	924-2338	서울大 名譽教授	745-2430
韓弼夏	140-201	龍山區 梨泰院洞 111-3	793-6970		
李勇填					

第 2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興洙	110-012	鐘路區 平昌洞 111-16	395-3009		011 258-9503
朴演琓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미성APT A-302	546-5156		
李基炯	449-913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삼성 7차 APT 705-401	(031) 265-3649		
金宗海	153-039	금천구 시흥본동 848의 26	894-5004		

第 2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敷鉉	121-850	麻浦區 阿峴2洞 343-7	364-0875		
李英環	150-080	永登浦區 道林洞 186-9	833-9593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明洙	220-910	春川市 南山面 江村里 571-7 江邊 테라스			
朱軫淳	138-775	松坡區 松坡2동 16 미성APT 3-401	2203-7751		
韓喬石	138-240	松坡區 新川洞11 장미APT 28-201	423-4241		
韓東允	402-022	仁川市 南區 龍峴2洞 삼익APT2-1001호	(032) 882-2667		

第 2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聖翰	156-786	銅雀區 新大方洞 우성APT 13-1702	848-8061		
金禧庚	137-896	瑞草區 良才2동洞 312-1 메트로APT 101호	579-7202		
金祐燮	435-724	軍浦市 宮內洞 백두극동APT 963-1602	(031) 398-0198		
金東輝	463-03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셋별마을 우방APT 310-802	(031) 707-7759		
廉元德	440-841	水原市 長安區 亭子洞 879-1 백설마을 성지APT 541-1304	(031) 269-6678		
安 霖	135-086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992-3903		
柳炯容	431-085	安養市 東安區 별개동 신동아APT 903-607	(031) 387-9909		
趙在衡	156-830	銅雀區 上道1洞 7-22	814-2059	코리아 봉사회장	375-0985
趙成植	100-827	中區 新堂洞 346-452	2252-0977		
韓翬洙	463-721	城南市 盆唐區 書峴洞 87 三星示範APT 131-1101	(031) 701-0491		
李炳一	697-110	濟州道 西歸浦市 범관동 392 신세계빌라 205호	(064) 739-1036		
金周炯	136-033	城北區 東小門洞 3街 60	926-4623		

第 2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瑛河	425-171	安山市 常綠區 사동 1533 남부론(금강)APT 110-102	(031) 502-6334		019 325-6334
朴東昴	135-272	江南區 連登2동 467-6 데림아크로빌 B동 1701호	576-3636		
徐日揆	411-312	高陽市 일산구 일산2동 576-4 쌍용APT 103-608	(031) 975-9770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徐正溶	360-210	淸州市 상당구 울랑동 現代1次 APT 201-1205	(043) 213-8518		
李燮杓	600-081	釜山市 中區 보수洞 1街 116	(051) 256-8125		
任昱彬	411-370	高陽市 一山區 주업동 문촌마을 뉴삼익APT 1601-204	(031) 921-6697		
趙誠福	139-242	盧原區 孔陵2洞 747 두산APT 101-1304	972-7173		
朱圭演	427-880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진주APT 403-109	(031) 529-3669		
崔宗相	403-080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3614 대동APT 101-406	(032) 518-7348		
黃忠炫	425-040	安山市 成浦洞 住公APT 1002-704	(031) 403-5606		

第 24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基喆	427-050	果川市 富林洞41 住公APT 802-1005	504-4559		
高明元	435-042	軍浦市 山本2洞 목련APT 1224-1602	(031) 396-3897		
金東勳	442-470	水原市 영통구 삼성 노블카운티 A동 314호	(031) 208-9035		
朴聖熙	151-055	冠岳區 奉天5洞 1712-1 관악드림타운 삼성APT 148-1602	3285-7197		
朴泳馥	461-200	城南市 수정구 복정동 162-1	(031) 755-6819		
廉仁必	137-888	瑞草區 良才1洞 18-16 현대빌라 205호	579-9146		
柳炯極	110-541	鐘路區 昌信洞 447-12 우미빌딩 4층	762-6663		
周憲鎰	150-889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양APT D-302호	780-1795		
崔 雄	137-060	瑞草區 方背洞 539-108 하야빌라 201호	588-4930		
崔 皓	411-717	高陽市 마두동 794 강촌마을 우방APT 810-301	(031) 903-4695		
崔昌彬	138-240	松坡區 新川洞 장미APT 12-707	413-3096		
韓時坤	411-380	高陽市 장항동 720 양지마을 건영빌라 206-101	(031) 916-5587		
韓學綸	132-105	道峯區 彌阿5洞 1264-138	988-1872		
黃圭錫	445-940	京畿道 華城市 장안면 석포리 941	(031) 358-1055		

第 25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權宅淵	156-020	銅雀區 大方洞 362-1 大林APT 104-1501	825-2582		
金珉河	476-800	京畿道 楊平郡 楊平邑 白安里 366-5	(031) 771-5355		
金聲進	140-031	龍山區 梨村1洞 LG자이APT 108-401	582-1277		
金銀式	156-070	銅雀區 黑石洞 50-35	814-0303	東洋火 災顧問	
金熙宰	110-523	鐘路區 明倫洞3街 1-973	762-4970		
劉炳敏	678-800	慶南 陝川郡 陝川邑 592-3	(055) 932-0514	영남의원	(055) 931-2579
趙成國	133-121	廣津區 노유동 46-43	464-1907		
崔浩益	411-820	高陽市 一山區 장항동 681-9	(031) 913-1890		
韓相豹	217-080	江原道 東草市 조양1洞 住公次 APT105-1001	(033) 636-6255		
韓承五	449-534	龍仁市 水枝邑 신봉동 LG자이2차 APT 220-401	(031) 897-7226		

第 26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瑤煥	121-020	麻浦區 孔德洞 105-138	713-3472		
金元鐸	130-765	東大門區 里門3洞 쌍용APT 109-202	967-0249		
金鍾麟	152-080	九老區 高尺洞 52-88	612-0086		
朴一均	422-090	富川市 소사區 괴안동 동신APT 6-102	(031) 343-2587		
石東壽	134-070	江東區 明逸洞 42 우성APT 5-1005	481-2282		
柳榮海	463-772	城南市 盆唐區 書峴洞 한신APT 127-1202	(031) 701-3946		
李三悅	120-160	西大門區 대신동 16-1 samylee@unital.co.kr	3147-2797		011 284-4692
林祥榮	301-150	大田市 中區 太平洞 1街 64	(042) 889-8624		
陳一憲	641-091	慶南 昌原市 南陽洞 성원1차APT 113-507	(055) 282-6368		
韓炳瑚	135-280	江南區 대치동 935-29	567-2111		
韓荃淑	449-582	龍仁市 器興邑 보라리 쌍용APT 109-502	(031) 274-8122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韓鼎燮	120-113	西大門區 연희3동 쌍용APT 103-1401	6383-5824		019 359-5824
黃珪石	158-753	陽川區 木5洞 목동APT 3단지 306-301	648-2172		
洪德泳	133-100	城東區 玉水洞 現代APT104-702	2295-8706		
洪鉉壽	157-031	江西區 登村1洞 라인APT 102-2002	3661-9212		

第 2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明壽	463-01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베나 텔라스 A-2302	(031) 716-9202		
朴澈善	743-955	慶北 尙州市 洛東面 洛東里 772-1	(054) 532-7733		
沈鳳燮	140-201	龍山區 梨泰院1洞 청화APT 2-1106	793-6883	카톨릭의대 명예교수	727-2569
安 洸	120-103	西大門區 弘恩3洞 西江APT 2-302	3216-0742		
廉聖龜	138-042	松坡區 風納洞 413-1 현대APT 105-102	474-5408		
劉 鋼	139-756	노원구 상계7동 720 주공APT 613-206	951-3271		
尹元基	137-030	瑞草區 蠶院洞 新盤浦4차APT 203-904	591-8999		
李洙灝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APT 84-104	599-3323		
李鴻範	137-130	瑞草區 良才洞 106-6 정오빌라 201호	529-6788		
趙誠國	463-480	城南市 盆唐區 金谷洞 영남APT 102-2101	(031) 716-3232		
朱炳七	617-030	釜山市 海雲台区 左洞 1398 LG APT 118-1701	(051) 703-2266		
朱舜五	301-010	大田市 中區 문화동 777 삼성푸른APT 106-1202	(042) 584-2216		
河拱權	110-054	鐘路區 社稷洞 181	736-9789	화이마 산업사장	777-7741
韓淳輔	435-706	軍浦市 山本2洞 목련우방APT 1235-301	(031) 397-0521		
韓泓模	135-280	城南市 中原區 銀杏1洞 現代APT 102-902	(031) 743-5716	성남 서민병원	(031) 731-6777
洪昌疇	137-070	瑞草區 瑞草洞 1612-11 2층	581-5855		
朴昭會	110-012	鐘路區 平昌洞 435-2 山井빌라 3층	379-4315		

第 2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景榮	435-720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롯데묘향APT 938-403	(031) 393-6993		
高明東	137-130	瑞草區 良才洞 7-57 良才 현대빌라 301호	575-2364		
金漸煥	200-952	春川市 孝子2洞 655-7 16통4반 성심약국	(033) 257-0931		
金翊南	463-802	城南市 盆唐區 구미동 서울시니어분당타워 702	719-7414		
金允善	110-062	鐘路區 新門路2街 1-222	737-1421	범한서적(주)	737-1421
金鉉鎭	130-650	서울 淸涼里 우체국 사서함 133호			
魯一協	110-847	鐘路區 平倉洞 296-25	379-6798		
毛麒喆	361-747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송학APT 103-901	(043) 275-9726		
朴英傑	431-085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성경(목련)APT 106-605	(031) 386-2709		
申道均	449-844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LG자이II 213-1603	(031) 897-6311		
吳哲求	136-020	城北區 城北洞 166-2	762-1725		
李漢祚	472-724	南陽州市 와부읍 덕소리 코오롱APT 113-603			
林鎬燮	614-052	釜山市 釜山鎭區 양정2洞 백조APT 2-1003	(051) 863-3439		
張成筈	425-789	安山市 월피동 現代2차APT 204-301	(031) 401-6117	화실경영	534-8986
朱赫淳	430-843	安養市 만안구 안양9동 1094-1 홍화부라운빌APT 102-1001	(031) 448-8061		016 788-8793
曹翼奎	411-716	高陽市 一山區 마두2동 강촌마을APT 302-602	(031) 811-2449		
韓炯周	133-768	城東區 玉水洞 220-1 한남하이츠APT 2-1002	2297-4548	한형주의원	923-8811
蔡憲哲	600-091	釜山市 中區 대청洞1가 9-90	(051) 463-0626		
崔仁鎭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51 三益APT A-706	780-7480		
太範植	138-797	松坡區 蠶室7洞 86 亞細亞선수촌APT 11-603	413-7510		
韓鳳鍾	121-869	麻浦區 延南洞 509-103	324-2501		
韓忠錫	120-020	西大門區 미근洞 117-20	394-5350		
黃慶鎭	420-710	부천시 원미구 중1동 마리내마을 동성APT 928-502	(031) 322-6391		

第 2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惠榮	100-400	中區 雙林洞 155-1	2265-5159	동작 노인복지관	823-0064
金光浩	608-010	釜山市 南區 南川洞 비취맨손APT 215-605	(051) 622-4245	(주)범아 공사사장	(051) 469-0473
金炯宇	302-171	大田市 南區 갈마동 쌍용APT 2동 602호	(042) 526-8837		
金北之	120-092	西大門區 홍제동 82 홍제한양APT 106-901	737-9742		
金載範	110-070	鐘路區 內需洞 71	722-7071		
金正宰	138-200	松坡區 문정동 43-15	402-2935		
孟厚彬	158-863	陽川區 신정3동 1177-26	2697-4753	동서문화사	545-0332
文昌基	132-012	道峯區 道峯2洞 625-21 햇빛산 빌딩 관리사무실	954-2220		016 213-2230
朴升鐸	157-030	江西區 登村洞 669-1 서울시니어즈타워 1108	3662-3425		
白萬鍾	437-706	의왕시 내손동 624 포일주공APT 115동 407호	(031) 421-4997		
白昌烈	134-023	강동구 천호3동 54-9(36/7)	478-6528		
徐昌政	136-752	성북구 동소문동 한신APT 120-1101	925-3691		
柳吉鏞	463-77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우성APT 215-201	(031) 709-8888	농장경영	(031) 482-9431
李甲杓	122-050	恩平區 갈현동 463-16 진양빌라 303호	355-6227		
李炳杰	139-202	노원구 상계6동 주공APT 305-602	931-4591		
李盛茂	217-800	속초시 교동619-33 설악현대APT 103-204	(033) 635-9454		
李垣植	139-201	노원구 상계1동 미주동방APT 101-1204	951-0020		
李殷鳳	142-075	道峯區 수유5동 408-18	902-3692		
林舜均	463-480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성원APT 702-1301	(031) 717-8847		
林鍾一	442-400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28 삼성맨손 303	(031) 225-9791		
張之煥	137-069	瑞草區 方背本洞 중앙APT 가동 901호	591-0951		
鄭哲周	121-110	麻浦區 신수동 190 성원APT 101-1106	714-2729	정원주세무 사사무소	2274-0928 2266-8305-6
朱東雲	158-050	陽川區 木洞APT 534동 1405호	2649-9050		
朱相彦	431-081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03-2 목련단지 선경APT 107-606	(031) 385-0411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崔萬植	137-040	서초구 반포동 반포APT 114-308	599-9448		
崔學洲	423-014	光明市 光明4洞 49-24	2682-1786		
韓錫元	449-906	龍仁市 始興邑 하갈리 467 노블카운티 1502호	(031) 208-9307		
韓昇燁	121-230	마포구 망원2동 465-19	336-3883		
韓依天	137-062	瑞草區 方背2洞 948-20	584-0386		
韓鎮慶	110-876	鐘路區 崇仁洞 76 롯데캐슬 인동 802호	3670-6037	한진경 피부과의원	923-5043

第 30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明三	463-470	城南市 盆唐區 宮內洞 중앙하이츠빌리지 203-301	(031) 714-5270		msko@komet.net
權甲周	138-785	松坡區 風納洞 413-1 풍납현대APT 102-501	471-6430		
金光彬	121-806	麻浦區 노고산동 40-13	715-4374		kdp1228@hanmail.net
金斗燦	110-103	鐘路區 구기동 85-5	394-4223		
金冕燮	133-824	城東區 성수동 1街 2동 668-10	464-6951		mynsupkim @unitel.net.kr
金秉喆	137-829	瑞草區 方背洞 774-19 방배맨피스 현대APT 101-503	534-1300		
金始源	157-031	江西區 登村1洞 631-9 대동황토방APT 103-502	3662-5208		
金信根	150-762	永登浦區 汝矣島洞 28 광장APT 3-306	780-3494		skkim3494 @hanmail.net
都相豹	423-737	光明市 철산3동 주공APT 1324-1102	2614-9807		
朴世雄	449-913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성원APT 107-302	(031) 286-6871		swpark101 @yahoo.co.kr
朴溶夏	411-837	高陽市 一山區 강항동 881 호수마을 현대APT 213-402	(031) 907-9821		
朴定仁	463-03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69 장안타운 건영APT 105-1602	(031) 781-2288		
邊成燁	209-80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630	(033) 441-7511		
白昞烈	132-782	道峯區 倉洞 45 삼성APT 107-1001	906-0564		
申裕恒	476-83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3리 249-3	(031) 771-0500		ytshin78 @komet.net
延河龜	135-976	江南區 狎鷗亭洞 288 현대APT 120-901	548-2179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吳承泰	441-400	수원시 권성구 곡반정동 580 삼성APT 102-301	(031) 221-5585		
俞 焄	137-813	瑞草區 盤浦本洞 盤浦APT 95棟 507號	533-2411	경기개발 연구소	(031) 222-4800
柳承敦	157-839	강서구 등촌1동 6324 삼성한사랑APT 102-1801	2659-1541		
尹東榮	133-070	城東區 杏堂洞 349 한신APT 112-102	2291-0141		
元炳旣	138-737	松坡區 오금동 2 대림APT 3棟 1404號	407-2789		pyongohwon @hanmail.net
李元鏞	143-802	廣場區 廣場洞 148-3	457-4898		
李圭喆	612-738	釜山市 海雲臺區 반여1동 왕자APT 15-405	(051) 523-7106		
李相元	135-840	江南區 大時4洞 923-10(B-102)	569-1979		
李南杓	463-750	城南市 盆唐區 盆唐洞 38 우방APT 311-1506	(031) 709-4697		npice @unitel.co.kr
李承奎	139-847	노원구 월계동 534-43	918-7860		lickenkui @hanmail.net
李演熙	463-020	城南市 盆唐區 수내동 24 양지마을 한양APT 528-1702	(031) 711-4455		
李寅華	435-04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 솔거APT 728-706	(031) 391-1943		
李鎬植	449-903	龍仁市 器興邑 구갈리 410-2 창원주택 202	(031) 281-7701		
李鎬汪	135-971	江南區 道谷洞 467-6 대림아크로빌 APT A-1501	572-1101		hanhwan @nas.go.kr
林滢彬	120-862	西大門區 弘恩3洞 397-7(B01)	372-0686		
鄭林植	412-805	京畿道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144-1	(031) 962-6473		
趙雄善	413-870	京畿道 파주시 법원읍 태능리 94	(031) 958-0319		
崔嘉鳳	412-717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973 샘터마을 동신APT 108-104	(031) 973-8924		
韓均弼	130-769	東大門區 典農3洞 10 SK APT 112-906	3394-4257		
韓 震	150-760	永登浦區 大林3洞 大林우성APT 2-101	833-3205		
韓台龍	459-120	平澤市 신장동 298-126	(031) 662-8839		

第 31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庚式	482-707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 122 주공APT 307-2103	(031) 857-4561		016 844-2437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明哲	136-829	城北區 장위2동 68-70	916-8712		
金聲鎬	150-054	永登浦區 新吉4洞 196-5	833-5489		
金英鎭	402-012	仁川市 南區 崇宜2洞 장미APT 나동 106호	(032) 882-9509		019 298-9509
金永煥	156-836	銅雀區 上道1洞 345	814-6151		
金濬浩	137-069	瑞草區 方背本洞 783-9 101號	3481-3039		011 9095-6417
金致敬	405-232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273번지 삼정빌딩	(032) 462-9662		
金 泰	132-074	江北區 水躑4洞 576(7/3)	993-8758		
盧敬鎭	411-746	高陽市 一山區 주엽1동 강선마을 1705-402			011 695-4694
都相默	427-050	果川市 부림동 住公APT 809-107	503-0927		019 384-0901
都址石	158-070	東大門區 장안1동 394-1	2245-1363		
朴道一	602-022	釜山市 사하구 장림2동 186-1 동원3차APT 101-713	(051) 264-2956		
朴炳哲	138-796	송파구 잠실6동 장미APT 13-302	413-9396		019 2929-9396
朴益忠	143-210	광진구 광장동 극동APT 6-610	3437-8072		010 2317-8073
朴祚烈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APT 8棟 56號	780-3534		016 441-3534
朴虎冕	461-360	城南市 수정구 사송동 501	(031) 723-7574		
辛應夏	614-021	釜山市 釜山鎭區 凡川1洞 858-19	(015) 646-9930		
柳俊馨	137-030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APT 207-808	536-6117		
李達全	706-780	大邱市 수성구 신매동 139-1 신화빌라트 104-1505	(053) 792-1915		
李東準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성APT B-908	782-1735		
李炳泰	449-566	龍仁市 구성읍 보정리 죽전 택지개발 지구 39블럭 포스토타운 210-1002	(031) 897-2367		011 767-1347
李柱成	440-301	水原市 長安區 정지1동 동연꽃마을 덕산APT 424-1902	(031) 268-7322		
李熙高	431-088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 한양APT 113-802	(031) 456-1021		
林 浩	613-764	釜山市 永堂區 남천2동 35 협진태양APT 1-802	(051) 611-8878		011 886-3108
全龜淵	449-910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대우APT 103-1603	(031) 284-5088	효자병원	(031) 288-0612
全夏鏞	121-210	麻浦區 서교동 482-4	334-0719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鄭漢祐	412-022	고양시 덕양구 성사2동 16-729 신원당삼보APT 801-810	(031) 968-0107		
曹源根	449-840	龍仁市 豐德川里 693 삼성APT 102-1301	(031) 307-7981		
朱源道	122-100	恩平區 구파발동 120-3	352-8112		
朱 一	137-070	瑞草區 瑞草洞 한양APT 2-1006	537-4322		
朱繪淳	411-820	고양시 마두2동 796 강촌마을 선경APT 713-201	(031) 903-4871		
千景煥	602-030	釜山市 西區 岩南洞 81-23 삼경빌라A-1021	(051) 255-0915		
韓熙邦	617-031	釜山市 東區 水晶1洞 1043-136	(051) 465-0678	제일빌딩	(051) 463-8245

第 32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顯珏	627-831	경남 밀양시 산내동 원서리 983-3	(055) 353-6559		
姜 俊	156-761	銅雀區 大方洞 501 大林APT 103-601	825-4301		
高昌岩	441-460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79 삼익APT 307-201	(031) 295-2866		
金桂碩	427-070	果川市 중앙동 주공APT 117-206	503-6143		
金炳鉉	137-773	瑞草區 瑞草洞 우성1次APT 2-1111	523-5242		
金錫定	427-804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APT 809棟 1508號	3679-1309		
金晟楨	430-030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우성APT 105-1502	(031) 66-3439		
金壽喆	217-02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1-1 설악타워맨손 103	(033) 632-6398		
金仁和	143-815	廣津區 廣場洞 530*59	454-7107		010 3909-7109
金兌洪	110-080	鐘路區 무악동 연립주택 68棟 201號	737-4430		
金熙康	411-32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79 탄현마을 한신APT 605-1401	(031) 916-2794		
朴東塾	611-753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한양APT 3-403	(051) 505-7302		
朴承宰	412-824	釜山市 海雲臺區 右1洞 1433 카메리아APT 29-1910	(051) 731-5982		(051) 747-3094
孫政達	463-060	城南市 盆唐區 이매동 110 이매촌 동신9단지APT 910-1103	(031) 702-6842		
徐康洛	139-863	노원구 중계2동 501-2 중계그린APT 102-1010	948-8596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徐星進	133-123	성동구 성수2가 3동 836 금강 SV APT 1002-1004	499-9330		
徐延守	607-838	釜山市 南區 용호4동 485-7	(051) 623-7211		
宋政雄	463-070	城南市 盆唐區 야탑동 535 답마을 대우APT 212-102	(031) 706-7168		
吳成基	461-340	城南市 오양동 247	(031) 717-0817		
俞東在	421-170	富川市 오성구 오정동 179 세종APT 205-409	(031) 673-0285		
柳榮潁	137-060	瑞草區 方背洞 908-9 유림B/D 4F	586-7070		
李庚厚	449-844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서흥마을 한화APT 304-501	(031) 306-0157		
李 均	110-460	종로구 연건동 296-5	766-4018		
李相龍	133-110	城東區 성수1가 685-201	465-6409	성수종합 상가대표	
李昇陽	425-170	안산시 성부동 한양APT 234-1507	(031) 405-1246		
李承杓	415-070	金浦市 風舞洞 759 유현마을 프라임빌APT 216-901	(031) 992-2585		
李令載	132-072	江北區 水躑2동 237-17	993-9963		
李長得	611-825	부산시 연제구 연산7동 1999-2	(051) 851-3439	만세의원	
李澈和	135-120	강남구 신사동 현대맨손APT 2-102	544-0827		
李熙烈	122-890	은평구 신사동 307-10	372-8300		
尹明鎭	430-070	안양시 동안구 평창동 13브릭 꿈마을 건영APT 304-501	(031) 21-0719		
鄭允廷	122-040	서대문구 불광동 미성APT 5-1110	387-7594		
鄭在銓	449-912	용인구 구성읍 마복리 526-3 LG APT 106-804	(031) 283-2721		
趙耀燮	135-280	江南區 大峙洞 은마APT 20棟 101號	556-0843		
鄭源石	463-060	城南市 분당구 이매동 아름다운 APT 515동 401호	(031) 707-6586		
鄭浩鏞	121-090	麻浦區 염리동 8-48	715-0020		
朱洙烈	613-764	부산시 수영구 남천2동 협진태양맨손 2-902	(051) 622-4012		
秦正洙	137-040	瑞草區 盤浦洞 신반포17차 333-804	537-0467		
崔慶明	110-350	鐘路區 운이동 98-78 가든B/D	765-2233	최치과	
崔炯英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주교2리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崔洪利	134-070	江東區 明逸洞 고덕 현대APT 15-702	478-0326		
韓明均	403-772	仁川市 부평구 산곡2동 뉴서울APT 104-305	(032) 522-6420		
韓錫彰	138-040	송파구 풍납동 쌍용APT 102-503	482-2018		
韓泰欽	449-840	용인시 수지읍 풍덕치리 700-1 현대APT 111-306	(031) 263-9302		
韓敏相	435-044	軍浦市 山本2洞 1063 백합APT 1121-504	(031) 394-2427		
金 陽	402-834	仁川市 남구 용현5동 629-24 건일주택 401호	(032) 882-0087		
千龍範	400-070	仁川市 中區 신생동 38-5 삼성APT 101-2301	(032) 891-8988		
李龍哲	464-910	하남시 감북동 413-61	484-3488		

第 33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東求	138-797	송파구 잠실7동 186 아세아선수촌APT 10-503	414-9789		
康海園	411-32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85 진로APT 101-1304	(031) 914-5504		
金亨培	200-140	강원도 춘천시 사능동 281-16	(033) 57-2844		
金相龜	140-201	용산구 이태원1동 청화APT 6-302	792-0406		011 9447-6347
金基元	136-041	城北區 三仙洞 1街 217현도하이츠빌라 401호	762-9698		
姜在錫	404-826	仁川市 西區 석남동 518-16 우리은행 4층 한마음의원	(032) 579-7533		016 391-5424
김순규	608-041	釜山市 南區 문현1동 41 한양APT 1-507			016 822-1187
金相球	449-913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694 연월마을 성원APT 113-802	(031) 285-4634		011 353-7192
金鳳澤	140-858	용산구 이태원1동 20-19	793-8620		
高守鎭	411-350	高陽市 一山區 마두동 715 쌍용APT 506-1305	(031) 932-6132		
吉明源	121-090	마포구 염리동 521 LG 마포자이APT 105-201	717-8742	스타무용 의상대표	011 9993-8740
宋榮達	136-102	성북구 정릉2동 203-1	919-5891		011 9123-5891
김형인	425-040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8 주공APT 402-107	(031) 480-4189		011 241-0110
徐潤煥	411-32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98 미주APT 5차 나동 410	(031) 921-0104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申光熙	431-714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396-1 현대APT 10-702	(031) 384-0440	신치과원장	010 4440-3803
申漢均	121-829	마포구 상수동 329-5	334-6321		
申鳳淵	139-221	노원구 중계1동 7블럭 우성APT 103-801	931-7401		016 382-7401
申東虎	137-907	서초구 잠원동 54 미주파스텔 705	599-4145		011 243-4142
孟秀哲	139-750	노원구 상계1동 수락현대APT 102-302	939-6427		
朱宣淳	151-828	관악구 봉천 9동 635-285	877-7915		
全集鍾	430-017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APT 708-308	(031) 476-0863		019 504-0863
劉昌根	415-755	김포시 풍무동 신동아APT 120-703	(031) 985-4360		
劉國培	134-071	강동구 명일1동 삼익가든APT 1-103	3426-6006	청심한 의원원장	2275-8786
李七煥	121-886	마포구 합정동 392-5	336-2394	대한컴퓨터 기술(주)회장	786-8881 011-223-2394
李大鍾	142-887	江北區 수유6동 535-8	993-8219	(주)해양 개발사장	2250-1150
李城南	142-887	강북구 수유6동 533-54	907-8725	동보정밀 사장	(032) 525-3516
李長弘	122-813	은평구 갈현2동 463-7 임창에버빌 B-501	358-1256		011 9753-3516
林錫賢	609-350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45-1 아카데미빌라 401호	(051) 508-2686		
廉昌錄	449-913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죽천 죽현마을 현대1차 아이파크 208-901	(031) 898-3724		011 9811-3724
尹炳陽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200-71	334-1769	예약종합 건축사무소	552-4079 011-217-1766
朴丙楨	463-05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9 효자촌 동아APT 202-1001	(031) 706-0792		
朴弘植	411-748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문촌9단지 주공APT 903-1308	(031) 815-5357		011 286-9218
朴溶郁	411-717	고양시 마두동 강촌마을 선경APT 701-702	(031) 903-2782		
朴泳址	415-755	金浦市 鳳舞洞 759 유현마을 프라임빌 217-1501	(031) 998-1257		010 4724-8214
崔熙仿	130-050	東大門區 회기동 7-3	966-0801	코리아 실리콘사장	(031) 563-3823
韓永喆	608-832	부산시 남구 용희동 176-8 LG 메트로시티 205-702	(051) 627-2966	한국호진 공업회장	(051) 301-4531
韓洙觀	130-050	동대문구 회기동 16-19	965-7813		
韓澈柱	445-705	화성시 남양동 415 우림APT 112-605	(031) 355-7753		018 201-7725
韓承學	150-093	永登浦區 문래동 3가 국화APT 2-1103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韓龍大	130-070	동대문구 휘경동 183-103	965-6702	요송건축대표	718-0755
韓旭燮	600-090	부산시 중구 대청동 66-32	(051) 462-6585		
韓賢根	681-230	울산시 중구 북정동 67			
劉東洙	140-751	龍山區 西水庫洞 241 新東亞APT 16-303	794-2626	양지 치과의원	515-7522
魏成國	700-444	大邱市 中區 남산4동 2466-1 보성황실APT 108-502	(053) 254-2310		

海外同窓會會員名簿

미국

第 6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李鍾圭	JOHNG-KYU LEE	818.360-8610	13318 Mission Tierra Way, Granada Hills, CA 91344

第 8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仁燮	IN SUP KIM		2312 W. 8th St, Grand Park, L.A., CA 90057

第 16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星奎	S.K.KIM		6547 E.Marengo Dr., Anaheim, CA 92807

第 19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永濟	YOUNG CHE KIM	732-356-8078	25 Deerwood Trail, Warren NJ 07059

第 20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泳鍾	YOUNG CHONG KIM	213.625-1009	200 S. Olive St. #202, Los Angeles, CA 90012

第 21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時彥	SI UN KIM	808.941-6567	1919 Citron St. #510, Honolulu, HI 96826
安省信	SUNG SHIN AHN	218.983-1987	160 Heberton Ave., #3K, Staten I니몽, NY 10302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朱翰裕	HAN YU JOO	407.889-2373	Garden Retirement Apt., 209E Myrtle St., Apopka FL 32703

第 2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黃石峯	SUK BONG HWANG	213.413-0228	2000 Miramar St., #507, Los Angeles, Ca 90057
文相駿	SANG JOON MOON	562.926-0216	Pinegrove Ln., Cermos, CA 90703-2000
李基億	KIUCK LEE	312.787-7060	860 N. Dewitt Pl Apt 1808 Chicago, IL 60611-5777
徐甲承	KAPSYUNG SEO	773.275-9097	4500 N. Clarendon Ave, #905, Chicago, IL 60640

第 23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金曾鎬	JOONG HO KIM	703.266-9710	6418 Melstone Ct., Clifton, VA 20124-2437
宋基澈	KEECHUL SONG	415.931-8241	3350 Taraval St., San Francisco, CA 94116
玄鳳學	BONGHAK HYUN	732.669-9478	25 Bennington Dr., Edison NJ 08820

第 24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李雲澤	WOON TAIK LEE	213.739-8791	944 Gratten St., #707 LA., CA 90015

第 25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徐甲成	KAP SUNG 슃	808.839-6417	3215 Ala Ilma, #A-812, Honolulu, HI 96818-2905
吳正喜	JUNG H. OH	770.621-0348	2438 Kings Ct. NE, Atlanta, GA 30345-2120
劉秉千	BEONG CHEON YU	313.681-0005	2650 Pineview, W. Bloomfield, MI 48324-1972
趙程崙	JUNG RYUN CHO	410.435-0365	6401 Loch Raven Blvd #318, Baltimore, MD 21239

第 26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權嶺城	JIN SUNG KWON	309.685-3219	3008-N University Ave., Peoria, IL 61604
金澤濟	TAIK CHAE KIM	703.743-5833	13773 Charismatic Way Gainesville, VA 20155-3119
朴在彬	CHAE B. PARK	808.395-2270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孫陽鳳	YANG BONG SON	319.372-1163	16 Ridgewood Rd., Fort Madison, IA 52627-4701
安景烈	KYONG YOL AHN	818.545-7037	2129 Hollister Terrace, Glendale, CA 91206
吳炳憲	BYUNG HUN OH	732.607-2320	19 Spencer St., Lexington, MA 02420
李柱衡	CHOO HYUNG LEE	704.437-0493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李浩敏	HO MIN LEE	949.559-0774	33 Choate St., Irvine, CA 92620-3320

第 27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盧興德	HUNG TOK NO	405.787-8878	6700 N 57th St., Bethany, OK 73008
朴昭會	SOW HEY PARK	203.928-4447	196 Liberty Hwy #2 Putnam, CT 06260

第 28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金燮楨	SOP CHONG KIM	206.363-3063	11024 14th Ave. NE, Seattle, WA 98125
李英得	YOUNG DUK LEE	614.880-0433	180 Cameron Ridge Dr. Columbus, OH 43235
李澈男	CHUL NAM LEE	770.603-1818	2016 Pine Forest Ct., Jonesboro, GA 30236
李夏國	HA KOOK LEE	714.776-9646	11938 Brook Haven Garden Grove, CA 92840

第 29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 住 所
金淳郁	SUN WUK KIM	714.840-3563	4221 Hamboldt Dr., Huntington Beach, CA 92469-2168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雄植	UNG SIK KIM	614.889-8873	301 Tree Haven Ave. Powell, OH 43065-8513
金在楨	ZAE ZEONG KIM	414.632-5161	461 W. Sunnyview Dr., #13, Oak Creek, WI 53154
金和極	ABRAHAM KIM	715.461-8372	157-35 26th Ave., Flushing, NY 11354
朴浩高	HOSURL PARK	410.602-7733	1846 Autumn Frost Ln., Baltimore MD 21209-1130
李權燮	KWON SUP LEE	718.352-7060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李培石	BAE SUK LEE	513.769-3627	3151 Brinton Trail, Cinciratti, OH 45241-4812
李仁錫	IN SOK LEE	540.289-5769	226 Gatewood Ct., McGaheysville, VA 22840
李通煥	TONG HOON LEE	704.543-4476	6800 Bevington Brook Ln., Charlotte, NC 28277
張聖洛	SONG NAK CHANG	440.835-4219	319 Dover Center Rd., Bay Village, OH 44140-2257
陳炳珍	BYUNG JIN CHIN	562.924-7063	343 W. Ameridge Ave. #331, Fullerton, CA 92832
韓極	KUK HAN	510.490-6773	41299 Paseo Pkwy #205 Fremont, CA 94539
韓在壽	CHAE SOO HAN	323.644-8977	310N. Heliotrope Dr. #201 LA., CA 90004-3366

第 30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姜禮根	RAE KEUN KANG	718.761-8671	120 Wellington Ct., #3F Staten Island, NY 10314
高勝榮	SEUNG YUNG KO	201.224-3608	200 Winston Dr. #319 Cliffside Park, NJ 07010
金庚台	KYOUNG TAI KIM	215.641-4654	1251 Rossett Ct. Ambler, PA 19002-2542
金龍澈	YONG CHOL KIM	831.422-0939	14 Stratford Pl. Monterey CA 93940
申森熙	SAMUEL H. SHINN	518.782-7046	5 Shamrock Lane, Latham, NY 12110-3739
梁昶模	CHANG MO YANG	773.509-1799	3940 W. Bryn Mawr Ave. #409 Chicago, IL 60659
李性伯	SUNG BAEK LEE	703.451-2543	9608 Old Keene Mill Rd. #224 Burke, VA 22015-3048
曹秉均	BYOUNG G. CHOH	216.524-9635	6967 Carol Drive, Independence, OH 44131-5309
趙哲	CHUL CHO	773.588-1177	6010 N. Lawndale Ave., Chicago, IL 60659
韓萬燮	MANSOP HAHN	408.725-0176	20488 Stevens Creek Blvd., #1616, Cupertino, CA 95014

第 31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權鎮均	JENE K. KWON	949.733-0933	12 Wyoming, Irvine, CA 92606
金亨述	HYUNG SOOL KIM	225.275-2086	13202 Berwick Ave., Baton Rouge, LA 70815
朴炳元	BENJAMIN PARK	805.778-0115	354 Avenida de Royalle, Thousand Oaks CA 91362
徐甲敬	KAP KYUNG SEO	808.373-9485	170 Wailupe Circle, Honolulu, HI 95821
徐泳換	YUNG HWAN SEO	713.466-1385	8134 Ivan Reid Dr., Houston, TX 77040
楊炯春	HYUNG C. YANG	614.891-2200	683 Westray Drive, Westerville, OH 43081
李英鎬	YOUNG HO RHIE	413.596-4691	83 N. Mountain Rd., Wilbraham, MA 01095
李元鏞	WON YONG LEE	914.693-0004	29 Sheldon St., Ardsley, NY 10502
李培善	BAE SON LEE	909.861-0026	22820 E. Hilton Head Dr. #76, Diamond Bar, CA 91765
李致和	CHIE HWA LEE	714.670-7258	4554 Trevino Way Buena Park, CA 90621
李哲敏	CHUL MIN LEE	503.246-2560	6044 SW Knightsbridge Drive, Portland, OR 97219
李哲範	CHUL BUM LEE	310.836-8373	1769 S. Holt Ave., Los Angeles, CA 90035
崔千德	DAVID C. CHOE	310.515-6112	3448 W. 171st Street, Torrance, CA 90504-2437
黃載鏞	JAGENE HWANG	914.472-2753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第 3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武燦	MARTIN M. KIM	213.269-1419	3600 Stockeer St., Los Angeles, CA 90008
金泳昭	YOUNG SO KIM	253.927-1552	4714 Fairwood Blvd., NE, #401, Tacoma, WA 98422
金哲雨	CHUL WOO KIM	201.944-0465	505 North Ave., # 15T, Fort Lee, NJ 07024-2308
裴英得	MARK Y. BAE	213.657-0745	8535 W. Knoll Dr., #101, Los Angeles, CA 90048
李東輝	DONG HWEE LEE	734.722-5636	3712 Williams St., #204 Wayne, MI 48184
韓東相	DONALD HAN	702.263-6072	2734 Chokechry Ave., Henderson, NV 89014-1984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車철영	CHARLES CHA	813.920-8801	17425 Equestrium Trail, Odessa FL 33556

第 33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宋錫根	SUCK KEUN SONG	301.216-0681	9 Earth Star Place, Gaithersburg, MD 20878-2778
李炳爽	BYUNG SUK LEE	301.365-0108	(舊名炳錄)10113 Snowhill Lane, Potomac, MD 20854
崔昌松	CHANGSONG CHOI	20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T 06032
權炳池	BYUNG JI KWON	714.963-3376	10786 Los Jardines, E. Fountain Valley, CA 92708
金澤秀	TAEK SOO KIM	917.355-6297	212-07 75th Ave., #3M, Bayside, NY 11364

日本

第 22 回

姓名	日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徐昌仁	泉山昌仁	262-6826	仙台市 青葉區 中江町 1丁目 20-3

카나다

第 30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金元謙	WON KYUM KIM	204.269-1952	23 Michigan Ave., Winnipeg Manitoba, Canada, R3 T3 V1
崔哲根	CHOL KEUN CHOI	416.226-0488	251 Otonabee Ave., Toronto, Ont, Canada M2 M2S9

第 3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尹慶億		416.743-3634	128 Carberry Circle, Raxdale, Ont., M945AL, Canada

브라질

第 30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李炳榮		065-627-2568	Q15C3 Jardin Petropolis, Cuiaba, Mato Grosso, Brazil

호주

第 32 回

姓名	英文綴字	電話番號	現住所
韓碩愚			60 Hunter Ave., Ives., Sydney 2075, NSW Australia

1. 在美州同窓會 任員 및 期幹事

- 會 長 金淳郁(29回)
- 副會長 朴浩高(29回)
- ” 權鎭均(31回)
- 總 務 韓萬燮(30回)
- 幹 事 趙程崙(25回)
- 李浩敏(26回)
- 李澈男(28回)
- 金雄植(29回)
- 申森熙(30回)
- 朴炳元(31回)
- 韓東相(32回)
- 宋錫根(33回)

會誌編輯室

郵便番號：100-230

서울 中區 水標洞 47-6(天壽빌딩 1008號)

鄭哲周稅務士 事務所

本會副會長

電話番號：2274-0928, 2266-8305, 2273-6937

F A X：2266-8306

作故者 名單

第 1 回

朴植淵 朴定杰 李東準

第 2 回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溥 朴海龍 韓泰然

第 3 回(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李種英

第 4 回(舊制)

朱幹欽 金載鼎 尹範模

第 5 回(舊制)

韓昌源 朴重剛 金桂淑 吳正根 李廷浩

第 6 回(舊制)

韓參淵 金植龜

第 6 回(新制)

崔榮根 姜洙楠 李鳳寅 朱 源 金聲遠

第 7 回(舊制)

韓桔谷 咸興基 李在鵬 崔炳島 朴興陽 趙啓聖

第 7 回(新制)

韓道淑 韓鎮億 林壁榮 蔡洙崗 金世偉 姜錫福

第 8 回(以下 新制)

金昌洙 金濬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舊 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鍾九 朱德淳 柳載昊 金龍背
池鏞夏 馬鍾國 金鍾偉 李經濟 趙永星 金仁燮
金龍涉 池鏞夏 朴在極 朱洛瑋

第 9 回

金基漸	金信遠	李鎬亨	朱洛瓊	朴台三	高承普
金相涉	金載元	朱翼淳	金述奎	咸泰元	

第 10 回

金應錫	金義昌	金昌善	宋相益	朴義鉉	吳昌淑
南相協	金正中	劉正學	李東沂	朴俊基	俞鎮河
尹鍾杰	咸錫坎	蔡熙甲	金淳業		

第 11 回

金永鎮	金明鎮	金致源	南鳳淳	盧忠吉	朴文擦
朴用善	方亨練	宋義鏞	李炳逸	李東洙	梨應麟
尹明海	鄭致鎔	趙容昊	韓明功	韓湖石	朴忠鎮
朴源誠	張鉉稜	姜澤璜	金基燮	金弘鎮	金炯澤
金永商	黃起然	金塾堂	都遠涉		

第 12 回

金鐫千	朱之鎬	朱元鎬	崔弼憲	李升圭	文希樂
-----	-----	-----	-----	-----	-----

第 13 回

姜龍彬	金教寅	文天洙	安壽吉	李潤生	張仁奉
朱 葉	韓吉鎬	金竣宋	李炳六	韓鐘詔	金鼎鉉
李大林	黃東駿	蔡永福	李永植		

第 14 回

廉禮寬	俞孝植	李秉植	黃德駿	安鎔彪	
-----	-----	-----	-----	-----	--

第 15 回

金道俊	李永昊	李求翰	李弘均	李祖甲	李成洙
李容成	李永秘	金信德	趙來春	韓麟植	李寬英
李日赫	高聖均	金熙春	盧瑞玉	咸潤根	金永燮
金子勤	金滄次	金基惠			

第 16 回

蔡承國	申明燮	韓秉子	太學基	朱洙元	朱鍾式
金連珪	金聖河	李東秀	崔昌集	韓弘林	姜穩求

金弘集 金斗漸

第 17 回

林重治(舊重玉) 李祥生 盧鍾閑 金智赫
金禹涉 韓昌淑 金漢范

第 18 回

玉文鉉 朴範集 柳炳達 韓祥鳳 沈澤星 李寬燁
李泰榮 金義鉉 徐永昱 朴謙會 朱東雲 崔英植
韓宗鎬

第 19 回

金炳七 金生賓 金松瑩 金秀行 金益浩 金鍾浩
金楨軫 金漢奎 金亨泰 金豪南 朴鸚榮 申泰實
李明煥 李秉泌 李致德 張衡武 全榮林 韓秀會
朴燦國 朱基鍾 朴旻會 文錫根 金河駿 李在亨
韓策 都相禧 朴炳顯 韓景鏡

第 20 回

文哲 邊普燁 申東俊 李昌協 全世經 金亨穆
鄭宗殷 權泰弘 白萬吉 崔仁根 朱忠墳 崔淳祚
大廈基 韓楡 黃載駿 金明植 戚哲 金世龍
林炳書 曹圭福 朴菅篔 徐光洙 洪滄杓 崔玉德

第 21 回

韓台集 李東機 林根燁 李基鍾 朴東振 金昇奎
柳培殷 金鏡煥 崔昌奎 韓近淑 朱仁鎬 劉喆
元勳基 尹君昌 李林學

第 22 回

金亨信 金載璫 李權洙 朴聖煥 申衡均 申鉉和
全銘鶴 朱榴鎮 朱鍾喆 韓秉濼 韓讚植 張榮國
崔俊楨 金旻奎 金東成 孔守範 韓湧 韓鎮洙
高明相 韓淳海 劉鎰 朴演喜 崔昌奎 李舜益
張秉珉 陳忠國 崔龍煥 朱乾 李教憲 洪德熙
申泰燦 洪昌杓

第 23 回

金教吉	金基壁	金南鶴	金東炫	金桑根	金泳杰
金佐謙	徐載卿	尹士榮	李仁勳	李廷輯	崔相國
崔義憲	崔熙澤	韓鎬權	李光薰	韓東湖	崔敏煥
池昌龍	韓 信	朴昌浩	朴昌均	崔宗仁	趙有衡
崔宗仁	申泰薰	李根孝	金斗墾	林陽均	李世得
李漢淳	鄭良殷				

第 24 回

金鍾鳳	盧永達	朴文卿	李基赫	金鉉五	趙在龍
崔溶憲	韓錫武	韓永根	洪鉉基	玄斗映	金泰錫
韓錫範	李漢國	金聲燾	魏在珪	南哲祐	黃炳暎
金應浩	李萬鎬	金性均	金廷圭	韓承銀	

第 25 回

文 虎	朴承咸	秦秉洛	朱恒斗	洪相瑜	趙 曄
金世翊	朴鼎惠	金仁鶴	金昊麗	劉長得	盧庚昞
李圭元	趙載尚	金炳乙			

第 26 回

申南均	李學守	金熙燦	玄斗鎰	禹 一	韓炳喆
梁泰鱣	金秉萬	魯永吉	崔華聖		

第 27 回

韓鐸聲	千宗玉	玄鳳燕	韓栽永	曹圭榮	丁基范
韓明洙	李炳國	張元龍	邊 焄	李 璜	

第 28 回

金教一	金泳八	金鎔九	林珍珠	邊道燁	宋守根
劉大植	李密森	邊永根	金在乾	金 鐸	宋永冕
盧恂圭	金庚彥	金景俊	朴載陽	朴承棒	尹治玉
金東鳳	朴吉淵	朴在勳	吳聖昱	劉衡均	尹允燮
李樂斌	李命英	洪鉉杰	金鍾殷	金連熙	元炳日
金鳳湜	趙東喆	李載淵			

第 29 回

金秉熙	金潤鎬	金鎮鎬	文杓周	辛基壽	安永吉
楊仁道	李東哲	韓祥喆	李楨得	張炳九	韓祥珏
玄斗正	徐尙郁	陳伯林	都重浩	李正昊	安 震
金弘杓	朴在炯	兪 魯 忸	金鳳舜	柳憲一	鮮于碩河
洪 逸	千歲林	趙 鎰	南萬松	李芳秀	鄭炳殷
朱 格	鄭治島	韓春熙	全龍洙	朴在容	李鎬允
韓世鎬	劉澤鍾	韓鴻吉	李求輪	鄭景鍾	宋徵林
金熙國	崔錫勳				

第 30 回

高昊式	金泳夏	金英根	金寬植	朴壽淵	朴 哲
李始鐘	張時珍	鄭 堉	趙弘汀	陳國永	韓增鎬
盧甲炳	崔昌杰	金聖治	金基南	崔斗吉	金永善
張亨龍	李昌植	李 河	金炳建	金秉浩	羅雲龍
李圭煥	朱泰河	崔聖珉	韓相洪	朴永鎬	李仁根

第 31 回

高義哲	李弘根	林鳳來	弼珠光	韓泳運	金玉金
韓秉極	李城洙	金弘潤	盧 善	徐三澤	安培植
梁泰龜	劉濬成	嚴鎔洙	李相稷	李星九	李容均
朱鍾和	崔德俊	崔燦在	魚演昌	權由周	金周鉉
李鳳植	李柱七	白庚鍾	金聖斗	梁柱龍	高明鎬
韓東柱	柳榮龜	金載昆	金字泳	朴永洙	金教誠
裴聖喆	李璣勳	全承浩			

第 32 回

金聖南	金載坤	池一權	金致浩	崔心煥	元俊熙
朴河基	金東一	金仁涉	禹宗均	田春三	趙鍾南
崔夏植	崔熙仁	韓龍彬	韓亮淑	申泰均	

第 33 回

吉明河	李連鍾	崔琳活	任綺彬	朴淳三	金福燮
尹在敬	林茂連	廉義龜	李元鍾	韓元松	金賢修
朴寅赫					

編輯後記

‘盤龍동산’을 꾸미고 나서

盤龍아! 말해다오!

‘너의 가슴에 내가 살아 있다’고…

네가 昇天의 꿈을 품은 채 그 앞자락에 고이 품어 키운 白面書生 威高 · 南中 健兒들이 蠶雪의 깃발 아래 壯히 자라 네 품을 떠나 荊棘의 荒野를 헤매기 半百年, 그래도 밤하늘에 별빛되어 이리히 오늘을 살고 있다.

막내 나이 벌써 喜壽에 가까우니 時限附生命인 彼此의 未來 말하여 무엇하라.

그래도 올해엔 너(盤龍8號)를 가꾸기 위해 國內外 많은 벗들이 香氣로운 꽃 한 포기 소담스런 나무 한 구루, 그리고 정성어린 기름진 흙과 물을 아낌없이 보내 주고 베풀어 준 고마움에 머리 숙이자.

특히 所重한 寫眞과 其他 資料를 提供해 준 同門을 비롯한 여러분과 이번號부터 너의 새 옷과 새 얼굴을 단장해 준 張成旬(28回) 畫伯과 金淳郁(29回) 名筆과 아울러 其間 우리의 心과 眼에 아리따운 映像을 남겨 준 金興洙(20回), 金 泰(31回) 畫伯과 朴泳馥(24回) 同門에게도 感謝드리자.

그리고 동산마치(園藝師)의 勞苦를 빼놓을 수 없구나.

李三悅會長 陣頭指揮 아래 온갖 곳은 일 마다않고 꾸려 나간 犧牲과 奉仕의 化身 鄭哲周 副會長을 비롯한 동산마치 朱赫淳 副會長, 朴溶夏 監事, 金明哲 總務, 李大鍾 副總務들과 出版을 맡아준 二和精密印刷株式會社 任職員의 勞苦에도 깊이 感謝드리자.

盤龍동산을 가꾸고 빛내주신 여러분께 거듭 感謝드린다.

동산을 꾸미는 過程에서 地形 樹形 等 여러 事情으로 不得已한 多少의

剪枝가 있었더라도 諒解하시고 우리 모두 한 마리 나비되어 이 동산에
날아 들어 그윽한 꽃香氣와 싱그러운 숲의 소리와 그리고 함경도 사나이
의 시큼털털한 體臭에 한껏 醉해 봄세나….

2005年 佳春에 尸位素餐을 自愧하며 동산바치를 代表하여

韓承五 白



編輯委員 一同

同窓會 連絡處

會 長 02-3147-2797

李 三 悅

副會長 02-2266-8305

鄭 哲 周

總 務 02-916-8712

金 明 哲

盤 龍

2005년 5월 20일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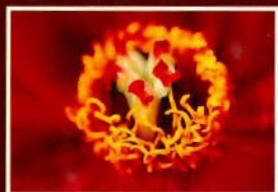
2005년 5월 27일 발행

발행처 함흥고보(함남중학)
총동창회

조 판 현대미디어

편집및인쇄 이화정밀인쇄(주)
(등록 1989. 2. 14)

비매품(회원용)



위 꽃사진들은 사진작가 故 趙載高동창(25回)이 남긴 작품들이다